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통한 출산가치관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 : 유신애 원장(한국미래산업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 신재한 교수(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최성열 교수(경북과학대학교)
신연희 교수(가야대학교)
보조연구원 : 박소영 연구원(보담브레인연구소)
선경희 연구원(한국미래산업정책연구원)

2021. 9. 24.



경 상 북 도
(인구정책과)

목 차

[연구 요약]	1
I. 서 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 내용 및 방법	27
3. 연구 추진 일정	31
II. 이론적 배경	35
1. 행복플로리시와 긍정 심리	35
가. 긍정 심리와 웰빙이론	35
나. 행복플로리시	38
2. 출산율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45
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45
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47
3. 행복과 출산율 및 출산의지와 관계	49
가. 행복과 출산율의 관계	49
나. 행복과 출산의지의 관계	50
III. 연구 결과	53
1. 전체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분석	53
가. 설문 응답자 분석	53
나.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분석	54
2. 시군별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분석	55
가. 시군별 삶의 만족도 분석	55
나. 시군별 결혼 만족도 분석	57
다. 시군별 행복플로리시 분석	58
라. 시군별 출산 의지 분석	59
마. 시군별 출산 정책 만족도 분석	60

바. 시군별 추가 출산 의향 분석	61
사. 시군별 주거 환경 만족도 분석	62
3. 상관관계 분석	63
4.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분석	64
가.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64
나.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결혼 만족도 차이 분석	67
다.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분석	71
5.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분석	90
가.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분석	90
나. 도민이 인식하는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93
6.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차이 분석	100
가.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분석	100
나.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106
다.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113
라.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116
마.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119
7.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 차이 분석	122
가.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분석	122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차이 분석	122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차이 분석	124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차이 분석	126
나.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128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수 차이 분석	128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수 차이 분석	131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수 차이 분석	133
다.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135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135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137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138
라.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139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139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140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142
마.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143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143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144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145
8.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출산의향 및 의지에 미치는 영향	147
가.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147
나.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149
 IV. 경북 도민의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153
1.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을 분석 및 제고 방안	153
가. 도민의 개인 배경 변인에 따른 출산을 분석 및 제고 방안	153
나. 도민의 가정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을 분석 및 제고 방안	154
다.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을 분석 및 제고 방안	155
2. 도민의 행복 지수에 따른 출산을 분석 및 제고 방안	157
가.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을 분석 및 제고 방안	157
나. 도민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출산을 분석 및 제고 방안	158
다. 도민의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출산을 분석 및 제고 방안	159
3. 도민의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제안	160
가. 도민의 출산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	160
나.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164
4. 도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문 자료 수집을 통한 종단 연구 제안	167
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통계자료 수집의 정례화 필요	167
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종단 연구 필요	167
 V. 결론 및 제언	171
1. 결론	171
2. 제언	171
[참고문헌]	172
[부록]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통한 출산가치관 제고방안 연구 설문지	177

표 목 차

<표 I-1> 연구 내용 및 방법	29
<표 I-2> 설문 조사 도구	30
<표 I-3> 연구 추진 일정 및 단계	31
<표 II-1> 긍정심리학의 세 가지 기둥	36
<표 II-2> 긍정심리학의 진화	38
<표 II-3> 학자들의 행복 플로리시 요소	39
<표 II-4> 몰입의 요소	41
<표 III-1> 경상북도 시군지역 설문 응답 인원 및 백분율	53
<표 III-2> 경북도민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전체 분석 결과	55
<표 III-3> 경상북도 시군별 삶의 만족도 분석	56
<표 III-4> 경상북도 시군별 결혼 만족도 분석	57
<표 III-5> 경상북도 시군별 행복플로리시 분석	58
<표 III-6> 경상북도 시군별 출산 의지 분석	59
<표 III-7> 경상북도 시군별 출산 정책 만족도 분석	60
<표 III-8> 경상북도 시군별 추가 출산 의향 분석	61
<표 III-9> 경상북도 시군별 주거 환경 만족도 분석	62
<표 III-10> 상관 관계 분석 결과	63
<표 III-1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64
<표 III-1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65
<표 III-1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66
<표 III-14>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검증	68
<표 III-15>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검증	69
<표 III-16>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검증	70
<표 III-17>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검증	71
<표 III-18>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검증	72
<표 III-19>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검증	73
<표 III-20>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검증	75
<표 III-21>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검증	76
<표 III-22>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검증	77
<표 III-23>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검증	78
<표 III-24>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검증	79
<표 III-25>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검증	80
<표 III-26>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검증	81
<표 III-27>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검증	82
<표 III-28>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검증	83
<표 III-29>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검증	84

<표 III-30>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검증	85
<표 III-31>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검증	86
<표 III-32>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검증	87
<표 III-33>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검증	88
<표 III-34>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검증	89
<표 III-35>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검증	90
<표 III-36>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검증	91
<표 III-37>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검증	92
<표 III-38> 도민이 인식하는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개인 변인	93
<표 III-39> 도민이 인식하는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환경 변인	96
<표 III-40> 도민이 인식하는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거주지역 변인	97
<표 III-4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100
<표 III-4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103
<표 III-4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104
<표 III-44>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106
<표 III-45>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109
<표 III-46>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111
<표 III-47>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113
<표 III-48>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114
<표 III-49>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115
<표 III-50>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116
<표 III-51>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117
<표 III-52>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118
<표 III-53>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119
<표 III-54>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120
<표 III-55>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121
<표 III-56>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122
<표 III-57>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124
<표 III-58>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126
<표 III-59>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129
<표 III-60>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131
<표 III-61>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134
<표 III-62>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136
<표 III-63>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137
<표 III-64> 도민의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138
<표 III-65>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140
<표 III-66>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141
<표 III-67>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142
<표 III-68>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143

〈표 III-69〉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145
〈표 III-70〉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146
〈표 III-71〉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	148
〈표 III-72〉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150
〈표 IV-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154
〈표 IV-2〉 도민의 가정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155
〈표 IV-3〉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155
〈표 IV-4〉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157
〈표 IV-5〉 도민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158
〈표 IV-6〉 도민의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159
〈표 IV-7〉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개인 변인에 따른 맞춤형 정책	160
〈표 IV-8〉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정 환경 변인에 따른 맞춤형 정책	161
〈표 IV-9〉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도시규모에 따른 맞춤형 정책	162
〈표 IV-10〉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군별에 따른 맞춤형 정책	162
〈표 IV-11〉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	165
〈표 IV-12〉 행복한 도민 만들기 프로그램(예시)	165
〈표 IV-13〉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예시)	167

그림 목차

[그림 II-1] 웰빙 이론의 구조	37
[그림 II-2] 몰입의 역학	41
[그림 II-3] 과제 수준과 능력과의 관계	42
[그림 II-4] 몰입과 행복과의 관계	43
[그림 III-1] 경상북도 시군지역 설문 응답 비교	54
[그림 III-2] 경북도민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전체 비교	55
[그림 III-3] 경북도민의 시군별 삶의 만족도 비교	56
[그림 III-4] 경북도민의 시군별 결혼 만족도 비교	57
[그림 III-5] 경북도민의 시군별 행복플로리시 비교	58
[그림 III-6] 경북도민의 시군별 출산 의지 비교	59
[그림 III-7] 경북도민의 시군별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60
[그림 III-8] 경북도민의 시군별 추가 출산 의향 비교	61
[그림 III-9] 경북도민의 시군별 주거 환경 만족도 비교	62
[그림 III-10]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비교	65
[그림 III-11]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비교	66
[그림 III-12]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비교	67
[그림 III-13]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68
[그림 III-14]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69
[그림 III-15]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70
[그림 III-16]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비교	72
[그림 III-17]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비교	73
[그림 III-18]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비교	74
[그림 III-19]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비교	75
[그림 III-20]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비교	76
[그림 III-21]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비교	77
[그림 III-22]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몰입 비교	78
[그림 III-23]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몰입 비교	79
[그림 III-24]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몰입 비교	80
[그림 III-25]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관계 비교	81
[그림 III-26]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관계 비교	82
[그림 III-27]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관계 비교	83
[그림 III-28]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의미 비교	84
[그림 III-29]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의미 비교	85
[그림 III-30]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의미 비교	86
[그림 III-31]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성취 비교	87
[그림 III-32]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성취 비교	88

[그림 Ⅲ-33]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성취 비교	89
[그림 Ⅲ-34]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비교	90
[그림 Ⅲ-35]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비교	91
[그림 Ⅲ-36]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비교	92
[그림 Ⅲ-37] 도민의 성별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94
[그림 Ⅲ-38] 도민의 연령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94
[그림 Ⅲ-39] 도민의 결혼경력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94
[그림 Ⅲ-40] 도민의 최종 학력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95
[그림 Ⅲ-41] 도민의 직업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95
[그림 Ⅲ-42] 도민의 가정형태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96
[그림 Ⅲ-43] 도민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96
[그림 Ⅲ-44] 도민의 월 평균소득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97
[그림 Ⅲ-45] 도민의 도시 규모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98
[그림 Ⅲ-46] 도민의 시군 지역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1)	99
[그림 Ⅲ-47] 도민의 시군 지역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2)	99
[그림 Ⅲ-48] 도민의 성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101
[그림 Ⅲ-49] 도민의 연령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101
[그림 Ⅲ-50] 도민의 결혼 경력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101
[그림 Ⅲ-51] 도민의 최종 학력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102
[그림 Ⅲ-52] 도민의 직업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102
[그림 Ⅲ-53] 도민의 가정 형태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103
[그림 Ⅲ-54] 도민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103
[그림 Ⅲ-55] 도민의 월 평균소득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104
[그림 Ⅲ-56] 도민의 도시 규모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105
[그림 Ⅲ-57] 도민의 시군지역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106
[그림 Ⅲ-58] 도민의 성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07
[그림 Ⅲ-59] 도민의 연령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08
[그림 Ⅲ-60] 도민의 결혼 경력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08
[그림 Ⅲ-61] 도민의 최종 학력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08
[그림 Ⅲ-62] 도민의 직업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09
[그림 Ⅲ-63] 도민의 가정 형태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10
[그림 Ⅲ-64] 도민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10
[그림 Ⅲ-65] 도민의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10
[그림 Ⅲ-66] 도민의 도시 규모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12
[그림 Ⅲ-67] 도민의 시군지역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12
[그림 Ⅲ-68]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113
[그림 Ⅲ-69]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114
[그림 Ⅲ-70]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115
[그림 Ⅲ-7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116

[그림 Ⅲ-7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117
[그림 Ⅲ-7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118
[그림 Ⅲ-74]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119
[그림 Ⅲ-75]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120
[그림 Ⅲ-76] 도민의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121
[그림 Ⅲ-77] 도민의 가정형태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	123
[그림 Ⅲ-78]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123
[그림 Ⅲ-79] 도민의 도시규모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	124
[그림 Ⅲ-80] 도민의 가정형태별 결혼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125
[그림 Ⅲ-81]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결혼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	125
[그림 Ⅲ-82] 도민의 도시규모별 결혼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126
[그림 Ⅲ-83] 도민의 가정형태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127
[그림 Ⅲ-84]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	128
[그림 Ⅲ-85] 도민의 도시규모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	128
[그림 Ⅲ-86] 도민의 가정형태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30
[그림 Ⅲ-87]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	130
[그림 Ⅲ-88] 도민의 도시규모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30
[그림 Ⅲ-89] 도민의 가정형태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32
[그림 Ⅲ-90]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	132
[그림 Ⅲ-91] 도민의 도시규모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33
[그림 Ⅲ-92] 도민의 가정형태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34
[그림 Ⅲ-93]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	135
[그림 Ⅲ-94] 도민의 도시규모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135
[그림 Ⅲ-95]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136
[그림 Ⅲ-96]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137
[그림 Ⅲ-97]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139
[그림 Ⅲ-98]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140
[그림 Ⅲ-99]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141
[그림 Ⅲ-100]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143
[그림 Ⅲ-10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144
[그림 Ⅲ-10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145
[그림 Ⅲ-10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146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상북도 총인구는 '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30년 259만명, '45년 242만명에 이를 전망
-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35년 이상 저출생 현상 지속
 - 경북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0명대로 추락(전국 0.82, '21.2분기, 통계청 '21.8월)
 - * 출생아수는 '81년 7만명, '00년 3만 5천명, '20년 1만 3천명대로 급락
- 저출생 현상 지속 시 미래 사회적·경제적 위험 직면
- 저출산율과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등 행복과의 관계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 개발 필요
- 도민의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행복지수 향상을 통한 출산 가치관 제고 방안 마련
-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행복지수 실태 파악을 통한 지역별, 가정 유형별 맞춤형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 탐색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 분류
 -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과의 출산율의 관계
 - 주거환경, 가정환경 등 환경적 측면과 출산율의 관계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 차이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행복지수 차이 분석
 - 지역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의 차이 분석
 - ※ 행복플로리시 :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
 - 도민의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출산율 분석
 - 지역별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차이 분석
 - ※ 지역별(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가정 유형별(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 도민의 행복 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지역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지역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지역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의 관계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지역별 삶의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가정 유형별 삶의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도민의 결혼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지역별 결혼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가정 유형별 결혼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도민의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지역별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가정 유형별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의 인과 관계 분석
 - 지역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의 행복지수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출산율의 인과관계 분석
 - 가정 유형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의 행복지수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출산율의 인과관계 분석
- 도민의 행복지수 분석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 모색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행복지수 향상 방안 마련
 - 지역별, 가정 유형별 맞춤형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
 - 출산 가치관 제고를 위한 행복플로리시 향상 정책 제안

단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 탐색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 분류 -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과의 출산율의 관계 - 주거환경, 가정환경 등 환경적 측면과 출산율의 관계	문헌 분석
↓	↓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 차이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행복 지수 차이 분석 - 도민의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출산율 분석	설문 조사 및 분석 (F검증)
↓	↓	↓
도민의 행복 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설문 조사 및 분석 (F검증)
↓	↓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의 관계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도민의 결혼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도민의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의 인과 관계 분석	설문 조사 및 분석 (회귀분석)
↓	↓	↓
도민의 행복지수 분석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 모색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행복지수 향상 방안 마련 - 지역별, 가정 유형별 맞춤형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 - 출산 가치관 제고를 위한 행복플로리시 향상 정책 제안	전문가 의견 수렴

- 경북도민 2,644,757명(2020년 현재) 중에서 약 0.043%에 해당하는 인원을 유층 표집 분석을 통해서 약 1,1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구체적인 설문 조사 도구는 개인 배경 변인, 지역 및 가정 유형 변인,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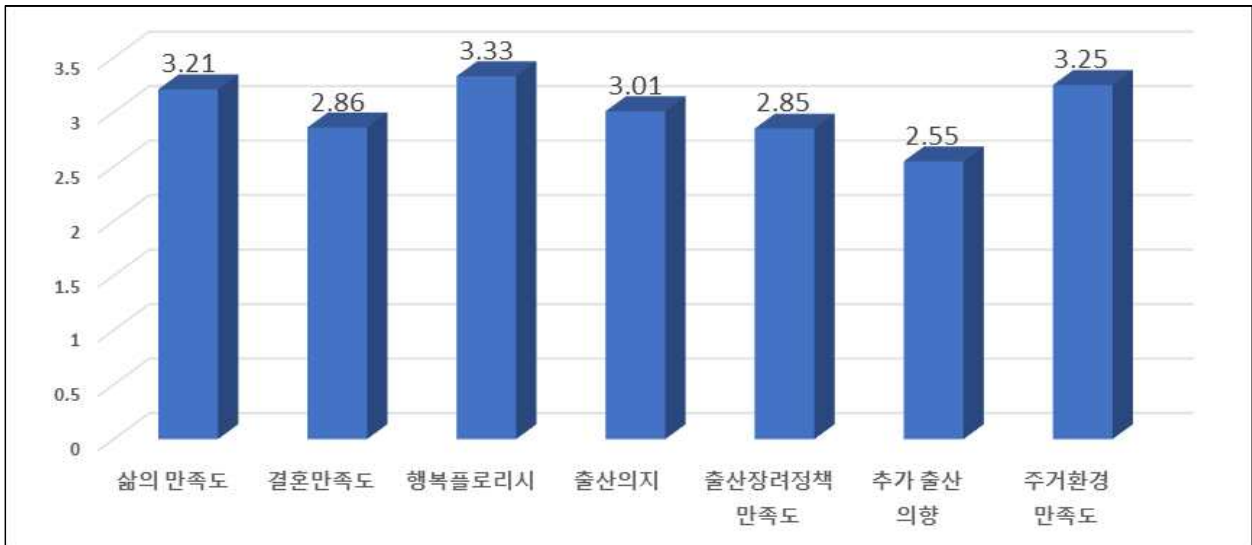
설문 조사 도구	하위 영역	문항수
삶의 만족도 및 결혼 만족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15
행복플로리시	긍정 정서, 몰입, 의미, 관계, 성취	19
출산 의지, 출산 정도	추가 출산 의향, 출산의지, 출산 정도	14
출산장려정책 및 주거환경 만족도	출산장려정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9
개인 배경 변인	성별, 거주지역, 평균소득, 직업, 학력 등	10
	전 체	67

3. 연구 결과

가. 경북도민의 행복 지수 및 출산 지수

- 행복플로리시, 삶의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출산 의지 등은 보통 정도임
- 결혼만족도, 출산장려정책 만족도, 추가 출산 의향은 보통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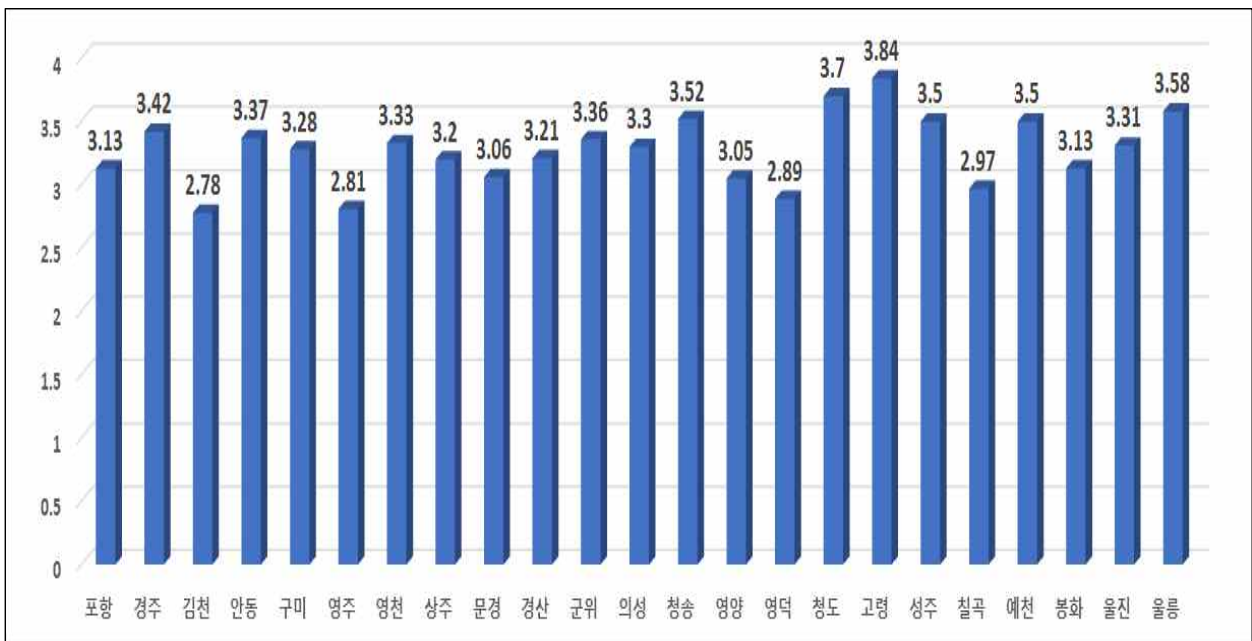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시군별 삶의 만족도 비교

- 높은 지역: 고령(3.84), 청도(3.70), 울릉(3.58), 청송(3.52), 예천(3.50) 등
- 낮은 지역: 김천(2.78), 영주(2.81), 영덕(2.89)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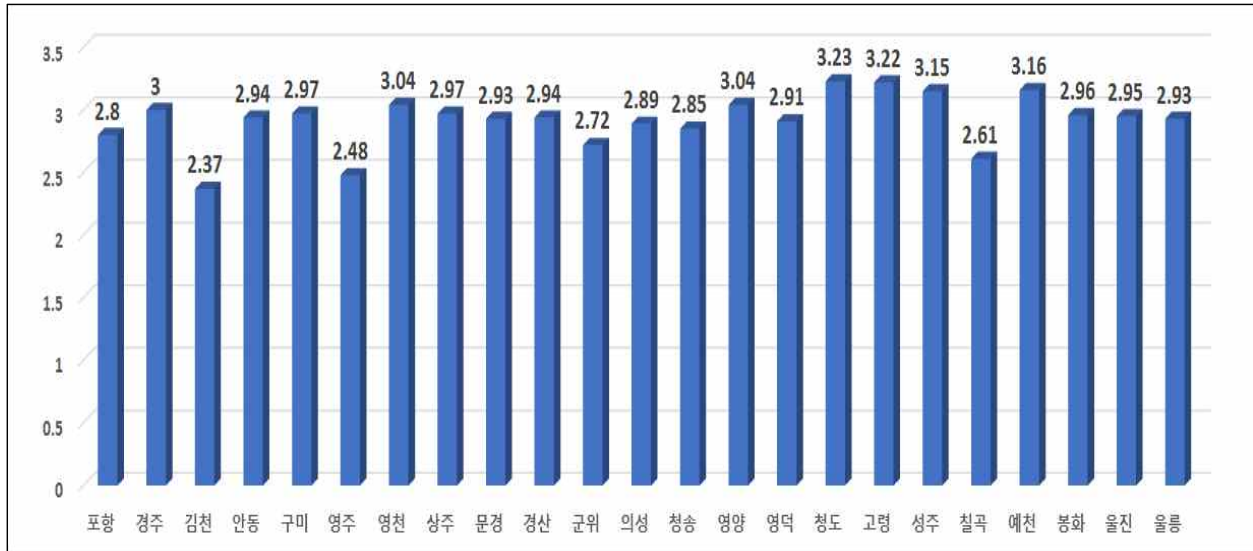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시군별 결혼 만족도 비교

- 높은 지역: 청도(3.23), 고령(3.22), 성주(3.15), 영양(3.04), 경주(3.00) 등
- 낮은 지역: 김천(2.37), 영주(2.48), 칠곡(2.61), 군위(2.7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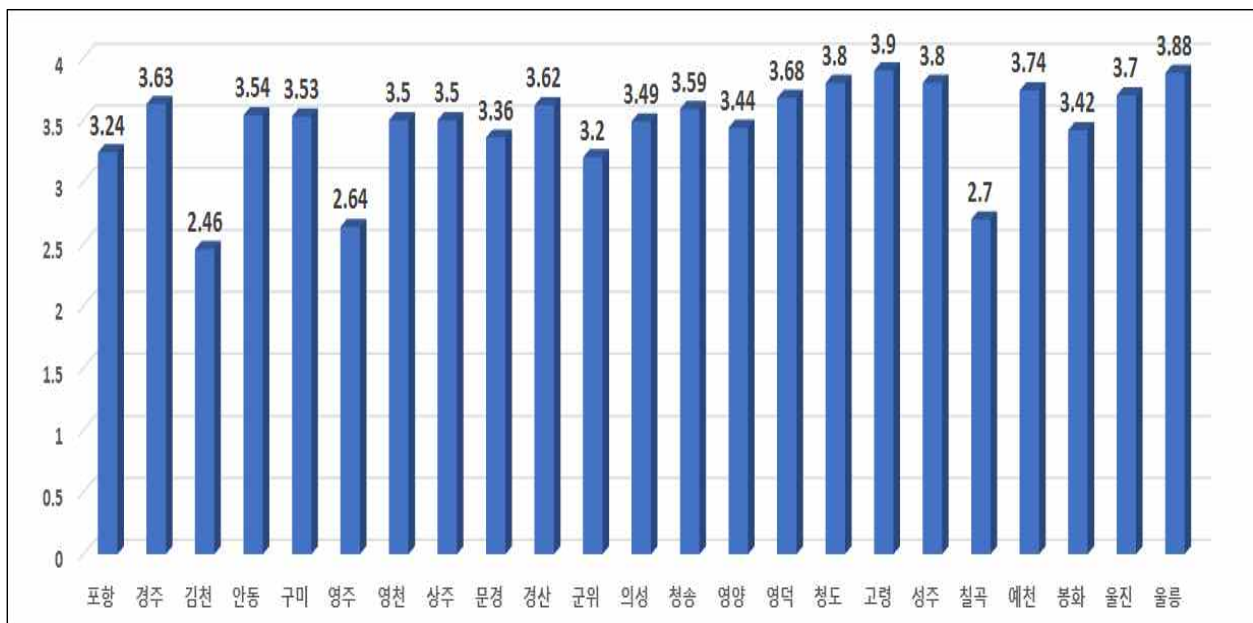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시군별 행복플로리시 비교

- 높은 지역: 고령(3.90), 울릉(3.88), 청도(3.80), 성주(3.80), 예천(3.74) 등
- 낮은 지역: 김천(2.46), 영주(2.64), 칠곡(2.7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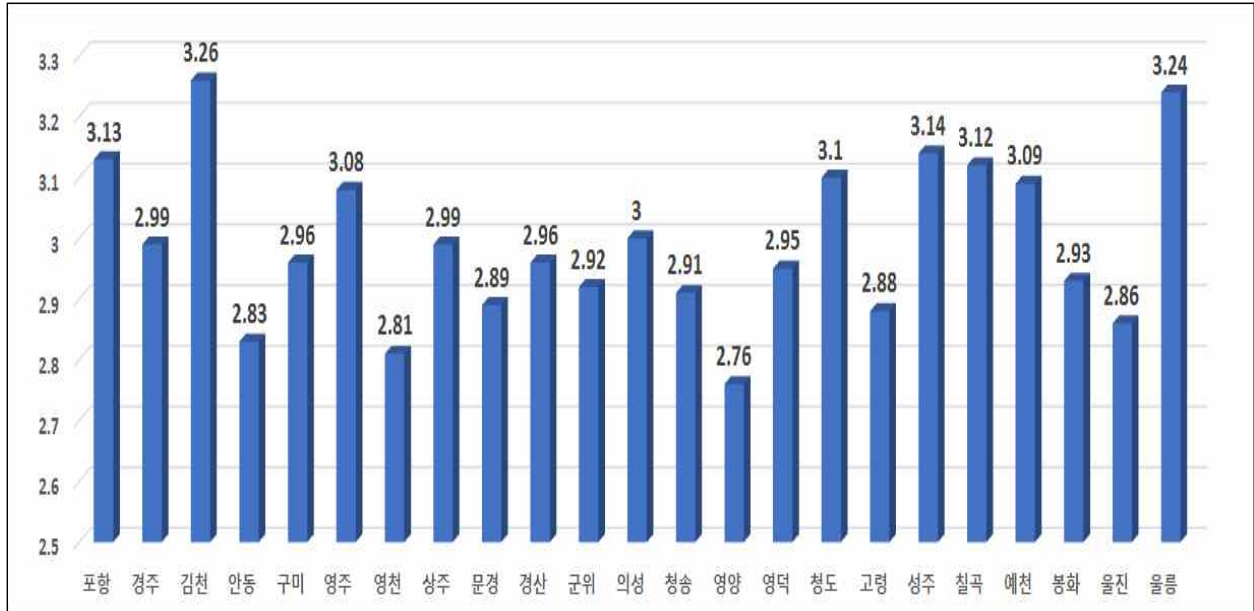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시군별 출산 의지 비교

- 높은 지역: 김천(3.26), 울릉(3.24), 성주(3.14), 포항(3.13), 칠곡(3.12) 등
- 낮은 지역: 영양(2.76), 영천(2.81), 안동(2.83), 고령(2.8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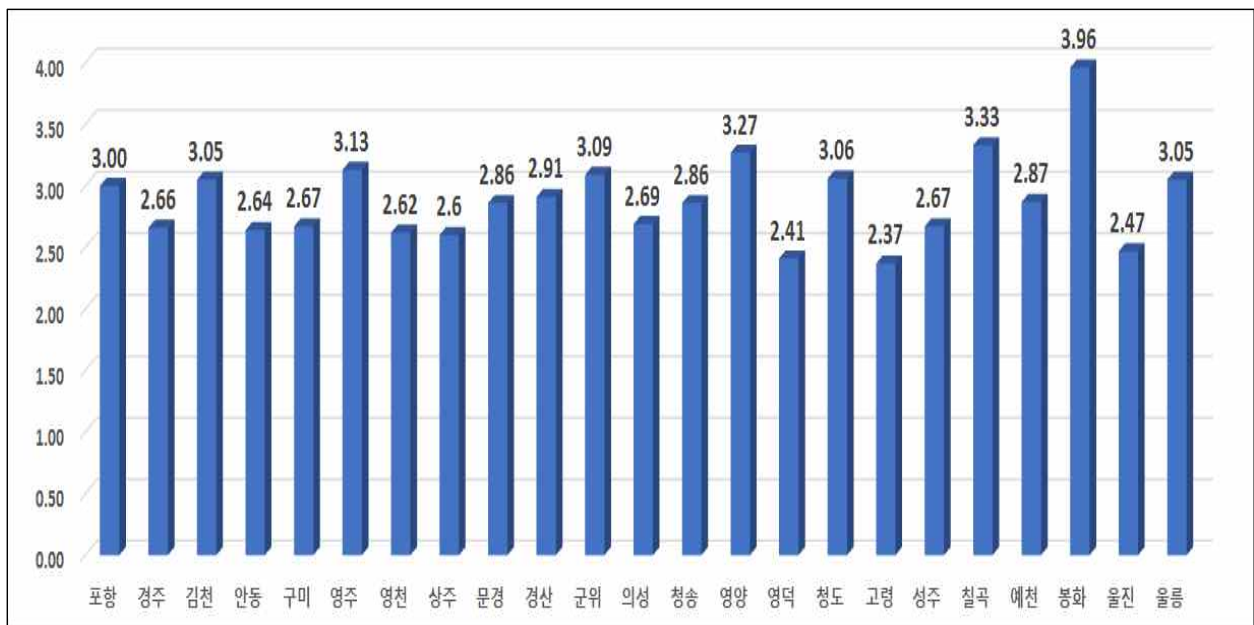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시군별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 높은 지역: 봉화(3.96), 칠곡(3.33), 영양(3.27), 영주(3.13), 군위(3.09) 등
- 낮은 지역: 고령(2.37), 영덕(2.41), 울진(2.4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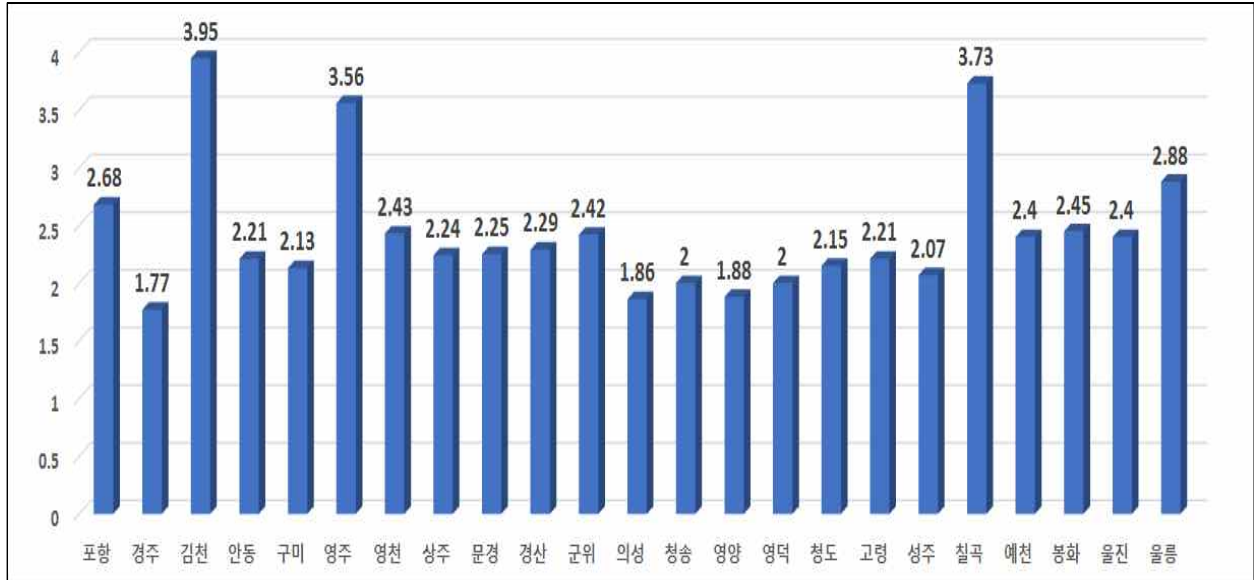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시군별 추가 출산 의향 비교

- 높은 지역: 김천(3.95), 칠곡(3.73), 영주(3.56) 등
- 낮은 지역: 경주(1.77), 의성(1.86), 영양(1.88), 청송(2.00), 영덕(2.0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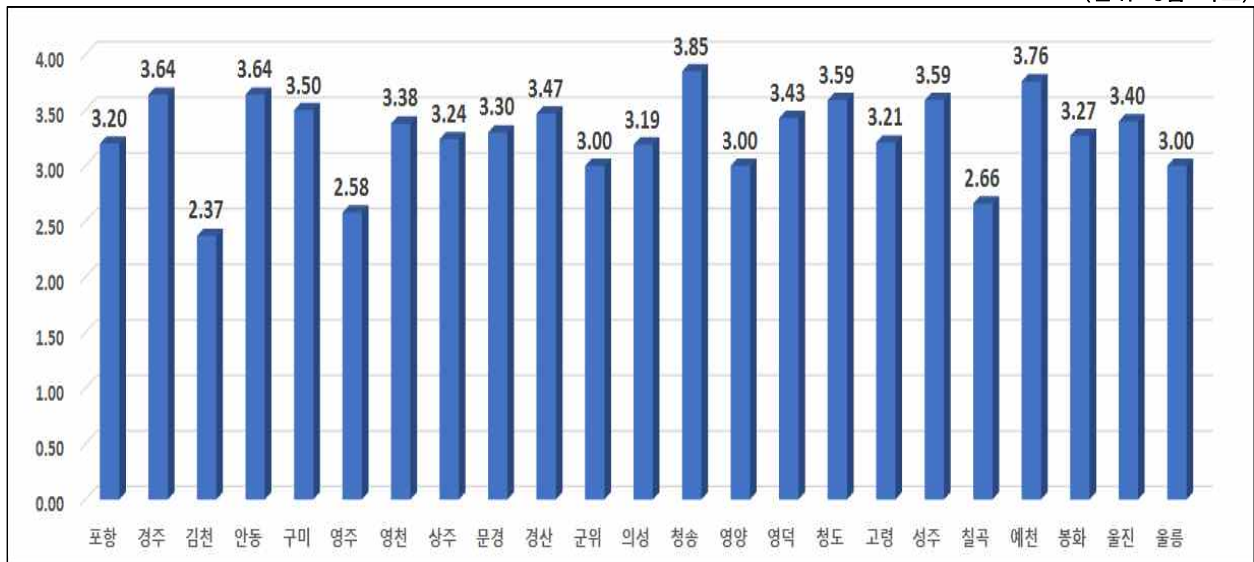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시군별 주거환경 만족도 비교

- 높은 지역: 예천(3.76), 경주(3.64), 안동(3.64), 성주(3.59), 청도(3.59) 등
- 낮은 지역: 김천(2.37), 영주(2.58), 칠곡(2.66) 등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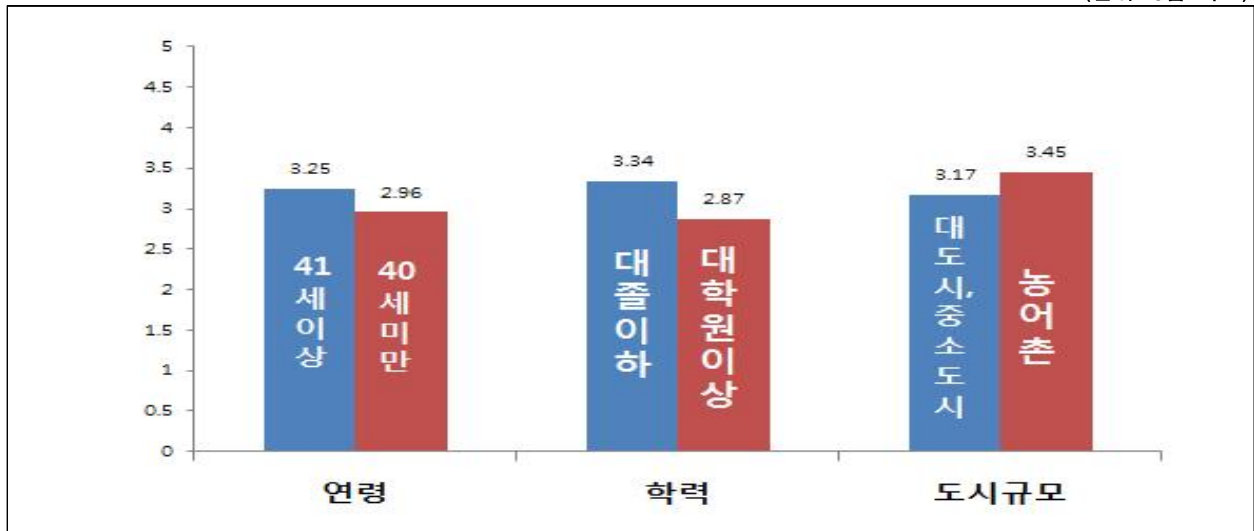


나. 경북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 지수 비교

○ 삶의 만족도

- 타 연령 > 41세 이상, 대졸 이하 > 대학원 졸업 이상
- 농어촌 > 대도시와 중소도시, 경주, 청송, 청도, 고령 > 김천, 영주, 영덕, 칠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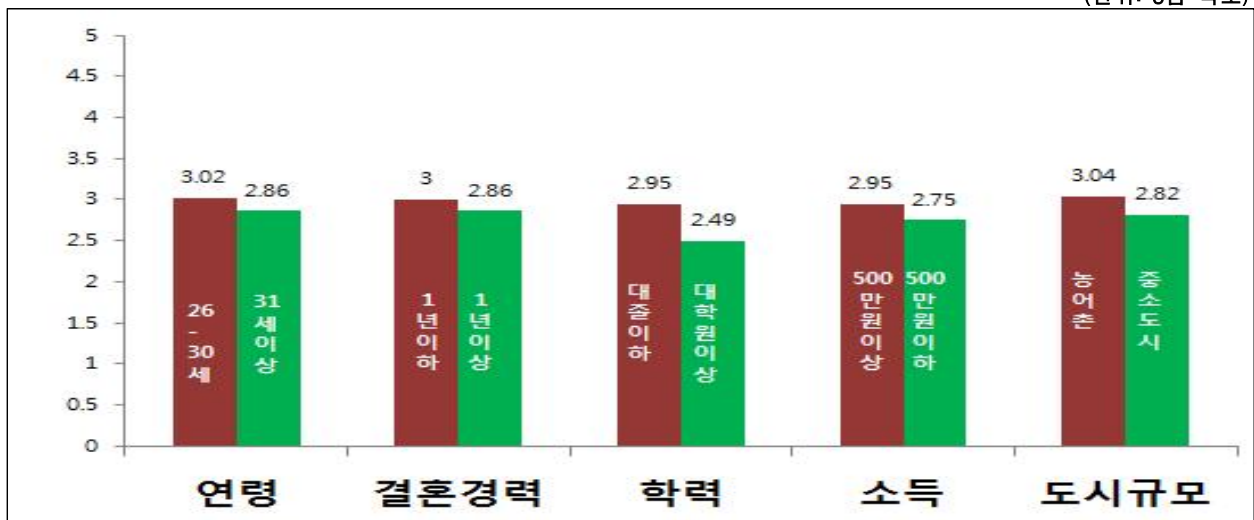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결혼 만족도

- 26세-30세 > 31세 이상, 대졸 이하 > 대학원 졸업 이상
- 1년 이하 결혼경력 > 1년 이상 결혼경력
- 500만원 이상 월 평균소득 > 500만원 미만 월 평균소득
- 농어촌 > 중소도시, 경주, 영천, 청도, 고령, 성주 > 김천, 영주, 영덕, 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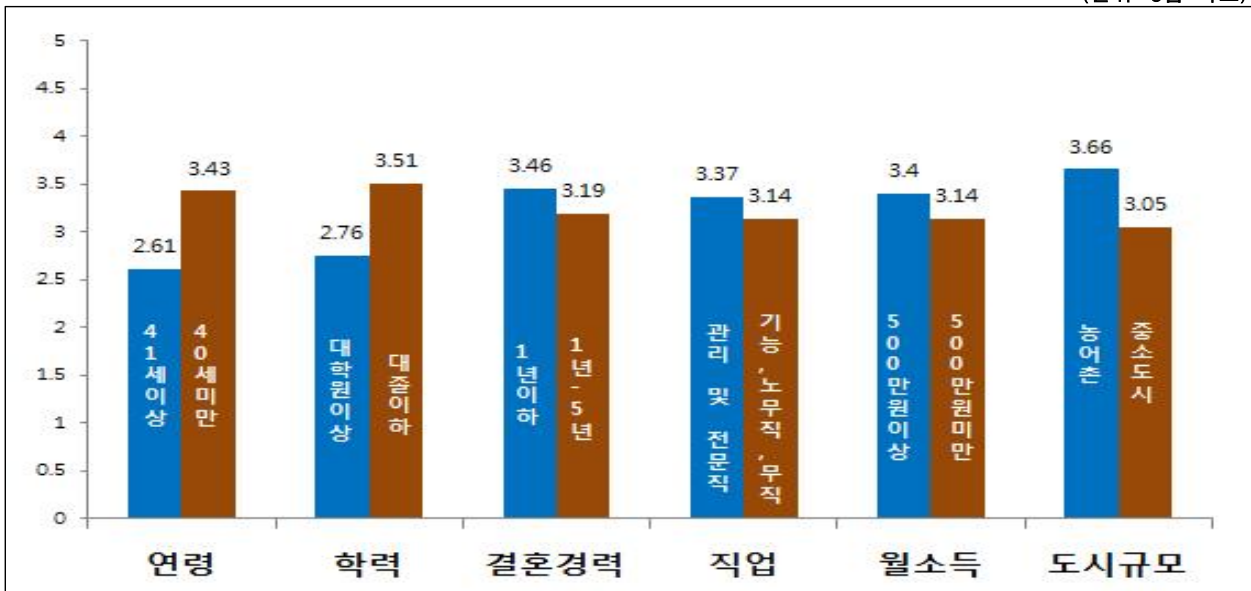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행복플로리시

- 타 연령 > 41세 이상, 대졸 이하 > 대학원 졸업 이상
- 1년 이하 결혼경력 > 1년-5년 결혼경력
- 관리 및 전문직 > 기능 및 노무직, 무직
- 500만원 이상 월 평균소득 > 500만원 미만 월 평균소득
- 농어촌 > 중소도시, 고령, 성주, 청도, 울릉, 예천 > 김천, 영주, 칠곡

(단위: 5점 척도)



다. 경북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지수 비교

○ 실제 출산 자녀수

- 31세 이상(2명) > 30세 이하(0명)
- 6년 이상 결혼경력(2명) > 1년-5년(1명) > 1년 미만(0명)
- 맞벌이(2명) > 외벌이(0명)
- 월 평균소득 200만원 이상(2명) > 200만원 미만(1명)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칠곡(2명) > 영주,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 울릉(1명)

○ 이상적인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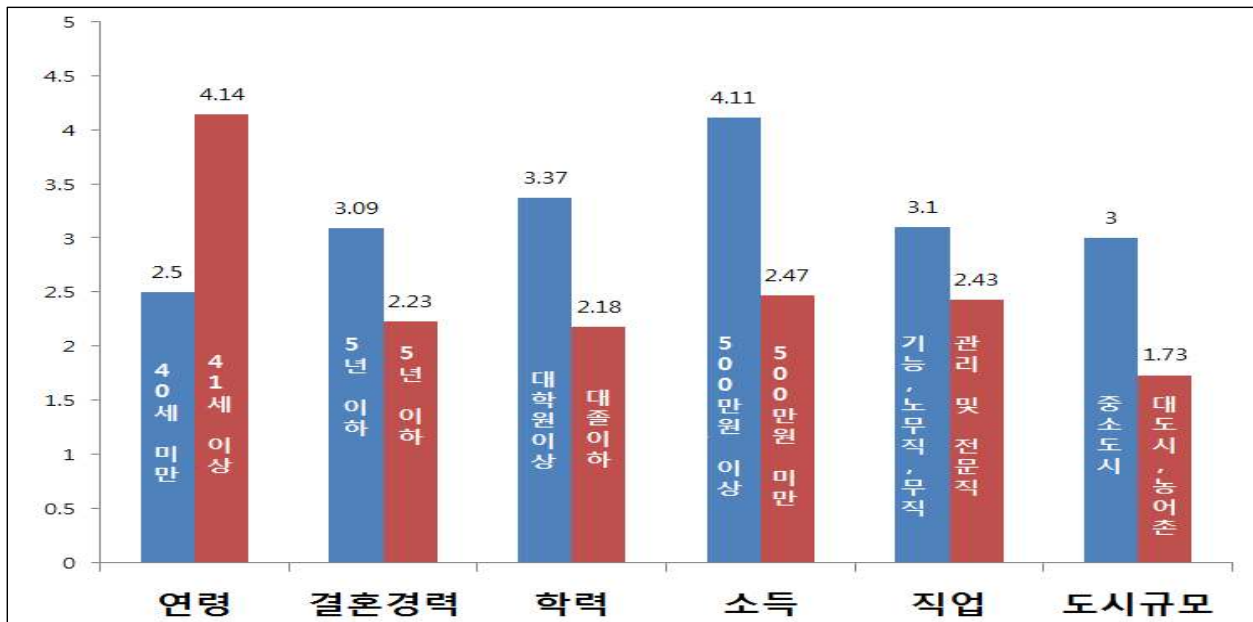
- 36세 이상(2-3명) > 35세 이하(1-2명)
- 6년 이상 결혼 경력(2-3명) > 5년 미만 결혼경력(1-2명)

- 일반가정(2-3명) > 다문화 및 결손가정(1-2명)
- 월 평균소득 200만원 이상(2-3명) > 200만원 미만(1-2명)
-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고령, 성주(2-3명) > 포항, 영주, 경산, 군위, 영덕, 청도,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1-2명)

○ 추가 출산 의향

- 41세 이상 > 40세 미만
- 5년 이하 결혼 경력 > 6년 이상 결혼경력
- 대학원 졸업 이상 > 대졸 이하
- 기능 및 노무직, 무직 > 관리 및 전문직
-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중소도시 > 대도시, 농어촌
- 김천, 영주, 칠곡 > 경주, 의성,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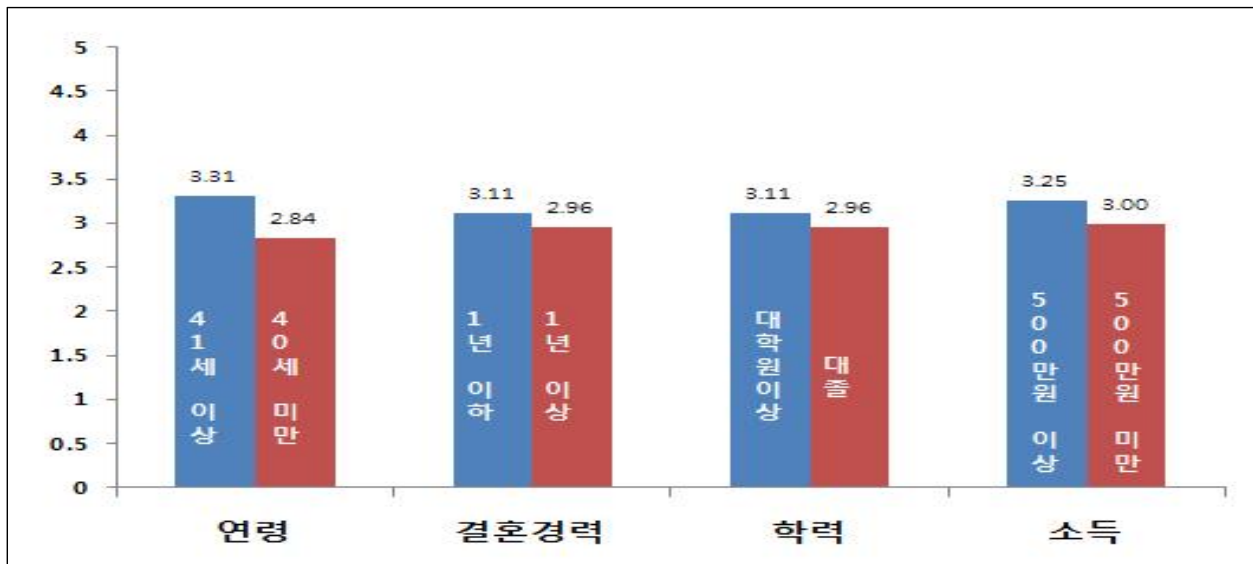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출산 의지

- 41세 이상 > 40세 미만
- 1년 이하 결혼 경력 > 1년 이상 결혼경력
- 대학원 졸업 이상 > 대졸
-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김천, 울릉, 성주, 청도 > 안동, 영천, 고령,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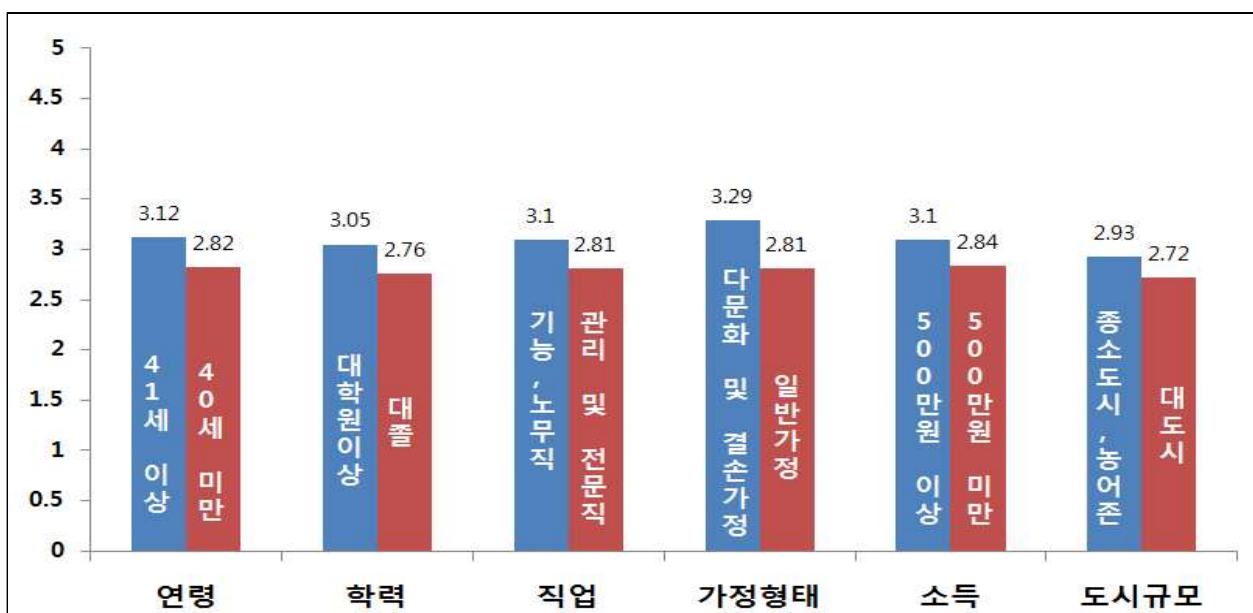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출산 정책 만족도

- 41세 이상 > 40세 미만
- 대학원 졸업 이상 > 대졸
- 기능 및 노무직 > 관리 및 전문직
- 다문화 및 결손가정 > 일반가정
-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중소도시, 농어촌 > 대도시

(단위: 5점 척도)



라. 경북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 지수 비교

○ 삶의 만족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 상이나 중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2명) > 하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1명)
- 상이나 중인 대도시(2명) > 하인 대도시(0명)
- 상인 농어촌(2명) > 중이나 하인 농어촌(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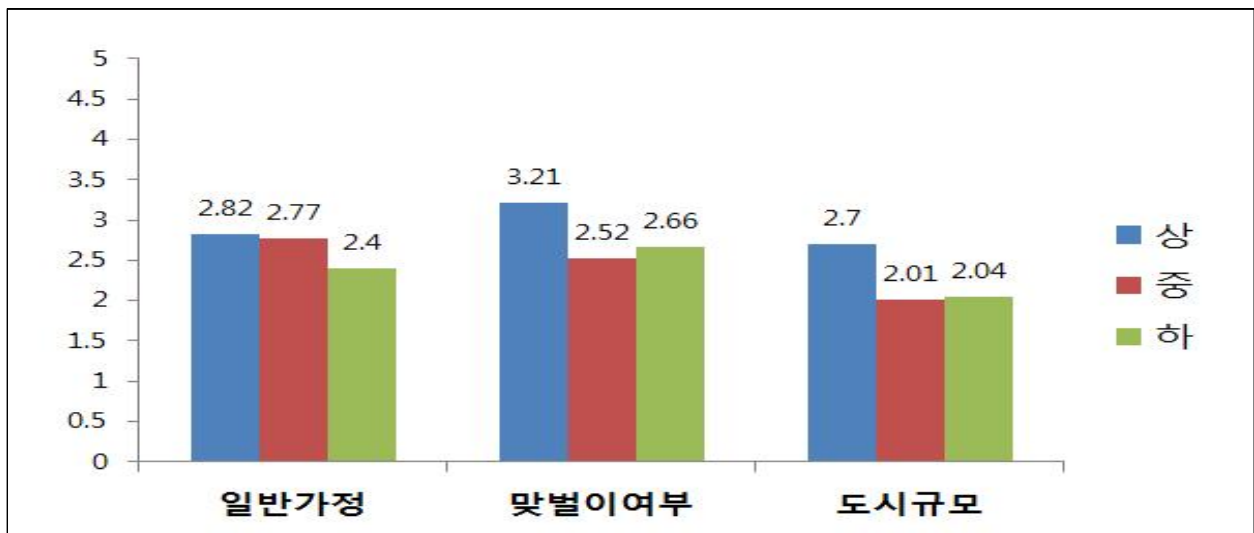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에 따른 이상적인 자녀 수

- 상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2-3명) > 중이나 하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0-2명)
- 상이나 중인 맞벌이(2-3명) > 하인 맞벌이(1-2명)
- 상이나 중인 중소도시, 농어촌(2-3명) > 하인 중소도시, 농어촌(1-2명)

○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 상이나 중인 일반가정 > 하인 일반가정
- 상인 외벌이 > 중이나 하인 외벌이
- 상인 대도시 > 중이나 하인 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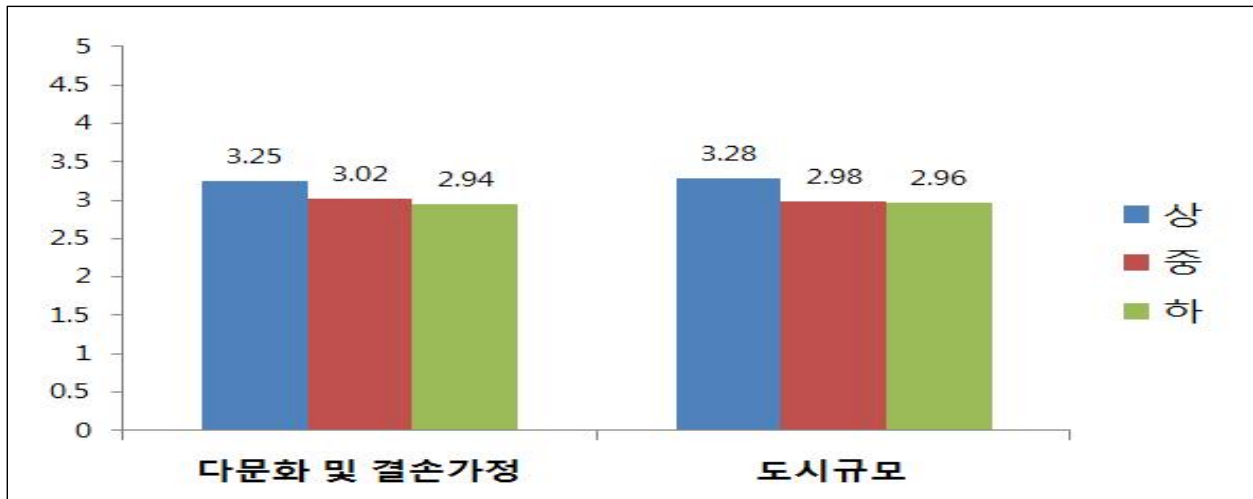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 의지

- 상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 > 중이나 하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
- 상인 대도시 > 중이나 하인 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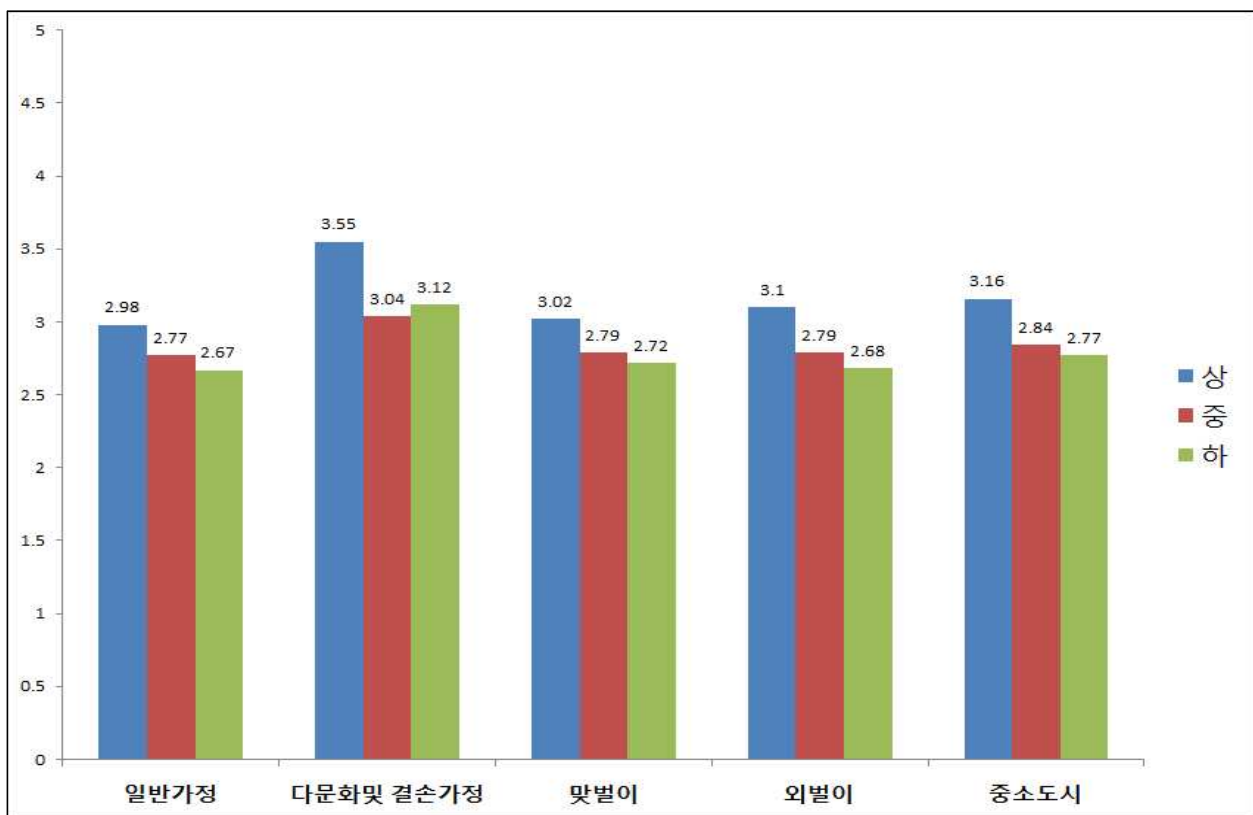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 상인 일반가정, 다문화 및 결혼가정 > 중이나 하인 일반가정, 다문화 및 결혼가정
- 상인 맞벌이, 외벌이 > 중이나 하인 맞벌이, 외벌이
- 상인 중소도시 > 중이나 하인 중소도시

(단위: 5점 척도)



마. 경북도민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출산 지수 비교

○ 결혼 만족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 상이나 중인 일반가정(1-2명) > 하인 일반가정(0-2명)
- 상이나 중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2명) > 하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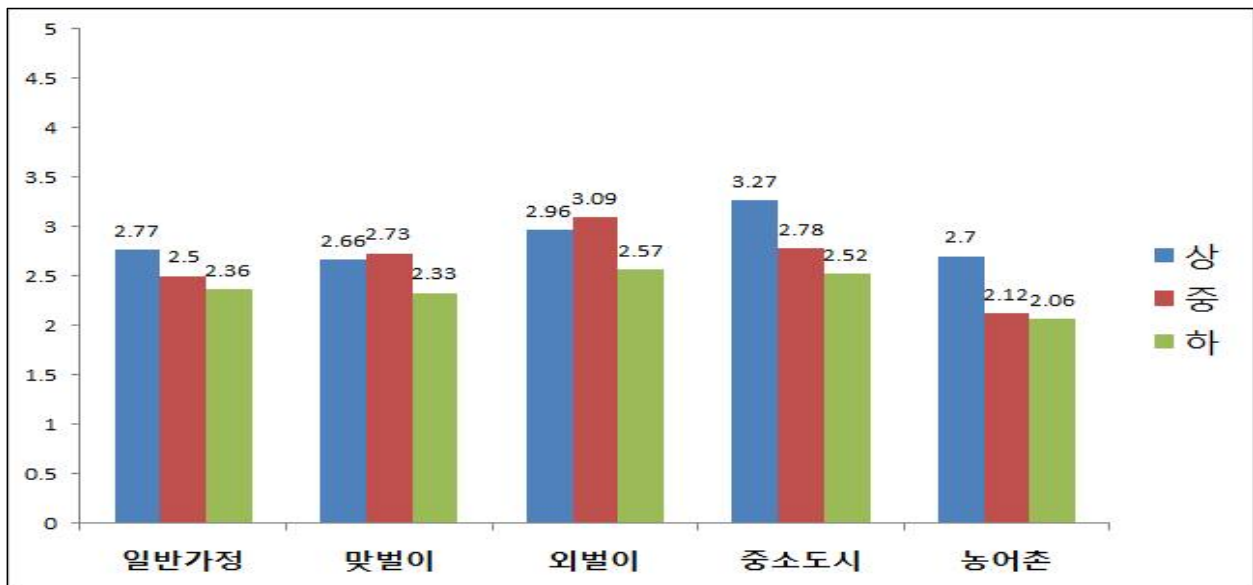
○ 결혼 만족도에 따른 이상적인 자녀 수

- 상이나 중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2-3명) > 하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1-2명)
- 상이나 중인 외벌이(2-3명) > 하인 외벌이(1-2명)
- 상이나 중인 농어촌(2-3명) > 하인 농어촌(1-2명)

○ 결혼 만족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 상인 일반가정 > 중이나 하인 일반가정
- 상이나 중인 맞벌이, 외벌이 > 하인 맞벌이, 외벌이
- 상인 중소도시, 농어촌 > 중이나 하인 중소도시, 농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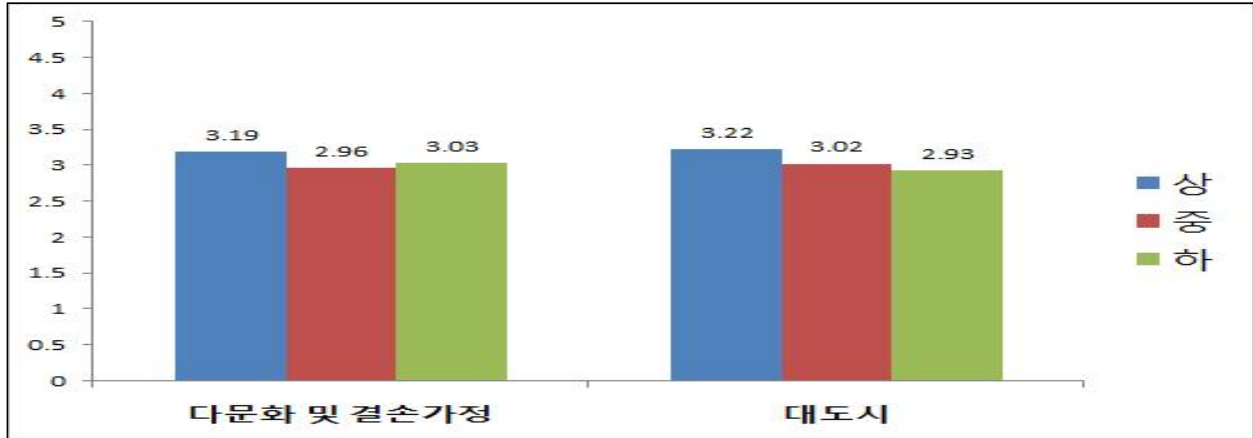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결혼 만족도에 따른 출산 의지

- 상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 > 중이나 하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
- 상인 대도시 > 중이나 하인 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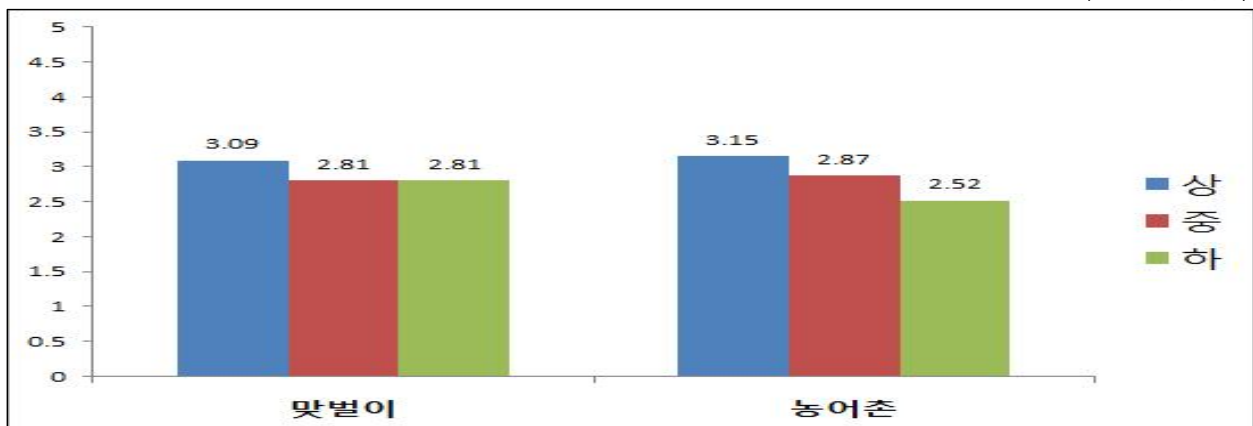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결혼 만족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 상인 맞벌이 > 중이나 하인 맞벌이
- 상인 농어촌 > 중이나 하인 농어촌

(단위: 5점 척도)



바. 경북도민의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출산 지수 비교

○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 상이나 중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2명) > 하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1명)
- 상이나 중인 외벌이(2명) > 하인 외벌이(0명)
- 상이나 중인 농어촌(2명) > 하인 농어촌(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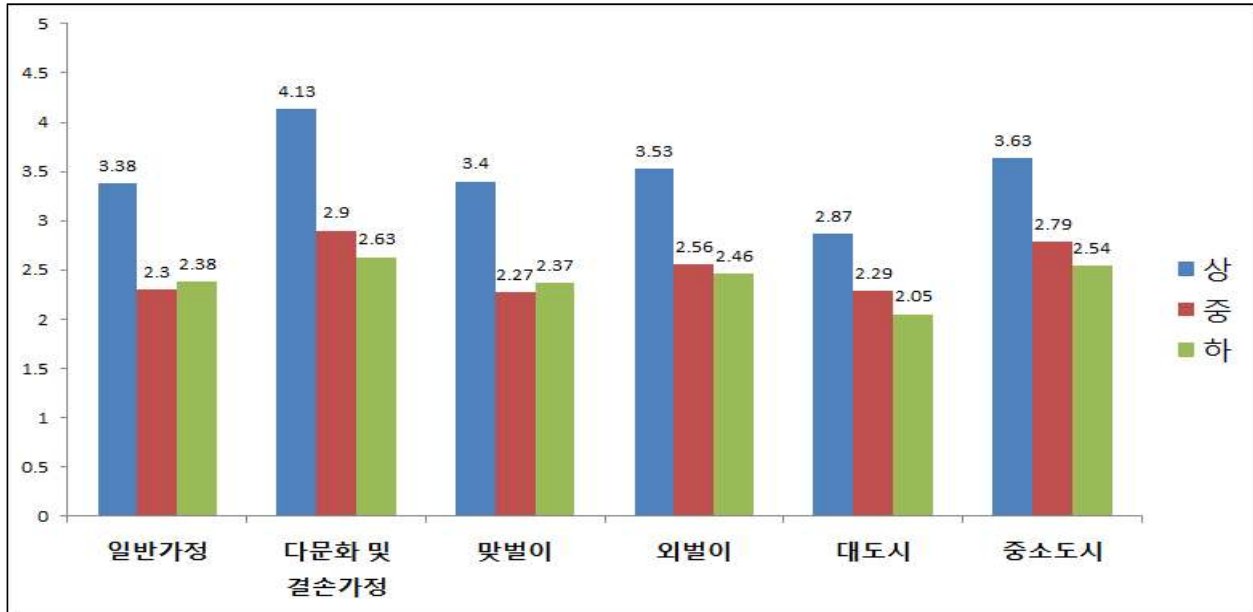
○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이상적인 자녀 수

- 상이나 중인 일반가정(2-3명) > 하인 일반가정(1-2명)
- 상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2-3명) > 중이나 하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1-2명)
- 상이나 중인 맞벌이, 외벌이(2-3명) > 하인 맞벌이, 외벌이(1-2명)
- 상이나 중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2-3명) > 하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1-2명)

○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 상인 일반가정, 다문화 및 결혼가정 > 중이나 하인 일반가정, 다문화 및 결혼가정
- 상인 맞벌이, 외벌이 > 중이나 하인 맞벌이, 외벌이
- 상인 대도시, 중소도시 > 중이나 하인 대도시, 중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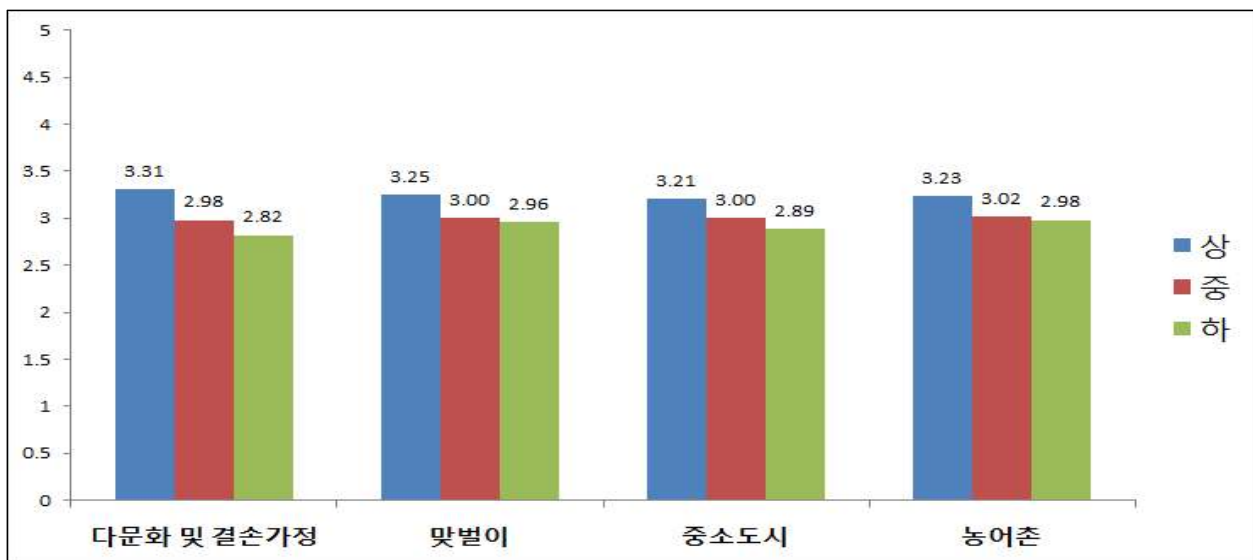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출산 의지

- 상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 > 중이나 하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
- 상인 맞벌이 > 중이나 하인 맞벌이
- 상인 중소도시, 농어촌 > 중이나 하인 중소도시, 농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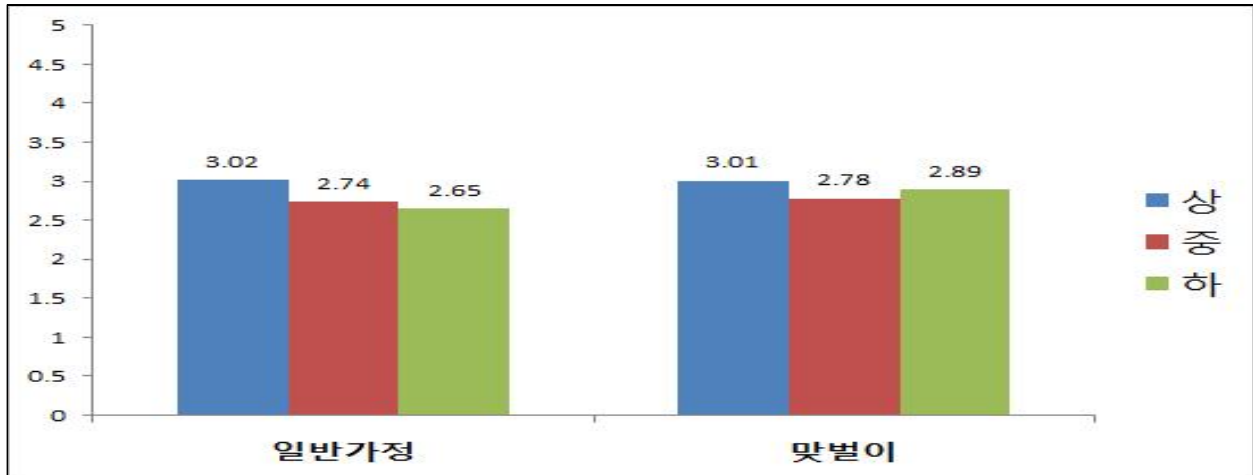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 상인 일반가정 > 중이나 하인 일반가정
- 상인 맞벌이 > 중이나 하인 맞벌이

(단위: 5점 척도)



4.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제안

가.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적합한 맞춤형 출산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연령, 결혼경력 등에 적합한 맞춤형 출산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출산을 희망하는 41세 고연령 대상 출산 정책 개발 및 예산 지원 필요
- 출산 가능성이 높은 36-40세 중간연령 대상 출산 정책 개발 및 예산 지원 필요
- 1년 이하와 6년 이상 결혼경력 대상 출산 정책 개발 및 예산 지원 필요

○ 최종학력, 직업 등에 적합한 맞춤형 출산 제고 방안 수립

- 대졸 학력, 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 등의 출산 정책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출산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구분		분석 결과	맞춤형 출산 정책
개인 배경 변인	연령	- 삶의 만족도 : 41세 미만 > 41세 이상 - 이상적인 자녀 수 : 36세 이상 (2-3명) > 35세 이하(1-2명) -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 41세 이상 > 41세 미만	<임신 전/후 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정서-심리적 상담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제도>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차등 지원 <출산가치관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 결혼 전, 결혼초기 등 생애주기별 출산가치관 확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혼 경력	-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 : 1년 이하 > 1년 이상 - 이상적인 자녀 수 : 6년 이상 (2-3명) > 5년 미만(1-2명) - 추가 출산 의향 : 5년 이하 > 5년 이상 - 출산 의지 : 1년 이하 > 1년 이상	<신혼부부 주거정착 지원 제도> -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 - 대출금 이자 지원 제도 <부부상담, 부부교육 지원 제도> - 가치관 교육, 양육스트레스 관리, 삶의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교육, 상담, 코칭
	직업	- 출산 정책 만족도 : 기능 및 노무직 > 관리 및 전문직 - 추가 출산 의향 : 기능 및 노무직, 무직 > 관리 및 전문직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의무제도> - 전문직, 관리직 등 직업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제도 의무화 <취업지원 및 구직 촉진 수당 지원제도> - 취업지원 및 구직을 위한 자격증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출산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 지급

나.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적합한 맞춤형 출산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가정형태별로 행복지수를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출산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행복플로리시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필요
- 다문화 및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필요

○ 맞벌이여부, 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직업 창출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외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월 평균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 창출 또는 복지에 산 지원 필요

구분		분석 결과	맞춤형 출산 정책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 출산 정책 만족도 : 다문화 및 결손가정 > 일반가정 - 이상적인 자녀 수 : 일반가정 (2-3명) > 다문화 및 결손가정	<취약계층 가정 지원 제도> - 출산시 병원 이용 무료제도 - 장애인 및 비혼 가정 출산시 출산지원금 제도 <다문화 가정 및 결손 가정 지원 제도> - 행복한 가정 문화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일반가정 대상 행복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일반가정 대상 행복 향상 프로그램 운영

	맞벌이 여부	- 삶의 만족도 : 외벌이 > 맞벌이 - 실제 출산 자녀 수 : 맞벌이 > 외벌이	<외벌이 부부 대상 취업 지원 제도> - 외벌이 부부 대상 우선적 취업 혜택 제도화 <맞벌이 부부 대상 복지 지원 제도> - 산후 관리 지원제도 및 양육교육제도 - 부모 휴가제 의무화 - 충분한 출산휴가 제도(부부 공동 사용)
	월 평균 소득	- 출산 정책 만족도,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출산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 지원 제도>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 금액 상향 지원 <육아 양육 부대 비용 지원 제도> - 기저귀 및 분유 지원제도 - 장난감 및 도서 무료 대여 제도 <출산 희망자 대상 특별 생활비 지원 제도> - 출산 희망자 대상 우선적 가정생활 경비 지원

다.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적합한 맞춤형 출산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도시규모별로 맞춤형 출산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는 추가 출산 의향이 높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적합한 출산 정책 계획 수립 필요

구분	분석 결과	맞춤형 출산 정책
도시규모	- 삶의 만족도 : 농어촌 > 대도시, 중소도시 -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 : 농어촌 > 중소도시 - 추가 출산 의향 : 농어촌 > 대도시, 중소도시 - 출산 정책 만족도 : 중소도시, 농어촌 > 대도시	<대도시 대상 출산 정책 만족도 향상 지원 제도>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도적 장치마련 -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 다자녀 가족 여행 지원 제도(연 1회) - 공동육아 나눔 공간 -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 아이이름 청약통장 지원제도
		<중소도시 대상 행복가정 문화 만들기 캠페인 전개> - 행복한 가족 만들기 캠프(1박 2일) 운영 -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활동 전개 <농어촌 대상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운영> - 영유아 복합 놀이 시설 공간 지원 - 다자녀 우대카드, 지역화폐 충전시 10% 인센티브 - 영유아-아동 영양제 지원 - 청년(40세미만) 정착시 주거정착지원금 제도 - 산후도우미 지원제도

- 출산 지수가 높은 시군지역을 중심으로 ‘출산 중점 도시’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 필요
 -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 의향, 출산 의지 등 출산 지수가 높은 지역(김천, 칠곡, 영주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출산 예산 지원 필요
 -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행복지수가 낮은 시군지역은 행복 향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출산 정책 만족도,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등이 낮은 시군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출산 정책 개발 및 보상 지원 필요

구분	분석 결과	맞춤형 출산 정책
포항	- 결혼만족도 ↓ - 추가 출산의향 ↓	-결혼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부상담 지원 -출산 제고 가치관 교육 등 부부 맞춤 프로그램
경주	- 행복도 ↑ - 출산의지 ↓ - 추가출산의향 ↓ - 출산정책만족도 ↓	-출산지원금 상향 정책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김천	- 추가 출산의향 ↑ - 행복플로리시 ↓ - 주거환경 만족도 ↓	-행복지수 향상 프로그램 운영 -주거환경 개선(문화, 보육, 교육 등) 정책 지원
안동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 출산 정책 만족도 ↓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구미	- 출산의지 ↓ - 추가출산의향 ↓ - 출산정책만족도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영주	- 삶의 만족도 ↓ -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 ↓ - 주거 환경 만족도 ↓ - 출산의지, 추가 출산 의향 ↑	-행복 지수 향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여가활동 지원 정책 -주거환경 개선(문화, 보육, 교육 등) 지원 정책
영천	- 출산의지 ↓ - 출산 정책만족도 ↓ - 추가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충

상주	- 출산의지 ↓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추가 출산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문경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경산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 출산 정책 만족도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군위	- 결혼만족도 ↓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부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일-가정 양립 보장 정책
의성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청송	- 출산 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영양	- 삶의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출산 가치관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가 활동 지원 정책, 문화시설 확충
영덕	- 삶의 만족도 ↓ - 정책만족도 ↓	-가치관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가 활동 지원 정책, 문화시설 확충
청도	- 출산 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일-가정 양립 보장 정책
고령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 출산 정책 만족도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일-가정 양립 보장 정책 -출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성주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출산 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출산-양육지원금 상향 정책 -공공 산후조리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칠곡	-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 - 행복 플로리시 ↓ - 주거 환경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행복 지수 향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주거환경 개선(문화, 보육, 교육 등) 정책
예천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출산-양육지원금 상향 정책 -공공 산후조리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붕화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출산 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울진	- 출산 의지 ↓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울릉	- 출산 의지 ↑	-양육수당 지원금 상향 -보육, 교육 지원 정책

라. 경북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 긍정 정서(즐거운 삶), 몰입(몰입하는 삶), 관계(좋은 삶), 의미(의미있는 삶), 성취(성취하는 삶), 신체활동(건강한 삶) 등 행복한 도민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구분	특징	삶의 유형
긍정 정서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	즐거운 삶
몰입 (Engagement)	-어떤 것에 집중하여 시간가는 줄 모르거나 자각하지 못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몰입하는 삶
관계 (Relationship)	-혼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하는 것	좋은 삶
의미 (Meaning)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	의미있는 삶
성취 (Accomplishment)	-성공이나 성취 그 자체가 좋아서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성취하는 삶
신체활동 (GYM)	-활력 있는 신체를 만들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건강한 삶

마. 경북도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문 자료 수집을 통한 중단 연구 제안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통계자료 수집의 정례화 필요
 - 도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배경 변인, 가정 환경 변인, 거주 지역 변인,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다양한 변수를 연 1회 이상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에 기여

○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종단 연구 필요

- 매년 도민의 출산율의 현황,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율이 높은 시군지역과 출산율이 낮은 시군지역을 비교하는 종단 연구, 행복지수가 높은 시군지역과 행복지수가 낮은 시군지역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종단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종단 연구를 실시

5.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 경북도민의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등 행복지수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

- 행복지수가 높으면 출산율도 높고, 행복지수가 낮으면 출산율도 낮음
- 경북도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나 프로그램 도입 필요

○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 환경 변인, 거주지역 변인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할 필요

- 연령, 결혼경력, 직업, 월 평균소득, 다문화 및 결손가정, 일반가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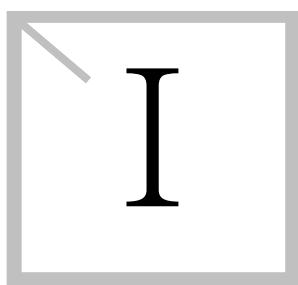
○ 경북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기초 통계 자료 수집 및 종단 연구 필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에 영향을 주는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는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

나. 제언

○ 본 연구는 전체 경북도민 중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 외에 심층면담, 전문가 협의회 등 질적 연구를 병행하면 효과적임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 일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상북도 총인구는 '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30년 259만명, '45년 242만명에 이를 전망
-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35년 이상 저출생 현상 지속
 - 경북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0명대로 추락(전국 0.82, 21.2분기, 통계청 '21.8월)
 - * 출생아수는 '81년 7만명, '00년 3만 5천명, '20년 1만 3천명대로 급락
- 저출생 현상 지속 시 미래 사회적·경제적 위험 직면
- 저출산율과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등 행복과의 관계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 개발 필요
- 도민의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행복지수 향상을 통한 출산 가치관 제고 방안 마련
-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행복지수 실태 파악을 통한 지역별, 가정 유형별 맞춤형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 탐색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 분류
 -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과의 출산율의 관계
 - 주거환경, 가정환경 등 환경적 측면과 출산율의 관계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 차이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행복지수 차이 분석
 - 지역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의 차이 분석
- ※ 행복플로리시 :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

- 도민의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출산율 분석
 - 지역별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차이 분석
- ※ 지역별(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가정 유형별(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 도민의 행복 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지역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지역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지역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가정 유형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의 관계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지역별 삶의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가정 유형별 삶의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도민의 결혼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지역별 결혼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가정 유형별 결혼 만족도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도민의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지역별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가정 유형별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의 인과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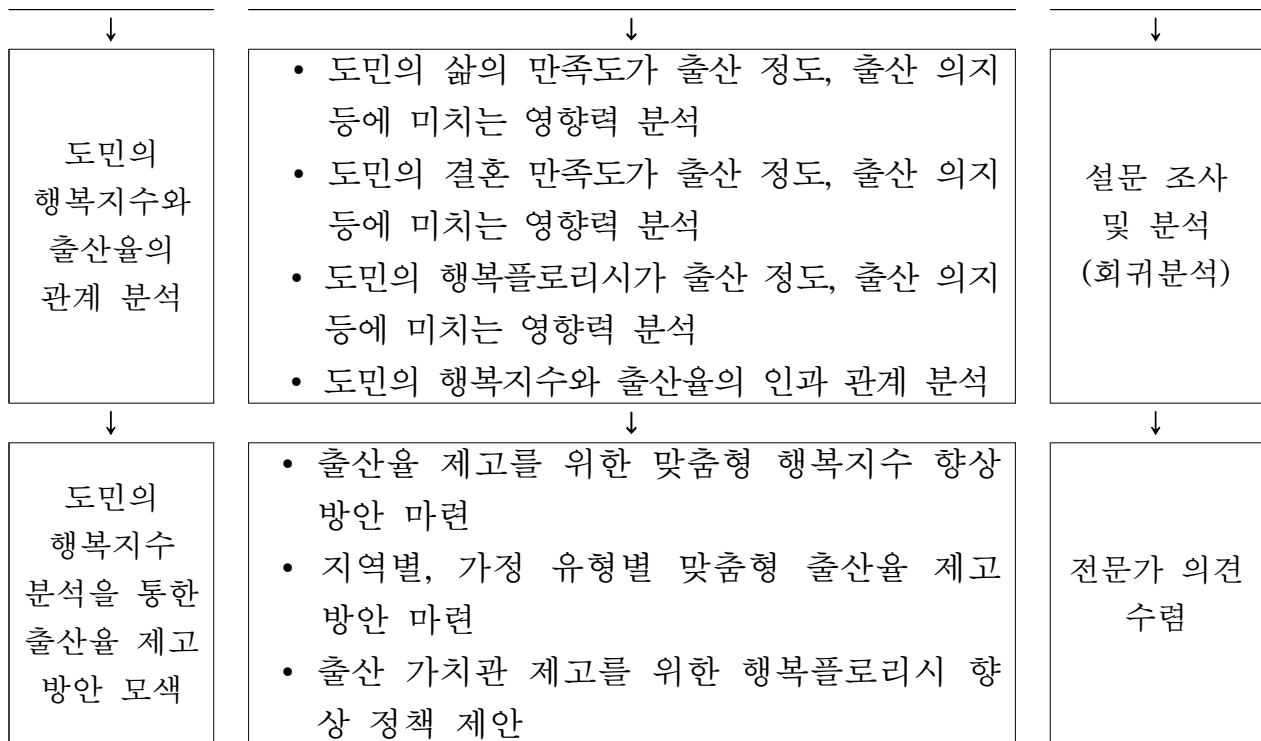
- 지역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의 행복지수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출산율의 인과관계 분석
- 가정 유형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의 행복지수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출산율의 인과관계 분석

○ 도민의 행복지수 분석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 모색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행복지수 향상 방안 마련
- 지역별, 가정 유형별 맞춤형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
- 출산 가치관 제고를 위한 행복플로리시 향상 정책 제안

〈표 1 -1〉 연구 내용 및 방법

단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 탐색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 분류 •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과의 출산율의 관계 • 주거환경, 가정환경 등 환경적 측면과 출산율의 관계	문헌 분석
↓	↓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 차이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행복지수 차이 분석 • 도민의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출산율 분석	설문 조사 및 분석 (F검증)
↓	↓	↓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 분석	•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의 차이 분석 • 도민의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설문 조사 및 분석 (F검증)



- 경북도민 2,644,757명(2020년 현재) 중에서 약 0.043%에 해당하는 인원을 유층 표집 분석을 통해서 약 1,1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구체적인 설문 조사 도구는 개인 배경 변인, 지역 및 가정 유형 변인,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출산 정도, 출산 의지 등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2〉 설문 조사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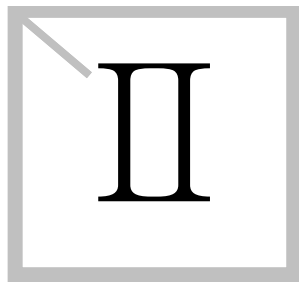
설문 조사 도구	하위 영역	문항수
삶의 만족도 및 결혼 만족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15
행복플로리시	긍정 정서, 몰입, 의미, 관계, 성취	19
출산 의지, 출산 정도	추가 출산 의향, 출산의지, 출산 정도	14
출산장려정책 및 주거환경 만족도	출산장려정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9
개인 배경 변인	성별, 거주지역, 평균소득, 직업, 학력 등	10
전 체		67

3. 연구 추진 일정

- 구체적인 연구 추진 일정은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3> 연구 추진 일정 및 단계

연구 기간	단계	연구 내용
2021. 6. 25 - 7.14	문헌 분석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요인 분류 •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과의 출산율의 관계 • 주거환경, 가정환경 등 환경적 측면과 출산율의 관계
↓	↓	↓
2021. 7. 15 - 7. 31	설문 조사	• 설문 조사 도구 개발 및 수정·보완 • 설문 조사 실시
↓	↓	↓
2021. 8. 1 - 8. 10	통계 분석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 차이 분석 • 도민의 행복 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 분석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의 관계 분석
↓	↓	↓
2021. 8. 11 - 8. 20	통계 분석 결과 정리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 차이 분석 결과 정리 • 도민의 행복 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 분석 결과 정리 • 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의 관계 분석 결과 정리
↓	↓	↓
2021. 8. 21 - 8. 24	중간 보고서 개최	• 중간 보고서 작성 • 중간 보고서 개최
↓	↓	↓
2021. 8. 25 - 9. 15	정책 제안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도민의 행복지수 분석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 모색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	↓	↓
2021. 9. 16 - 9. 24	최종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정리	• 최종 보고서 작성 • 요약 보고서 작성
↓	↓	↓
2021. 9. 25 - 10. 15	최종 보고서 개최	• 최종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서 개최



이론적 배경

1. 행복플로리시와 긍정 심리
2. 출산율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3. 행복과 출산율 및 출산의지와의 관계

II. 이론적 배경

1. 행복플로리시와 긍정 심리

가. 긍정 심리와 웰빙이론

1) 긍정 심리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국립국어원, 2021)으로, 인간의 정서는 기쁨, 만족,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불안, 슬픔, 분노, 절망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구분된다. 행복은 즐거움 또는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불쾌감이나 부정적 정서를 느끼지 않는 경험이므로, 긍정심리학의 목표인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정적 정서를 낮춘다고 해서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우문식, 2012), 부정적 정서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정서는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키거나 긍정적 정서로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Tugade & Fredrickson, 2004). 즉, 부정적 정서는 승자와 패자를 가려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긍정적 정서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0보다 큰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는 윈-윈 게임에 속하게 된다.

한편, 행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에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가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Diener & Seligman, 2002). 그러나 부정적 정서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경우에 적응적으로 진화된 정서로서 부정적 정서가 삶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낀다고 해서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서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보이는 사람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비율은 2.9 대 1로 나타났다(Fredrickson & Losada, 2005). 즉, 긍정적 정서를 부정적 정서보다 3배 이상 느끼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적응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2.9 대 1의 긍정성 비율을 ‘로사다 비율(Losada Ration)’이라고 하였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비율이 11 대 1을 넘어서면 오히려 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 정서의 과도한 추구는 지속적인 행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권석만, 2013).

21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행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Martin Seligman을 비롯한 여러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행복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긍정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개척되었으며 행복을 비롯한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Seligman(1998)은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의 ‘긍정심리학’을 주장하였다. 즉,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강점과 재능을 함양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심리학의 중요한 사명을 재확인하고 구현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권석만, 2008).

특히, 긍정심리학은 긍정 상태(positive states), 긍정 특질(positive traits),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s) 등 <표 II-1>과 같이 세 가지 기둥을 포함한다(고영미, 2010).

<표 II-1> 긍정심리학의 세 가지 기둥

구분	특징
긍정 상태	-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적 심리 상태 연구 - 행복감, 안락감, 만족감, 사랑, 친밀감 등과 같은 긍정 정서를 비롯하여 자신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생각과 희망, 열정, 활기, 확신 등 포함 - 긍정 상태의 구성요소, 유발 요인, 삶에 미치는 효과, 증진 방법 등 규명
긍정 특질	- 개인이 지니는 긍정적인 특질, 즉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강점 연구 - 일시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긍정적인 행동양식이나 탁월한 성품과 덕목 - 창의성, 지혜, 끈기, 진실성, 겸손, 용기, 열정, 리더십, 낙관성, 유머, 영성 등
긍정 기관	- 구성원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기관, 제도에 대해 관심 -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특성과 실현방법 탐구

2) 웰빙 이론

기존의 긍정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Seligman, 2011).

첫째,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복은 긍정정서, 몰입, 의미의 세 가지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구분 짓는데 긍정정서는 단순히 기분 좋음이라는 단순한 감정만으로 인식되며, 몰입과 의미는 행복이라는 정서와는 깊은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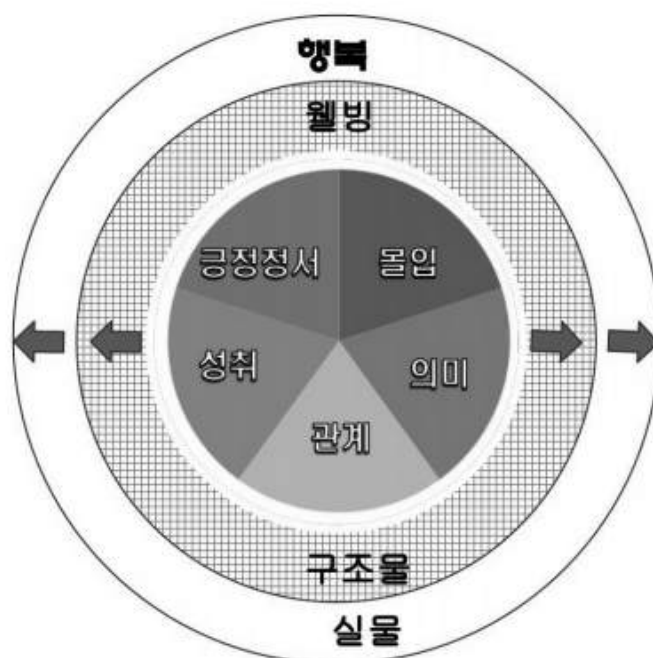
둘째, 행복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 점수를 적을 때 사람들은 그 질문을 받는 시점에서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현재의 순간이 삶의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결과론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행복감을 현재 측정자의 기분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수많은 측정치의 오류

를 양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진정한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정서, 몰입, 의미는 행복을 위해 사람들이 행위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면을 완벽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웰빙(well-being) 이론은 행복을 측정될 수 없는 실물(real thing)로 삶의 만족도에 의해 정의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Seligman, 2011). 즉,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실물이므로, 웰빙이라는 측정 가능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행복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그림 II-1] 참조).

특히, 웰빙이론에서는 행복한 삶의 기준에 ‘번영(flourish)’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번영’한 삶이란 번성과 풍족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 현재보다 더욱 풍족한 행복을 이루어지게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문용린, 2014). 즉, 행복이란 완성되는 단계가 아니라 매 순간 순간 자신의 삶을 번성해 나가고 풍족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가는 개념인 것이다. 이 ‘번영’한 삶, 즉 더욱 풍족한 행복을 위한 웰빙이론의 하위요인으로 Seligman은 PERMA를 제시하였는데, PERMA란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를 의미한다. 진정한 행복이론에서는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면 웰빙 이론에서는 번영(Flourish) 수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된다(이진남, 2016).



[그림 II-1] 웰빙이론의 구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심리학의 기존 이론과 새로운 이론을 비교하면 <표

II-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2〉 긍정심리학의 진화

구분	기존이론(진정한 행복)	새로운 이론(웰빙)
주제	행복	웰빙
측정 기준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	PERMA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 긍정적 관계, 성취)
목표	삶의 만족도 증가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 긍정적 관계, 성취의 증가에 의한 플로리시의 증가

출처: Seligman(2011/2011). p. 36.

나. 행복플로리시

1) 개념 및 특징

Keyes(2002)는 플로리시의 요소를 긍정적 관계, 긍정적 정서(흥미), 삶의 목적, 자아수용, 긍정적 정서(행복), 사회적 기여, 사회적 통합, 사회적 성장, 사회적 수용, 사회적 일관성, 환경 통제, 자율성, 삶의 만족 등 13가지 요소로 정의하였으며, Huppert와 So(2009)는 긍정적 관계, 몰입, 의미, 자아존중감, 긍정적 정서, 능력, 낙관성, 정서적 안정감, 활력, 회복력 등을 10가지 플로리시로 구분하였다.

또한, Diener 등(2010)은 긍정적 관계, 몰입, 목적과 의미, 자아수용과 자아존중감, 능력, 낙관성, 사회적 기여 등을 7가지 플로리시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Seligman(2011)이 제시한 웰빙 이론에서는 플로리시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는 기존 진정한 행복 이론의 요소였던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의미(meaning)에 관계(relation-ship)와 성취(accomplishment)를 추가하여 구성되어 있다(〈표 II-3〉 참조).

〈표 II -3〉 학자들의 행복 플로리시 요소

Keyes(2002)	Huppert & So (2009)	Diener et al (2010)	Seligman (2011/2011)
긍정적 관계	긍정적 관계	긍정적 관계	긍정적 관계
긍정적 정서(흥미)	몰입	몰입	몰입
삶의 목적	의미	목적과 의미	의미와 목적
자아수용	자아존중감	자아수용과 자아존중감	-
긍정적 정서(행복)	긍정적 정서	-	긍정적 정서
-	능력	능력	성취/능력
-	낙관성	낙관성	-
사회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사회적 통합	-	-	-
사회적 성장	-	-	-
사회적 수용	-	-	-
사회적 일관성	-	-	-
환경 통제	-	-	-
개인의 성장	-	-	-
자율성	-	-	-
삶의 만족도	-	-	-
-	정서적 안정감	-	-
-	활력	-	-
-	탄력성	-	-

출처: Hone, Jarden, Schofield, & Duncan(2014). p. 65.

2) 구성 요소

가) 긍정 정서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국립국어원, 2021)으로, 인간의 정서는 기쁨, 만족,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불안, 슬픔, 분노, 절망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구분된다. 행복이란 즐거움 또는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불쾌감이나 부정적 정서를 느끼지 않는 경험이므로, 긍정심리학의 목표인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정적 정서를 낮춘다고 해서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우문식, 2012), 부정적 정서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정서는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키거나 긍정적 정서로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Fredrickson, 2001; Tugade & Fredrickson, 2004).

한편, 행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에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가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Diener & Seligman, 2002). 즉, 긍정적 정서를 계발하고 경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한다(Fredric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그러나 부정적 정서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경우에 적응적으로 진화된 정서로서 부정적 정서가 삶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낀다고 해서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redrickson과 Losada(2005)는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서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보이는 사람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비율은 2.9 대 1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정서를 부정적 정서보다 3배 이상 느끼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적응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2.9 대 1의 긍정성 비율을 ‘로스다 비율(Losada ration)’이라고 하였다. 또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11 대 1을 넘어서면 오히려 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 정서의 과도한 추구는 지속적인 행복에 바람직하지 않다(권석만, 2013).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플로리시를 추구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긍정적 정서는 행복플로리시한 삶에 도달하게 하거나 최적의 웰빙 상태를 제공하며 부정 정서의 상호보완적인 정서로서 노력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 영역이다(Fredrickson, 2001). 또한, 긍정 정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긍정 정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자신의 강점과 미덕을 발휘하지 않고 외적인 자극을 이용하여 긍정 정서를 경험하려 한다면 끝에는 공허함, 불확실성,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Seligman, 2002, 2011).

나) 몰입

몰입이란 우리의 의식과 심리적 에너지가 질서 있게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최적의 상태로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경지를 말한다(Csikszentmihalyi, 1990). 즉, 몰입은 행복한 상태로서, 운동선수나 음악가, 비디오 게임에 열광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행동에 완벽하게 참여하는 느낌이며, 누구든지 어떠한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에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Wallis, 2005).

특히, Csikszentmihalyi(1990, 2000)는 몰입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홉 가지 공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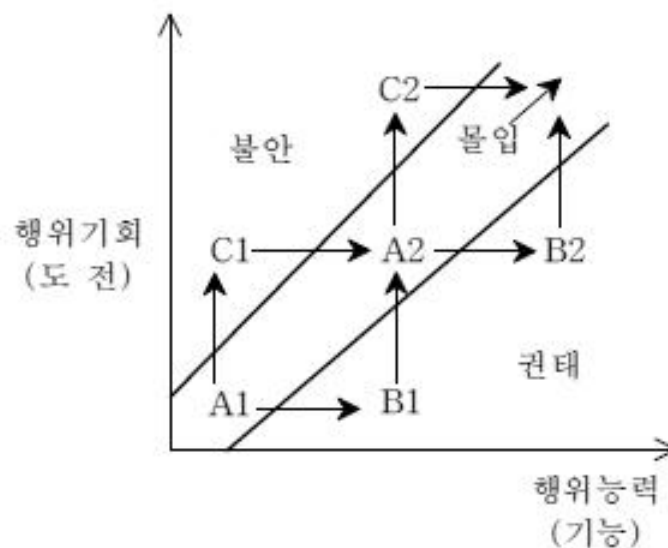
특징을 발견하였다(<표 II-4> 참조).

<표 II-4> 몰입의 요소

몰입의 9요소
1. 도전과 능력의 조화(challenge-skill balance)
2. 행위와 의식이 통합(action-awareness merging)
3. 명확한 목표(clear goals)
4. 구체적인 피드백(unambiguous feedback)
5. 과제에 대한 집중(concentration on task at hand)
6. 통제감(sense of control)
7. 자의식의 상실(loss of self-consciousness)
8. 시간감각의 왜곡(transformation of time)
9. 자기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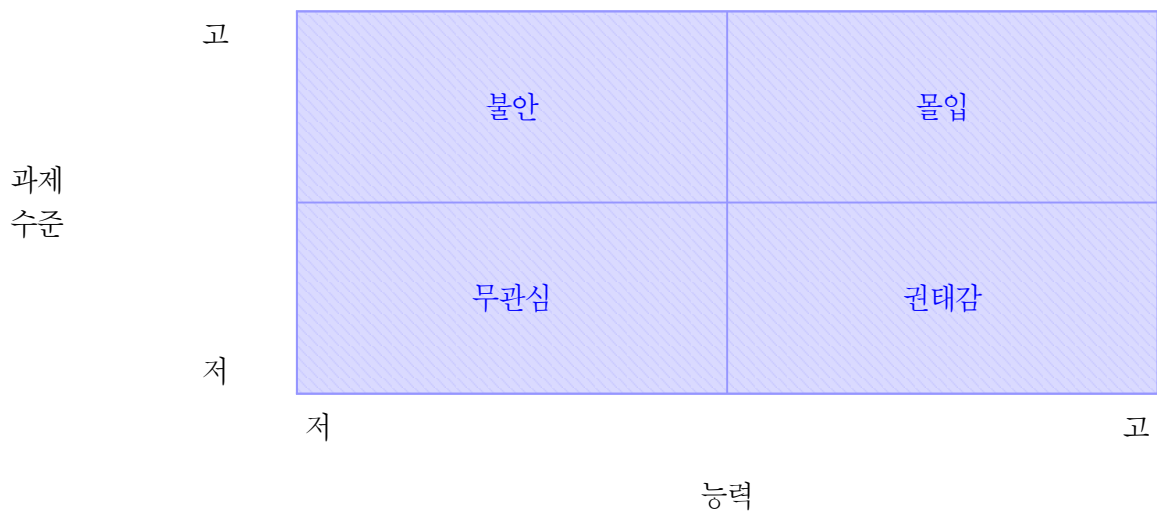
첫째, 몰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둘째,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셋째, 자신의 능력이 주어진 일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느낀다. 넷째, 하고 있는 일에 주의력이 집중된다. 다섯째,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의식한다. 여섯째, 무언가에 전념해 있기 때문에 실패를 생각하지 못한다. 일곱째, 자아를 망각하는 상태에 있어 역설적으로 자아가 확장된다. 여덟째, 시간을 잊게 된다. 아홉째,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을 통해 자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몰입의 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II-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90).



[그림 II-2] 몰입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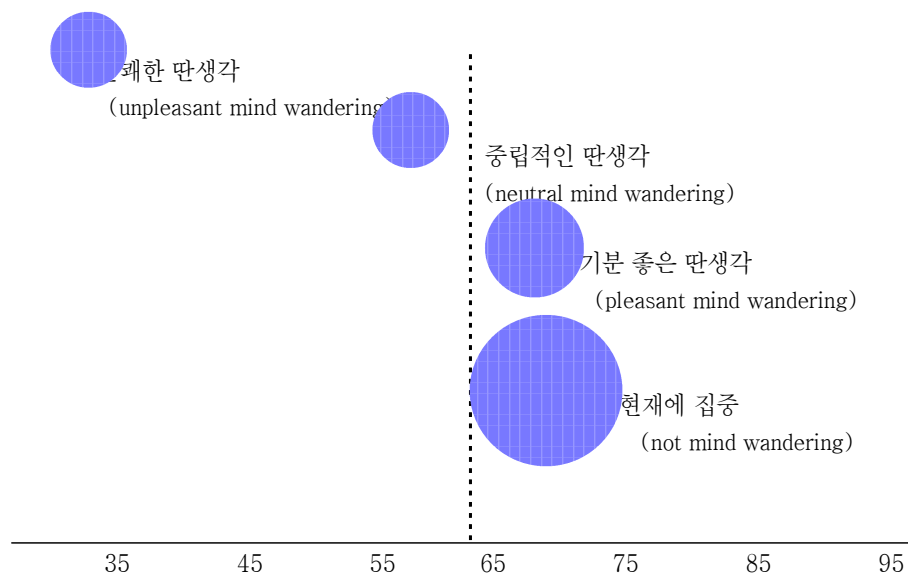
한편, 몰입의 경험은 즐거운(interesting) 경험, 내재적으로(intrinsic) 보상을 받는 경험, 전체적(holistic) 경험, 자기목적적(autotelic) 경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sikszentmihalyi, 2000). Csikszentmihalyi가 제시한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더욱 잘 일어난다(권석만, 2013).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는 활동을 할 때 더욱 잘 일어난다. 즉,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장기적이면 몰입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단기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몰입은 좀 더 쉬워진다. 둘째, 몰입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활동에서 잘 일어난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쉽게 몰입하게 된다. 셋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과제의 수준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과제의 수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낮을 때는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과제의 수준이 높을 때는 불안과 긴장의 상태를 경험하여 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든다. 과제와 능력의 수준이 둘 다 낮은 경우는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이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최고의 수준을 발휘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는 몰입을 유발하게 된다. 넷째, 자신의 흥미와 과제의 특성이 일치할 때 몰입이 잘 일어난다. 즉, 몰입은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제시된 과제가 자신의 흥미나 즐거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는 무아지경의 상태인 몰입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II-3] 과제 수준과 능력과의 관계

또한, 몰입에는 소모적 몰입과 생산적 몰입의 두 가지 종류의 몰입이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문용린, 2014). 첫째, 한순간의 쾌락적 즐거움에서 오는 몰입을 소모적 몰입 또는 거짓 몰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모적 몰입은 행복플로리시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몰입의 순간이 지나면 허무감이나 불행감을 느끼기도 한다. 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은 몰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발전과 혜택을 주지 않는다. 둘째, 행복플로리시한 삶과 관련

된 생산적 몰입이다. 생산적 몰입이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전적 몰입을 의미하며, 활동에서 즐거움과 지속적인 만족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몰입의 상태가 나타난다(Csikszentmihalyi, 2004). 즉, 생산적 몰입은 몰입 당시에는 대체로 사고와 감정이 결여되어 있고,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이후 소모적 몰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감을 가지게 된다. 즉, 동일한 조건 속에서 몰입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플로리시해질 수 있게 된다(Csikszentmihalyi, 2000). 즉, 몰입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복, 능력, 동기부여, 존재감, 낙관성, 미래지향성 등을 수반하는(Bormans, 2012) 행복의 필수적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중 몰입한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 경험의 질이 향상되었다(LeFevre, 1988). 또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현재에 집중(not mind wandering)하는 사람이 불쾌한 판생각(unpleasant mind wandering), 중립적인 판생각(neutral mind wandering), 기분 좋은 판생각(pleasant mind wandering)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llingsworth & Gilbert, 2010).



[그림 II-4] 몰입과 행복과의 관계

출처: Killingsworth & Gillbert (2010). p. 932.

다) 관계

인간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하며, 이러한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송명자, 이현림, 2008). Ryff와 Singer(2000)의 연구에서는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나은 건강과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가족, 친구와의 정서적 소통, 친밀감, 대화 등은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건강도 좋아지게 한다

(Bormans, 2012).

특히, 행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높은 정신건강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높은 사회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꼽힌 22명 중 1명을 제외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ener & Seligman, 2002). 또한, 행복한 사람은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친구와 동료의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Lyubomirsky, 2008). 덜 행복한 사람보다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한편 Christakis와 Fowler(2010)는 10년간 1만 2067명을 대상으로 3단계 영향 법칙을 완성하였는데, 3단계 영향 법칙이란 3단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친구(1단계), 친구의 친구(2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3단계)에게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자신 또한, 3단계 거리 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라) 의미

삶의 의미는 자신의 생활과 인생에서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기 위한 행복의 필수적 요소이다(인보영, 김인옥, 2012; Ryff, 1995). 삶의 방향성에 의해 우리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목표 가치를 찾게 되고 경험들을 평가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Frankl(1963)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로서 시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 충족감과 행복감에 도달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Ryff와 Singer(1998)는 삶의 의미가 긍정적인 정신 건강에 기여하는 요인을 넘어서 웰빙 그 자체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수준일 때보다 주관적 안녕감과 의미가 합해졌을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신 건강이 유발될 수 있다(Keyes, 2007).

한편, 삶의 의미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는 행복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수면의 질, 식사 및 운동 등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정영숙, 조설애, 2013), 주관적 안녕감과 우울 등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2013). 또한, 삶의 의미가 높을 수록 자존감,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는 높아지고, 대인관계에서 불편감과 회피수준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최명심, 2011),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김경희, 2011) 긍정적 정서와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이희경, 김경희, 2013).

마) 성취

성취는 장애를 극복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가능한한 어려운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려는 욕망이다(Murray, 1938). 성취는 사람들이 긍정적 정서나 삶의 의미, 긍정적 인간관계를 제외한 상황에서도 그 자체가 좋아서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은 성취만을 위해 전념하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Seligman, 2011).

특히, 성취를 위한 목표는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사회적 명성, 돈, 용모, 권력 등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타인과 비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외재적 목표이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자체를 배우며, 자신의 관심, 가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내재적 목표이다(Vansteenkiste, Soenens, & Duriez, 2008).

한편, 행복은 우연히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증진될 수 있으며(홍은숙, 2012), 목표로 삼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수반해야 하며, 이때 노력과 의지 없이 얻어진 성취 결과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문용린, 2014).

2. 출산율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가져올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배광일, 2011).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유독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2006년 사이에 합계출산율 6과 평균수명 58세의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고출산 시대에서 출산율 1.13와 평균수명 78세에 이른 소산소사(少産少死)의 저출산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강혜진, 2009).

특히, 출산은 여성의 가임기간 중 발생 가능한 행위로서 결혼에 의한 여성의 가임 연령은 곧 여성의 출산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성의 교육기회, 취업, 결혼에 영향을 줌으로써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성혜 외, 1991). 즉,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출산 결정을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한다. 사랑과 애정이라는 개인적 감정에 서부터 결혼과 부양이라는 제도적 환경 그리고 삶의 행복과 죽음이라는 개인의 생애 전부가 개입된다(김경희 외, 2018). 또한, 성숙의 시기(연령), 성불구 등 성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불임, 월경 등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이 일차적으로 출산력의 한계를 결정하지만, 결혼, 피임여부, 고용, 소득 등 이차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출산은 가임능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한다(이희연, 2003).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을 우선시하였으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의 권위를 더 존중하는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란 인생에 있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며, 결혼을 통한 가족관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체계 속에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결혼관 및 가족이념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족의 기능과 제도적 역할을 중요시하던 견해에서 부부간의 성이나 상호성장 기회로서의 견해로 바뀌어 가고 있다(백나영, 2013). 개인의 의식은 집단주의 의식에서 개인주의 의식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결혼은 점차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처럼 바뀌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에 대한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방은령, 신효영, 2006).

출산은 여러 가지 인구학적인 요인을 비롯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 역시 인구학적 및 사회적 조건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생률은 가족가치의 규범을 비롯한 성의 선호 정도, 제도적 규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사회학적, 경제학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Chesnais, 2008). 출산력의 차이는 생물학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 가지 요인으로 출산율의 차이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는 기본적 요인에 대해서는 시간과 사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권태환, 김두섭, 2002).

한편, 한 사회의 출산 행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Total Fertility Rate(합계출산율)이다. 이는 가임기 연령인 15~49세의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1년간 출생한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며, 결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없다(김승권, 2003). 출산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합계출산율이 출산율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이지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한유미 외, 2004)

첫째, General Fertility Rate(GFR: 일반출산율)는 가임연령은 보통 15세~49세가 통용되며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 1,000명에 대해 산정한 것인데, 미국은 만15~4세로 규정하여 나라별로 상이하므로 국제적으로 비교할 시에는 가임연령 범위의 확인을 나라별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Age Specific Fertility Rate(ASFR: 연령별 출산율)는 가임기 여성(15~49세)을 5세 간격으로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특정 연도에 연령대별 가임여성 1,000명이 1년간 출생한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으로 연령대별 출산력 수준을 알 수 있으며 20대 후반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 만혼의 추세로 출산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다. 셋째, Replacement Level Fertility Rate(RLFR: 대체출산율)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부모를 대체하는데 필요한 다음 세대의 출산수준을 말한다. 인구의 규모

와 구조가 거의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합계출산율은 2.1명, 후진국에서는 2.5명으로 정하고 있다(한유미 외, 2004).

최근 출산율 저하는 출산, 결혼, 이혼 등 개인 가치관의 변화가 여성의 출산의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교육수준 향상,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 변화, 만혼, 비혼 등 출산기피 현상으로 저출산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13). 홍성란(2016)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장려금(합계)을 일천만원 지원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7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합계)을 많이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임신·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출산율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출산과 양육에 따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 마련, 여성 근로자의 육아환경 조성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2009)의 연구에서 다자녀 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다를지라도 임신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결정적 동기는 부모의 가치관과 종교의 영향이 있었고, 다자녀 가정에서 가정 내 역할 분담이나 공평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을 한 여성에게서 자녀 출산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국가보조금에는 관심이 있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건전한 가치관 성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혜택과 남성의 가사와 양육의 도움이 뒤따라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미래 출생될 자녀를 결정짓는 계획을 출산의지라고 하며 출생된 자녀와는 구별된다. 미래 출산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출산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미래 계획을 의미하는데, 그 의지가 반드시 출산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출산은 생각이나 계획만으로는 자녀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의지는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출산의지는 ‘미래 자녀에 대한 자신의 의사나 욕구, 태도 또는 생각의 의미가 있으며, 자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난 후에 자녀가 태어나는 행태로 이루어진다(박영애, 2012).

특히, 백나영(2013)의 연구에 의하면 출산의지가 사회경제적 요인, 출산정책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직업을 가진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많을수록, 주거 형태는 자가 일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높은 출산의지를 높게 나타냈다. 공선영(2006)의 연구에서도 희망 자녀수에 대해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대졸여성들이 더 많은 수의 자녀를 희망한다는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또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 월 소득, 모의 직업보유,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등으로 나타났다(강경수 외, 2006; 류연규, 2005; 이시원 외, 2006). 출산정책적 요인으로는 2자녀 이상 교육비, 보육비 지원 및 양육비 지원이 출산의지를 높게 나타냈고, 가치관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고, 학력이 대졸 이상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출산의지에 대한 가치관이 높았다.

또한, 배광일(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은 생태학적 변인, 즉 인간의 생활환경에 따른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녀수 0~1명 집단은 미시체계 변인(자녀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부친밀도), 외체계 변인(보육비 부담감, 믿고 맡길만한 보육 장소 유무), 거시체계 변인(일반적인 우리사회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지정도, 향후 자녀출산 시 정책의 영향에 대한 인지정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자녀수 2명 이상 집단은 개인유기체 변인(성별, 아내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출생순위, 원가족형제수), 외체계 변인(보육비 부담감, 믿고 맡길만한 보육 장소 유무)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상승을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총괄적인 생태학적 접근방법으로 출산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한두 가지의 중점적 지원이나 정책 추진 보다는 출산지원정책과 경제정책, 가족정책 등 상호 관련 있는 여러 정책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홍성란(2016)에 의하면 출산장려정책 만족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 중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출산장려정책이었는데, 출산장려정책이 1단위 높아질 때 출산의지는 0.1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가치관적 요인 중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인은 자녀관과 인생관이었으며, 자녀관이 1단위 긍정적일수록 0.49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인생관은 1단위 긍정적일수록 0.1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지가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설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여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긍정적 가치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출산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3. 행복과 출산율 및 출산의지와의 관계

가. 행복과 출산율의 관계

Dalai Lama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Dalai & Cutler, 1998/2001) 언급하기도 하였듯이 궁극적으로 인간은 더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누구나 행복을 경험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강현미, 2016). 경제적인 윤택함으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자, 유한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하는 근원적인 주제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많아졌다(김경미, 2017). 행복에 대한 관심은 급속한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의학의 발달에 따른 삶의 방향 변화,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추구로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김종순, 오세숙, 윤소영, 2016).

또한,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이 적극적이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주장하였고,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행복 덕에 생존하고 번식하며 목표를 갖고 생활한다고 한다(Seligman & Pawelski, 2003). 즉, 행복이 생존과 번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행복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서구의 연구들은 행복감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고 하고 있다(정선영, 2016).

특히, Parr(2010)는 호주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측정 2년 후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독일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Le Moglie et al., 2015)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주관적 안녕은 삶의 만족도, 행복 등과 교차사용이 가능한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며 인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Diener, 1984).

한편,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여성 자신의 행복과 심리적·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남편의 결혼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허은경, 2014; Proulx et al., 2007), 기혼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결혼만족도는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생애사건이 여성의 결혼생활 경험에 미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비슷한 연구의 연장에서 이진숙과 최원석(2012)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결혼행복감은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결혼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감이 높을수록 출산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개인은 그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을 결

정한다고 한다(Carmichael & Whittaker, 2007)는 연구와도 결과를 같이 한다. 또한, 남편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태현, 박주희, 2005; 김혜정, 그레이스정, 2019; 이미숙, 1997), 행복감이 높은 개인은 본인의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을 물려받아 행복감이 높은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출산을 결정할 확률이 높다(Kohler et al.,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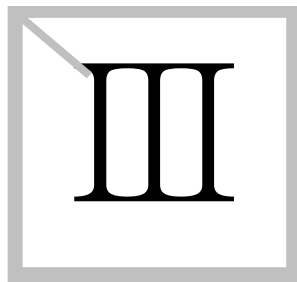
나. 행복과 출산의지의 관계

출산은 한 지역이나 시대의 사회, 경제, 가치관, 정책적 조건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인구 학자와 사회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고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져 왔다(공선영, 2006).

출산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출산행동의 요인인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양육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출산은 부부의 선택이고,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족생활사건(천혜정, 2005)이기에 부부 간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 그리고 부모됨의 태도인 자녀가치나 양육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특히,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긍정적인 결혼만족도(김은경, 2014)와 양육참여도는(임현주, 이대균, 2013)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함께 어머니의 출산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배우자 간의 친밀감과 결속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출산의지는 높으며(강유진, 2005), 부부간의 태도, 성격, 생각의 일치 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김미경, 고재홍 2008).

또한,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출산의지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심도담, 2017)나 자녀에 대한 심리적 가치가 높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김수진, 2009), 자녀를 통해 느끼는 행복감은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의지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백승숙, 2019)는 결국 개인이 느끼는 만족과 행복감이 출산의지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1. 전체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분석
2. 시군별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분석
3. 상관관계 분석
4.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분석
5.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분석
6.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차이 분석
7.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 차이 분석
8.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출산의향 및 의지에 미치는 영향

Ⅲ.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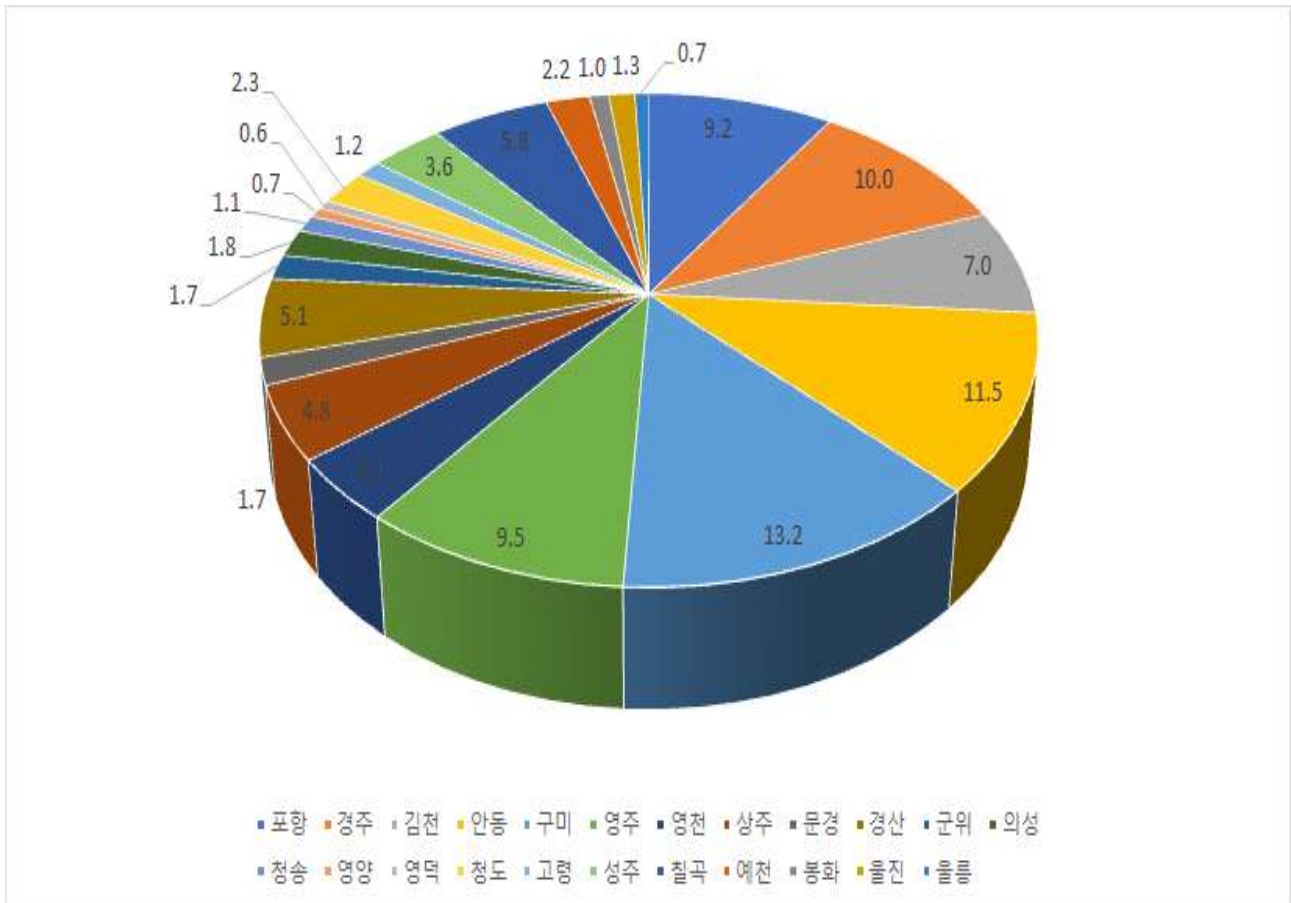
1. 전체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분석

가. 설문 응답자 분석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경북도민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구미(13.19%), 안동(11.46%), 경주(9.98%), 영주(9.46%), 포항(9.2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인원은 1,152명이다.

〈표 Ⅲ-1〉 경상북도 시군지역 설문 응답 인원 및 백분율

시군 지역	인원	백분율(%)
포항 ①	106	9.2
경주 ②	115	10.0
김천 ③	81	7.0
안동 ④	132	11.5
구미 ⑤	152	13.2
영주 ⑥	109	9.5
영천 ⑦	47	4.1
상주 ⑧	55	4.8
문경 ⑨	20	1.7
경산 ⑩	59	5.1
군위 ⑪	19	1.7
의성 ⑫	21	1.8
청송 ⑬	13	1.1
영양 ⑭	8	0.7
영덕 ⑮	7	0.6
청도 ⑯	27	2.3
고령 ⑰	14	1.2
성주 ⑱	41	3.6
칠곡 ⑲	67	5.8
예천 ⑳	25	2.2
봉화 ㉑	11	1.0
울진 ㉒	15	1.3
울릉 ㉓	8	0.7
전체	1,152	100%



[그림 III-1] 경상북도 시군지역 설문 응답 비교

나.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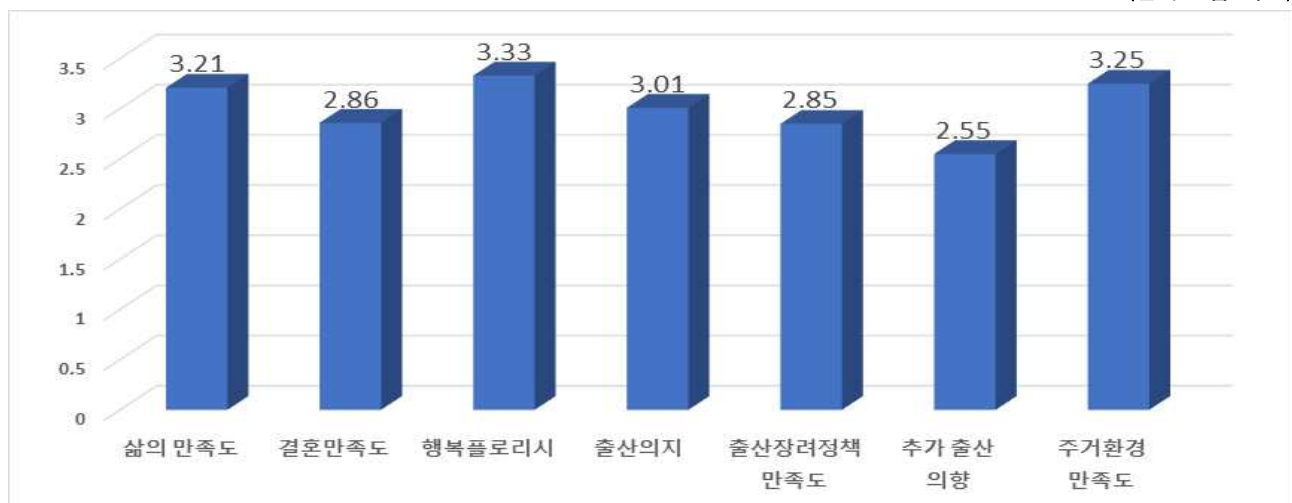
경북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행복플로리시(3.33), 주거환경 만족도(3.25), 삶의 만족도(3.21), 결혼만족도(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북도민의 생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삶의 만족도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산 만족도 및 출산 의지를 살펴보면 출산의지(3.01), 출산장려정책 만족도(2.85), 추가 출산 의향(2.55)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북도민의 출산 만족도 및 출산 의지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출산의지가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출산장려정책 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향상되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I-2> 참조).

〈표 III-2〉 경북도민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전체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3.21	0.82
결혼만족도	2.86	0.57
행복플러스리시	3.33	0.76
출산의지	3.01	0.59
출산장려정책 만족도	2.85	0.85
추가 출산 의향	2.55	1.47
주거환경 만족도	3.25	0.96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2] 경북도민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전체 비교

2. 시군별 행복지수 및 출산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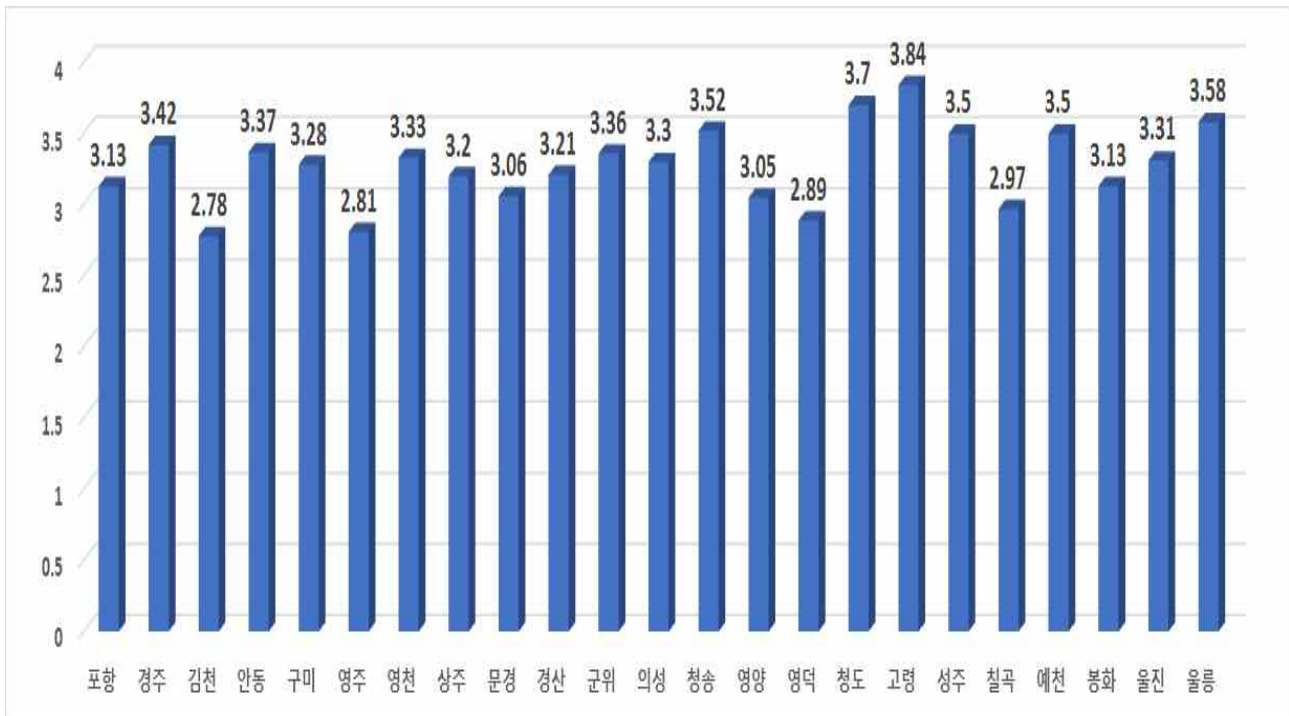
가. 시군별 삶의 만족도 분석

경북도민의 시군별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고령(3.84), 청도(3.70), 울릉(3.58), 청송(3.52), 예천(3.50)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김천(2.78), 영주(2.81), 영덕(2.89)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3〉 경상북도 시군별 삶의 만족도 분석

시군 지역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포항 ①	106	3.13	0.79
경주 ②	115	3.42	0.83
김천 ③	81	2.78	0.70
안동 ④	132	3.37	0.82
구미 ⑤	152	3.28	0.80
영주 ⑥	109	2.81	0.82
영천 ⑦	47	3.33	0.70
상주 ⑧	55	3.20	0.85
문경 ⑨	20	3.06	1.03
경산 ⑩	59	3.21	0.80
군위 ⑪	19	3.36	0.95
의성 ⑫	21	3.30	0.74
청송 ⑬	13	3.52	0.92
영양 ⑭	8	3.05	0.61
영덕 ⑮	7	2.89	0.74
청도 ⑯	27	3.70	0.44
고령 ⑰	14	3.84	0.58
성주 ⑱	41	3.50	0.76
칠곡 ⑲	67	2.97	0.77
예천 ⑳	25	3.50	0.77
봉화 ㉑	11	3.13	0.91
울진 ㉒	15	3.31	0.77
울릉 ㉓	8	3.58	0.43
전체	1,152	3.21	0.82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3] 경북도민의 시군별 삶의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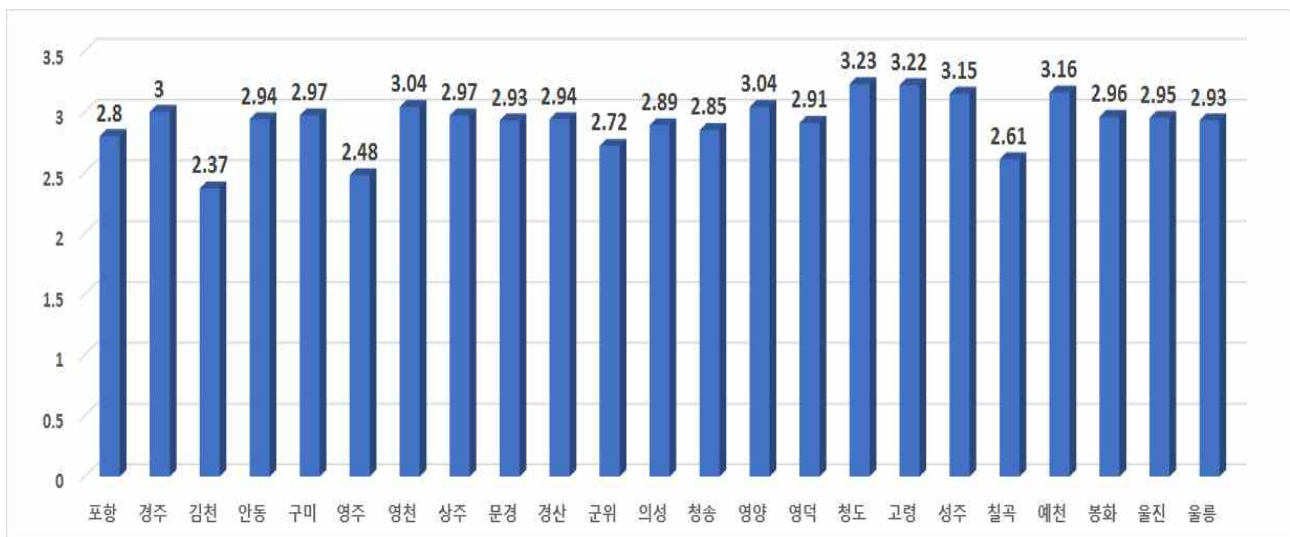
나. 시군별 결혼 만족도 분석

경북도민의 시군별 결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청도(3.23), 고령(3.22), 성주(3.15), 영양(3.04), 경주(3.00)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김천(2.37), 영주(2.48), 칠곡(2.61), 군위(2.72)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4〉 경상북도 시군별 결혼 만족도 분석

시군 지역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포항 ①	106	2.80	0.58
경주 ②	115	3.00	0.55
김천 ③	81	2.37	0.41
안동 ④	132	2.94	0.58
구미 ⑤	152	2.97	0.51
영주 ⑥	109	2.48	0.57
영천 ⑦	47	3.04	0.41
상주 ⑧	55	2.97	0.53
문경 ⑨	20	2.93	0.52
경산 ⑩	59	2.94	0.50
군위 ⑪	19	2.72	0.45
의성 ⑫	21	2.89	0.59
청송 ⑬	13	2.85	0.78
영양 ⑭	8	3.04	0.46
영덕 ⑮	7	2.91	0.57
청도 ⑯	27	3.23	0.43
고령 ⑰	14	3.22	0.49
성주 ⑱	41	3.15	0.43
칠곡 ⑲	67	2.61	0.51
예천 ⑳	25	3.16	0.54
봉화 ㉑	11	2.96	0.69
울진 ㉒	15	2.95	0.23
울릉 ㉓	8	2.93	0.23
전체	1,152	2.86	0.57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4] 경북도민의 시군별 결혼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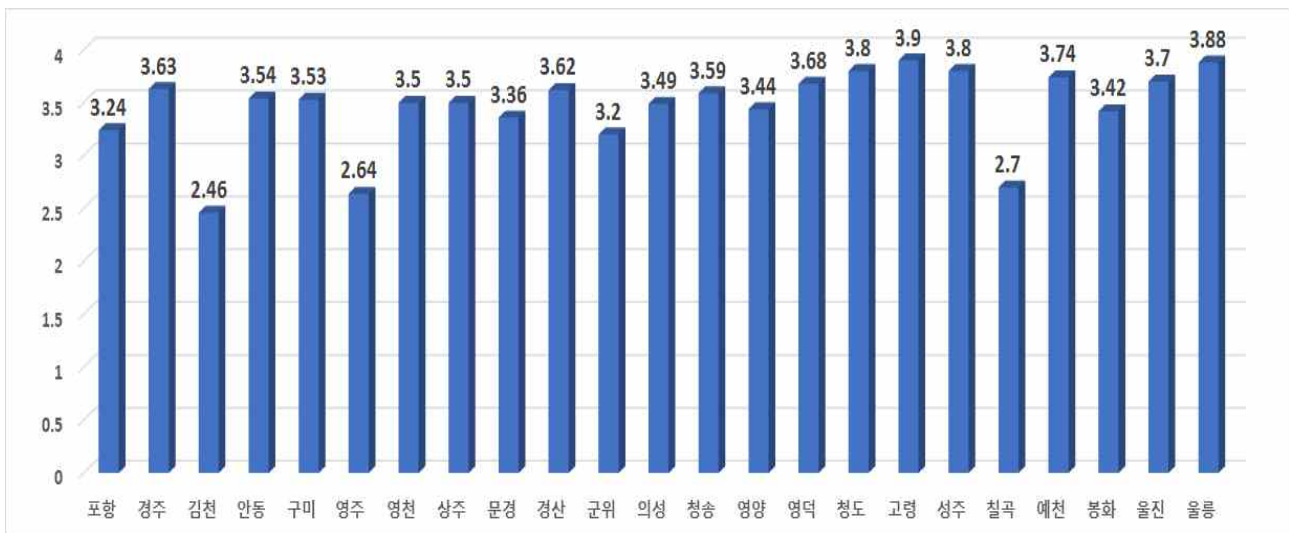
다. 시군별 행복플로리시 분석

경북도민의 시군별 행복플로리시를 분석한 결과, 고령(3.90), 울릉(3.88), 청도(3.80), 성주(3.80), 예천(3.74)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김천(2.46), 영주(2.64), 칠곡(2.70)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5〉 경상북도 시군별 행복플로리시 분석

시군 지역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포항 ①	106	3.24	0.79
경주 ②	115	3.63	0.65
김천 ③	81	2.46	0.51
안동 ④	132	3.54	0.61
구미 ⑤	152	3.53	0.57
영주 ⑥	109	2.64	0.77
영천 ⑦	47	3.50	0.59
상주 ⑧	55	3.50	0.65
문경 ⑨	20	3.36	0.85
경산 ⑩	59	3.62	0.61
군위 ⑪	19	3.20	0.89
의성 ⑫	21	3.49	0.54
청송 ⑬	13	3.59	0.59
영양 ⑭	8	3.44	0.71
영덕 ⑮	7	3.68	0.68
청도 ⑯	27	3.80	0.41
고령 ⑰	14	3.90	0.48
성주 ⑱	41	3.80	0.61
칠곡 ⑲	67	2.70	0.48
예천 ⑳	25	3.74	0.61
봉화 ㉑	11	3.42	0.80
울진 ㉒	15	3.70	0.50
울릉 ㉓	8	3.88	0.39
전체	1,152	3.33	0.76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5] 경상북도민의 시군별 행복플로리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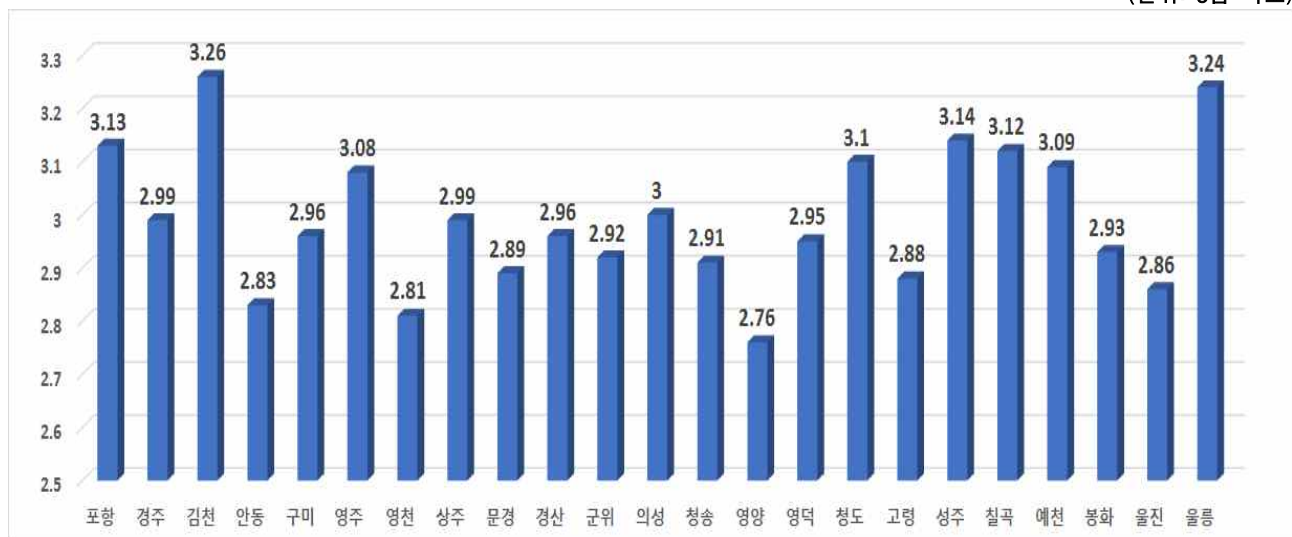
라. 시군별 출산 의지 분석

경북도민의 시군별 출산 의지를 분석한 결과, 김천(3.26), 울릉(3.24), 성주(3.14), 포항(3.13), 칠곡(3.12)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영양(2.76), 영천(2.81), 안동(2.83), 고령(2.88)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6〉 경상북도 시군별 출산 의지 분석

시군 지역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포항 ①	106	3.13	0.57
경주 ②	115	2.99	0.67
김천 ③	81	3.26	0.59
안동 ④	132	2.83	0.60
구미 ⑤	152	2.96	0.59
영주 ⑥	109	3.08	0.54
영천 ⑦	47	2.81	0.58
상주 ⑧	55	2.99	0.60
문경 ⑨	20	2.89	0.57
경산 ⑩	59	2.96	0.44
군위 ⑪	19	2.92	0.65
의성 ⑫	21	3.00	0.62
청송 ⑬	13	2.91	0.59
영양 ⑭	8	2.76	0.35
영덕 ⑮	7	2.95	0.51
청도 ⑯	27	3.10	0.54
고령 ⑰	14	2.88	0.60
성주 ⑱	41	3.14	0.63
칠곡 ⑲	67	3.12	0.47
예천 ⑳	25	3.09	0.68
봉화 ㉑	11	2.93	0.44
울진 ㉒	15	2.86	0.48
울릉 ㉓	8	3.24	0.26
전체	1,152	3.01	0.59

(단위: 5점 척도)



[그림 Ⅲ-6] 경북도민의 시군별 출산 의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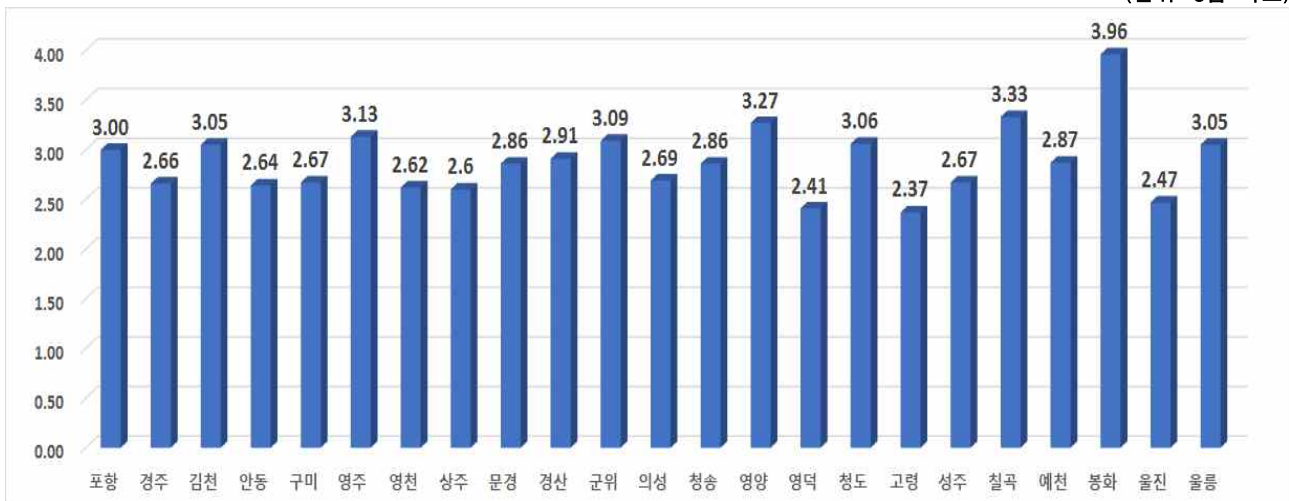
마. 시군별 출산 정책 만족도 분석

경북도민의 시군별 출산 정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봉화(3.96), 칠곡(3.33), 영양(3.27), 영주(3.13), 군위(3.09)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령(2.37), 영덕(2.41), 울진(2.4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7〉 경상북도 시군별 출산 정책 만족도 분석

시군 지역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포항 ①	106	3.00	0.82
경주 ②	115	2.66	0.92
김천 ③	81	3.05	0.76
안동 ④	132	2.64	0.72
구미 ⑤	152	2.67	0.78
영주 ⑥	109	3.13	0.92
영천 ⑦	47	2.62	0.76
상주 ⑧	55	2.60	0.89
문경 ⑨	20	2.86	0.79
경산 ⑩	59	2.91	0.74
군위 ⑪	19	3.09	0.77
의성 ⑫	21	2.69	0.89
청송 ⑬	13	2.86	0.92
영양 ⑭	8	3.27	1.13
영덕 ⑮	7	2.41	0.92
청도 ⑯	27	3.06	0.74
고령 ⑰	14	2.37	0.87
성주 ⑱	41	2.67	0.86
칠곡 ⑲	67	3.33	0.67
예천 ⑳	25	2.87	1.01
봉화 ㉑	11	3.96	1.00
울진 ㉒	15	2.47	0.75
울릉 ㉓	8	3.05	0.49
전체	1,152	2.85	0.85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7] 경북도민의 시군별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바. 시군별 추가 출산 의향 분석

경북도민의 시군별 추가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 김천(3.95), 칠곡(3.73), 영주(3.56)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경주(1.77), 의성(1.86), 영양(1.88), 청송(2.00), 영덕(2.00)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8〉 경상북도 시군별 추가 출산 의향 분석

시군 지역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포항 ①	106	2.68	1.46
경주 ②	115	1.77	1.16
김천 ③	81	3.95	1.27
안동 ④	132	2.21	1.39
구미 ⑤	152	2.13	1.27
영주 ⑥	109	3.56	1.42
영천 ⑦	47	2.43	1.26
상주 ⑧	55	2.24	1.41
문경 ⑨	20	2.25	1.52
경산 ⑩	59	2.29	1.19
군위 ⑪	19	2.42	1.07
의성 ⑫	21	1.86	1.24
청송 ⑬	13	2.00	1.22
영양 ⑭	8	1.88	1.64
영덕 ⑮	7	2.00	1.29
청도 ⑯	27	2.15	1.10
고령 ⑰	14	2.21	1.31
성주 ⑱	41	2.07	1.37
칠곡 ⑲	67	3.73	1.30
예천 ⑳	25	2.40	1.41
봉화 ㉑	11	2.45	1.29
울진 ㉒	15	2.40	1.40
울릉 ㉓	8	2.88	0.64
전체	1,152	2.55	1.47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8] 경북도민의 시군별 추가 출산 의향 비교

사. 시군별 주거 환경 만족도 분석

경북도민의 시군별 주거 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예천(3.76), 경주(3.64), 안동(3.64), 성주(3.59), 청도(3.59)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김천(2.37), 영주(2.58), 칠곡(2.66)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9〉 경상북도 시군별 주거 환경 만족도 분석

시군 지역	인원	평균	표준편차
포항 ①	106	3.20	0.98
경주 ②	115	3.64	0.83
김천 ③	81	2.37	0.75
안동 ④	132	3.64	0.76
구미 ⑤	152	3.50	0.85
영주 ⑥	109	2.58	0.84
영천 ⑦	47	3.38	0.87
상주 ⑧	55	3.24	1.14
문경 ⑨	20	3.30	1.08
경산 ⑩	59	3.47	0.68
군위 ⑪	19	3.00	1.11
의성 ⑫	21	3.19	0.93
청송 ⑬	13	3.85	1.07
영양 ⑭	8	3.00	1.07
영덕 ⑮	7	3.43	0.53
청도 ⑯	27	3.59	0.84
고령 ⑰	14	3.21	1.05
성주 ⑱	41	3.59	0.87
칠곡 ⑲	67	2.66	0.77
예천 ⑳	25	3.76	0.72
봉화 ㉑	11	3.27	0.90
울진 ㉒	15	3.40	0.99
울릉 ㉓	8	3.00	0.76
전체	1,152	3.25	0.96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9] 경북도민의 시군별 주거 환경 만족도 비교

3. 상관관계 분석

경북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및 출산의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행복플로리시(0.705), 결혼만족도(0.567), 주거환경만족도(0.484)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행복플로리시(0.640), 주거환경만족도(0.418)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플로리시는 삶의 만족도(0.705), 결혼만족도(0.640), 결혼만족도(0.5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의지는 추가 출산의향(0.189), 출산정책만족도(0.164)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출산정책만족도는 삶의 만족도(0.187), 출산의지(0.164), 추가 출산의향(0.114)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추가 출산의향은 주거환경만족도(0.246), 행복플로리시(0.234), 출산의지(0.189), 출산정책만족도(0.114)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주거환경만족도,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과 출산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0〉 상관 관계 분석 결과

구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 플로리시 전체	행복플로리시 하위 요소					출산 의지	출산 장려 정책 만족도	추가 출산 의향	주거 환경 만족도
				긍정 적정 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삶의 만족도	1											
결혼 만족도	.567**	1										
행복플로리시 전체	.705**	.640**	1									
행복플로리시 하위 요소	긍정 적정 서	.689**	.601**	.892**	1							
	몰입	.588**	.523**	.870**	.748**	1						
	관계	.622**	.632**	.914**	.794**	.762**	1					
	의미	.656**	.582**	.917**	.770**	.780**	.848**	1				
	성취	.622**	.569**	.923**	.762**	.751**	.805**	.824**	1			
출산의지	-.022	.008	.057	.070*	.034	.109**	.054	.038	1			
출산장려 정책 만족도	.187**	.087**	.076*	.060*	.047	.006	.065*	.069*	.164**	1		
추가 출산의향	.065*	.092**	.234**	.221**	.224**	.217**	.218**	.234**	.189**	.114**	1	
주거환경 만족도	.484**	.418**	.570**	.521**	.483**	.533**	.491**	.534**	-.165**	.084**	.246**	1

*p< .05, **p< .01

4.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분석

가.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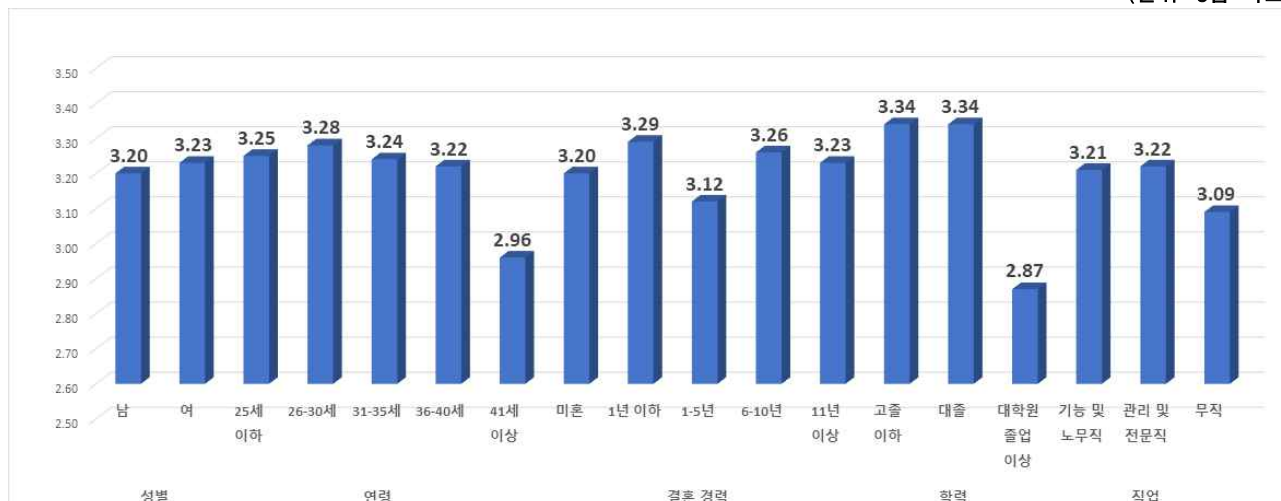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5$), 학력($p<.01$), 월 평균소득($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세 이하가 41세 이상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도민이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3.20	0.86	.44	
		여	659	3.23	0.79		
	연령	25세 이하 (A)	110	3.25	0.91	3.22*	A, B, C, D > E
		26-30세 (B)	222	3.28	0.83		
		31-35세 (C)	285	3.24	0.82		
		36-40세 (D)	423	3.22	0.80		
		41세 이상 (E)	112	2.96	0.75		
	결혼 경력	미혼	165	3.20	0.86	1.19	
		1년 이하	109	3.29	0.84		
		1-5년	241	3.12	0.81		
		6-10년	221	3.26	0.79		
		11년 이상	416	3.23	0.82		
	학력	고졸 이하 (A)	90	3.34	0.86	39.48**	A, B > C
		대졸 (B)	755	3.34	0.76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2.87	0.84		
	직업	기능 및 노무직	143	3.21	0.82	0.93	
		관리 및 전문직	936	3.22	0.82		
		무직	73	3.09	0.80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0]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비교

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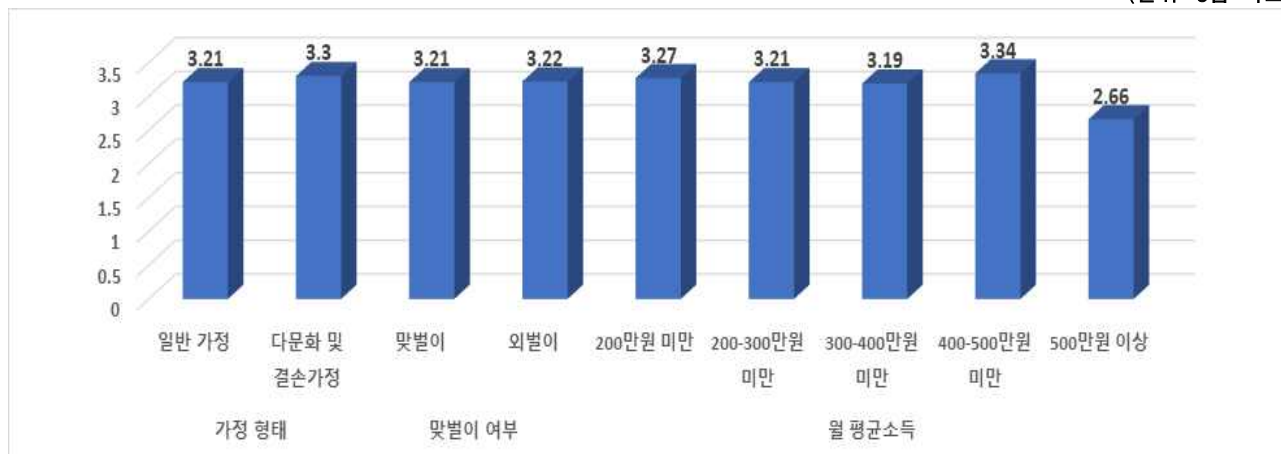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미만이 500만원 이상 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3.21	0.82	1.22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30	0.76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3.21	0.83	0.07	
		외벌이	328	3.22	0.79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3.27	0.89	12.97**	A,B,C,D > E
		200-300만원 미만 (B)	227	3.21	0.76		
		300-400만원 미만 (C)	267	3.19	0.79		
		400-500만원 미만 (D)	360	3.34	0.81		
		500만원 이상 (E)	89	2.66	0.72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1]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비교

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 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군지역에서는 경주, 청송, 청도, 고령 지역이 김천, 영주, 영덕, 칠곡 지역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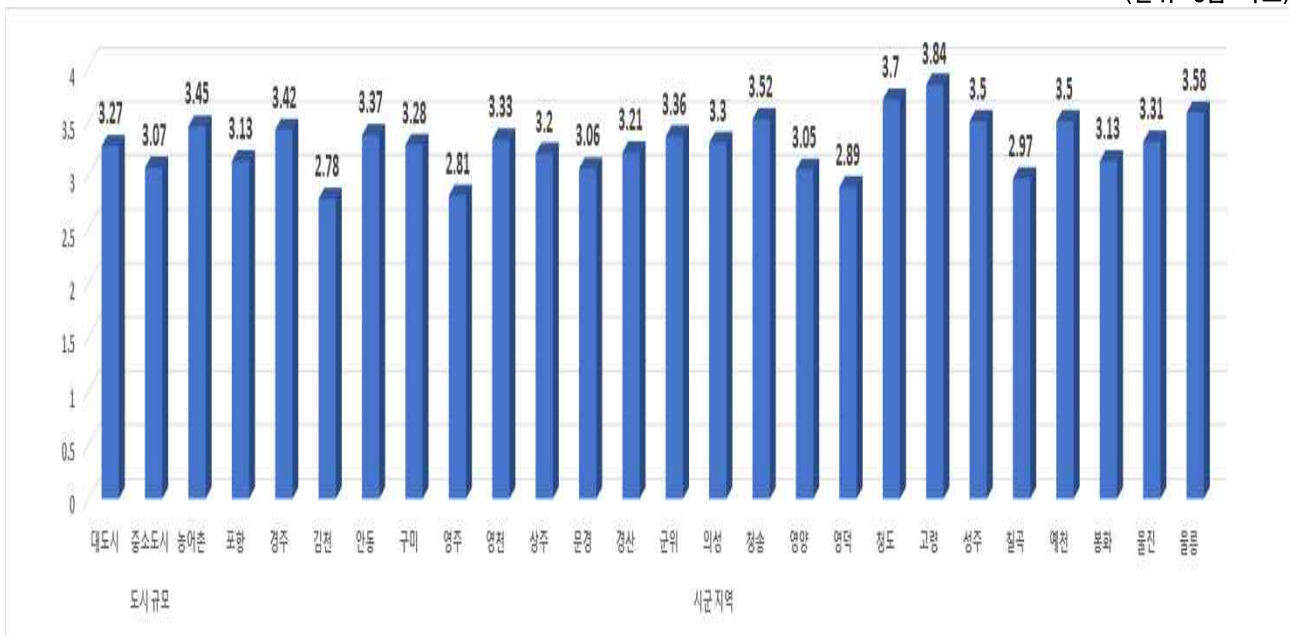
<표 III-1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A)	432	3.27	0.81	17.89**	C > A, B
		중소도시 (B)	511	3.07	0.83		
		농어촌 (C)	209	3.45	0.75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13	0.79	4.98**	②, ⑬, ⑯, ⑰ > ③, ⑥, ⑮, ⑲
		경주 ②	115	3.42	0.83		
		김천 ③	81	2.78	0.70		
		안동 ④	132	3.37	0.82		
		구미 ⑤	152	3.28	0.80		
		영주 ⑥	109	2.81	0.82		
		영천 ⑦	47	3.33	0.70		
		상주 ⑧	55	3.20	0.85		
		문경 ⑨	20	3.06	1.03		
		경산 ⑩	59	3.21	0.80		
		군위 ⑪	19	3.36	0.95		
		의성 ⑫	21	3.30	0.74		
청송 ⑬	13	3.52	0.92				

	영양 ⑭	8	3.05	0.61	
	영덕 ⑮	7	2.89	0.74	
	청도 ⑯	27	3.70	0.44	
	고령 ⑰	14	3.84	0.58	
	성주 ⑱	41	3.50	0.76	
	칠곡 ⑲	67	2.97	0.77	
	예천 ⑳	25	3.50	0.77	
	봉화 ㉑	11	3.13	0.91	
	울진 ㉒	15	3.31	0.77	
	울릉 ㉓	8	3.58	0.43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2]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비교

나.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분석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결혼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결혼경력(p<.01), 학력(p<.01), 직업(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6세-30세가 31-35세, 36-40세, 41세 이상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결혼경력에서는 1년 이하 짧은 신혼부부가 1년 이상 오래된 결혼 경력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 도민이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서는 관리 및 전문직이 무직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14〉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2.86	.43	
		여	659	2.85		
	연령	25세 이하 (A)	110	2.89	18.69**	B > C, D, E
		26-30세 (B)	222	3.02		
		31-35세 (C)	285	2.86		
		36-40세 (D)	423	2.86		
		41세 이상 (E)	112	2.47		
	결혼 경력	미혼 (A)	165	2.80	3.99**	B > C, D, E
		1년 이하 (B)	109	3.00		
		1-5년 (C)	241	2.86		
		6-10년 (D)	221	2.93		
		11년 이상 (E)	416	2.80		
	학력	고졸 이하 (A)	90	2.91	106.51**	A, B > C
		대졸 (B)	755	3.00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2.49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2.81	6.30**	B > C
		관리 및 전문직 (B)	936	2.88		
		무직 (C)	73	2.65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Ⅲ-13]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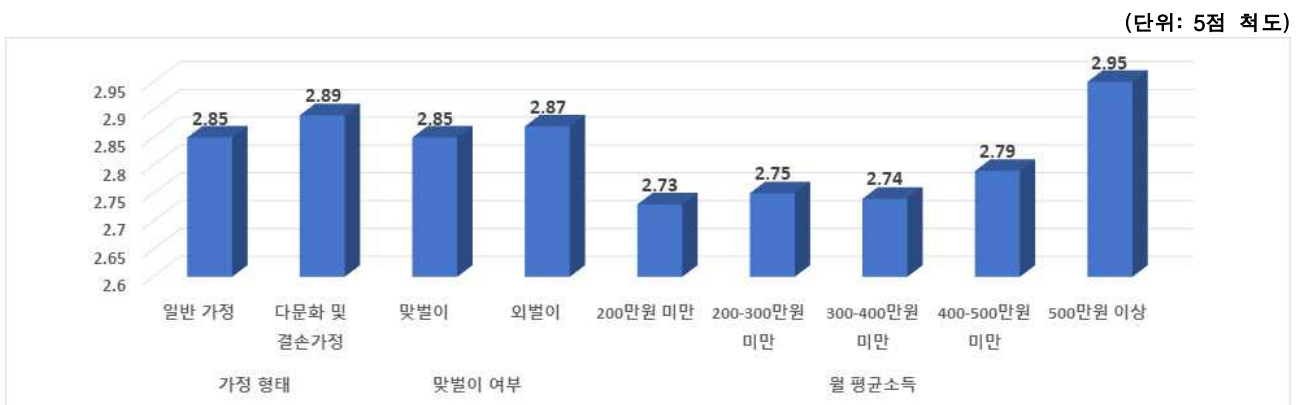
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분석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결혼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5〉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2.85	0.27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2.89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2.85	0.33	
		외벌이	328	2.87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2.73	22.25**	E > A, B, C, D
		200-300만원 미만 (B)	227	2.75		
		300-400만원 미만 (C)	267	2.74		
		400-500만원 미만 (D)	360	2.79		
		500만원 이상 (E)	89	2.95		

* $p<.05$, ** $p<.01$



[그림 III-14]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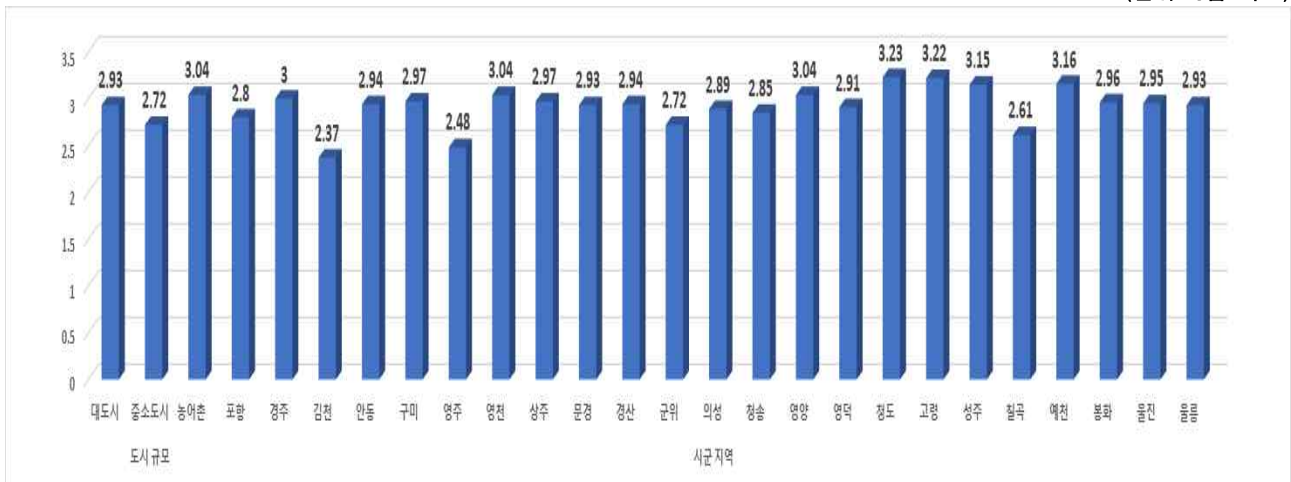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결혼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 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지역에서는 경주,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지역이 김천, 영주, 영덕, 군위 지역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A)	432	2.93	30.59**	C > B
		중소도시 (B)	511	2.72		
		농어촌 (C)	209	3.04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2.80	9.81**	②, ⑦, ⑯, ⑰, ⑱ > ③, ⑥, ⑪
		경주 ②	115	3.00		
		김천 ③	81	2.37		
		안동 ④	132	2.94		
		구미 ⑤	152	2.97		
		영주 ⑥	109	2.48		
		영천 ⑦	47	3.04		
		상주 ⑧	55	2.97		
		문경 ⑨	20	2.93		
		경산 ⑩	59	2.94		
		군위 ⑪	19	2.72		
		의성 ⑫	21	2.89		
		청송 ⑬	13	2.85		
		영양 ⑭	8	3.04		
		영덕 ⑮	7	2.91		
		청도 ⑯	27	3.23		
		고령 ⑰	14	3.22		
		성주 ⑱	41	3.15		
		칠곡 ⑲	67	2.61		
		예천 ⑳	25	3.16		
		봉화 ㉑	11	2.96		
		울진 ㉒	15	2.95		
		울릉 ㉓	8	2.93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5]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다.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분석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결혼경력($p<.05$), 학력($p<.01$), 직업($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세 이하가 41세 이상보다 행복플로리시가 더 높게 나타났고, 결혼 경력에서는 1년 이하가 1-5년 결혼 경력보다 행복플로리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 도민이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행복플로리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서는 관리 및 전문직이 기능 및 노무직이나 무직보다 행복플로리시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17〉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3.31	.43	
		여	659	3.35		
	연령	25세 이하 (A)	110	3.54	35.22**	A, B, C, D > E
		26-30세 (B)	222	3.48		
		31-35세 (C)	285	3.28		
		36-40세 (D)	423	3.42		
		41세 이상 (E)	112	2.61		
	결혼 경력	미혼 (A)	165	3.35	3.07*	B > C
		1년 이하 (B)	109	3.46		
		1-5년 (C)	241	3.19		
		6-10년 (D)	221	3.37		
		11년 이상 (E)	416	3.34		
	학력	고졸 이하 (A)	90	3.48	151.48**	A, B > C
		대졸 (B)	755	3.54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2.76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18	7.31**	B > A, C
		관리 및 전문직 (B)	936	3.37		
		무직 (C)	73	3.11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6]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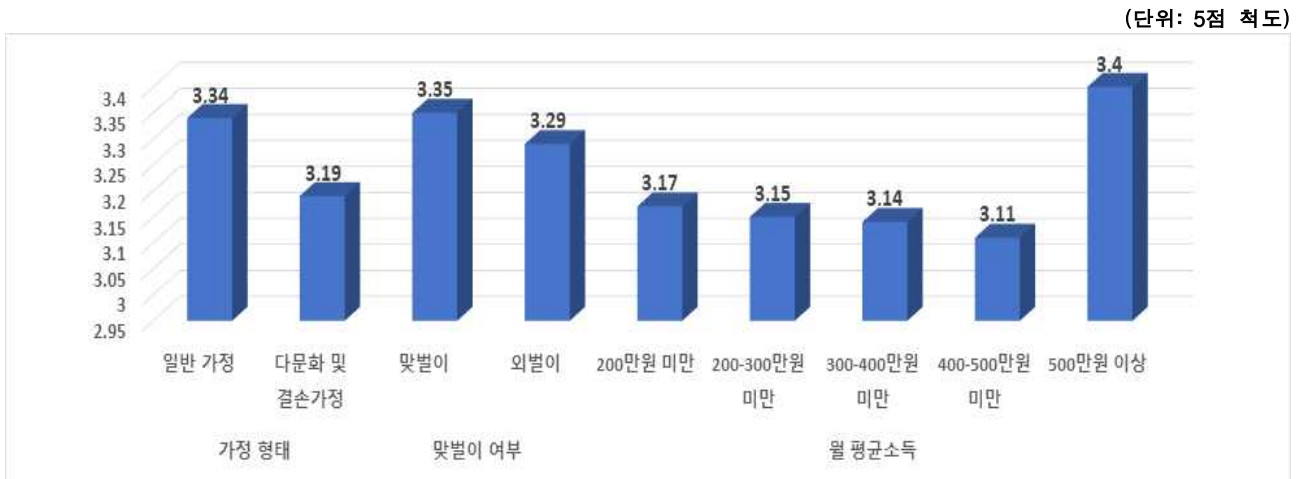
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분석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행복플로리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3.34	0.76	3.60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19	0.71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3.35	0.76	1.34	
		외벌이	328	3.29	0.74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3.17	0.76	44.70**	E > A, B, C, D
		200-300만원 미만 (B)	227	3.15	0.65		
		300-400만원 미만 (C)	267	3.14	0.73		
		400-500만원 미만 (D)	360	3.11	0.72		
		500만원 이상 (E)	89	3.40	0.55		

* $p<.05$, ** $p<.01$



[그림 III-17]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비교

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분석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보다 행복플로리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시군지역에서는 고령, 성주, 청도, 울릉, 예천 지역이 김천, 영주, 칠곡 지역보다 행복플로리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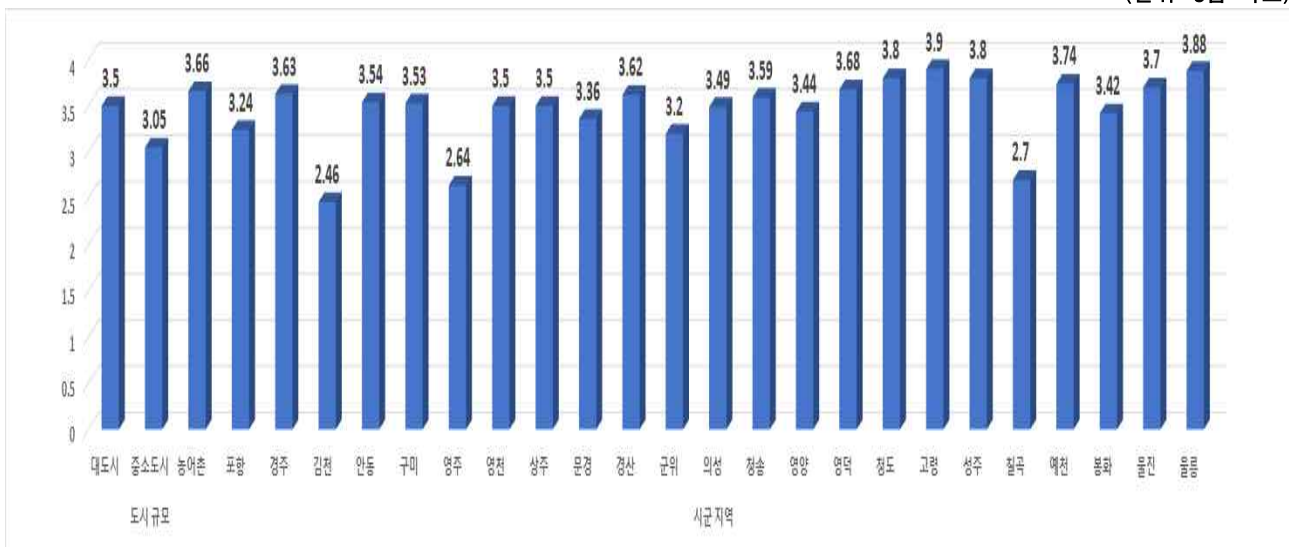
<표 III-19>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A)	432	3.50	72.31**	C > B
		중소도시 (B)	511	3.05		
		농어촌 (C)	209	3.66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24	22.59**	⑬, ⑭, ⑮, ⑯, ⑰ > ①, ②, ③
		경주 ②	115	3.63		
		김천 ③	81	2.46		
		안동 ④	132	3.54		
		구미 ⑤	152	3.53		
		영주 ⑥	109	2.64		
		영천 ⑦	47	3.50		
		상주 ⑧	55	3.50		
		문경 ⑨	20	3.36		
		경산 ⑩	59	3.62		
		군위 ⑪	19	3.20		
		의성 ⑫	21	3.49		
		청송 ⑬	13	3.59		

		영양 ⑭	8	3.44	0.71		
		영덕 ⑮	7	3.68	0.68		
		청도 ⑯	27	3.80	0.41		
		고령 ⑰	14	3.90	0.48		
		성주 ⑱	41	3.80	0.61		
		칠곡 ⑲	67	2.70	0.48		
		예천 ⑳	25	3.74	0.61		
		봉화 ㉑	11	3.42	0.80		
		울진 ㉒	15	3.70	0.50		
		울릉 ㉓	8	3.88	0.39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8]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행복플로리시 비교

4)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분석

가)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결혼 경력($p<.01$), 학력($p<.01$), 직업($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5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긍정 정서가 더 높게 나타났고, 결혼 경력에서는 1년 이하가 1-5년보다 긍정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 도민이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긍정 정서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관리 및 전문직이 기능 및 노무직과 무직보다 긍정 정서가 높았다.

〈표 III-20〉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3.25	.43	
		여	659	3.33		
	연령	25세 이하 (A)	110	3.48	29.83**	A > B,C,D,E
		26-30세 (B)	222	3.44		
		31-35세 (C)	285	3.28		
		36-40세 (D)	423	3.39		
		41세 이상 (E)	112	2.54		
	결혼 경력	미혼 (A)	165	3.31	3.44**	B > C
		1년 이하 (B)	109	3.53		
		1-5년 (C)	241	3.19		
		6-10년 (D)	221	3.26		
		11년 이상 (E)	416	3.32		
	학력	고졸 이하 (A)	90	3.44	118.13**	A, B > C
		대졸 (B)	755	3.52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2.73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15	6.70**	B > A, C
		관리 및 전문직 (B)	936	3.34		
		무직 (C)	73	3.05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9]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비교

나)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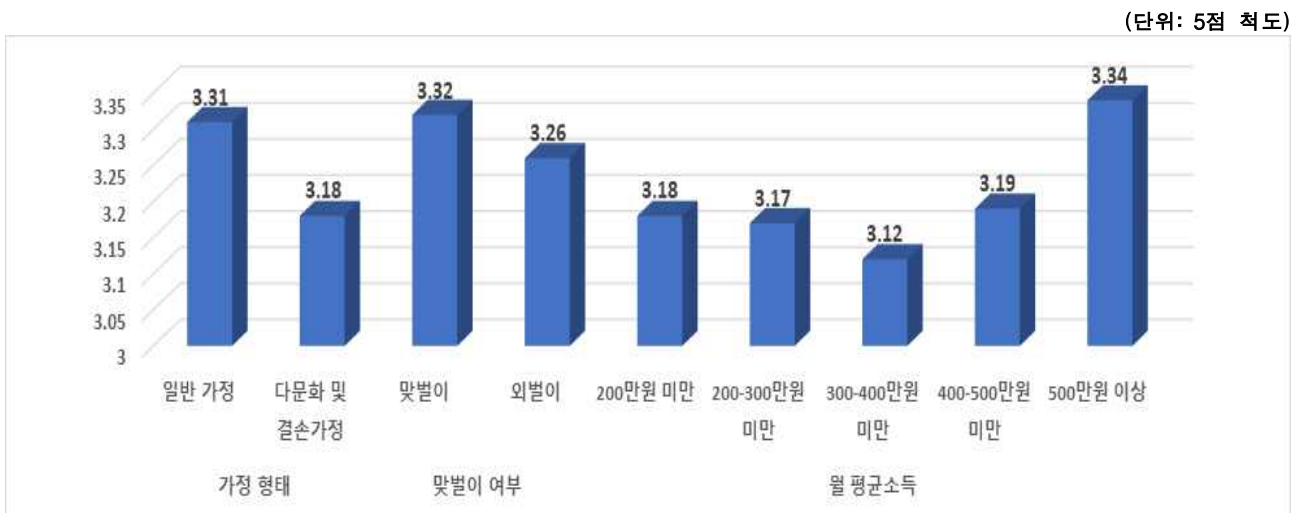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긍정 정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3.31	0.84	2.01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18	0.81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3.32	0.85	0.93
		외벌이	328	3.26	0.80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3.18	0.87	39.56**
		200-300만원 미만 (B)	227	3.17	0.75	
		300-400만원 미만 (C)	267	3.12	0.78	
		400-500만원 미만 (D)	360	3.19	0.81	
		500만원 이상 (E)	89	3.34	0.59	

*p< .05, **p< .01



[그림 III-20]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비교

다)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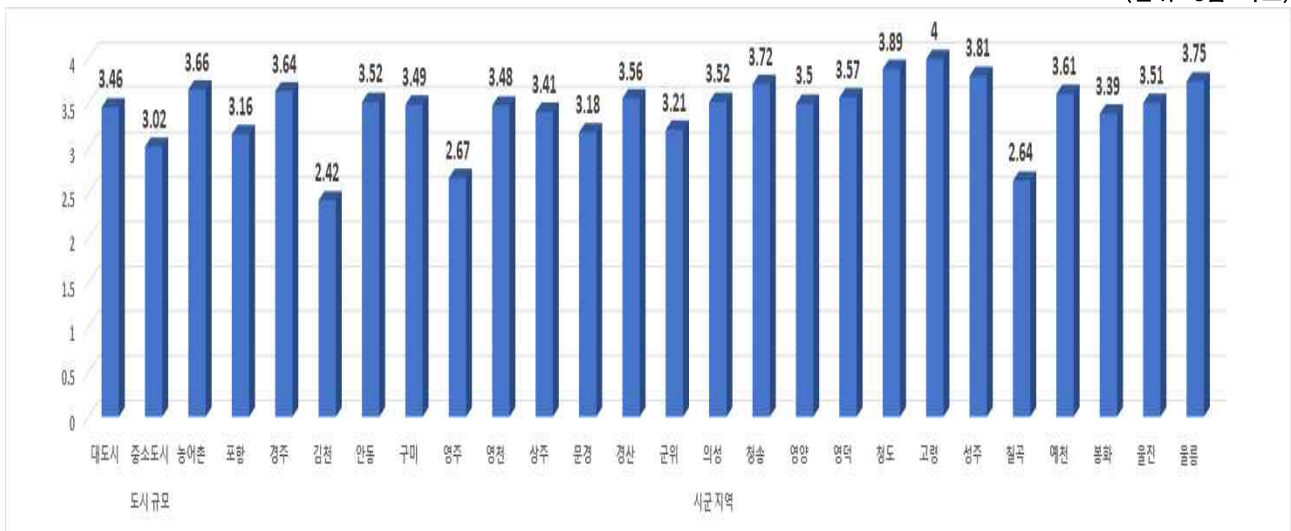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보다 긍정 정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군지역에서는 경주, 청송,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릉 지역이 김천, 영주, 칠곡 지역보다 긍정 정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형태	대도시 (A)	432	3.46	60.35**	C > B
		중소도시 (B)	511	3.02		
		농어촌 (C)	209	3.66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16	17.41**	②, ⑬, ⑯, ⑰, ⑱, ⑳, ㉓ > ③, ⑥, ⑨
		경주 ②	115	3.64		
		김천 ③	81	2.42		
		안동 ④	132	3.52		
		구미 ⑤	152	3.49		
		영주 ⑥	109	2.67		
		영천 ⑦	47	3.48		
		상주 ⑧	55	3.41		
		문경 ⑨	20	3.18		
		경산 ⑩	59	3.56		
		군위 ⑪	19	3.21		
		의성 ⑫	21	3.52		
		청송 ⑬	13	3.72		
		영양 ⑭	8	3.50		
		영덕 ⑮	7	3.57		
		청도 ⑯	27	3.89		
		고령 ⑰	14	4.00		
		성주 ⑱	41	3.81		
		칠곡 ⑲	67	2.64		
		예천 ⑳	25	3.61		
		봉화 ㉑	11	3.39		
		울진 ㉒	15	3.51		
		울릉 ㉓	8	3.75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21]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긍정 정서 비교

5)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분석

가)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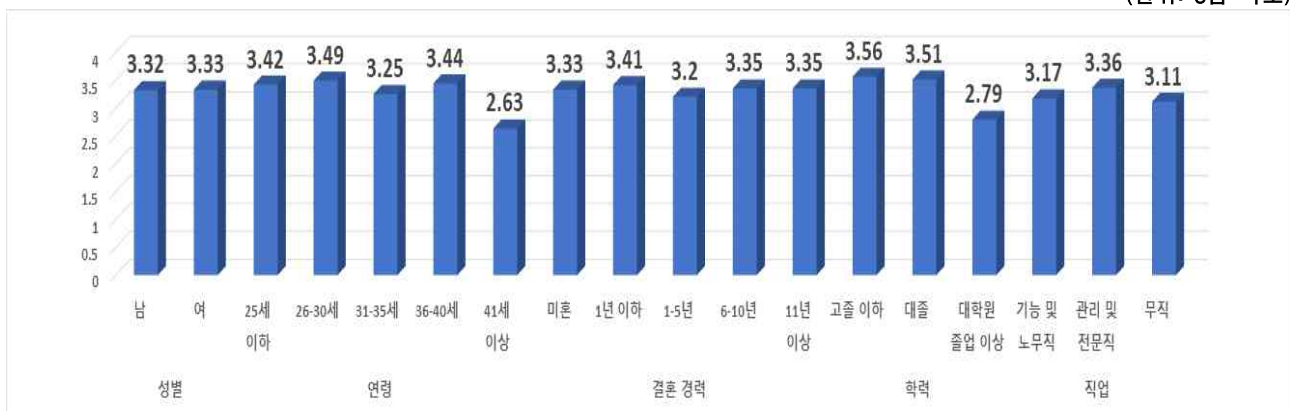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학력($p<.01$), 직업($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세 이하가 41세 이상보다 몰입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 도민이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몰입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관리 및 전문직이 기능 및 노무직과 무직보다 몰입이 높았다.

〈표 III-23〉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3.32	.43	
		여	659	3.33		
	연령	25세 이하 (A)	110	3.42	28.67**	A,B,C,D > E
		26-30세 (B)	222	3.49		
		31-35세 (C)	285	3.25		
		36-40세 (D)	423	3.44		
		41세 이상 (E)	112	2.63		
	결혼 경력	미혼 (A)	165	3.33	1.98	
		1년 이하 (B)	109	3.41		
		1-5년 (C)	241	3.20		
		6-10년 (D)	221	3.35		
		11년 이상 (E)	416	3.35		
	학력	고졸 이하 (A)	90	3.56	110.14**	A, B > C
		대졸 (B)	755	3.51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2.79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17	5.95**	B > A, C
		관리 및 전문직 (B)	936	3.36		
		무직 (C)	73	3.11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22]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몰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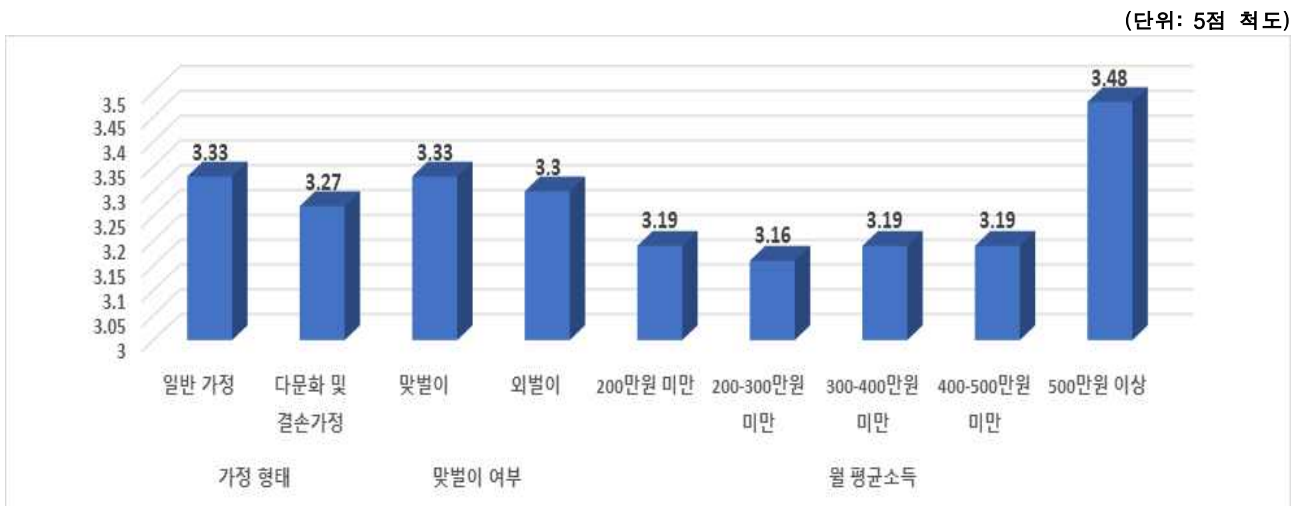
나)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분석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몰입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보다 몰입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3.33	0.45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3.33	0.32	
		외벌이	328	3.30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3.19	32.28**	E > A,B,C,D
		200-300만원 미만 (B)	227	3.16		
		300-400만원 미만 (C)	267	3.19		
		400-500만원 미만 (D)	360	3.19		
		500만원 이상 (E)	89	3.48		

* $p<.05$, ** $p<.01$



[그림 III-23]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몰입 비교

다)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분석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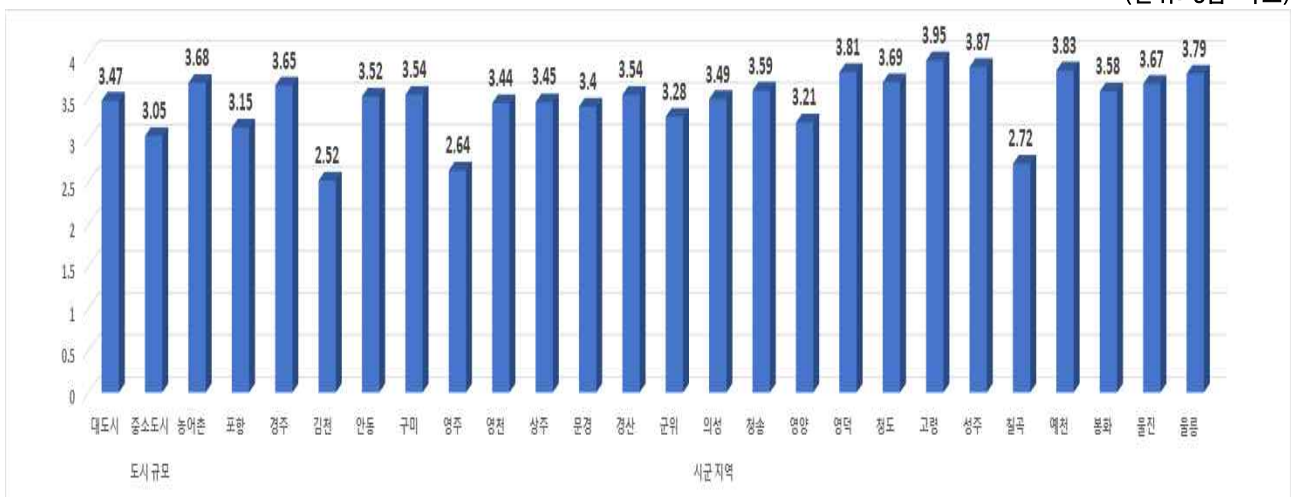
다 몰입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군지역에서는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릉 지역이 김천, 영주, 칠곡 지역보다 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몰입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A)	432	3.47	63.16**	C > B
		중소도시 (B)	511	3.05		
		농어촌 (C)	209	3.68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15	17.98**	⑬, ⑭, ⑮, ⑯, ⑰, 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경주 ②	115	3.65		
		김천 ③	81	2.52		
		안동 ④	132	3.52		
		구미 ⑤	152	3.54		
		영주 ⑥	109	2.64		
		영천 ⑦	47	3.44		
		상주 ⑧	55	3.45		
		문경 ⑨	20	3.40		
		경산 ⑩	59	3.54		
		군위 ⑪	19	3.28		
		의성 ⑫	21	3.49		
		청송 ⑬	13	3.59		
		영양 ⑭	8	3.21		
		영덕 ⑮	7	3.81		
		청도 ⑯	27	3.69		
		고령 ⑰	14	3.95		
		성주 ⑱	41	3.87		
		칠곡 ⑲	67	2.72		
		예천 ⑳	25	3.83		
		봉화 ㉑	11	3.58		
		울진 ㉒	15	3.67		
		울릉 ㉓	8	3.79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24]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몰입 비교

6)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분석

가)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학력($p<.01$), 직업($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세 이하가 41세 이상보다 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 도민이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관리 및 전문직이 기능 및 노무직과 무직보다 관계가 높았다.

〈표 III-26〉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3.34	.43	
		여	659	3.42		
	연령	25세 이하 (A)	110	3.72	39.20**	A,B,C,D > E
		26-30세 (B)	222	3.59		
		31-35세 (C)	285	3.35		
		36-40세 (D)	423	3.44		
		41세 이상 (E)	112	2.53		
	결혼 경력	미혼 (A)	165	3.43	2.71	
		1년 이하 (B)	109	3.58		
		1-5년 (C)	241	3.28		
		6-10년 (D)	221	3.44		
		11년 이상 (E)	416	3.35		
	학력	고졸 이하 (A)	90	3.52	167.80**	A,B > C
		대졸 (B)	755	3.65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2.70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14	9.54**	B > A,C
		관리 및 전문직 (B)	936	3.44		
		무직 (C)	73	3.18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25]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관계 비교

나)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분석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3.40	0.88	5.02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19	0.77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3.39	0.88	0.03	
		외벌이	328	3.38	0.85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3.14	0.84	43.12**	E > A,B,C,D
		200-300만원 미만 (B)	227	3.14	0.78		
		300-400만원 미만 (C)	267	3.13	0.88		
		400-500만원 미만 (D)	360	3.15	0.81		
		500만원 이상 (E)	89	3.31	0.61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26]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관계 비교

다)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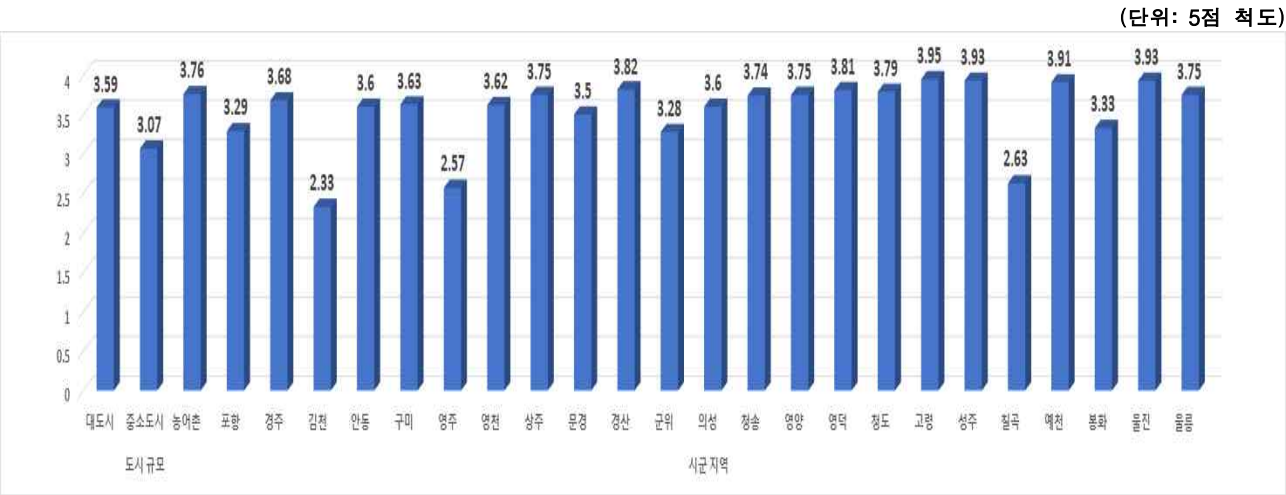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보

다 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군지역에서는 상주,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진, 울릉 지역이 김천, 영주, 칠곡 지역보다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관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A)	432	3.59	73.30**	C > B
		중소도시 (B)	511	3.07		
		농어촌 (C)	209	3.76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29	25.24**	⑧, ⑭, ⑮, ⑯, ⑰, ⑱, ⑳, ㉒, ㉓ > ③, ⑥, ⑰
		경주 ②	115	3.68		
		김천 ③	81	2.33		
		안동 ④	132	3.60		
		구미 ⑤	152	3.63		
		영주 ⑥	109	2.57		
		영천 ⑦	47	3.62		
		상주 ⑧	55	3.75		
		문경 ⑨	20	3.50		
		경산 ⑩	59	3.82		
		군위 ⑪	19	3.28		
		의성 ⑫	21	3.60		
		청송 ⑬	13	3.74		
		영양 ⑭	8	3.75		
		영덕 ⑮	7	3.81		
		청도 ⑯	27	3.79		
		고령 ⑰	14	3.95		
		성주 ⑱	41	3.93		
		칠곡 ⑲	67	2.63		
		예천 ⑳	25	3.91		
		봉화 ㉑	11	3.33		
		울진 ㉒	15	3.93		
		울릉 ㉓	8	3.75		

*p< .05, **p< .01



[그림 III-27]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관계 비교

7)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분석

가)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결혼 경력($p<.01$), 학력($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세 이하가 41세 이상보다 의미가 더 높게 나타났고, 결혼 경력에서는 6-10년이 1-5년보다 의미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 도민이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의미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9〉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3.32	.43	
		여	659	3.37		
	연령	25세 이하 (A)	110	3.50	26.82**	A,B,C,D > E
		26-30세 (B)	222	3.48		
		31-35세 (C)	285	3.31		
		36-40세 (D)	423	3.47		
		41세 이상 (E)	112	2.60		
	결혼 경력	미혼 (A)	165	3.34	3.50**	D > C
		1년 이하 (B)	109	3.40		
		1-5년 (C)	241	3.18		
		6-10년 (D)	221	3.47		
		11년 이상 (E)	416	3.38		
	학력	고졸 이하 (A)	90	3.51	111.65**	A, B > C
		대졸 (B)	755	3.57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2.76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25	3.47	
		관리 및 전문직 (B)	936	3.38		
		무직 (C)	73	3.15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28]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의미 비교

나)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분석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의미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0〉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3.36	0.89	1.86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23	0.78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3.36	0.90	2.82
		외벌이	328	3.33	0.83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3.10	0.87	37.17**
		200-300만원 미만 (B)	227	3.14	0.78	
		300-400만원 미만 (C)	267	3.15	0.84	
		400-500만원 미만 (D)	360	3.17	0.86	
		500만원 이상 (E)	89	3.38	0.67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29]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의미 비교

다)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분석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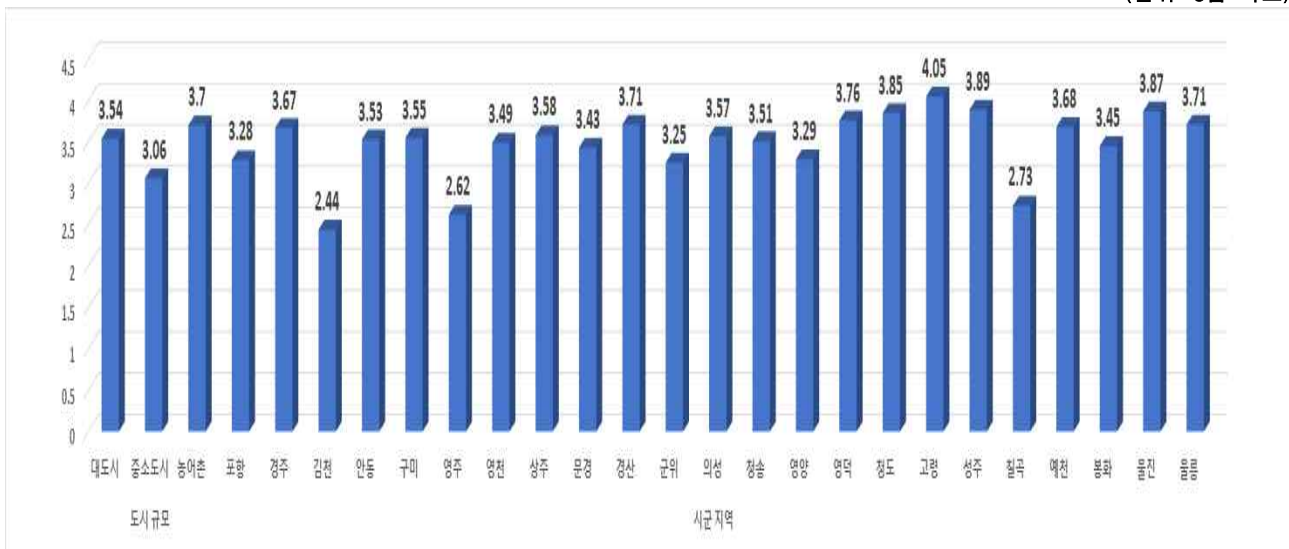
다 의미가 더 높게 나타났고, 시군지역에서는 경산,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울진, 울릉 지역이 김천, 영주, 칠곡 지역보다 의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의미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A)	432	3.54	59.97**	C > B
		중소도시 (B)	511	3.06		
		농어촌 (C)	209	3.70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28	16.91**	⑩, ⑮, ⑯, ⑰, ⑱, ㉒, ㉓ > ③, ⑥, ⑨
		경주 ②	115	3.67		
		김천 ③	81	2.44		
		안동 ④	132	3.53		
		구미 ⑤	152	3.55		
		영주 ⑥	109	2.62		
		영천 ⑦	47	3.49		
		상주 ⑧	55	3.58		
		문경 ⑨	20	3.43		
		경산 ⑩	59	3.71		
		군위 ⑪	19	3.25		
		의성 ⑫	21	3.57		
		청송 ⑬	13	3.51		
		영양 ⑭	8	3.29		
		영덕 ⑮	7	3.76		
		청도 ⑯	27	3.85		
		고령 ⑰	14	4.05		
		성주 ⑱	41	3.89		
		칠곡 ⑲	67	2.73		
		예천 ⑳	25	3.68		
		봉화 ㉑	11	3.45		
		울진 ㉒	15	3.87		
		울릉 ㉓	8	3.71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30]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의미 비교

8)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분석

가)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학력($p<.01$), 직업($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세 이하가 41세 이상보다 성취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 도민이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성취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관리 및 전문직이 기능 및 노무직과 무직보다 성취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3.34	.43	
		여	659	3.34		
	연령	25세 이하 (A)	110	3.59	28.66**	A,B,C,D > E
		26-30세 (B)	222	3.44		
		31-35세 (C)	285	3.29		
		36-40세 (D)	423	3.44		
		41세 이상 (E)	112	2.63		
	결혼 경력	미혼 (A)	165	3.38	2.72	
		1년 이하 (B)	109	3.40		
		1-5년 (C)	241	3.19		
		6-10년 (D)	221	3.41		
		11년 이상 (E)	416	3.36		
	학력	고졸 이하 (A)	90	3.49	131.97**	A, B > C
		대졸 (B)	755	3.56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2.76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20	8.43**	B > A, C
		관리 및 전문직 (B)	936	3.39		
		무직 (C)	73	3.05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31]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성취 비교

나)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분석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성취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3.36	0.82	6.69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13	0.80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3.37	0.82	3.03	
		외벌이	328	3.28	0.82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3.17	0.84	37.25**	E > A,B,C,D
		200-300만원 미만 (B)	227	3.17	0.72		
		300-400만원 미만 (C)	267	3.15	0.81		
		400-500만원 미만 (D)	360	3.14	0.76		
		500만원 이상 (E)	89	3.42	0.63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32]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성취 비교

다)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분석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보다 성취가 더 높게 나타났고, 시군지역에서는 경산,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울진, 울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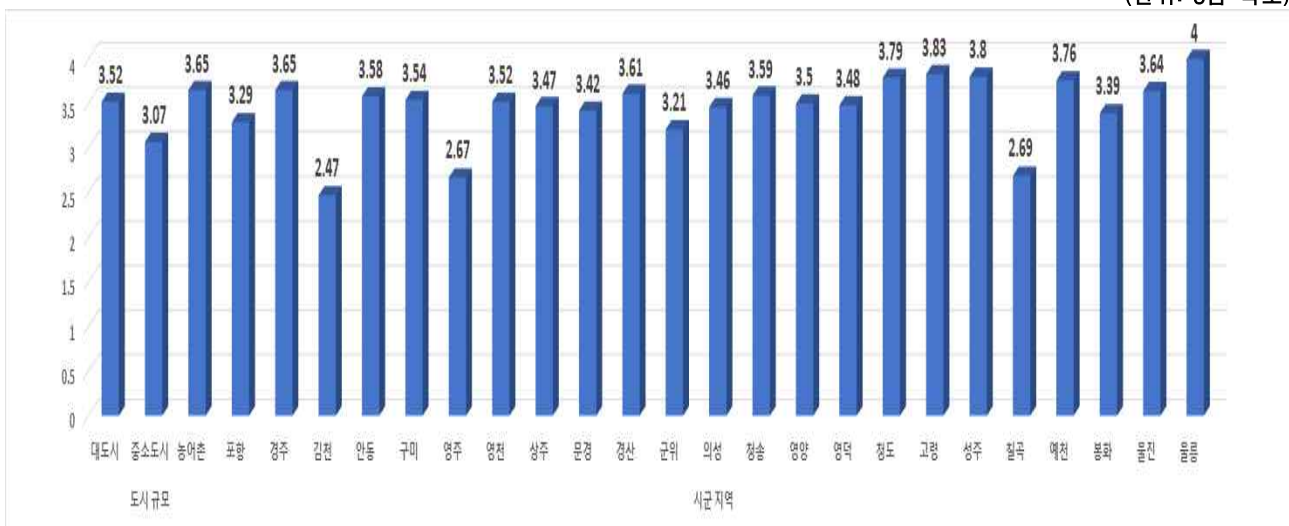
지역이 김천, 영주, 칠곡 지역보다 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성취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A)	432	3.52	57.38**	C>B
		중소도시 (B)	511	3.07		
		농어촌 (C)	209	3.65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29	17.79**	⑩, ⑮, ⑯, ⑰, ⑱, ㉒, ㉓ > ③, ⑥, ⑨
		경주 ②	115	3.65		
		김천 ③	81	2.47		
		안동 ④	132	3.58		
		구미 ⑤	152	3.54		
		영주 ⑥	109	2.67		
		영천 ⑦	47	3.52		
		상주 ⑧	55	3.47		
		문경 ⑨	20	3.42		
		경산 ⑩	59	3.61		
		군위 ⑪	19	3.21		
		의성 ⑫	21	3.46		
		청송 ⑬	13	3.59		
		영양 ⑭	8	3.50		
		영덕 ⑮	7	3.48		
		청도 ⑯	27	3.79		
		고령 ⑰	14	3.83		
		성주 ⑱	41	3.80		
		칠곡 ⑲	67	2.69		
		예천 ⑳	25	3.76		
		봉화 ㉑	11	3.39		
		울진 ㉒	15	3.64		
		울릉 ㉓	8	4.00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33]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성취 비교

5.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분석

가.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분석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학력($p<.01$), 직업($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세 이하가 41세 이상보다 주거 환경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 도민이 대학원 졸업 이상보다 주거 환경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관리 및 전문직이 기능 및 노무직보다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3.16	8.65	
		여	659	3.32		
	연령	25세 이하 (A)	110	3.33	33.38**	A,B,C,D > E
		26-30세 (B)	222	3.31		
		31-35세 (C)	285	3.24		
		36-40세 (D)	423	3.45		
		41세 이상 (E)	112	2.35		
	결혼 경력	미혼 (A)	165	3.14	2.49	
		1년 이하 (B)	109	3.22		
		1-5년 (C)	241	3.23		
		6-10년 (D)	221	3.15		
		11년 이상 (E)	416	3.37		
	학력	고졸 이하 (A)	90	3.27	94.13**	A,B > C
		대졸 (B)	755	3.49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2.66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06	5.13*	B > A
		관리 및 전문직 (B)	936	3.29		
		무직 (C)	73	3.08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34]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비교

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분석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 도시규모($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미만인 500만원 이상보다 주거 환경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400-500만원 미만이 200-300만원 미만보다 주거 환경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6〉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3.26	0.97	0.49	
		다문화 및 결손가정	3.18	0.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8	0.95	2.81	
		외벌이	3.18	0.98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3.25	1.03	33.18**	A,B,C,D > E D > B
		200-300만원 미만 (B)	3.19	0.83		
		300-400만원 미만 (C)	3.32	0.93		
		400-500만원 미만 (D)	3.48	0.92		
		500만원 이상 (E)	2.26	0.61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35] 경북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비교

3)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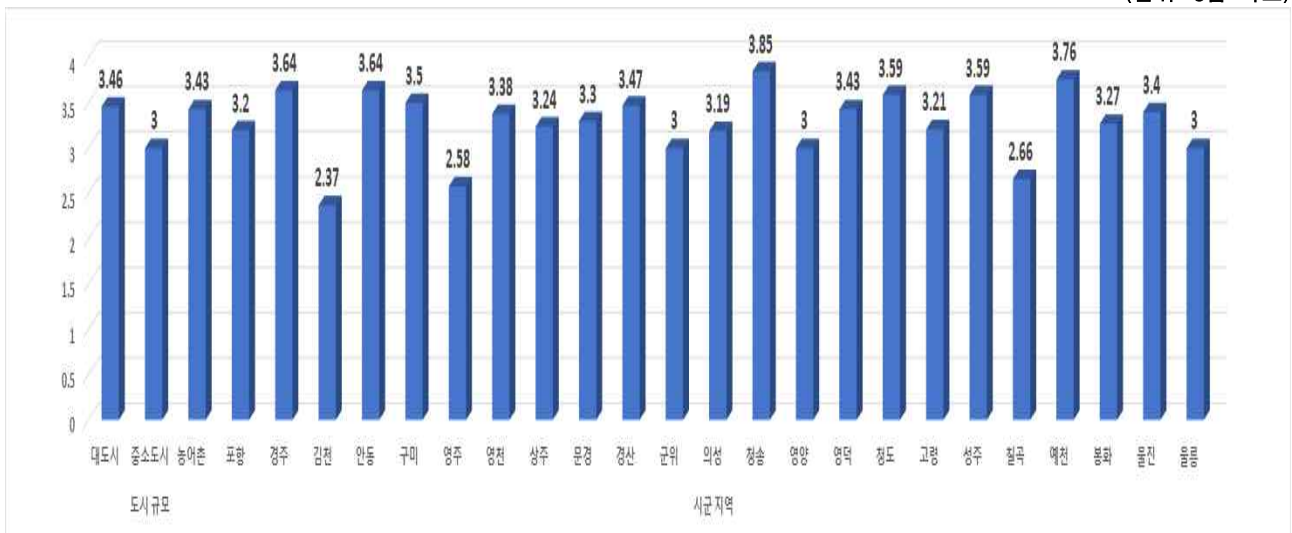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보다 주거 환경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시군지역에서는 경주, 안동, 청송, 청도, 성주, 예천 지역이 김천, 영주, 칠곡 지역보다 주거 환경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A)	432	3.46	0.87	32.61**	C > B
		중소도시 (B)	511	3.00	0.98		
		농어촌 (C)	209	3.43	0.93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20	0.98	12.71**	②, ④, ⑬, ⑯, ⑱, ⑳ > ③, ⑥, ⑲
		경주 ②	115	3.64	0.83		
		김천 ③	81	2.37	0.75		
		안동 ④	132	3.64	0.76		
		구미 ⑤	152	3.50	0.85		
		영주 ⑥	109	2.58	0.84		
		영천 ⑦	47	3.38	0.87		
		상주 ⑧	55	3.24	1.14		
		문경 ⑨	20	3.30	1.08		
		경산 ⑩	59	3.47	0.68		
		군위 ⑪	19	3.00	1.11		
		의성 ⑫	21	3.19	0.93		
		청송 ⑬	13	3.85	1.07		
		영양 ⑭	8	3.00	1.07		
		영덕 ⑮	7	3.43	0.53		
		청도 ⑯	27	3.59	0.84		
		고령 ⑰	14	3.21	1.05		
		성주 ⑱	41	3.59	0.87		
		칠곡 ⑲	67	2.66	0.77		
		예천 ⑳	25	3.76	0.72		
		봉화 ㉑	11	3.27	0.90		
		울진 ㉒	15	3.40	0.99		
		울릉 ㉓	8	3.00	0.76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36] 경북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비교

나. 도민이 인식하는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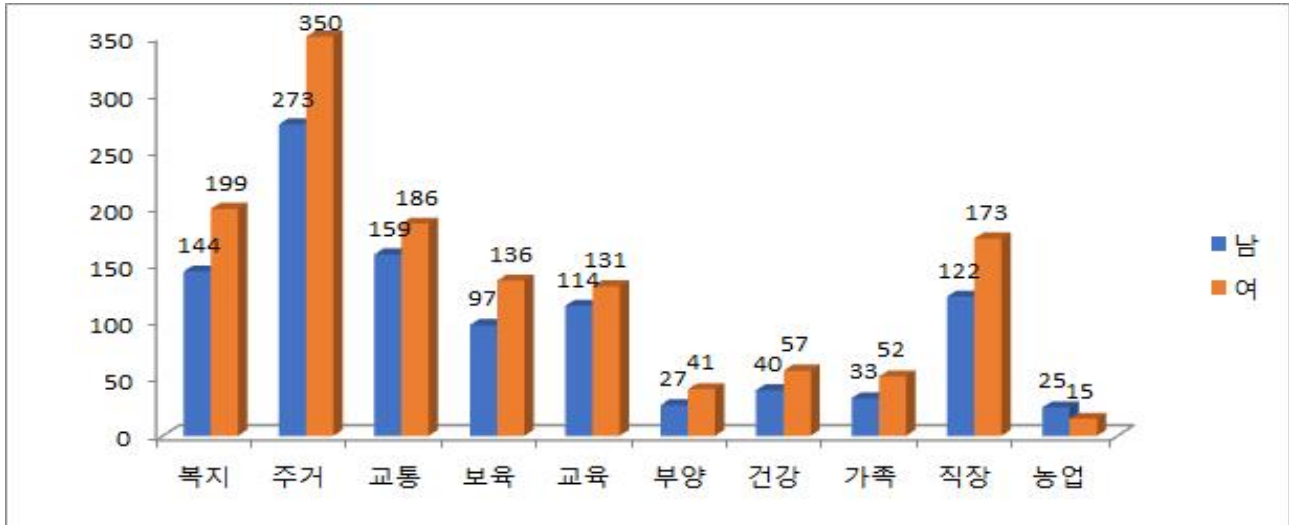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은 주거(54.3), 교통(30.1), 복지(29.9), 직장(25.7), 교육(21.4), 보육(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주거, 복지, 교통, 직장 등의 순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으로 살펴보면 주거, 교통, 복지, 직장, 교육 등의 순으로 36-40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경력을 살펴보면, 주거, 복지, 교통, 직장 등의 순으로 결혼경력 11년 이상이 다른 결혼경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최종 학력으로 살펴보면 주거, 교통, 복지, 직장 등의 순으로 대졸이 다른 학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을 살펴보면, 주거, 교통, 복지, 직장 등의 순으로 관리 및 전문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8〉 도민이 인식하는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개인 변인(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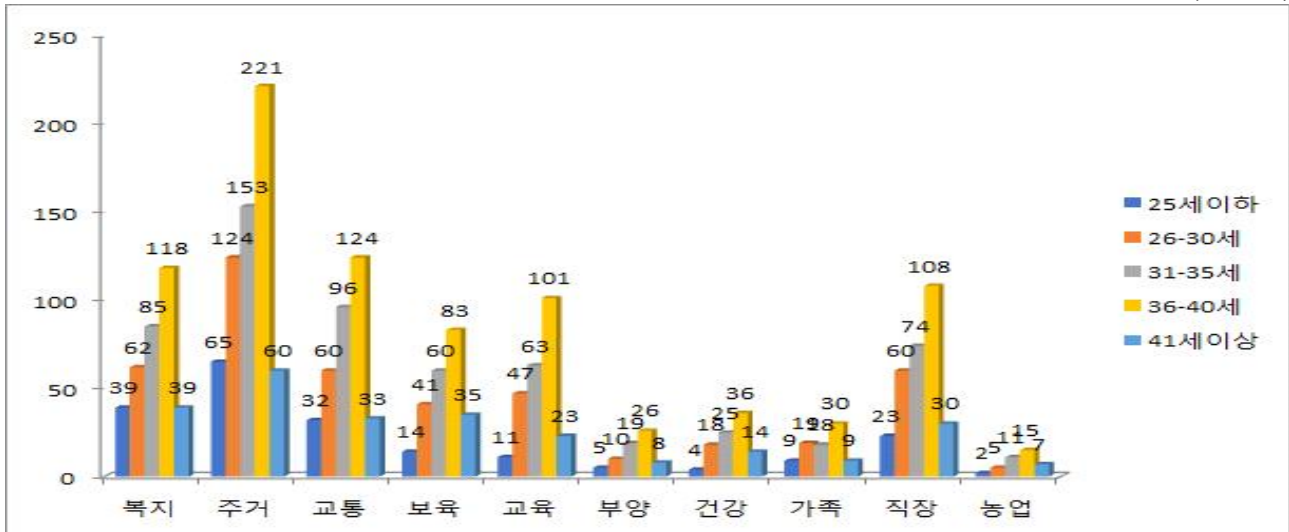
구분		집단	복지	주거	교통	보육	교육	부양	건강	가족	직장	농업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144 (29.4)	273 (55.8)	159 (32.5)	97 (19.8)	114 (23.3)	27 (5.5)	40 (8.2)	33 (6.7)	122 (24.9)	25 (3.1)
		여	199 (30.2)	350 (53.2)	186 (28.3)	136 (20.7)	131 (19.9)	41 (6.2)	57 (8.7)	52 (7.9)	173 (26.3)	15 (1.5)
	연령	25세 이하	39 (35.5)	65 (59.1)	32 (29.1)	14 (12.7)	11 (10.0)	5 (4.5)	4 (3.6)	9 (8.2)	23 (20.9)	2 (2.7)
		26-30세	62 (27.9)	124 (55.9)	60 (27.0)	41 (18.5)	47 (21.2)	10 (4.5)	18 (8.1)	19 (8.6)	60 (27.0)	5 (1.8)
		31-35세	85 (29.8)	153 (53.7)	96 (33.7)	60 (21.1)	63 (22.1)	19 (6.7)	25 (8.8)	18 (6.3)	74 (26.0)	11 (2.1)
		36-40세	118 (28.2)	221 (52.7)	124 (29.6)	83 (19.8)	101 (24.1)	26 (6.2)	36 (8.6)	30 (7.2)	108 (25.8)	15 (2.4)
		41세 이상	39 (35.1)	60 (54.1)	33 (29.7)	35 (31.5)	23 (20.7)	8 (7.2)	14 (12.6)	9 (8.1)	30 (27.0)	7 (1.8)
		미혼	62 (37.6)	87 (52.7)	45 (27.3)	25 (15.2)	26 (15.8)	6 (3.6)	13 (7.9)	12 (7.3)	38 (23.0)	4 (1.8)
	결혼 경력	1년 이하	32 (29.4)	65 (59.6)	33 (30.3)	23 (21.1)	22 (20.2)	9 (8.3)	8 (7.3)	5 (4.6)	29 (26.6)	3 (0.9)
		1-5년	69 (28.8)	132 (55.0)	76 (31.7)	39 (16.3)	43 (17.9)	14 (5.8)	13 (5.4)	21 (8.8)	69 (28.8)	8 (2.5)
		6-10년	60 (27.1)	127 (57.5)	72 (32.6)	49 (22.2)	58 (26.2)	13 (5.9)	32 (14.5)	17 (7.7)	53 (24.0)	11 (2.7)
		11년 이상	120 (29.1)	212 (51.5)	119 (28.9)	97 (23.5)	96 (23.3)	26 (6.3)	31 (7.5)	30 (7.3)	106 (25.7)	7 (2.2)
		고졸 이하	20 (22.2)	48 (53.3)	22 (24.4)	12 (13.3)	18 (20.0)	6 (6.7)	4 (4.4)	7 (7.8)	23 (25.6)	7 (2.2)
	학력	대졸	222 (29.6)	406 (54.1)	231 (30.8)	150 (20.0)	158 (21.1)	35 (4.7)	63 (8.4)	56 (7.5)	194 (25.9)	24 (2.5)
		대학원 졸업 이상	101 (32.9)	169 (55.0)	92 (30.0)	71 (23.1)	69 (22.5)	27 (8.8)	30 (9.8)	22 (7.2)	78 (25.4)	9 (1.3)
		직업	기능 및 노무직	40 (28.4)	75 (53.2)	41 (29.1)	28 (19.9)	27 (19.1)	11 (7.8)	13 (9.2)	13 (9.2)	34 (24.1)
	관리 및 전문직		277 (29.7)	513 (55.0)	275 (29.5)	189 (20.3)	200 (21.4)	50 (5.4)	78 (8.4)	70 (7.5)	241 (25.8)	27 (2.4)
	무직		26 (35.6)	35 (47.9)	29 (39.7)	16 (21.9)	18 (24.7)	7 (9.6)	6 (8.2)	2 (2.7)	20 (27.4)	6 (1.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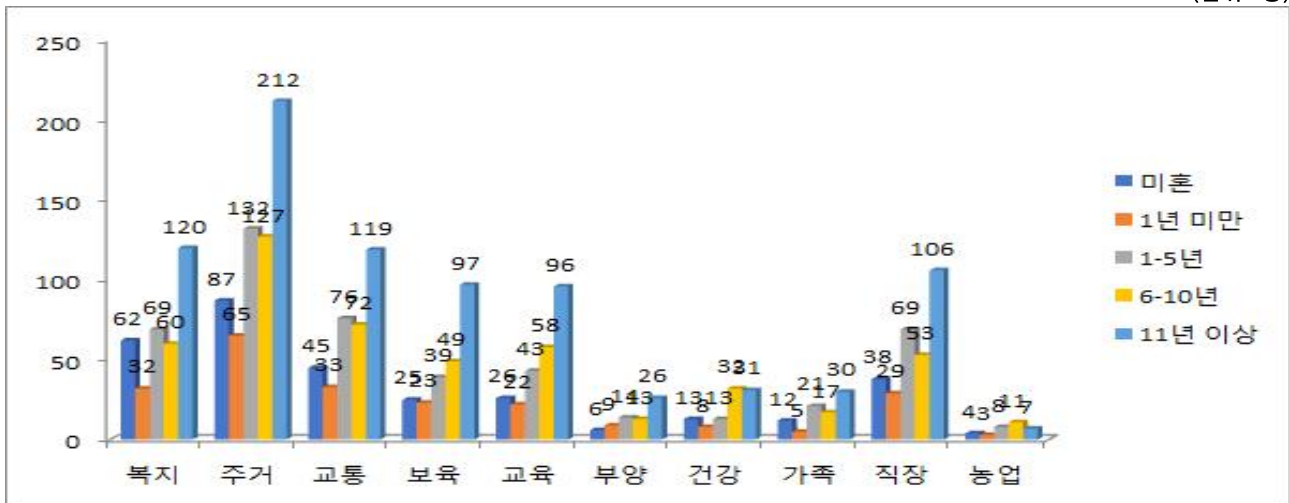
[그림 III-37] 도민의 성별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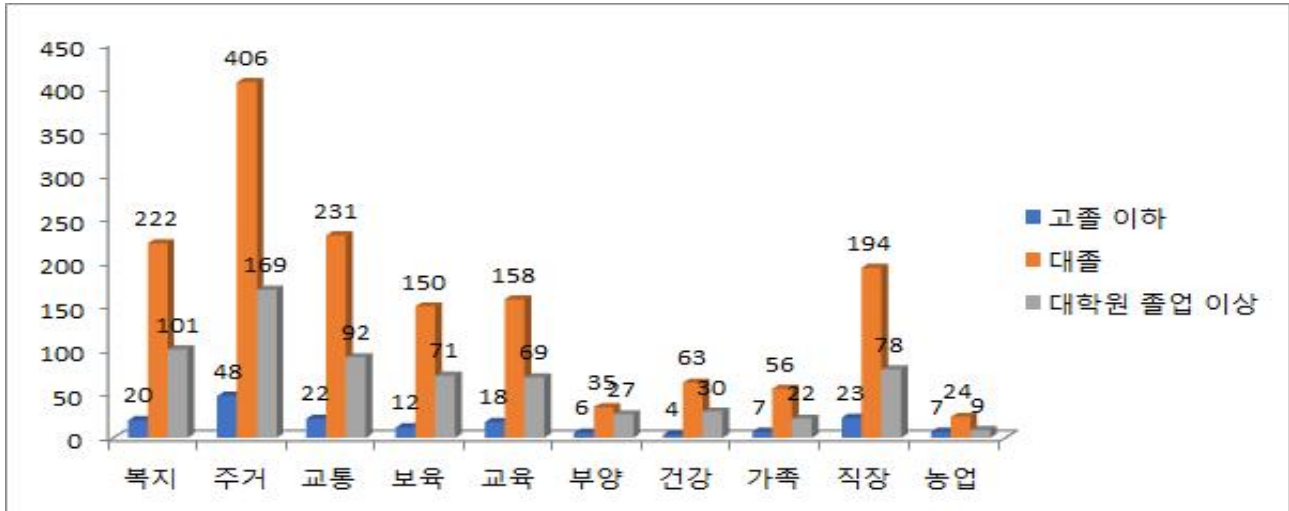
[그림 III-38] 도민의 연령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단위: 명)



[그림 III-39] 도민의 결혼경력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단위: 명)



[그림 III-40] 도민의 최종 학력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단위: 명)



[그림 III-41] 도민의 직업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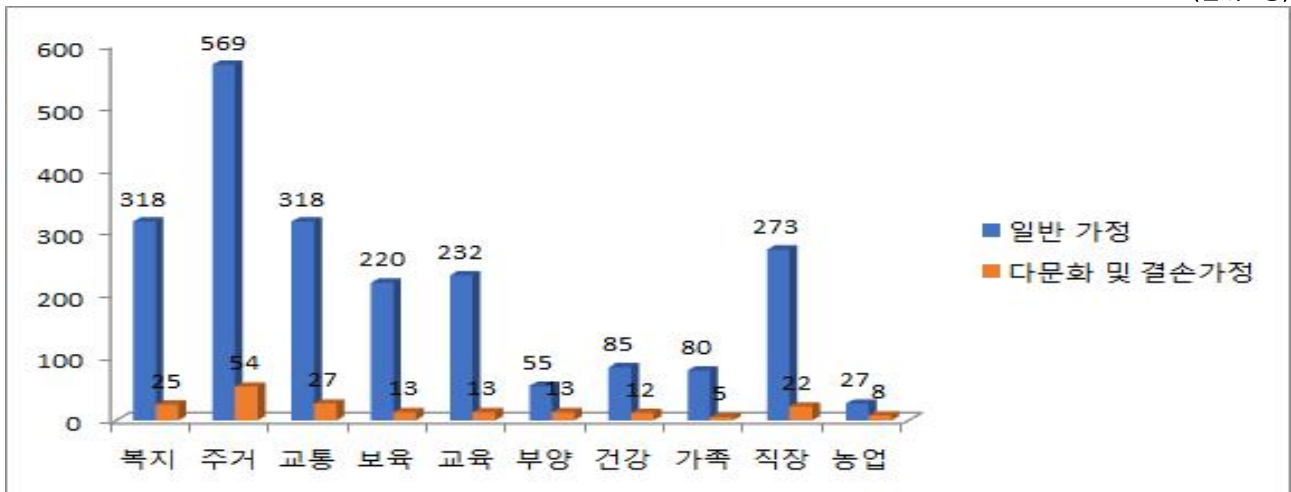
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은 주거(54.3), 교통(30.1), 복지(29.9), 직장(25.7), 교육(21.4), 보육(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태로 살펴보면 주거, 복지, 교통, 직장 등의 순으로 일반가정이 다문화 및 결손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면, 주거, 교통, 복지, 직장 등의 순으로 맞벌이가 외벌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소득으로 살펴보면, 주거, 복지, 교통, 직장, 교육 등의 순으로 400만 이상 500만원 미만인 도민이 다른 월 평균소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9〉 도민이 인식하는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환경 변인(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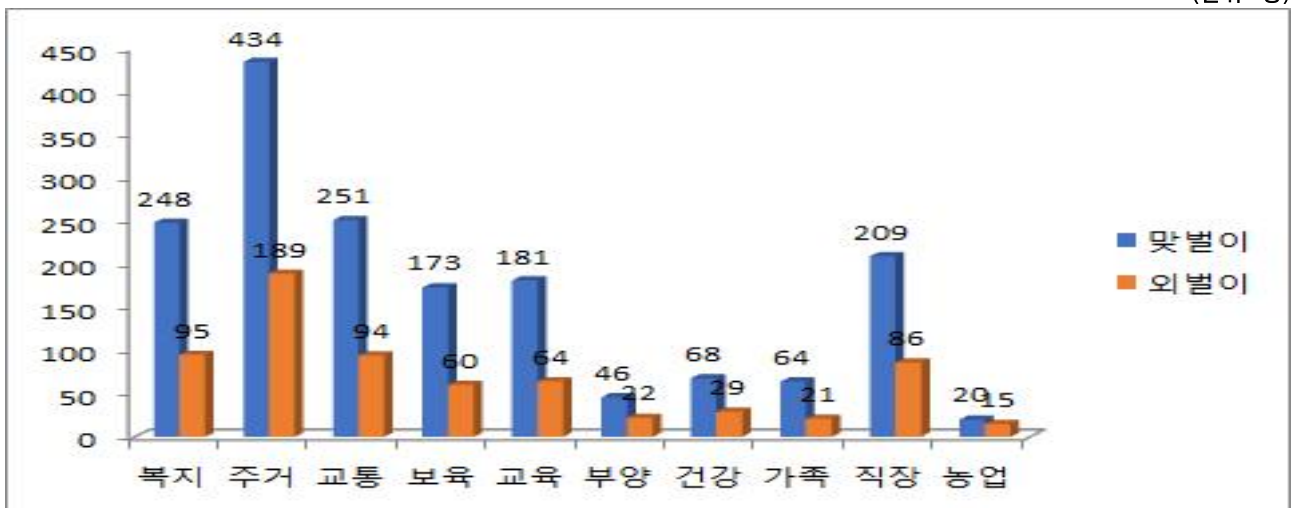
구분		집단	복지	주거	교통	보육	교육	부양	건강	가족	직장	농업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318 (30.1)	569 (53.9)	318 (30.1)	220 (20.8)	232 (22.0)	55 (5.2)	85 (8.0)	80 (7.6)	273 (25.9)	27 (2.1)
		다문화 및 결손가정	25 (27.5)	54 (59.3)	27 (29.7)	13 (14.3)	13 (14.3)	13 (14.3)	12 (13.2)	5 (5.5)	22 (24.2)	8 (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8 (30.2)	434 (52.9)	251 (30.6)	173 (21.1)	181 (22.1)	46 (5.6)	68 (8.3)	64 (7.8)	209 (25.5)	20 (1.8)
		외벌이	95 (29.1)	189 (57.8)	94 (28.7)	60 (18.3)	64 (19.6)	22 (6.7)	29 (8.9)	21 (6.4)	86 (26.3)	15 (3.1)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61 (29.3)	123 (59.1)	66 (31.7)	32 (15.4)	35 (16.8)	15 (7.2)	11 (5.3)	13 (6.3)	61 (29.3)	8 (1.4)
		200-300만원 미만	64 (28.3)	122 (54.0)	70 (31.0)	42 (18.6)	50 (22.1)	18 (8.0)	25 (11.1)	18 (8.0)	56 (24.8)	12 (3.1)
		300-400만원 미만	75 (28.2)	146 (54.9)	82 (30.8)	57 (21.4)	55 (20.7)	10 (3.8)	24 (9.0)	22 (8.3)	75 (28.2)	12 (2.6)
		400-500만원 미만	109 (30.4)	176 (49.2)	98 (27.4)	78 (21.8)	84 (23.5)	18 (5.0)	29 (8.1)	24 (6.7)	80 (22.3)	12 (2.0)
		500만원 이상	34 (38.2)	56 (62.9)	29 (32.6)	24 (27.0)	21 (23.6)	7 (7.9)	8 (9.0)	8 (9.0)	23 (25.8)	6 (1.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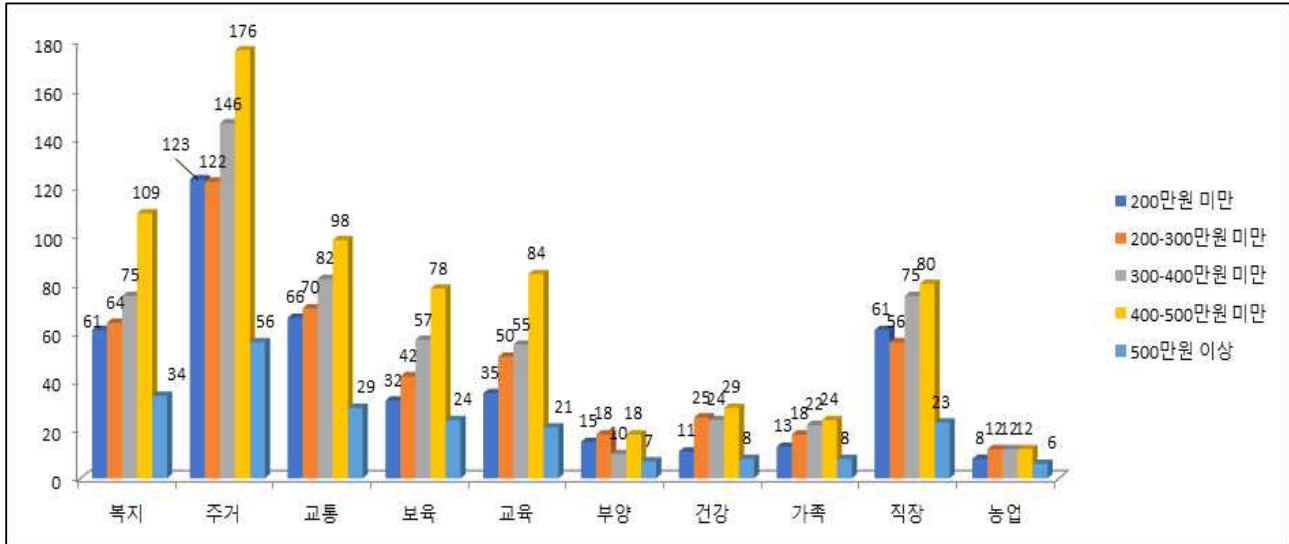
[그림 III-42] 도민의 가정형태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단위: 명)



[그림 III-43] 도민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단위: 명)



[그림 III-44] 도민의 월 평균소득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3)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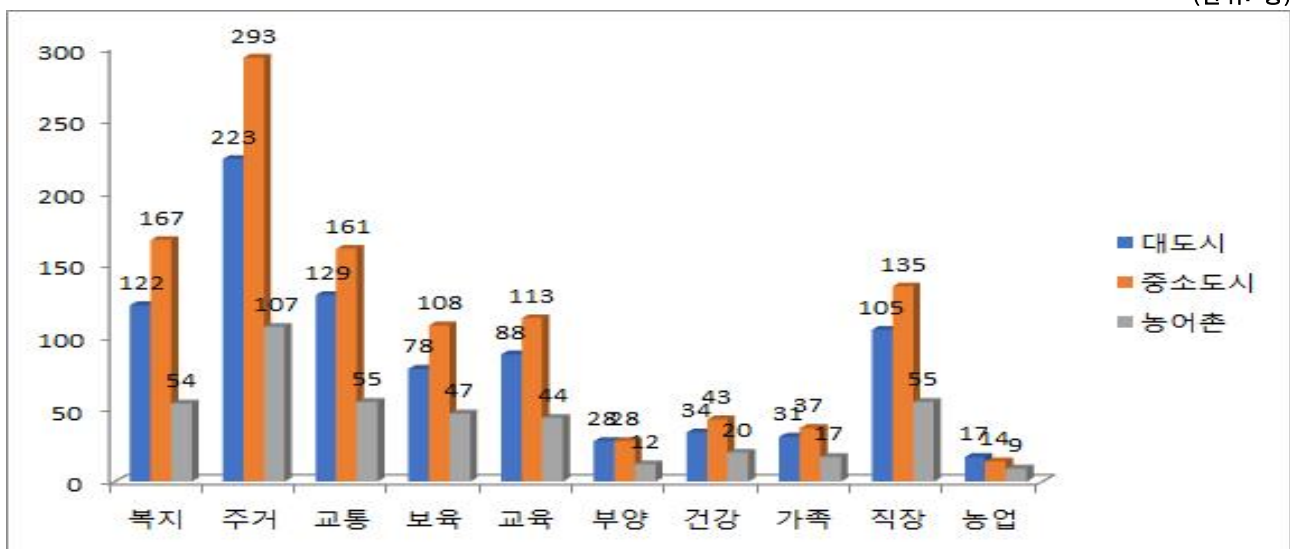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은 주거(54.3), 교통(30.1), 복지(29.9), 직장(25.7), 교육(21.4), 보육(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로 살펴보면 주거, 복지, 교통, 직장, 교육 등의 순으로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복지, 주거, 교통, 보육, 교통에 대한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미는 교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포항과 영주는 복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양, 건강, 가족, 직장, 농업에 대한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은 농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나머지 지역에서 직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0〉 도민이 인식하는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분석: 거주지역 변인(중복응답)

구분		집단	복지	주거	교통	보육	교육	부양	건강	가족	직장	농업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122 (28.4)	223 (51.9)	129 (30.0)	78 (18.1)	88 (20.5)	28 (6.5)	34 (7.9)	31 (7.2)	105 (24.4)	17 (2.6)
		중소도시	167 (32.8)	293 (57.6)	161 (31.6)	108 (21.2)	113 (22.2)	28 (5.5)	43 (8.4)	37 (7.3)	135 (26.5)	14 (1.8)
		농어촌	54 (26.0)	107 (51.4)	55 (26.4)	47 (22.6)	44 (21.2)	12 (5.8)	20 (9.6)	17 (8.2)	55 (26.4)	9 (2.4)
	시군 지역	포항	36 (34.0)	59 (55.7)	33 (31.1)	17 (16.0)	18 (17.0)	8 (7.5)	11 (10.4)	9 (8.5)	15 (14.2)	6 (0.9)
		경주	33 (28.7)	56 (48.7)	32 (27.8)	25 (21.7)	23 (20.0)	6 (5.2)	10 (8.7)	5 (4.3)	27 (23.5)	8 (2.6)
		김천	22 (27.2)	43 (53.1)	26 (32.1)	16 (19.8)	27 (33.3)	8 (9.9)	7 (8.6)	3 (3.7)	28 (34.6)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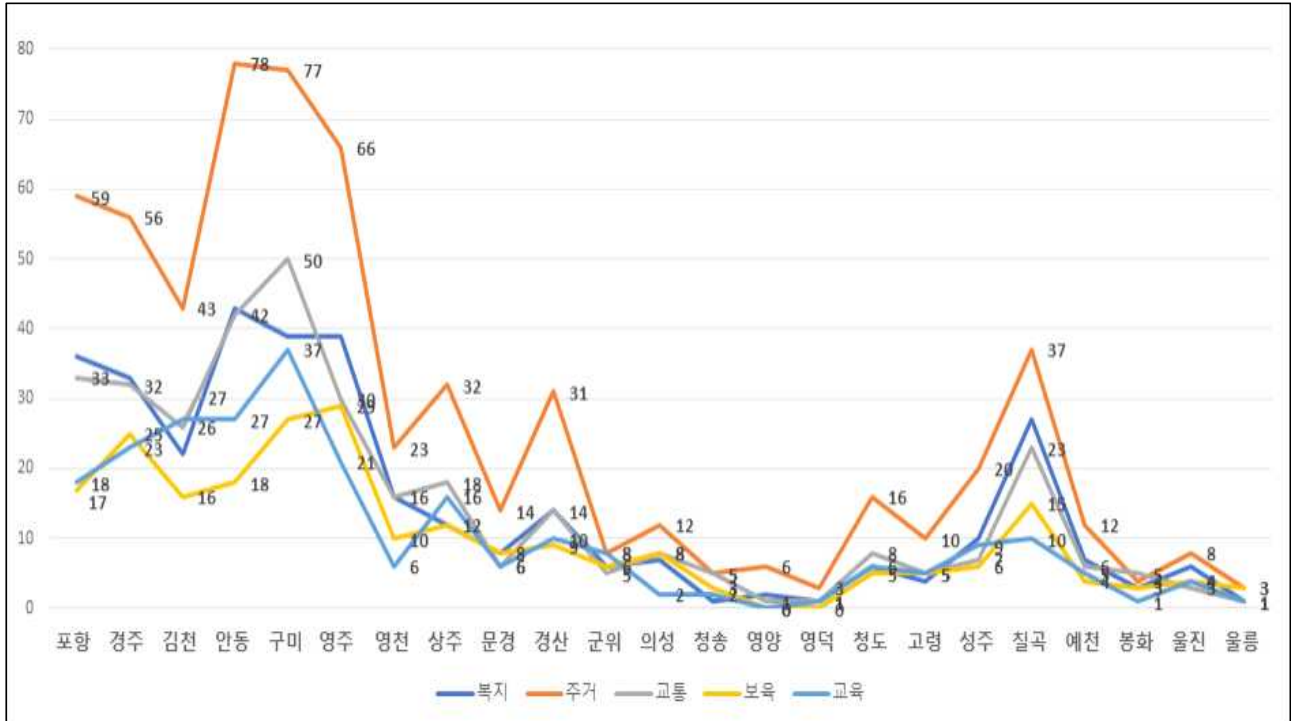
안동	43 (32.8)	78 (59.5)	42 (32.1)	18 (13.7)	27 (20.6)	3 (2.3)	13 (9.9)	6 (4.6)	24 (18.3)	7 (1.5)
구미	39 (26.0)	77 (51.3)	50 (33.3)	27 (18.0)	37 (24.7)	9 (6.0)	10 (6.7)	10 (6.7)	46 (30.7)	11 (4.0)
영주	39 (35.8)	66 (60.6)	30 (27.5)	29 (26.6)	21 (19.3)	6 (5.5)	10 (9.2)	7 (6.4)	30 (27.5)	7 (1.8)
영천	16 (34.0)	23 (48.9)	16 (34.0)	10 (21.3)	6 (12.8)	4 (8.5)	3 (6.4)	7 (14.9)	10 (21.3)	6 (2.1)
상주	12 (22.2)	32 (59.3)	18 (33.3)	12 (22.2)	16 (29.6)	1 (1.9)	3 (5.6)	3 (5.6)	18 (33.3)	8 (5.6)
문경	8 (40.0)	14 (70.0)	6 (30.0)	8 (40.0)	6 (30.0)	0 (0.0)	3 (15.0)	2 (10.0)	7 (35.0)	5 (0.0)
경산	14 (23.7)	31 (52.5)	14 (23.7)	9 (15.3)	10 (16.9)	5 (8.5)	3 (5.1)	7 (11.9)	17 (28.8)	6 (1.7)
군위	6 (33.3)	8 (44.4)	5 (27.8)	6 (33.3)	8 (44.4)	0 (0.0)	2 (11.1)	2 (11.1)	6 (33.3)	6 (5.6)
의성	7 (33.3)	12 (57.1)	8 (38.1)	8 (38.1)	2 (9.5)	2 (9.5)	1 (4.8)	1 (4.8)	1 (4.8)	6 (4.8)
청송	1 (7.7)	5 (38.5)	5 (38.5)	3 (23.1)	2 (15.4)	1 (7.7)	0 (0.0)	2 (15.4)	3 (23.1)	5 (0.0)
영양	2 (25.0)	6 (75.0)	1 (12.5)	0 (0.0)	0 (0.0)	1 (12.5)	0 (0.0)	2 (25.0)	2 (25.0)	5 (0.0)
영덕	1 (14.3)	3 (42.9)	1 (14.3)	0 (0.0)	1 (14.3)	0 (0.0)	1 (14.3)	0 (0.0)	1 (14.3)	5 (0.0)
청도	6 (22.2)	16 (59.3)	8 (29.6)	5 (18.5)	6 (22.2)	1 (3.7)	4 (14.8)	2 (7.4)	8 (29.6)	5 (0.0)
고령	4 (28.6)	10 (71.4)	5 (35.7)	5 (35.7)	5 (35.7)	0 (0.0)	4 (28.6)	0 (0.0)	6 (42.9)	5 (0.0)
성주	10 (24.4)	20 (48.8)	7 (17.1)	6 (14.6)	9 (22.0)	2 (4.9)	1 (2.4)	4 (9.8)	12 (29.3)	7 (4.9)
칠곡	27 (40.3)	37 (55.2)	23 (34.3)	15 (22.4)	10 (14.9)	6 (9.0)	4 (6.0)	9 (13.4)	18 (26.9)	5 (0.0)
예천	7 (28.0)	12 (48.0)	6 (24.0)	4 (16.0)	5 (20.0)	0 (0.0)	5 (20.0)	2 (8.0)	7 (28.0)	5 (0.0)
봉화	3 (27.3)	4 (36.4)	5 (45.5)	3 (27.3)	1 (9.1)	2 (18.2)	0 (0.0)	0 (0.0)	3 (27.3)	5 (9.1)
울진	6 (40.0)	8 (53.3)	3 (20.0)	4 (26.7)	4 (26.7)	3 (20.0)	2 (13.3)	1 (6.7)	3 (20.0)	5 (0.0)
울릉	1 (12.5)	3 (37.5)	1 (12.5)	3 (37.5)	1 (12.5)	0 (0.0)	0 (0.0)	1 (12.5)	3 (37.5)	5 (0.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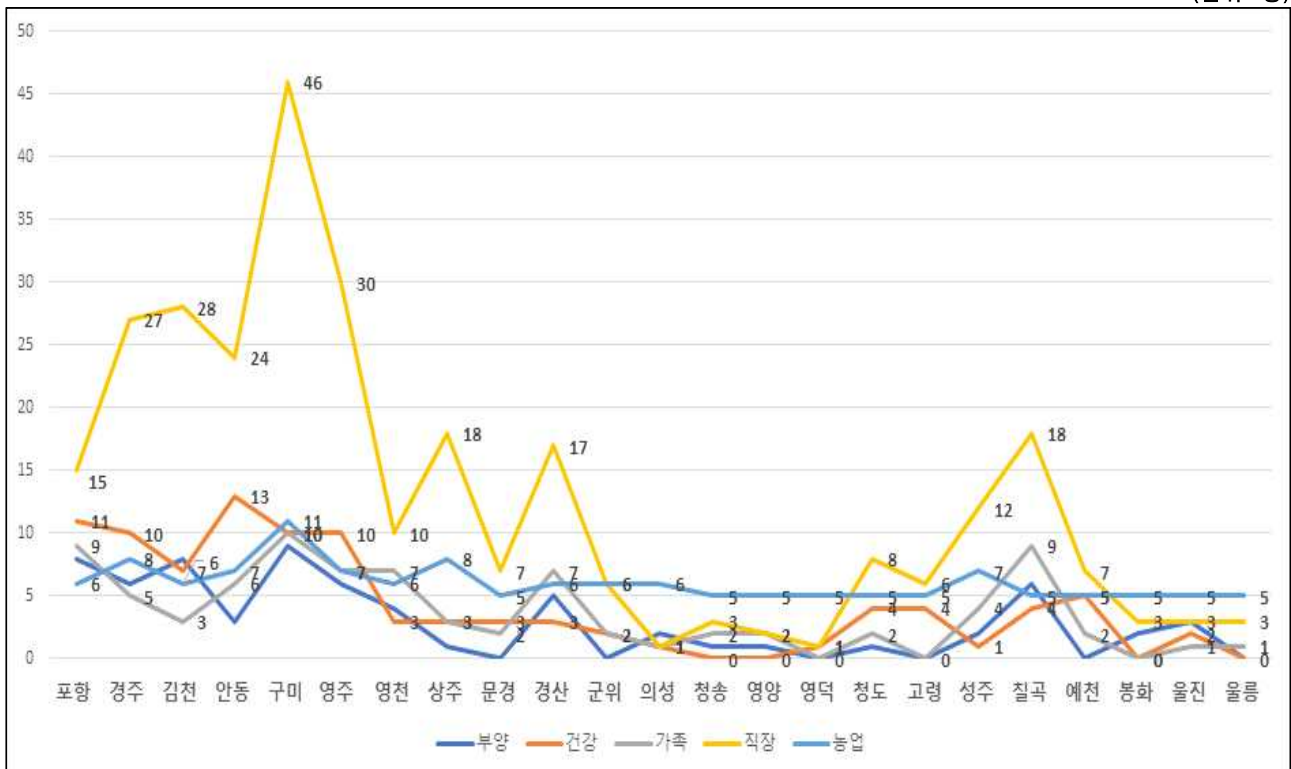
[그림 III-45] 도민의 도시 규모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

(단위: 명)



[그림 III-46] 도민의 시군 지역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1)

(단위: 명)



[그림 III-47] 도민의 시군 지역에 따른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인 비교(2)

6. 도민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차이 분석

가.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분석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결혼 경력($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30세 이하는 실제 출산 자녀 수가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31세 이상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경력에서 1년 미만인 경우는 실제 출산 자녀 수가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은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년 이상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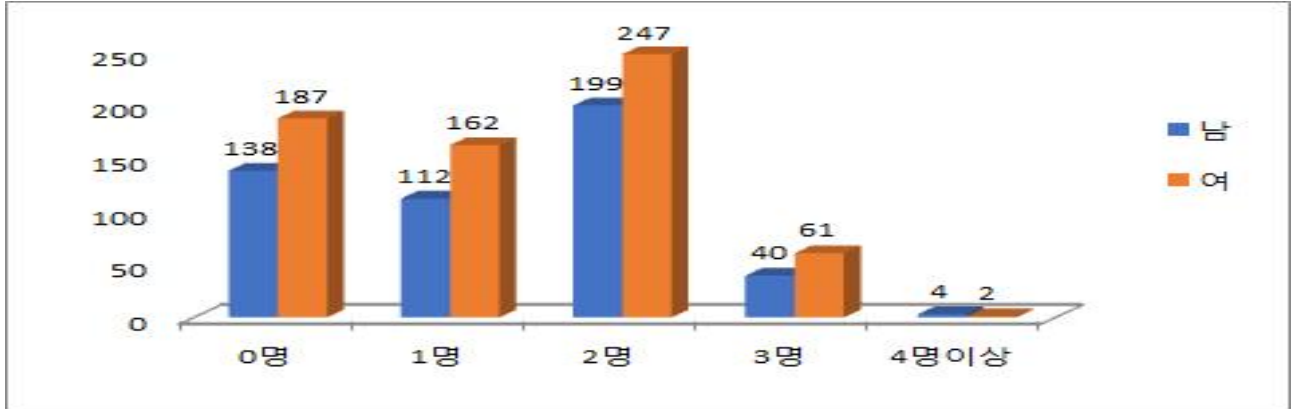
〈표 III-4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138 (28.0)	112 (22.7)	199 (40.4)	40 (8.1)	4 (0.8)	2.850
		여	187 (28.4)	162 (24.6)	247 (37.5)	61 (9.3)	2 (0.3)	
	연령	25세 이하	82 (74.5)	17 (15.5)	8 (7.3)	3 (2.7)	0 (0)	323.733**
		26-30세	105 (47.3)	69 (31.1)	43 (19.4)	5 (2.3)	0 (0.0)	
		31-35세	80 (28.1)	85 (29.8)	107 (37.5)	11 (3.9)	2 (0.7)	
		36-40세	53 (12.5)	76 (18.0)	225 (53.2)	66 (15.6)	3 (0.7)	
		41세 이상	5 (4.5)	27 (24.1)	63 (56.3)	16 (14.3)	1 (0.9)	
	결혼 경력	미혼	143 (86.7)	10 (6.1)	9 (5.5)	3 (1.8)	0 (0.0)	773.962**
		1년 미만	75 (68.8)	31 (28.4)	3 (2.8)	0 (0.0)	0 (0.0)	
		1-5년	76 (31.5)	109 (45.2)	56 (23.2)	0 (0.0)	0 (0.0)	
		6-10년	10 (4.5)	79 (35.7)	113 (51.1)	19 (8.6)	0 (0.0)	
		11년 이상	21 (5)	45 (10.8)	265 (63.7)	79 (19.0)	6 (1.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8 (20.0)	18 (20.0)	41 (45.6)	12 (13.3)	1 (1.1)	9.594
		대졸	226 (29.9)	176 (23.3)	283 (37.5)	66 (8.7)	4 (0.5)	
		대학원 졸업 이상	81 (26.4)	80 (26.1)	122 (39.7)	23 (7.5)	1 (0.3)	

직업	기능 및 노무직	18 (12.6)	43 (30.1)	61 (42.7)	19 (13.3)	2 (1.4)	2.048
	관리 및 전문직	290 (31.0)	213 (22.8)	354 (37.8)	76 (8.1)	3 (0.3)	
	무직	17 (23.3)	18 (24.7)	31 (42.5)	6 (8.2)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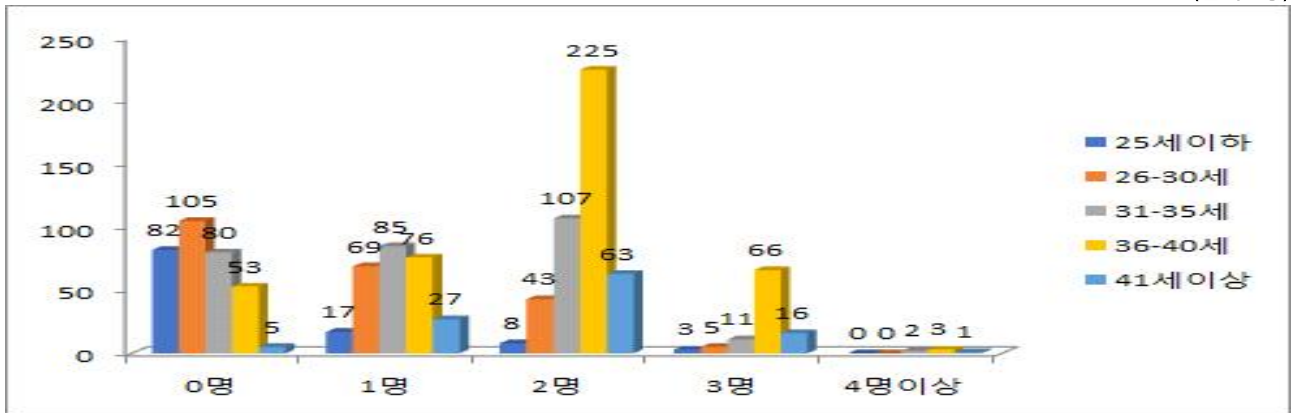
*p< .05, **p< .0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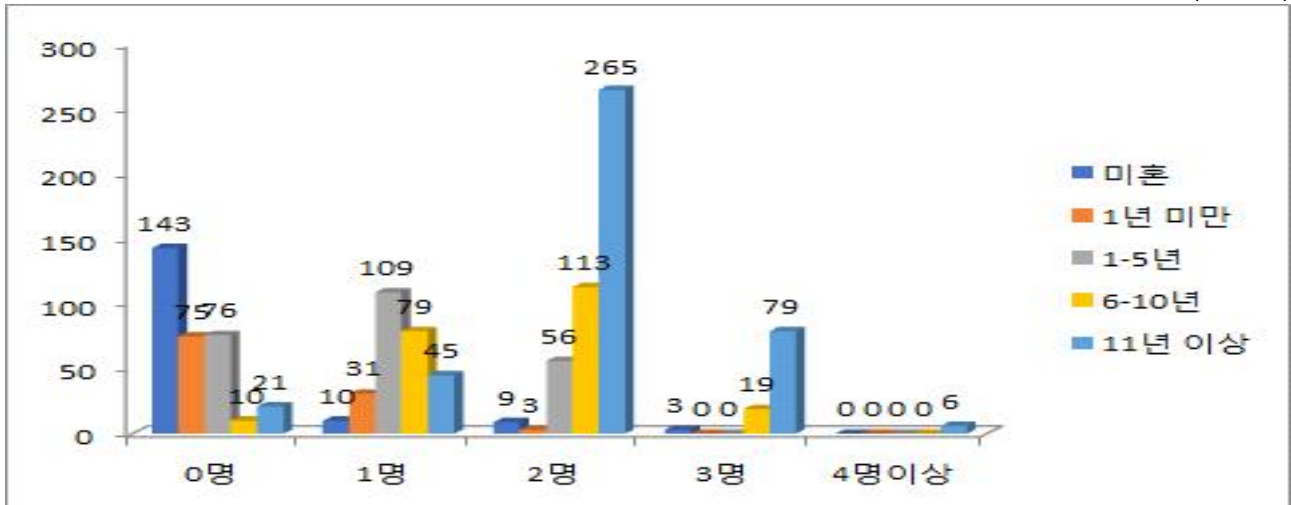
[그림 III-48] 도민의 성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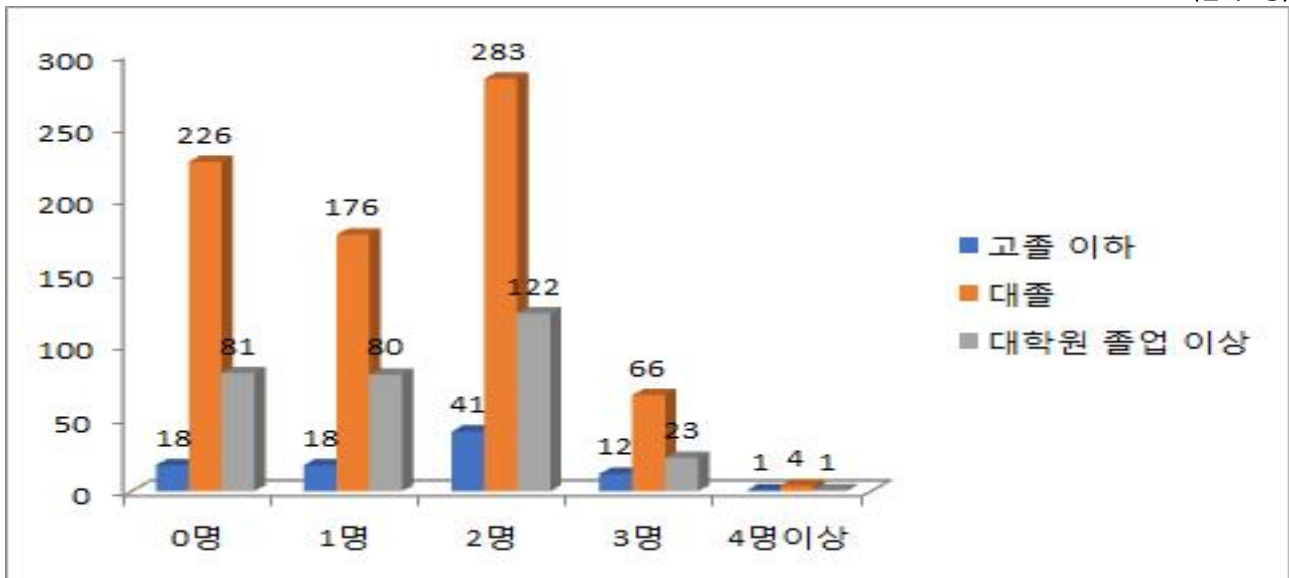
[그림 III-49] 도민의 연령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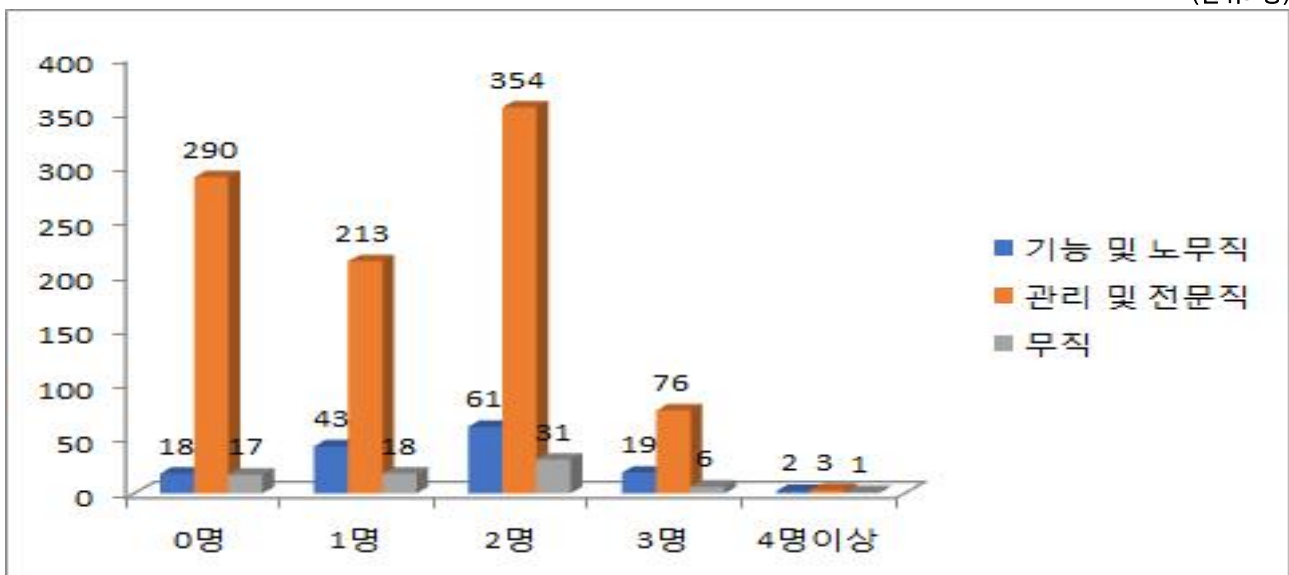
[그림 III-50] 도민의 결혼 경력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51] 도민의 최종 학력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52] 도민의 직업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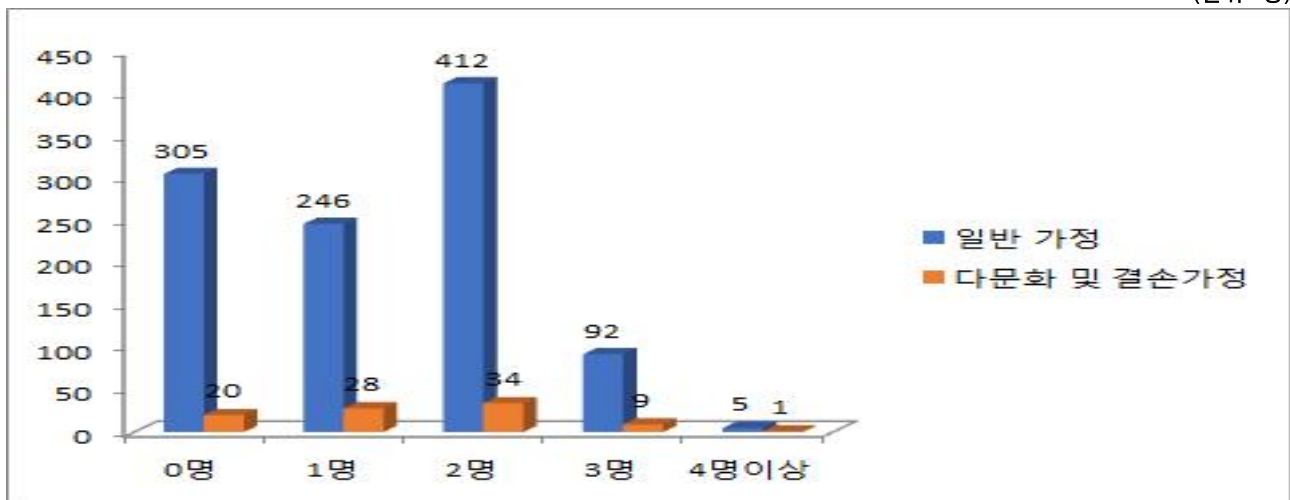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여부($p<.01$), 월 평균 소득($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 맞벌이는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벌이는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305 (28.8)	246 (23.2)	412 (38.9)	92 (8.7)	5 (0.5)	4.157
		다문화 및 결손가정	20 (21.7)	28 (30.4)	34 (37.0)	9 (9.8)	1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5 (23.7)	209 (25.4)	334 (40.5)	82 (10.0)	4 (0.5)	31.412**
		외벌이	130 (39.6)	65 (19.8)	112 (34.1)	19 (5.8)	2 (0.6)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03 (49.3)	47 (22.5)	50 (23.9)	8 (3.8)	1 (0.5)	80.381**
		200-300만원 미만	67 (29.5)	55 (24.2)	84 (37.0)	20 (8.8)	1 (0.4)	
		300-400만원 미만	74 (27.7)	67 (25.1)	104 (39.0)	21 (7.9)	1 (0.4)	
		400-500만원 미만	67 (18.6)	81 (22.5)	168 (46.7)	42 (11.7)	2 (0.6)	
		500만원 이상	14 (15.7)	24 (27.0)	40 (44.9)	10 (11.2)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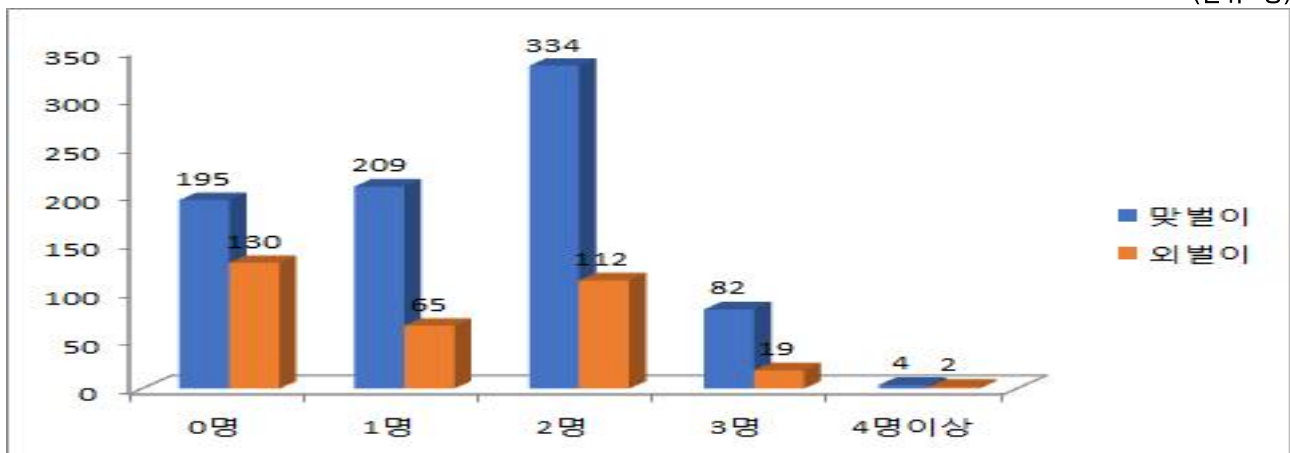
*p< .05, **p< .0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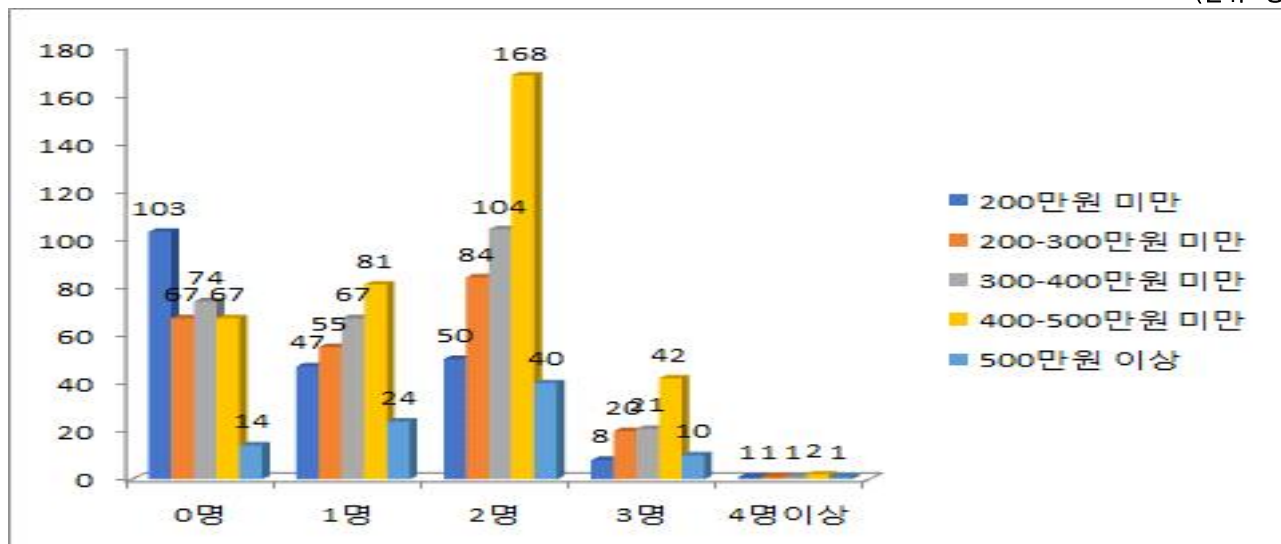
[그림 III-53] 도민의 가정 형태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54] 도민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55] 도민의 월 평균소득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분석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군지역($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군 지역에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칠곡에서는 실제 출산 자녀 수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영주,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 울릉에서는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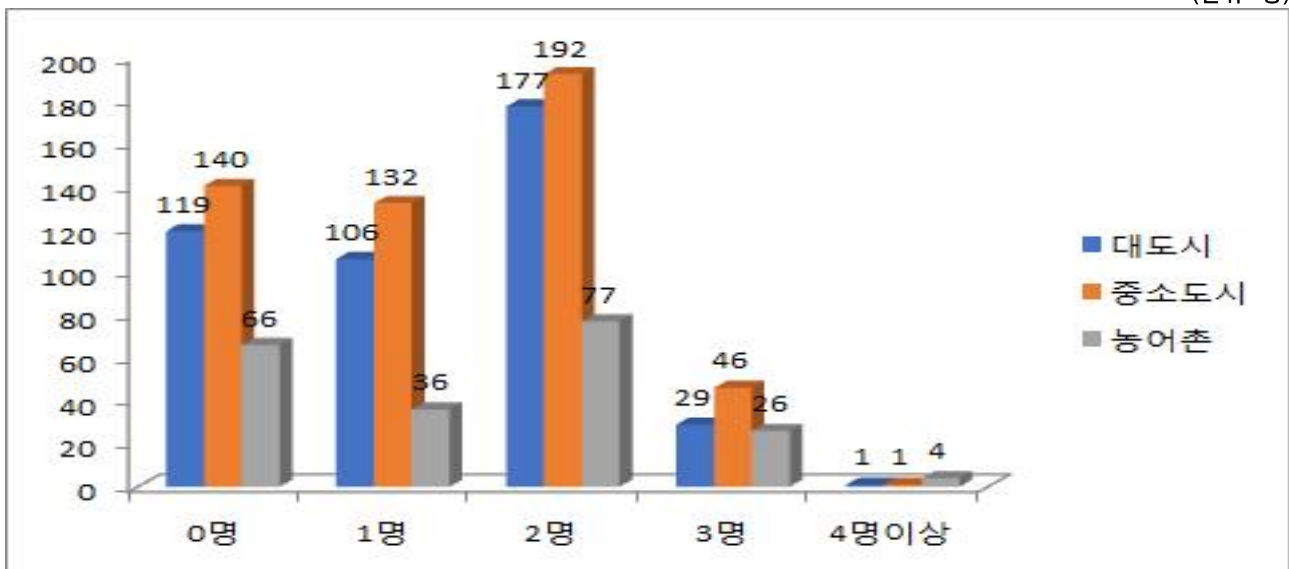
〈표 III-4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119 (27.5)	106 (24.5)	177 (41.0)	29 (6.7)	1 (0.2)	2.588
		중소도시	140 (27.4)	132 (25.8)	192 (37.6)	46 (9.0)	1 (0.2)	
		농어촌	66 (31.6)	36 (17.2)	77 (36.8)	26 (12.4)	4 (1.9)	
	시군 지역	포항	32 (30.2)	33 (31.1)	34 (32.1)	7 (6.6)	0 (0.0)	233.074**
		경주	24 (20.9)	22 (19.1)	59 (51.3)	10 (8.7)	0 (0.0)	
		김천	11 (13.6)	25 (30.9)	35 (43.2)	10 (12.3)	0 (0.0)	
		안동	33 (25.0)	30 (22.7)	59 (44.7)	10 (7.6)	0 (0.0)	
		구미	42 (27.6)	28 (18.4)	69 (45.4)	12 (7.9)	1 (0.7)	
		영주	38 (34.9)	31 (28.4)	33 (30.3)	6 (5.5)	1 (0.9)	

영천	14 (29.8)	14 (29.8)	17 (36.2)	2 (4.3)	0 (0.0)
상주	22 (40.0)	8 (14.5)	16 (29.1)	9 (16.4)	0 (0.0)
문경	8 (40.0)	3 (15.0)	6 (30.0)	3 (15.0)	0 (0.0)
경산	21 (35.6)	23 (39.0)	15 (25.4)	0 (0.0)	0 (0.0)
군위	7 (36.8)	4 (21.1)	7 (36.8)	1 (5.3)	0 (0.0)
의성	0 (0.0)	2 (9.5)	9 (42.9)	7 (33.3)	3 (14.3)
청송	6 (46.2)	0 (0.0)	6 (46.2)	1 (7.7)	0 (0.0)
영양	3 (37.5)	1 (12.5)	2 (25.0)	2 (25.0)	0 (0.0)
영덕	2 (28.6)	2 (28.6)	3 (42.9)	0 (0.0)	0 (0.0)
청도	10 (37.0)	7 (25.9)	9 (33.3)	1 (3.7)	0 (0.0)
고령	0 (0.0)	3 (21.4)	7 (50.0)	3 (21.4)	1 (7.1)
성주	7 (17.1)	6 (14.6)	21 (51.2)	7 (17.1)	0 (0.0)
칠곡	14 (20.9)	21 (31.3)	26 (38.8)	6 (9.0)	0 (0.0)
예천	13 (52.0)	4 (16.0)	8 (32.0)	0 (0.0)	0 (0.0)
봉화	4 (36.4)	3 (27.3)	2 (18.2)	2 (18.2)	0 (0.0)
울진	8 (53.3)	3 (20.0)	3 (20.0)	1 (6.7)	0 (0.0)
울릉	6 (75.0)	1 (12.5)	0 (0.0)	1 (12.5)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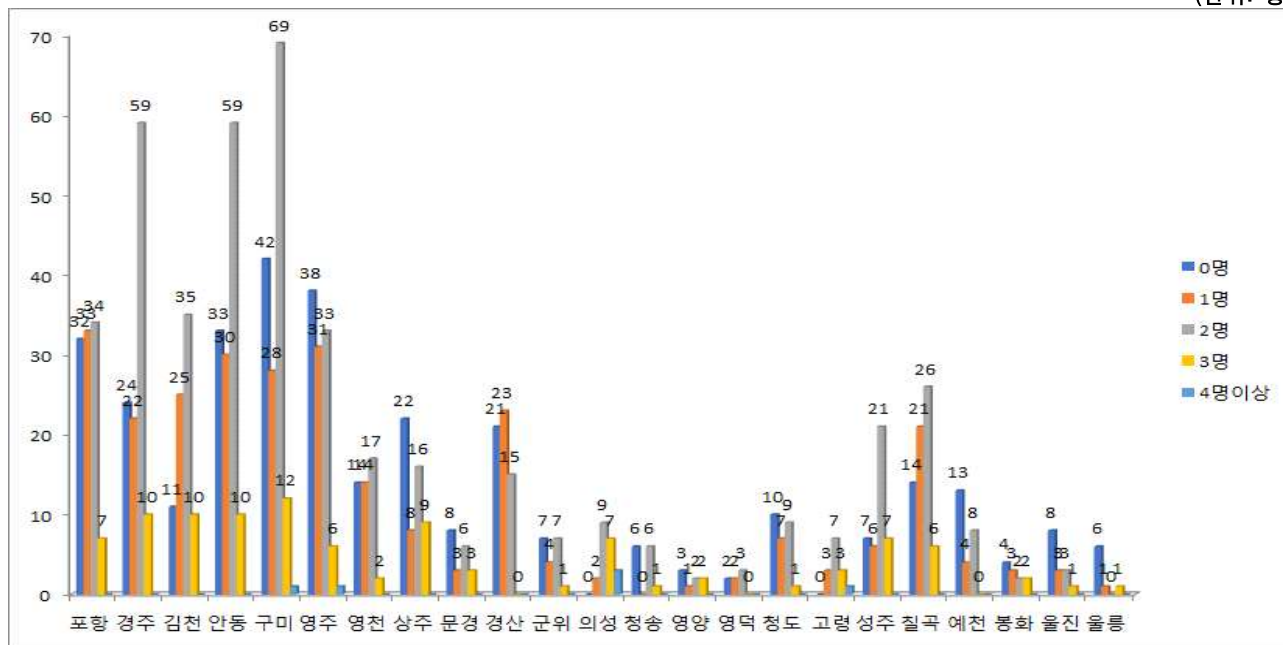
*p< .05, **p< .01

(단위: 명)



[그림 III-56] 도민의 도시 규모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57] 도민의 시군지역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비교

나.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 < .01$), 결혼 경력($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35세 이하는 이상적인 출산 자녀 수가 1-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36세 이상은 2-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경력에서 5년 미만인 경우는 이상적인 출산 자녀 수가 1-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년 이상은 2-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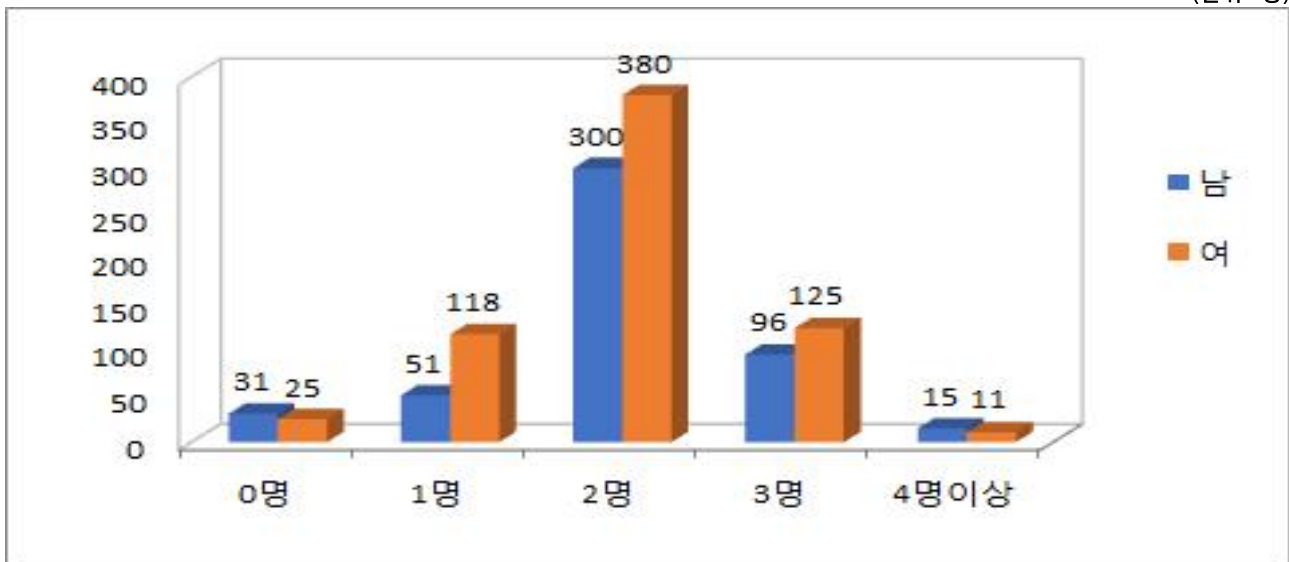
〈표 III-44〉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31 (6.3)	51 (10.3)	300 (60.9)	96 (19.5)	15 (3.0)
		여	25 (3.8)	118 (17.9)	380 (57.7)	125 (19.0)	11 (1.7)
	연령	25세 이하	7 (6.4)	29 (26.4)	56 (50.9)	18 (16.4)	0 (0.0)
		26-30세	12 (5.4)	36 (16.2)	137 (61.7)	34 (15.3)	3 (1.4)

		31-35세	16 (5.6)	50 (17.5)	183 (64.2)	33 (11.6)	3 (1.1)	
		36-40세	19 (4.5)	45 (10.6)	234 (55.3)	112 (26.5)	13 (3.1)	
		41세 이상	2 (1.8)	9 (8.0)	70 (62.5)	24 (21.4)	7 (6.3)	
	결혼 경력	미혼	20 (12.1)	29 (17.6)	96 (58.2)	19 (11.5)	1 (0.6)	124.129**
		1년 미만	10 (9.2)	31 (28.4)	55 (50.5)	12 (11.0)	1 (0.9)	
		1-5년	7 (2.9)	50 (20.7)	146 (60.6)	33 (13.7)	5 (2.1)	
		6-10년	10 (4.5)	20 (9.0)	157 (71.0)	32 (14.5)	2 (0.9)	
		11년 이상	9 (2.2)	39 (9.4)	226 (54.3)	125 (30.0)	17 (4.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 (5.6)	14 (15.6)	47 (52.2)	18 (20.0)	6 (6.7)	11.939
		대졸	34 (4.5)	110 (14.6)	448 (59.3)	151 (20.0)	12 (1.6)	
		대학원 졸업 이상	17 (5.5)	45 (14.7)	185 (60.3)	52 (16.9)	8 (2.6)	
	직업	기능 및 노무직	5 (3.5)	25 (17.5)	85 (59.4)	25 (17.5)	3 (2.1)	4.710
		관리 및 전문직	49 (5.2)	130 (13.9)	555 (59.3)	180 (19.2)	22 (2.4)	
		무직	2 (2.7)	14 (19.2)	40 (54.8)	16 (21.9)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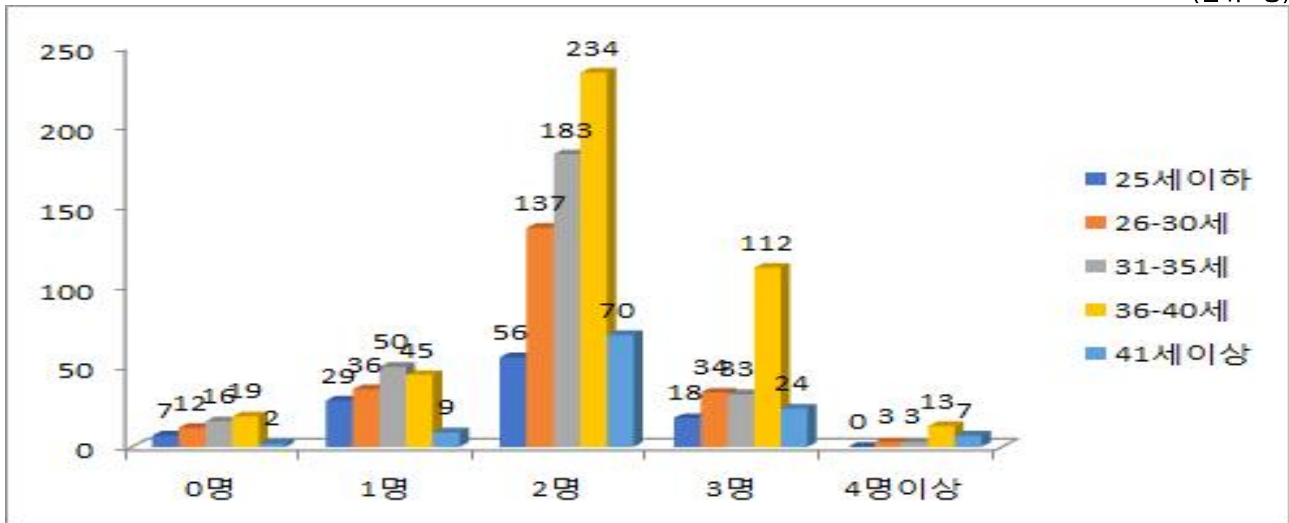
*p< .05, **p< .0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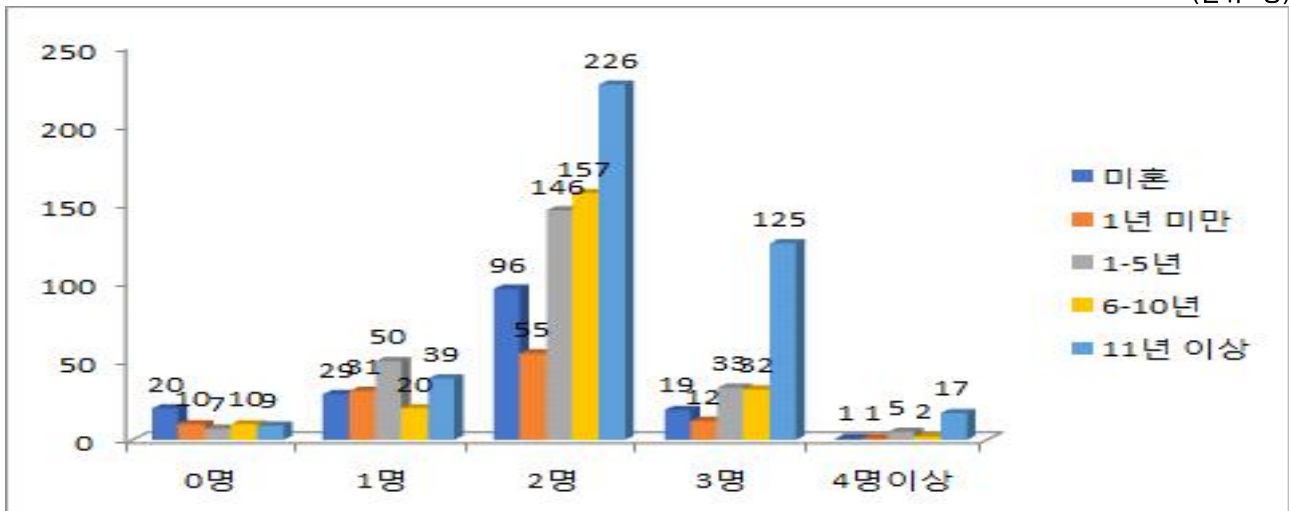
[그림 III-58] 도민의 성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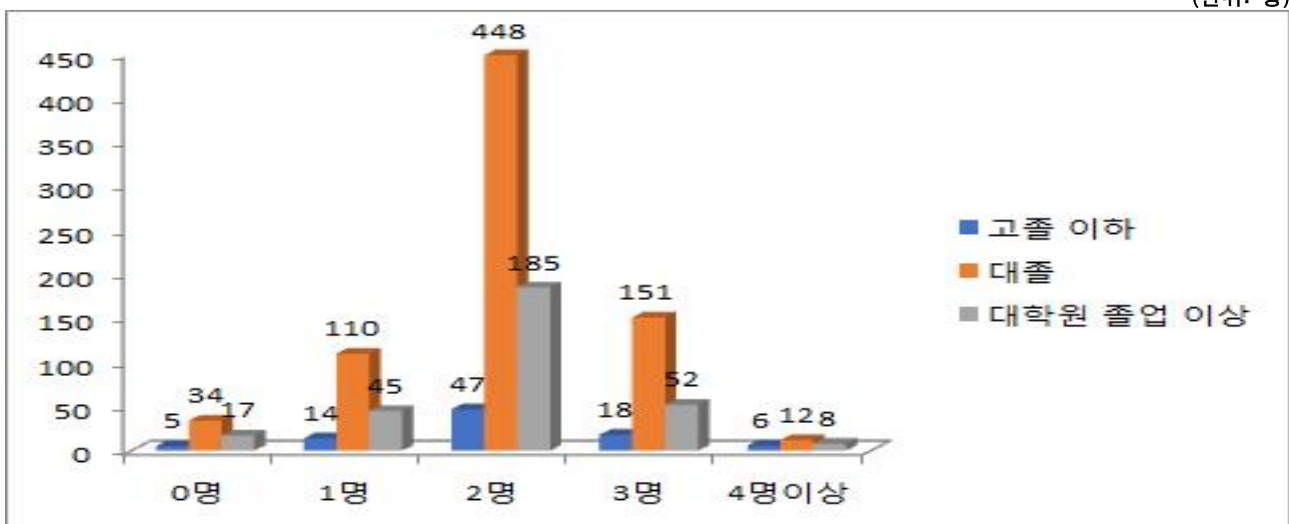
[그림 III-59] 도민의 연령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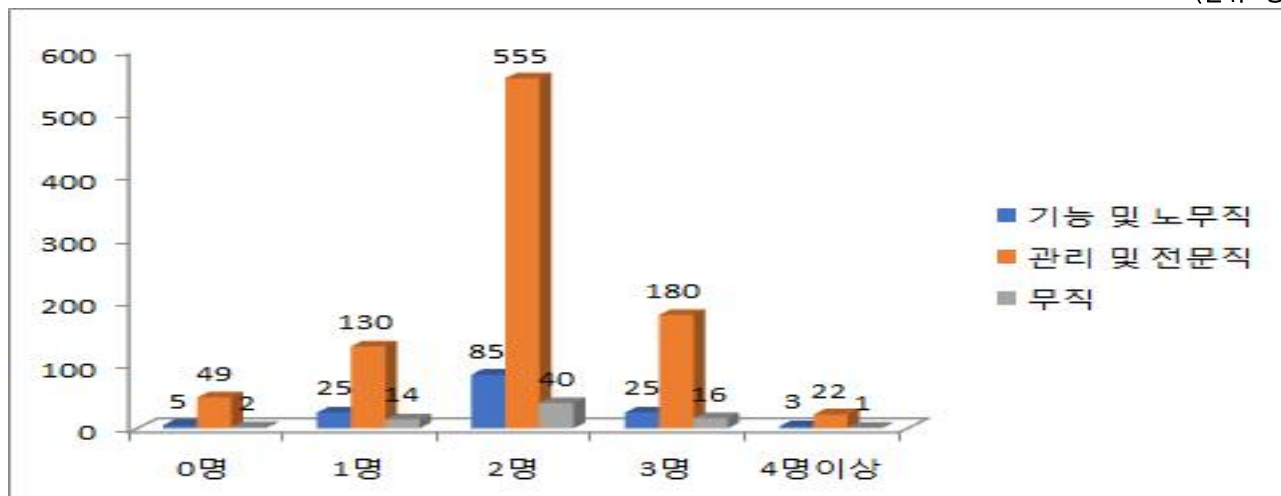
[그림 III-60] 도민의 결혼 경력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61] 도민의 최종 학력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62] 도민의 직업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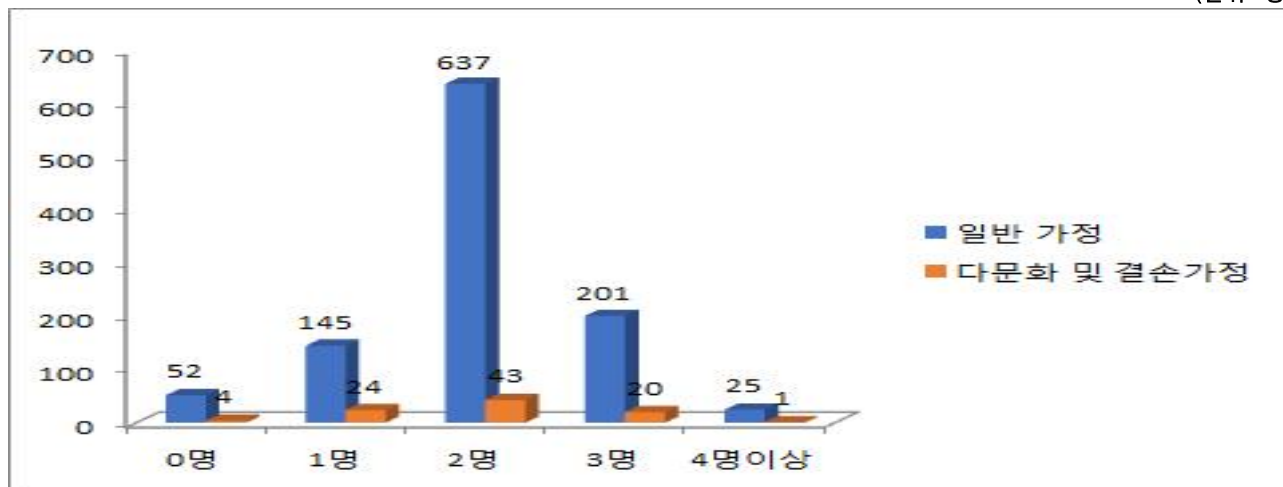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형태($p<.05$), 월 평균 소득($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일반 가정은 2-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1-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5〉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52 (4.9)	145 (13.7)	637 (60.1)	201 (19.0)	25 (2.4)	12.442*
		다문화 및 결손가정	4 (4.3)	24 (26.1)	43 (46.7)	20 (21.7)	1 (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 (4.4)	116 (14.1)	484 (58.7)	171 (20.8)	17 (2.1)	6.369
		외벌이	20 (6.1)	53 (16.2)	196 (59.8)	50 (15.2)	9 (2.7)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5 (7.2)	44 (21.1)	112 (53.6)	32 (15.3)	6 (2.9)	24.549**
		200-300만원 미만	8 (3.5)	27 (11.9)	146 (64.3)	43 (18.9)	3 (1.3)	
		300-400만원 미만	16 (6.0)	42 (15.7)	158 (59.2)	44 (16.5)	7 (2.6)	
		400-500만원 미만	13 (3.6)	43 (11.9)	212 (58.9)	85 (23.6)	7 (1.9)	
		500만원 이상	4 (4.5)	13 (14.6)	52 (58.4)	17 (19.1)	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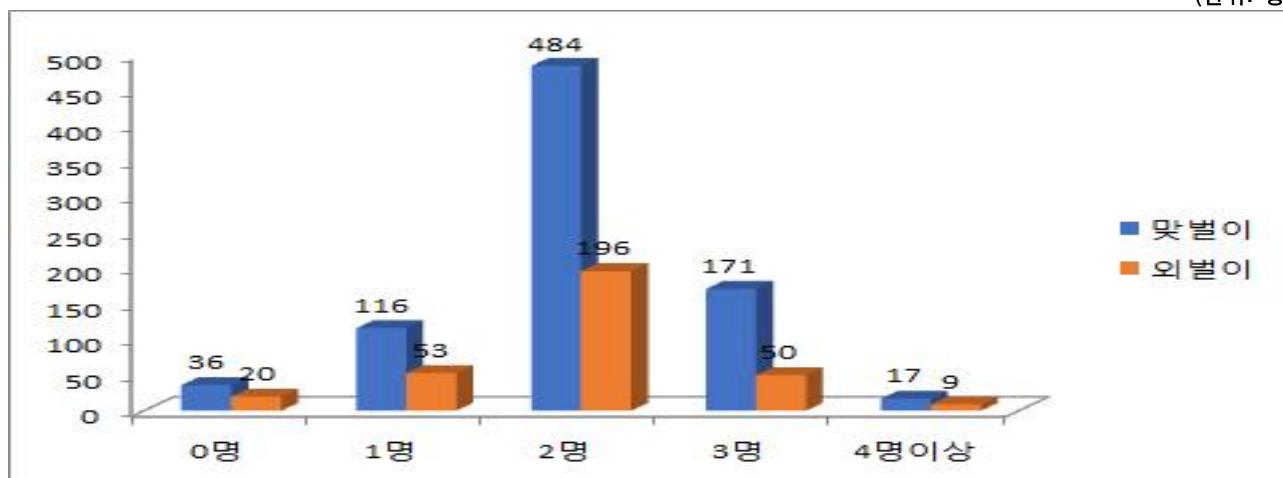
* $p<.05$, ** $p<.0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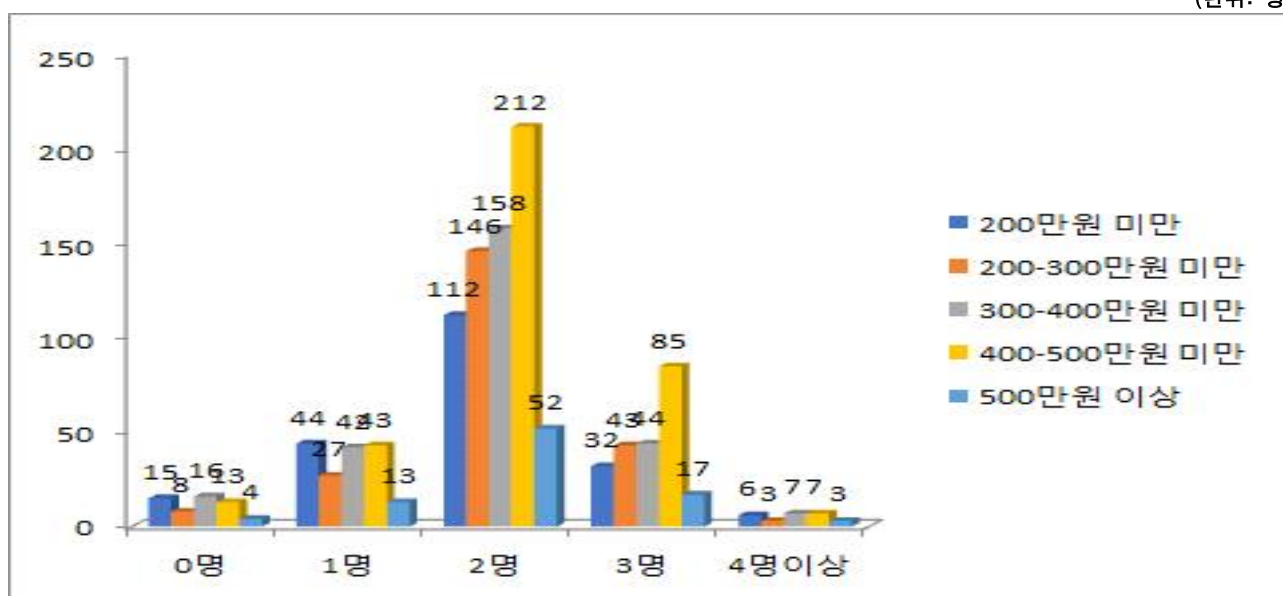
[그림 III-63] 도민의 가정 형태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64] 도민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65] 도민의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군 지역에서 포항, 영주, 경산, 군위, 영덕, 청도,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은 이상적인 출산 자녀 수가 1-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고령, 성주에서는 2-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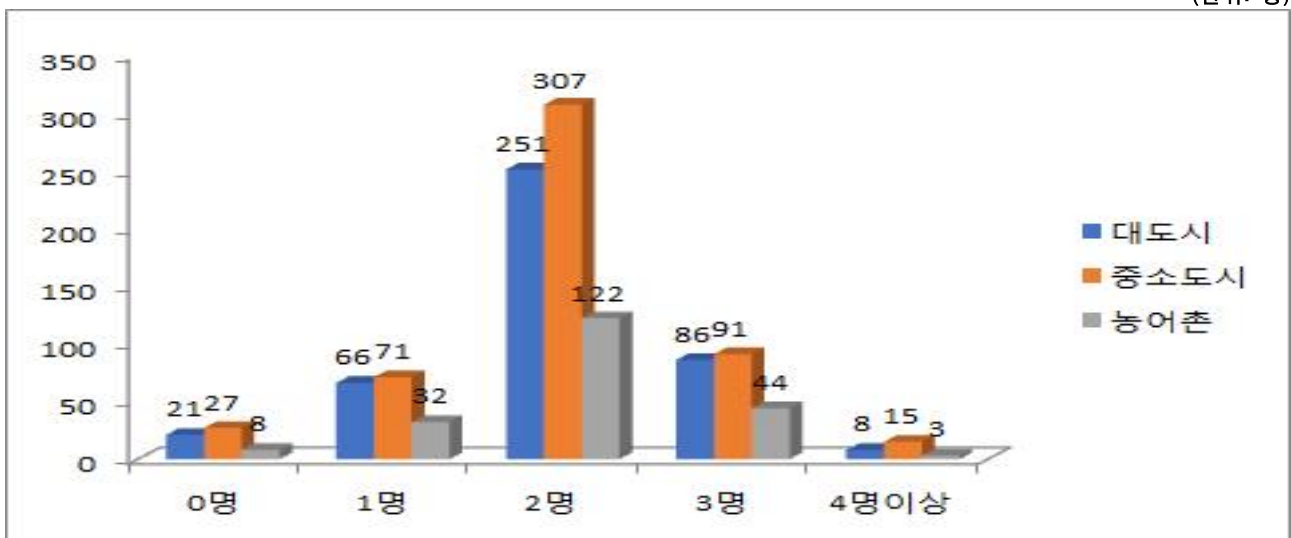
〈표 III-46〉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거주 지역 변인	도시 형태	대도시	21 (4.9)	66 (15.3)	251 (58.1)	86 (19.9)	8 (1.9)	4.181
		중소도시	27 (5.3)	71 (13.9)	307 (60.1)	91 (17.8)	15 (2.9)	
		농어촌	8 (3.8)	32 (15.3)	122 (58.4)	44 (21.1)	3 (1.4)	
	시군 지역	포항	6 (5.7)	22 (20.8)	60 (56.6)	18 (17.0)	0 (0.0)	97.931**
		경주	5 (4.3)	15 (13.0)	67 (58.3)	25 (21.7)	3 (2.6)	
		김천	0 (0.0)	11 (13.3)	57 (70.4)	12 (14.8)	1 (1.2)	
		안동	6 (4.5)	17 (12.9)	78 (59.1)	28 (21.2)	3 (2.3)	
		구미	7 (4.6)	14 (9.2)	92 (60.5)	35 (23.0)	4 (2.6)	
		영주	7 (6.4)	15 (13.8)	67 (61.5)	14 (12.8)	6 (5.5)	
		영천	2 (4.3)	5 (10.6)	28 (59.6)	12 (25.5)	0 (0.0)	
		상주	5 (9.1)	5 (9.1)	31 (56.4)	11 (20.2)	3 (5.5)	
		문경	3 (15.0)	2 (10.0)	10 (50.0)	4 (20.0)	1 (5.0)	
		경산	3 (5.1)	15 (25.4)	32 (54.2)	8 (13.6)	1 (1.7)	
		군위	2 (10.5)	5 (26.3)	11 (57.9)	1 (5.3)	0 (0.0)	
		의성	0 (0.0)	0 (0.0)	11 (52.4)	9 (42.9)	1 (4.8)	
		청송	2 (15.4)	0 (0.0)	7 (53.8)	4 (30.8)	0 (0.0)	
		영양	1 (12.5)	1 (12.5)	4 (50.0)	2 (25.0)	0 (0.0)	
		영덕	0 (0.0)	3 (42.9)	3 (42.9)	1 (14.3)	0 (0.0)	
		청도	1 (3.7)	4 (14.8)	18 (66.7)	4 (14.8)	0 (0.0)	

	고령	0 (0.0)	2 (14.3)	8 (57.1)	4 (28.6)	0 (0.0)
	성주	0 (0.0)	5 (12.2)	22 (53.7)	13 (31.7)	1 (2.4)
	칠곡	4 (6.0)	16 (23.9)	36 (53.7)	10 (14.9)	1 (1.5)
	예천	1 (4.0)	4 (16.0)	16 (64.0)	4 (16.0)	0 (0.0)
	봉화	0 (0.0)	3 (27.3)	7 (63.6)	1 (9.1)	0 (0.0)
	울진	1 (6.7)	3 (20.0)	9 (60.0)	1 (6.7)	1 (6.7)
	울릉	0 (0.0)	2 (25.0)	6 (75.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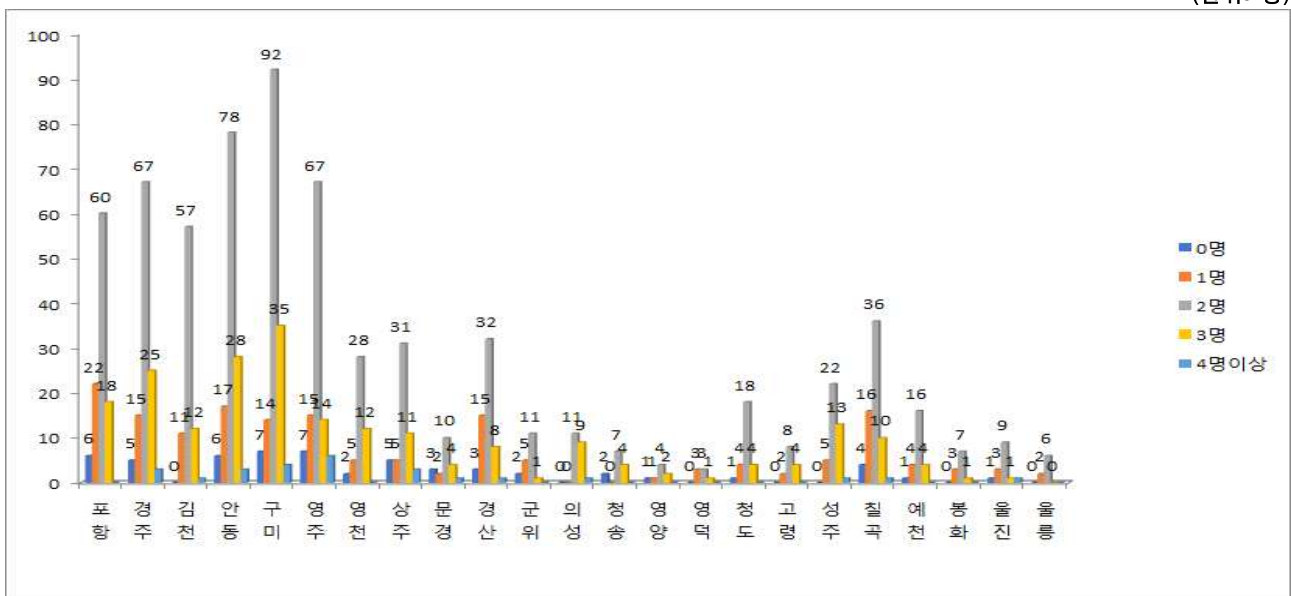
*p< .05, **p< .01

(단위: 명)



[그림 III-66] 도민의 도시 규모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67] 도민의 시군지역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다.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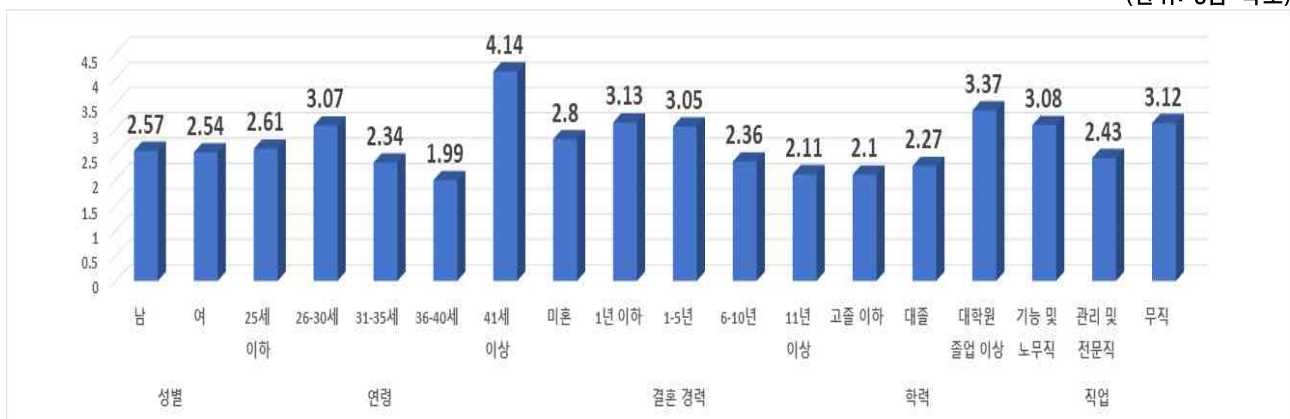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결혼경력($p<.01$), 학력($p<.01$), 직업($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1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 결혼 경력에서는 5년 이하가 6-10년, 11년 이상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업 이상이 고졸 이하와 대졸인 경북 도민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기능 및 노무직과 무직이 관리 및 전문직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7〉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2.57	0.097	
		여	659	2.54		
	연령	25세 이하 (A)	110	2.61	70.78**	E > A,B,C,D
		26-30세 (B)	222	3.07		
		31-35세 (C)	285	2.34		
		36-40세 (D)	423	1.99		
		41세 이상 (E)	112	4.14		
	결혼 경력	미혼 (A)	165	2.80	24.64**	B,C > D, E
		1년 이하 (B)	109	3.13		
		1-5년 (C)	241	3.05		
		6-10년 (D)	221	2.36		
		11년 이상 (E)	416	2.11		
	학력	고졸 이하 (A)	90	2.10	74.97**	C > A, B
		대졸 (B)	755	2.27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3.37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08	18.69**	A, C > B
		관리 및 전문직 (B)	936	2.43		
		무직 (C)	73	3.12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68]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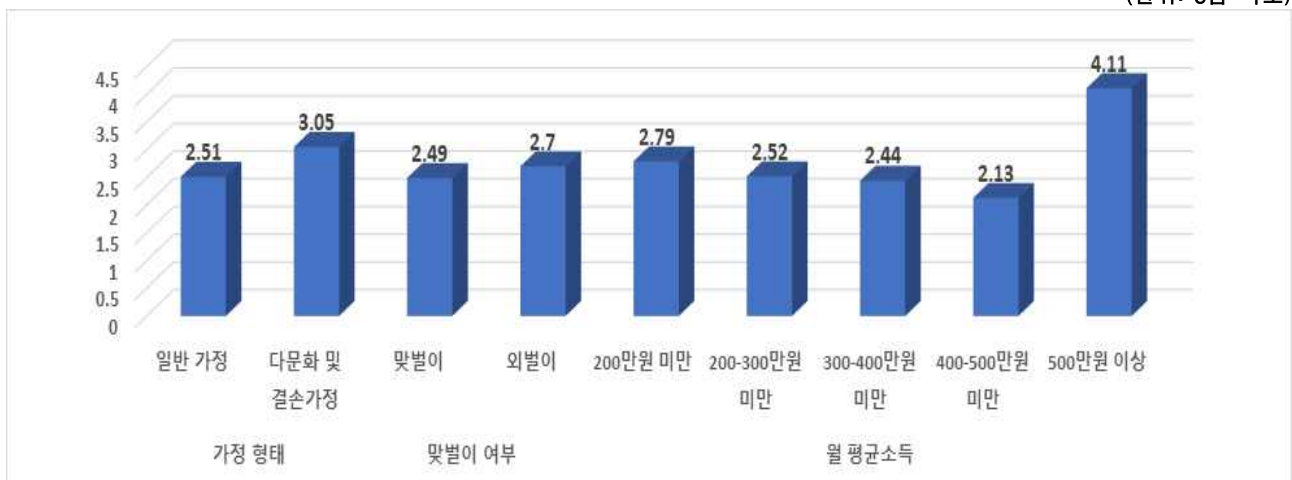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48〉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2.51	1.46	11.88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05	1.51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2.49	1.47	4.46	
		외벌이	328	2.70	1.46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2.79	1.45	38.95**	E > A,B,C,D
		200-300만원 미만 (B)	227	2.52	1.38		
		300-400만원 미만 (C)	267	2.44	1.39		
		400-500만원 미만 (D)	360	2.13	1.36		
		500만원 이상 (E)	89	4.11	1.28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69]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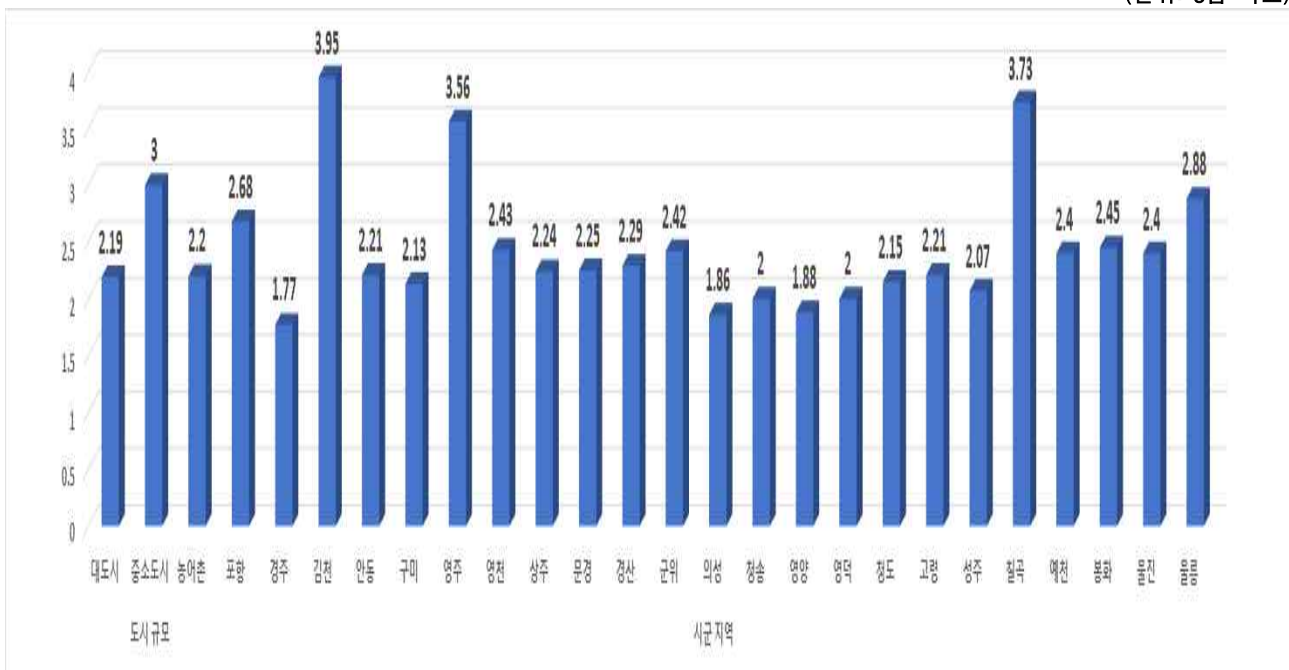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중소도시 거주 경북 도민이 대도시와 농어촌 거주 경북 도민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군지역에서는 김천, 영주, 칠곡 지역이 경주, 의성, 영양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49〉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A)	432	2.19	1.32	46.00**	B > A, C
		중소도시 (B)	511	3.00	1.55		
		농어촌 (C)	209	2.20	1.27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2.68	1.46	13.80**	③, ⑥, ⑯ > ②, ⑫, ⑭
		경주 ②	115	1.77	1.16		
		김천 ③	81	3.95	1.27		
		안동 ④	132	2.21	1.39		
		구미 ⑤	152	2.13	1.27		
		영주 ⑥	109	3.56	1.42		
		영천 ⑦	47	2.43	1.26		
		상주 ⑧	55	2.24	1.41		
		문경 ⑨	20	2.25	1.52		
		경산 ⑩	59	2.29	1.19		
		군위 ⑪	19	2.42	1.07		
		의성 ⑫	21	1.86	1.24		
		청송 ⑬	13	2.00	1.22		
		영양 ⑭	8	1.88	1.64		
		영덕 ⑮	7	2.00	1.29		
		청도 ⑯	27	2.15	1.10		
		고령 ⑰	14	2.21	1.31		
		성주 ⑱	41	2.07	1.37		
		칠곡 ⑲	67	3.73	1.30		
		예천 ⑳	25	2.40	1.41		
		봉화 ㉑	11	2.45	1.29		
		울진 ㉒	15	2.40	1.40		
		울릉 ㉓	8	2.88	0.64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 -70]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라.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결혼경력($p<.05$), 학력($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1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출산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고, 결혼 경력에서는 미혼과 1년 이하가 1년 이상 결혼 경력보다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업 이상이 대졸인 경북 도민보다 출산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50〉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3.01	0.62	0.001	
		여	659	3.01	0.56		
	연령	25세 이하 (A)	110	3.07	0.53	10.36**	E > A,B,C,D
		26-30세 (B)	222	3.03	0.61		
		31-35세 (C)	285	2.92	0.58		
		36-40세 (D)	423	2.97	0.57		
		41세 이상 (E)	112	3.31	0.57		
	결혼 경력	미혼 (A)	165	3.14	0.57	4.11*	A,B > C,D,E
		1년 이하 (B)	109	3.11	0.56		
		1-5년 (C)	241	2.98	0.57		
		6-10년 (D)	221	2.94	0.63		
		11년 이상 (E)	416	2.98	0.58		
	학력	고졸 이하 (A)	90	3.08	0.60	8.32**	C > B
		대졸 (B)	755	2.96	0.57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3.11	0.60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09	0.71	3.13	
		관리 및 전문직 (B)	936	2.99	0.57		
		무직 (C)	73	3.11	0.49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7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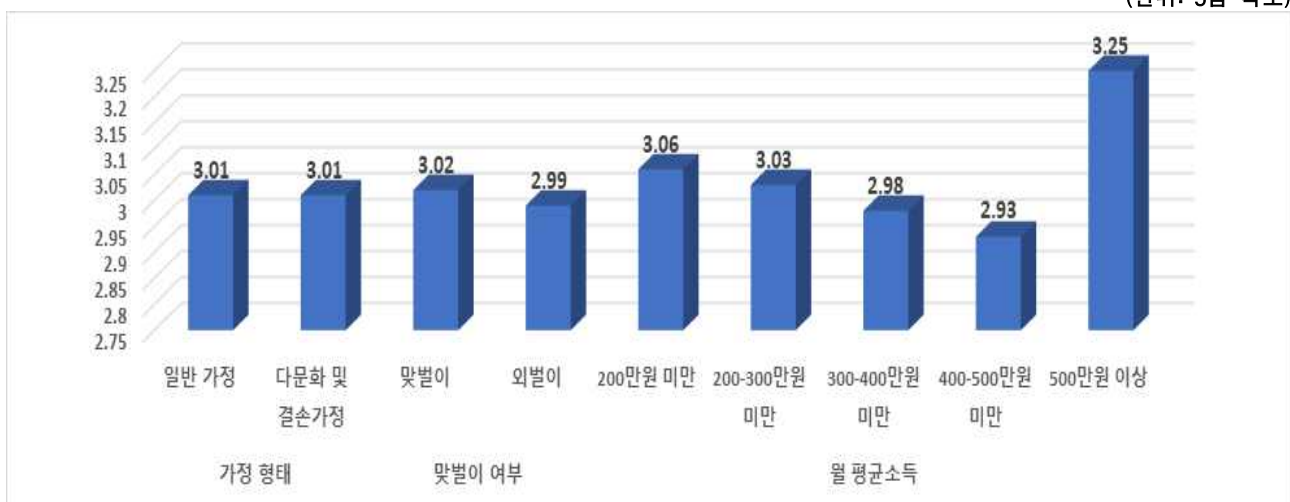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소득($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출산 의지가 더 나타났다.

〈표 III-51〉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3.01	0.59	0.001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01	0.51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3.02	0.58	0.34
		외벌이	328	2.99	0.61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3.06	0.58	6.08**
		200-300만원 미만 (B)	227	3.03	0.55	
		300-400만원 미만 (C)	267	2.98	0.60	
		400-500만원 미만 (D)	360	2.93	0.58	
		500만원 이상 (E)	89	3.25	0.65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72]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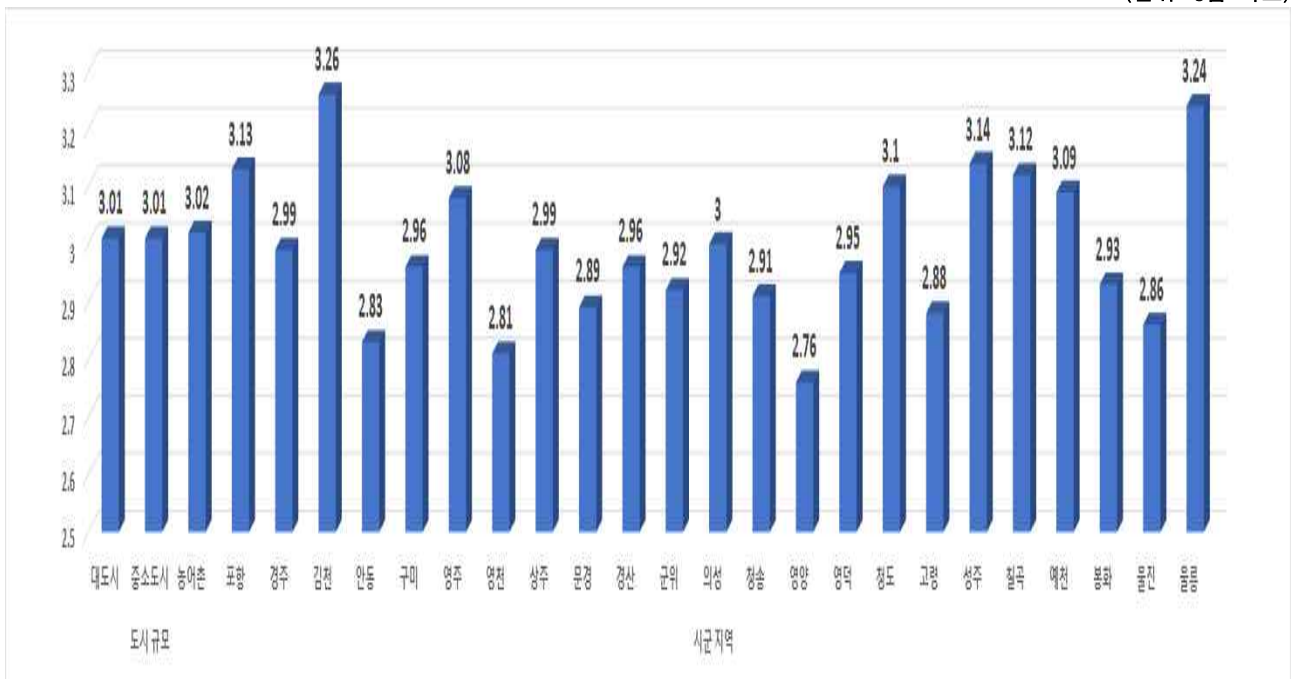
도민의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군지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 울릉, 성주, 포항 등의 순으로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432	3.01	0.59	0.01	
		중소도시	511	3.01	0.59		
		농어촌	209	3.02	0.58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13	0.57	6.69**	③, ⑬, ⑮, ⑫ > ⑭, ⑰, ⑦, ④
		경주 ②	115	2.99	0.67		
		김천 ③	81	3.26	0.59		
		안동 ④	132	2.83	0.60		
		구미 ⑤	152	2.96	0.59		
		영주 ⑥	109	3.08	0.54		
		영천 ⑦	47	2.81	0.58		
		상주 ⑧	55	2.99	0.60		
		문경 ⑨	20	2.89	0.57		
		경산 ⑩	59	2.96	0.44		
		군위 ⑪	19	2.92	0.65		
		의성 ⑫	21	3.00	0.62		
		청송 ⑬	13	2.91	0.59		
		영양 ⑭	8	2.76	0.35		
		영덕 ⑮	7	2.95	0.51		
		청도 ⑯	27	3.10	0.54		
		고령 ⑰	14	2.88	0.60		
		성주 ⑱	41	3.14	0.63		
		칠곡 ⑲	67	3.12	0.47		
		예천 ⑳	25	3.09	0.68		
		봉화 ㉑	11	2.93	0.44		
		울진 ㉒	15	2.86	0.48		
		울릉 ㉓	8	3.24	0.26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7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마.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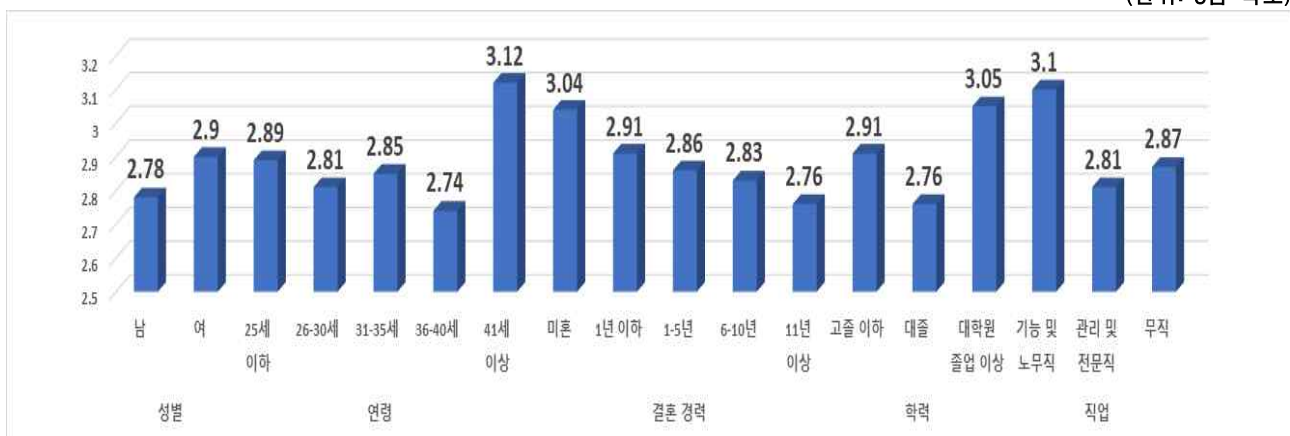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학력($p<.01$), 직업($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1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대학원 졸업 이상이 대졸인 경북 도민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기능 및 노무직이 관리 및 전문직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53〉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493	2.78	5.87	
		여	659	2.90		
	연령	25세 이하 (A)	110	2.89	6.45**	E > A,B,C,D
		26-30세 (B)	222	2.81		
		31-35세 (C)	285	2.85		
		36-40세 (D)	423	2.74		
		41세 이상 (E)	112	3.12		
	결혼 경력	미혼 (A)	165	3.04	2.51	
		1년 이하 (B)	109	2.91		
		1-5년 (C)	241	2.86		
		6-10년 (D)	221	2.83		
		11년 이상 (E)	416	2.76		
	학력	고졸 이하 (A)	90	2.91	12.85**	C > B
		대졸 (B)	755	2.76		
		대학원 졸업 이상 (C)	307	3.05		
	직업	기능 및 노무직 (A)	143	3.10	7.16**	A > B
		관리 및 전문직 (B)	936	2.81		
		무직 (C)	73	2.87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74]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2) 도민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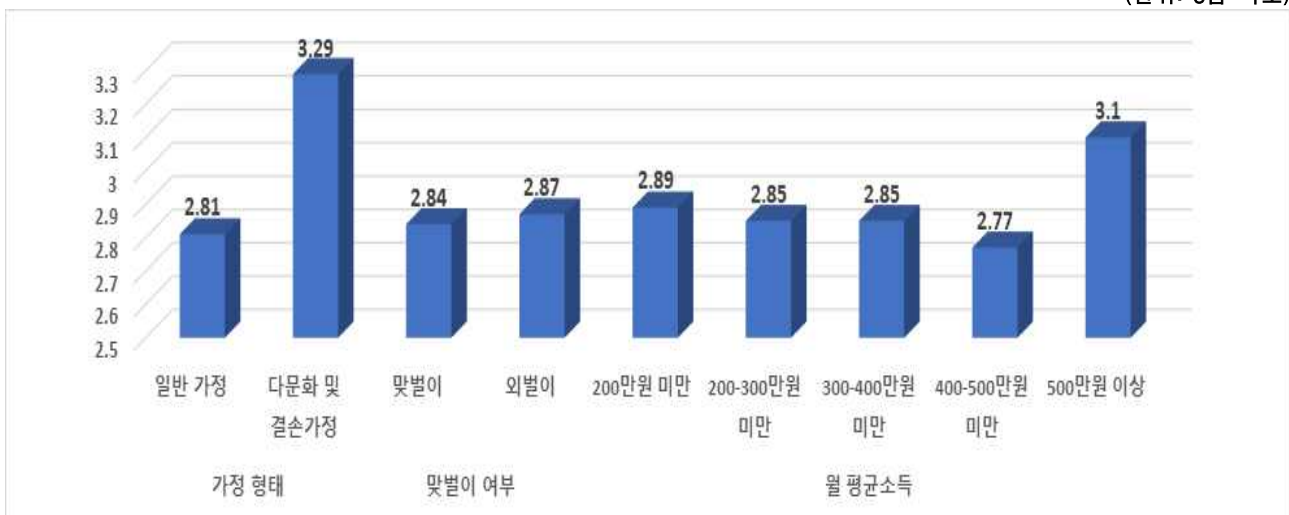
도민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형태($p<.01$), 월 평균소득($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 및 결손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1060	2.81	0.84	27.17**	
		다문화 및 결손가정	92	3.29	0.85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4	2.84	0.84	0.24	
		외벌이	328	2.87	0.87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209	2.89	1.00	2.94*	E > A,B,C,D
		200-300만원 미만 (B)	227	2.85	0.74		
		300-400만원 미만 (C)	267	2.85	0.84		
		400-500만원 미만 (D)	360	2.77	0.82		
		500만원 이상 (E)	89	3.10	0.85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75]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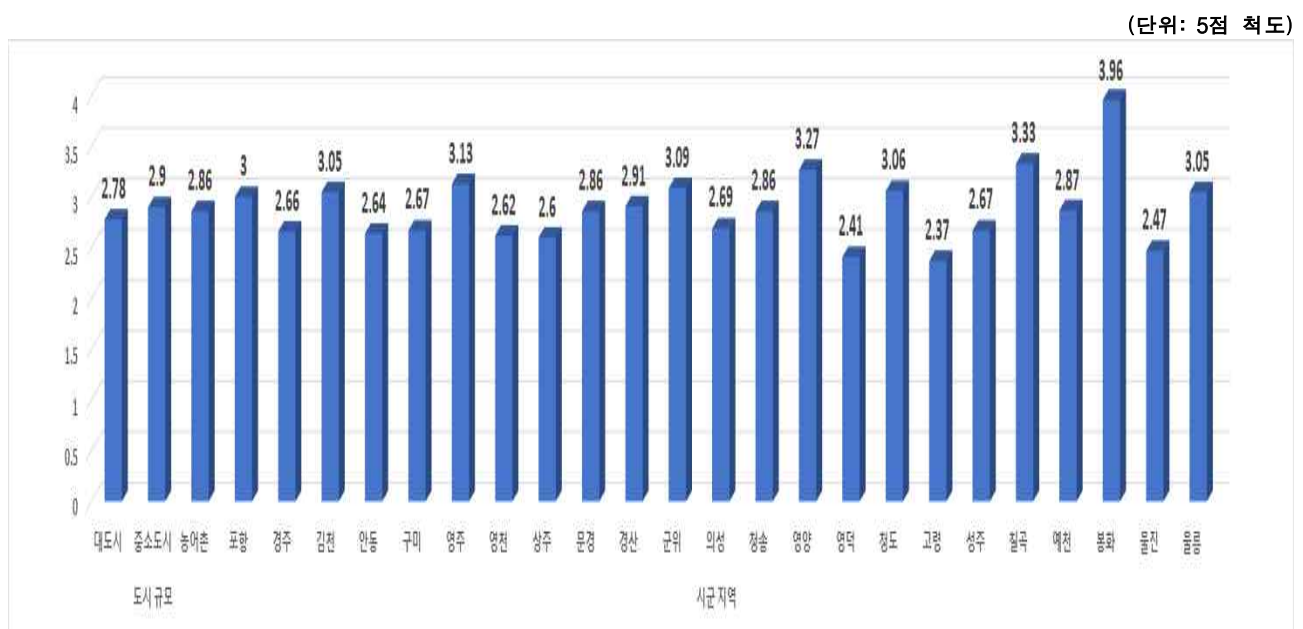
3)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 -55〉 도민의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A)	432	2.72	0.83	6.39**	B, C > A
		중소도시(B)	511	2.95	0.83		
		농어촌(C)	209	2.90	0.92		
	시군 지역	포항 ①	106	3.00	0.82	1.22	
		경주 ②	115	2.66	0.92		
		김천 ③	81	3.05	0.76		
		안동 ④	132	2.64	0.72		
		구미 ⑤	152	2.67	0.78		
		영주 ⑥	109	3.13	0.92		
		영천 ⑦	47	2.62	0.76		
		상주 ⑧	55	2.60	0.89		
		문경 ⑨	20	2.86	0.79		
		경산 ⑩	59	2.91	0.74		
		군위 ⑪	19	3.09	0.77		
		의성 ⑫	21	2.69	0.89		
		청송 ⑬	13	2.86	0.92		
		영양 ⑭	8	3.27	1.13		
		영덕 ⑮	7	2.41	0.92		
		청도 ⑯	27	3.06	0.74		
		고령 ⑰	14	2.37	0.87		
		성주 ⑱	41	2.67	0.86		
		칠곡 ⑲	67	3.33	0.67		
		예천 ⑳	25	2.87	1.01		
		봉화 ㉑	11	3.96	1.00		
		울진 ㉒	15	2.47	0.75		
		울릉 ㉓	8	3.05	0.49		

*p< .05, **p< .01



[그림 III -76] 도민의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7.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 차이 분석

가.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분석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차이 분석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및 결손가정($p<.01$), 대도시($p<.01$), 농어촌($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상이나 중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실제 출산 자녀수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 상이나 중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대도시는 실제 출산 자녀수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대도시는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농어촌은 실제 출산 자녀수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이나 하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농어촌은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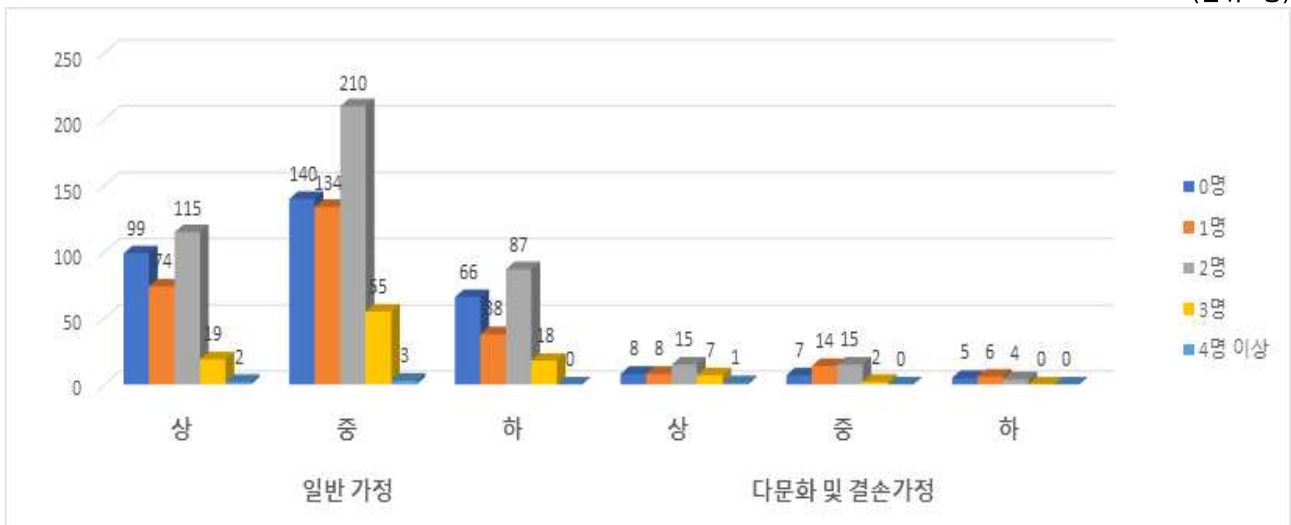
〈표 III-56〉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삶의 만족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99 (32.0)	74 (23.9)	115 (37.2)	19 (6.1)	2 (0.6)	1.752
			중	140 (25.8)	134 (24.7)	210 (38.7)	55 (10.1)	3 (0.6)	
			하	66 (31.6)	38 (18.2)	87 (41.6)	18 (8.6)	0 90.0)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8 (20.5)	8 (20.5)	15 (38.5)	7 (17.9)	1 (2.6)	10.169**
			중	7 (18.4)	14 (36.8)	15 (39.5)	2 (5.3)	0 (0.0)	
			하	5 (33.3)	6 (40.0)	4 (26.7)	0 (0.0)	0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66 (27.0)	62 (25.4)	93 (38.1)	22 (9.0)	1 (0.4)	2.623
			중	85 (20.4)	111 (26.6)	172 (41.2)	46 (11.0)	3 (0.7)	
			하	44 (27.0)	36 (22.1)	69 (42.3)	14 (8.6)	0 (0.0)	
		외벌이	상	41 (39.4)	20 (19.2)	37 (35.6)	4 (3.8)	2 (1.9)	2.082
			중	62 (38.0)	37 (22.7)	53 (32.5)	11 (6.7)	0 (0.0)	
			하	27 (44.3)	8 (13.1)	22 (36.1)	4 (6.6)	0 (0.0)	
거주	도시 규모	대도시	상	43 (32.1)	37 (27.6)	47 (35.1)	7 (5.2)	0 (0.0)	12.708**

지역 변인			중	53 (23.9)	53 (23.9)	96 (43.2)	19 (8.6)	1 (0.5)	2.096
			하	38 (50.0)	16 (21.1)	19 (25.0)	3 (3.9)	0 (0.0)	
		중소도시	상	38 (29.7)	31 (24.2)	47 (36.7)	12 (9.4)	0 (0.0)	
			중	61 (23.7)	76 (29.6)	96 (37.4)	23 (8.9)	1 (0.4)	
			하	41 (32.5)	25 (19.8)	49 (38.9)	11 (8.7)	0 (0.0)	
		농어촌	상	22 (25.6)	14 (16.3)	40 (46.5)	7 (8.1)	3 (3.5)	12.796**
			중	32 (31.7)	19 (18.8)	34 (32.7)	15 (14.9)	1 (1.0)	
			하	11 (50.0)	3 (13.6)	4 (18.2)	4 (18.2)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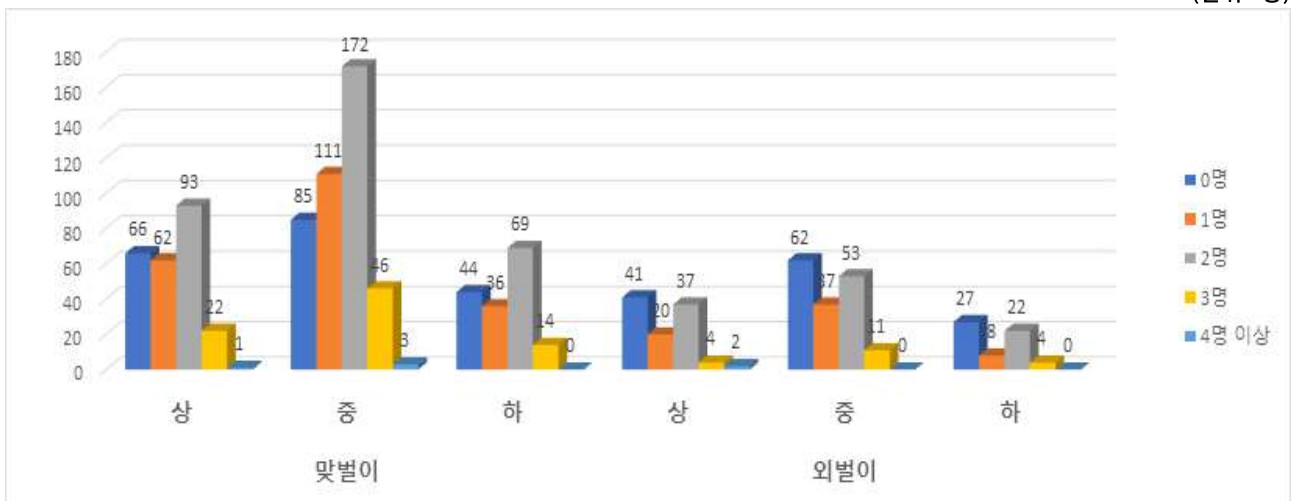
*p< .05, **p< .0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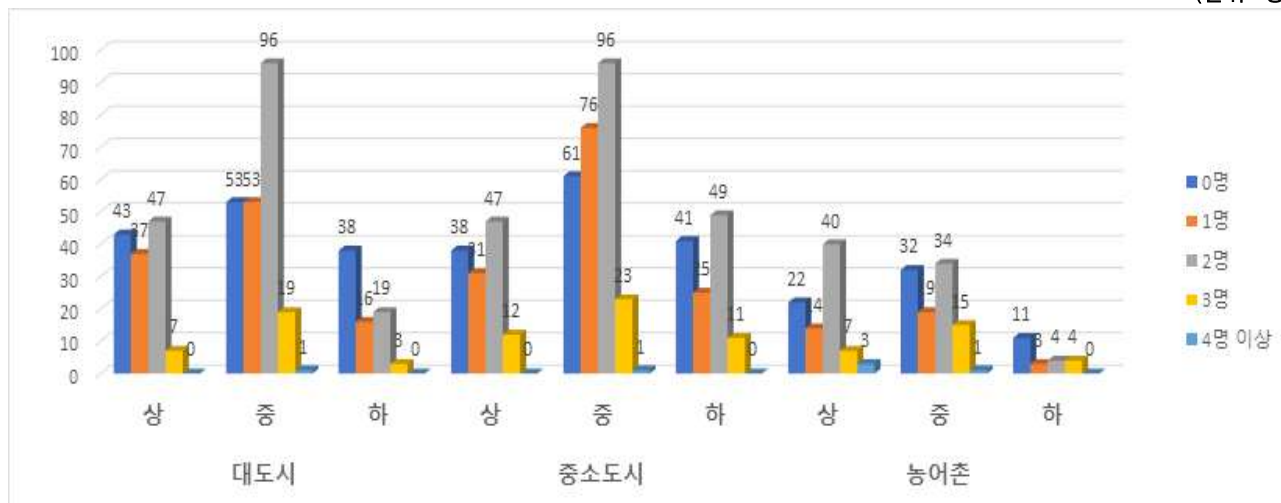
[그림 III-77] 도민의 가정형태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78]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79] 도민의 도시규모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차이 분석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가정($p<.01$), 다문화 및 결손가정($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상이나 중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일반가정은 실제 출산 자녀수가 2명, 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일반가정은 2명, 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이나 중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실제 출산 자녀수가 2명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1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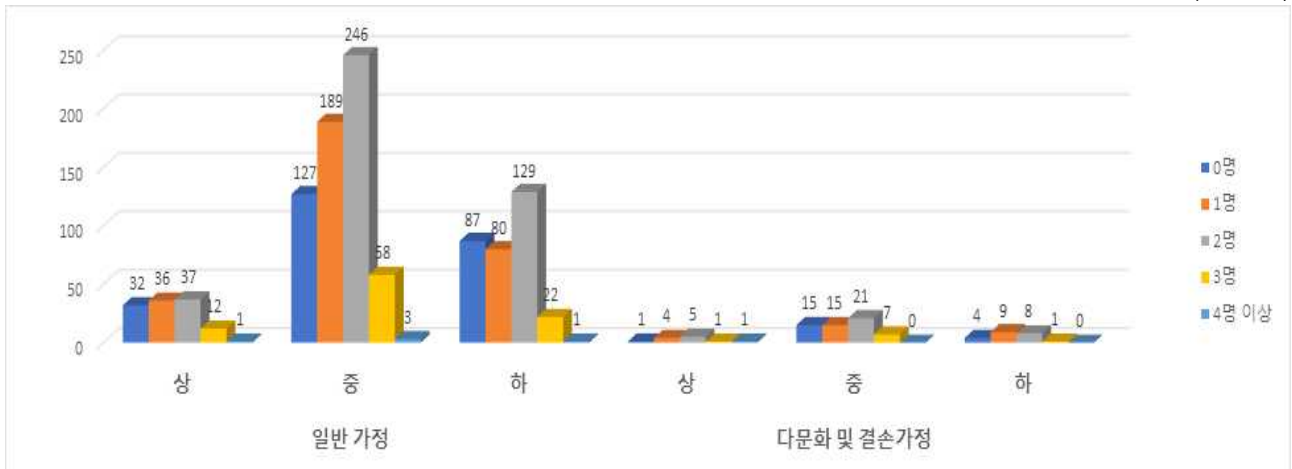
<표 III-57>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결혼 만족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32 (27.1)	36 (30.5)	37 (31.4)	12 (10.2)	11.610**
			중	127 (20.4)	189 (30.3)	246 (39.5)	58 (9.3)	
			하	87 (27.3)	80 (25.1)	129 (40.4)	22 (6.9)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 (8.3)	4 (33.3)	5 (41.7)	1 (8.3)	10.500**
			중	15 (25.9)	15 (25.9)	21 (36.2)	7 (12.1)	
			하	4 (18.2)	9 (40.9)	8 (36.4)	1 (4.5)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26 (28.6)	25 (27.5)	31 (34.1)	8 (8.8)	1.522
			중	115 (24.4)	106 (22.5)	195 (41.4)	53 (11.3)	

거주 지역 변인		외벌이	하	54 (20.6)	78 (29.8)	108 (41.2)	21 (8.0)	1 (0.4)	1.554
			상	11 (28.2)	11 (28.2)	11 (28.2)	5 (12.8)	1 (2.6)	
			중	89 (42.4)	36 (17.1)	72 (34.3)	12 (5.7)	1 (0.5)	
			하	30 (38.0)	18 (22.8)	29 (36.7)	2 (2.5)	0 (0.0)	
	도시 형태	대도시	상	14 (26.9)	16 (30.8)	18 (34.6)	4 (7.7)	0 (0.0)	2.664
			중	82 (29.6)	61 (22.0)	113 (40.8)	20 (7.2)	1 (0.4)	
			하	23 (22.3)	29 (28.2)	46 (44.7)	5 (4.9)	0 (0.0)	
		중소도시	상	13 (28.9)	13 (28.9)	14 (31.1)	5 (11.1)	0 (0.0)	2.013
			중	76 (29.1)	57 (21.8)	101 (38.7)	27 (10.3)	0 (0.0)	
			하	51 (24.9)	62 (30.2)	77 (37.6)	14 (6.8)	1 (0.5)	
		농어촌	상	10 (30.3)	7 (21.2)	10 (30.3)	4 (12.1)	2 (6.1)	2.920
			중	46 (32.2)	24 (16.8)	53 (37.1)	18 (12.6)	2 (1.4)	
			하	10 (30.3)	5 (15.2)	14 (42.4)	4 (12.1)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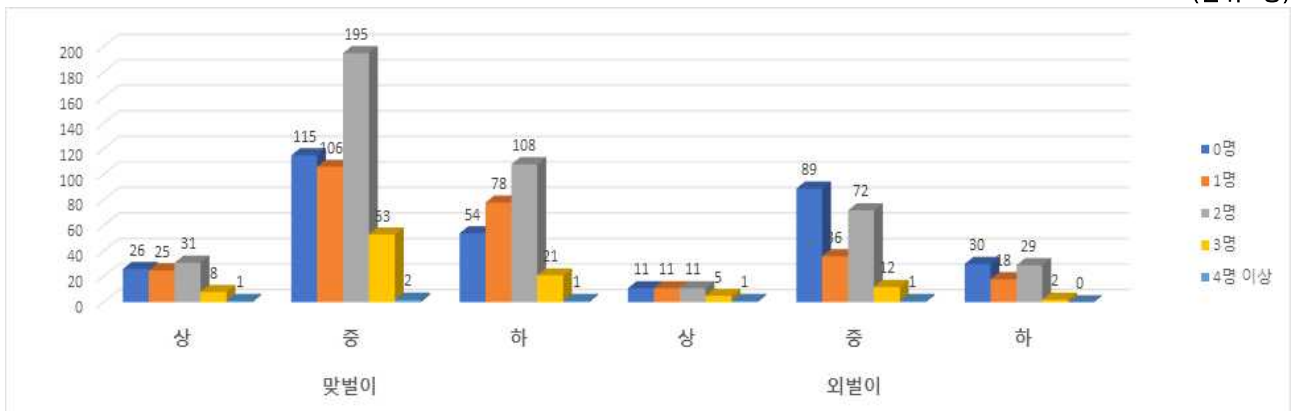
*p< .05, **p< .0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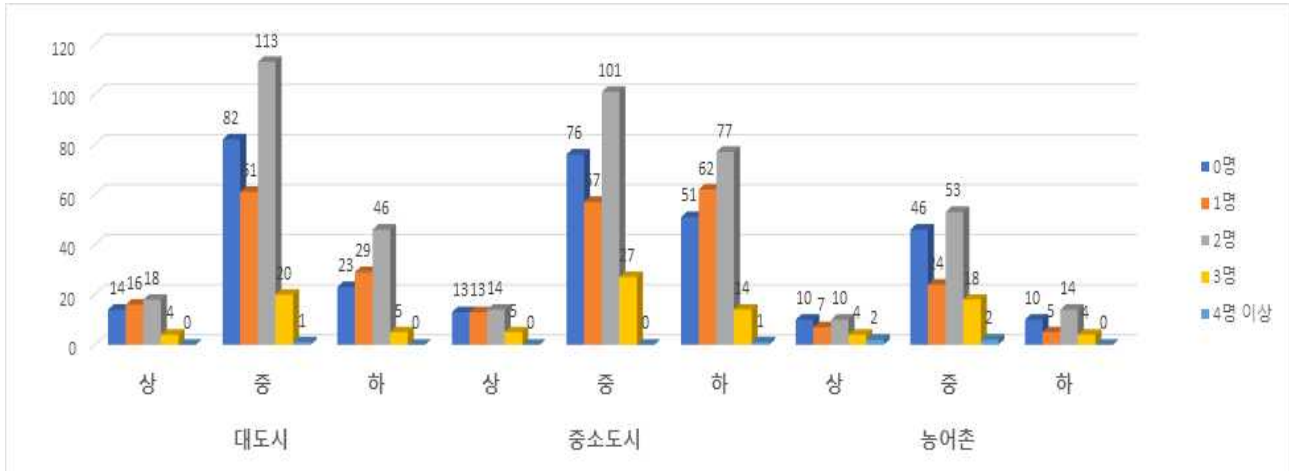
[그림 III-80] 도민의 가정형태별 결혼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81]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결혼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82] 도민의 도시규모별 결혼만족도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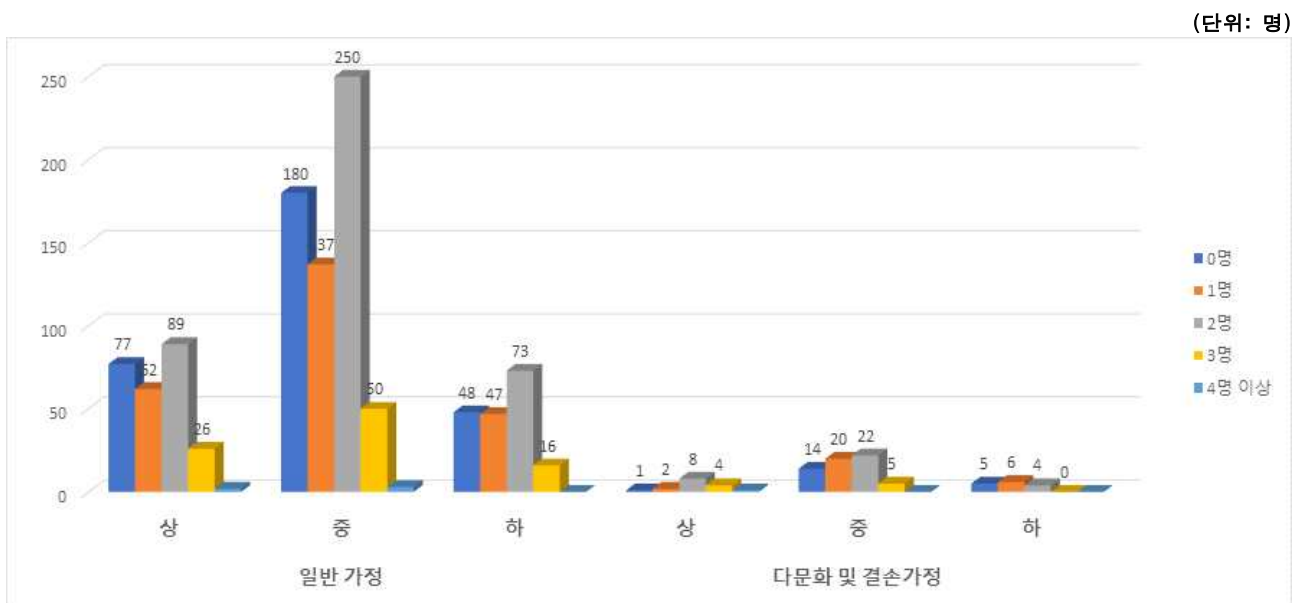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및 결손가정($p<.01$), 외벌이($p<.05$), 농어촌($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상이나 중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실제 출산 자녀수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 상이나 중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외벌이는 실제 출산 자녀수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외벌이는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이나 중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농어촌은 실제 출산 자녀수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농어촌은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58〉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행복 플로리시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상	77 (30.1)	62 (24.2)	89 (34.8)	26 (10.2)	2 (0.8)	3.283
		중	180 (29.0)	137 (22.1)	250 (40.3)	50 (8.1)	3 (0.5)	
		하	48 (26.1)	47 (25.5)	73 (39.7)	16 (8.7)	0 (10.)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 (6.3)	2 (12.5)	8 (50.0)	4 (25.0)	1 (6.3)	16.328**
		중	14 (23.0)	20 (32.8)	22 (36.1)	5 (8.2)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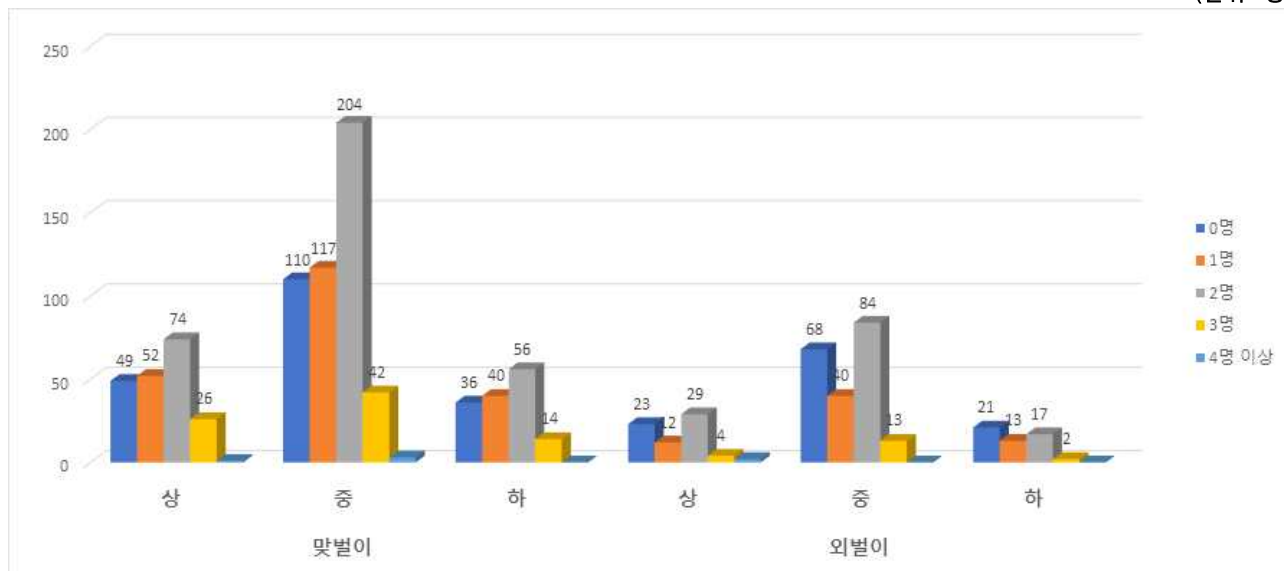
			하	5 (33.3)	6 (40.0)	4 (26.7)	0 (0.0)	0 (0.0)	
			상	49 (24.3)	52 (25.7)	74 (36.6)	26 (12.9)	1 (0.5)	
		맞벌이	중	110 (23.1)	117 (24.6)	204 (42.9)	42 (8.8)	3 (0.6)	
			하	36 (24.7)	40 (27.4)	56 (38.4)	14 (9.6)	0 (0.0)	
			상	23 (32.9)	12 (17.1)	29 (41.4)	4 (5.7)	2 (2.9)	
		외벌이	중	68 (33.2)	40 (19.5)	84 (41.0)	13 (6.3)	0 (0.0)	
			하	21 (39.6)	13 (24.5)	17 (32.1)	2 (3.8)	0 (0.0)	
			상	23 (32.9)	12 (17.1)	29 (41.4)	4 (5.7)	2 (2.9)	
			중	68 (33.2)	40 (19.5)	84 (41.0)	13 (6.3)	0 (0.0)	
			하	21 (39.6)	13 (24.5)	17 (32.1)	2 (3.8)	0 (0.0)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37 (30.8)	32 (26.7)	41 (34.2)	10 (8.3)	0 (0.0)	2.482
			중	73 (26.6)	62 (22.6)	121 (44.2)	17 (6.2)	1 (0.4)	
			하	9 (23.7)	12 (31.6)	15 (39.5)	2 (5.3)	0 (0.0)	
		중소도시	상	23 (27.7)	20 (24.1)	28 (33.7)	12 (14.5)	0 (0.0)	2.316
			중	78 (28.3)	72 (26.1)	105 (38.0)	20 (7.2)	1 (0.4)	
			하	39 (25.7)	40 (26.3)	59 (38.8)	14 (9.2)	0 (0.0)	
		농어촌	상	18 (26.1)	12 (17.4)	28 (40.6)	8 (11.6)	3 (4.3)	7.516*
			중	43 (32.8)	23 (17.6)	46 (35.1)	18 (13.7)	1 (0.8)	
			하	5 (55.6)	1 (11.1)	3 (33.3)	0 (0.0)	0 (0.0)	
			하	5 (55.6)	1 (11.1)	3 (33.3)	0 (0.0)	0 (0.0)	

*p< .05, **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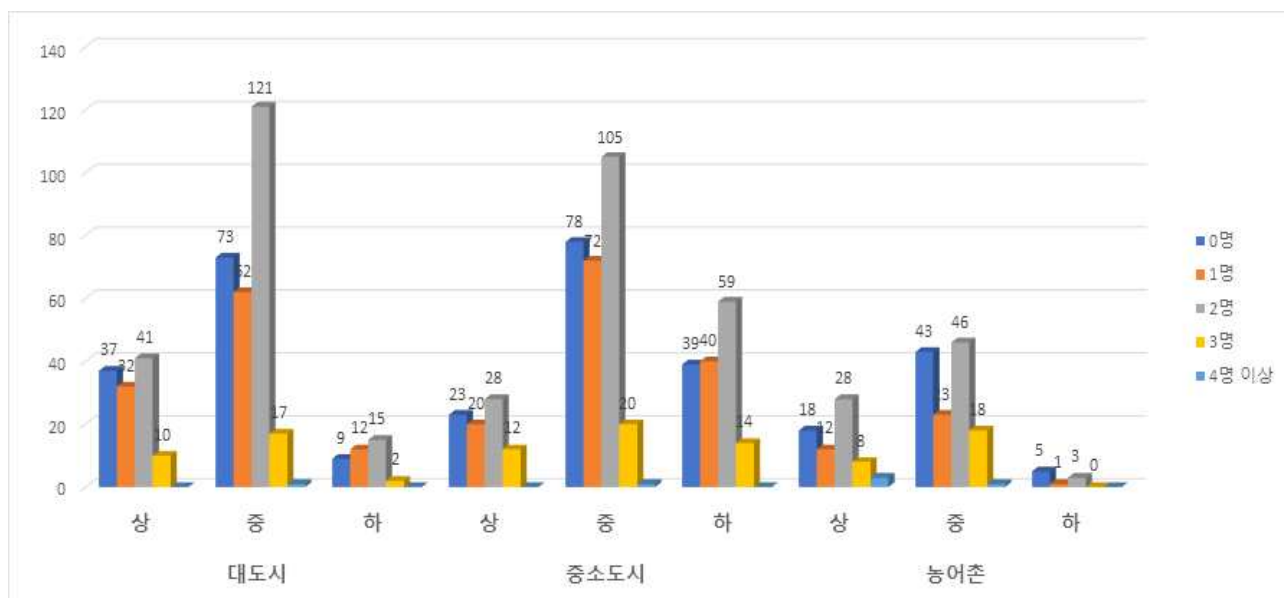
[그림 III-83] 도민의 가정형태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84]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85] 도민의 도시규모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실제 출산 자녀수 비교

나.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및 결손가정($p<.01$), 맞벌이($p<.01$), 중소도시($p<.01$), 농어촌($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상인 삶의 만족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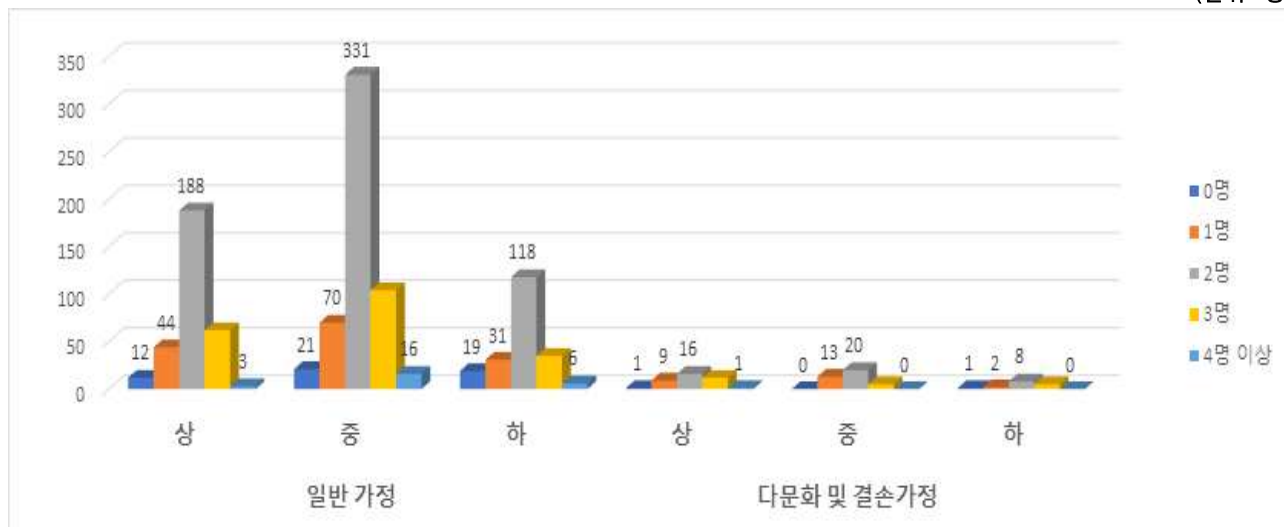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2명,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 상이나 중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맞벌이는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맞벌이는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이나 중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삶의 만족도를 가진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59〉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삶의 만족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12 (3.9)	44 (14.2)	188 (60.8)	62 (20.1)	3 (1.0)	1.694
			중	21 (3.9)	70 (12.9)	331 (61.1)	104 (19.2)	16 (3.0)	
			하	19 (9.1)	31 (14.8)	118 (56.5)	35 (16.7)	6 (2.9)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 (2.6)	9 (23.1)	16 (41.0)	12 (30.8)	1 (2.6)	17.106**
			중	0 (0.0)	13 (34.2)	20 (52.6)	5 (13.2)	0 (0.0)	
			하	1 (20.0)	2 (13.3)	8 (46.7)	5 (20.0)	0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7 (2.9)	33 (13.5)	144 (59.0)	57 (23.4)	3 (1.2)	21.858**
			중	12 (2.9)	58 (13.9)	248 (59.5)	89 (21.3)	10 (2.4)	
			하	17 (10.4)	27 (17.3)	92 (56.4)	23 (13.3)	4 (2.5)	
		외벌이	상	6 (5.8)	20 (19.2)	60 (57.7)	17 (16.3)	1 (1.0)	6.587
			중	9 (5.5)	25 (15.3)	103 (63.2)	20 (12.3)	6 (3.7)	
			하	5 (8.2)	8 (13.1)	33 (54.1)	13 (21.3)	2 (3.3)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5 (3.7)	25 (18.7)	76 (56.7)	26 (19.4)	2 (1.5)	3.195
			중	9 (4.1)	30 (13.5)	136 (61.3)	42 (18.9)	5 (2.3)	
			하	7 (9.2)	11 (14.5)	39 (51.3)	18 (23.7)	1 (1.3)	
		중소도시	상	6 (4.7)	18 (14.1)	76 (59.4)	27 (21.1)	1 (0.8)	10.930**
			중	9 (3.5)	35 (13.6)	157 (61.1)	47 (18.3)	9 (3.5)	
			하	12 (9.5)	18 (14.3)	74 (58.7)	17 (13.5)	5 (4.0)	
		농어촌	상	2 (2.3)	10 (11.6)	52 (60.5)	21 (24.4)	1 (1.2)	9.344**
			중	3 (3.0)	18 (17.8)	58 (57.4)	20 (19.8)	2 (2.0)	
			하	3 (13.6)	4 (18.2)	12 (54.5)	3 (13.6)	0 (0.0)	

*p< .05, **p< .0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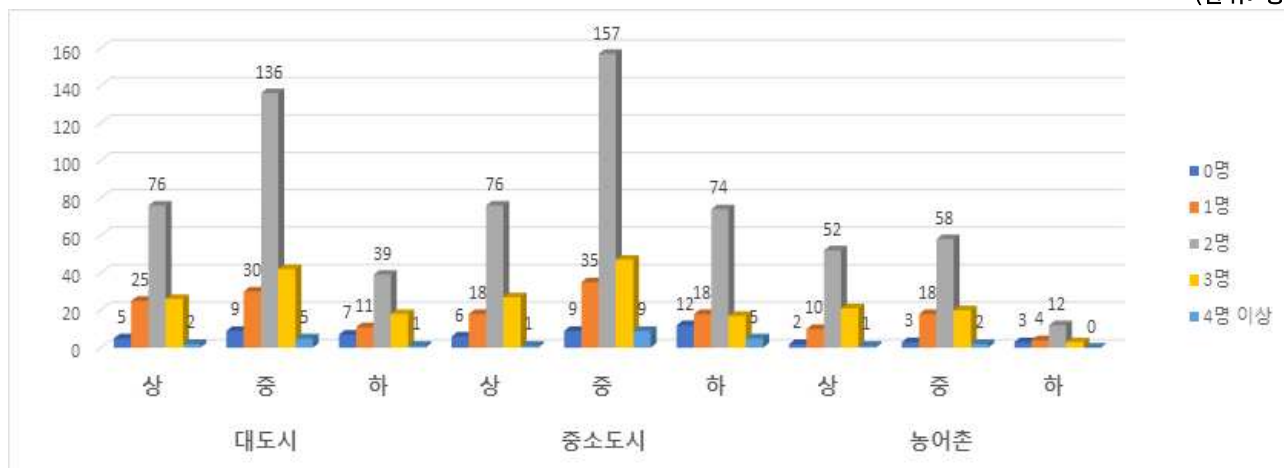
[그림 III-86] 도민의 가정형태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87]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 III-88] 도민의 도시규모별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및 결손가정($p<.01$), 외벌이($p<.01$), 농어촌($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상이나 중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 상이나 중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외벌이는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외벌이는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이나 중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농어촌은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농어촌은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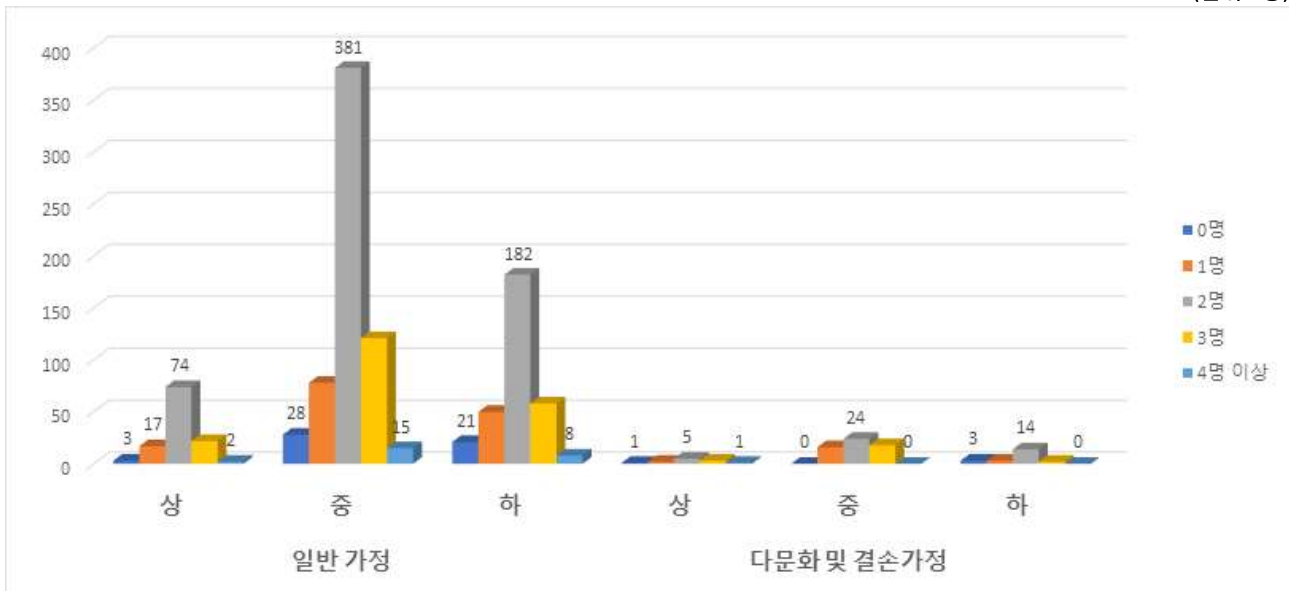
〈표 III-60〉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결혼 만족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2.5)	17 (14.4)	74 (62.7)	22 (18.6)	2 (1.7)	2.151
			중 (4.5)	78 (12.5)	381 (61.2)	121 (19.4)	15 (2.4)	
			하 (6.6)	50 (15.7)	182 (57.1)	58 (18.2)	8 (2.5)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8.3)	2 (16.7)	5 (41.7)	3 (25.0)	1 (8.3)	20.289**
			중 (0.0)	16 (27.6)	24 (41.4)	18 (31.0)	0 (0.0)	
			하 (13.6)	3 (13.6)	14 (63.6)	2 (9.1)	0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1.1)	15 (16.5)	56 (61.5)	17 (18.7)	2 (2.2)	3.874
			중 (4.0)	59 (12.5)	276 (58.6)	108 (22.9)	9 (1.9)	
			하 (6.1)	42 (16.0)	152 (58.0)	46 (17.6)	6 (2.3)	
		외벌이	상 (7.7)	5 (12.8)	23 (59.0)	7 (17.9)	1 (2.6)	15.323**
			중 (4.3)	37 (17.6)	129 (61.4)	29 (13.8)	6 (2.9)	
			하 (10.1)	14 (17.7)	44 (55.7)	11 (13.9)	2 (2.5)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3.8)	7 (13.5)	32 (61.5)	10 (19.2)	1 (1.9)	2.860
			중 (3.6)	43 (15.5)	164 (59.2)	53 (19.1)	7 (2.5)	
			하 (8.7)	16 (15.5)	55 (53.4)	23 (22.3)	0 (0.0)	
		중소도시	상 (4.4)	9 (20.0)	26 (57.8)	7 (15.6)	1 (2.2)	2.031
			중 (5.0)	32 (12.3)	157 (60.2)	53 (20.3)	6 (2.3)	

		농어촌	하	12 (5.9)	30 (14.6)	124 (60.5)	31 (15.1)	8 (3.9)	9.341*
			상	0 (0.0)	4 (12.1)	21 (63.6)	7 (21.2)	1 (3.0)	
			중	5 (3.5)	21 (14.7)	84 (58.7)	31 (21.7)	2 (1.4)	
			하	3 (9.1)	7 (21.2)	17 (51.5)	6 (18.2)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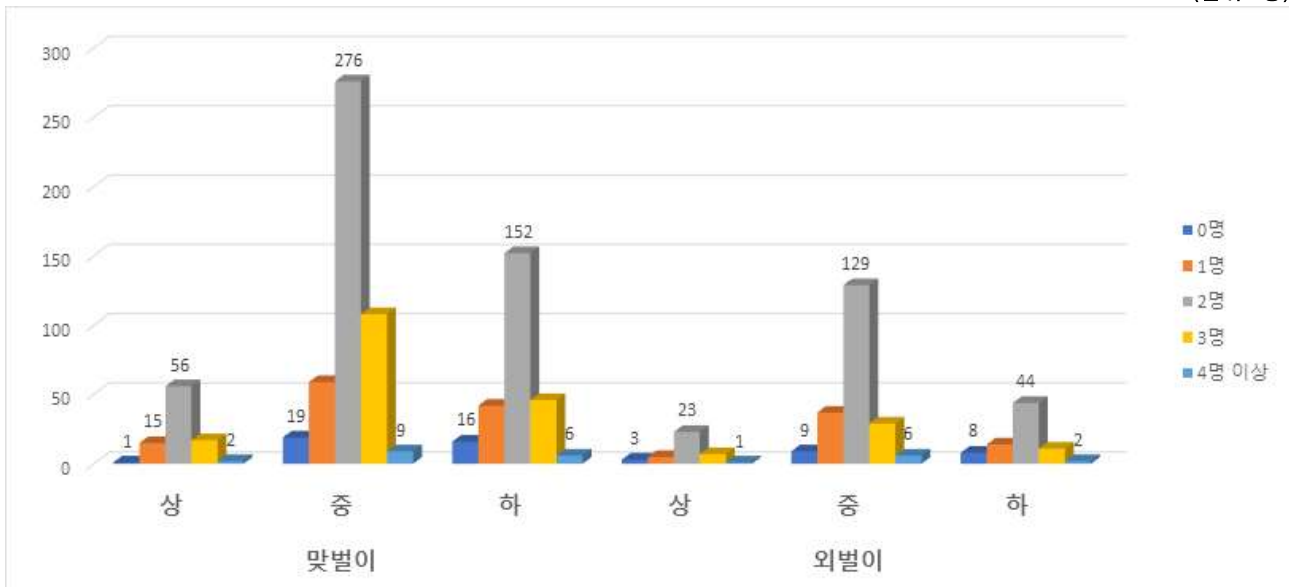
*p< .05, **p< .0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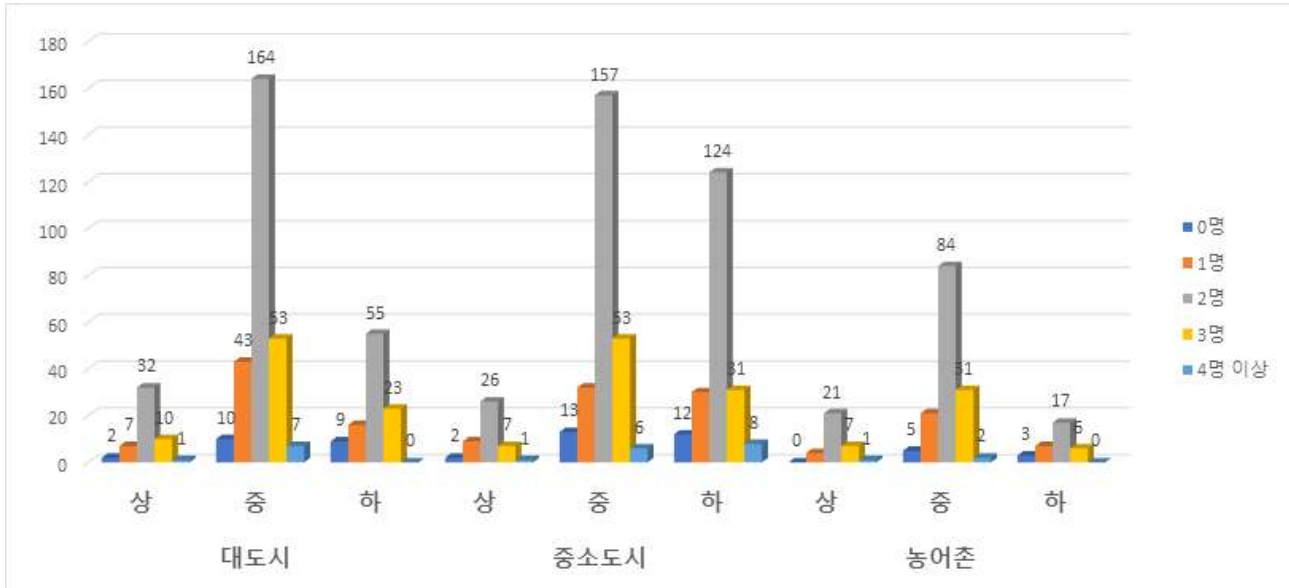


[그림Ⅲ-89] 도민의 가정형태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Ⅲ-90]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그림 III-91] 도민의 도시규모별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분석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출산 자녀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가정($p<.01$), 다문화 및 결손가정($p<.01$), 맞벌이($p<.01$), 외벌이($p<.01$), 대도시($p<.01$), 중소도시($p<.01$), 농어촌($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상이나 중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일반가정은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일반가정은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이나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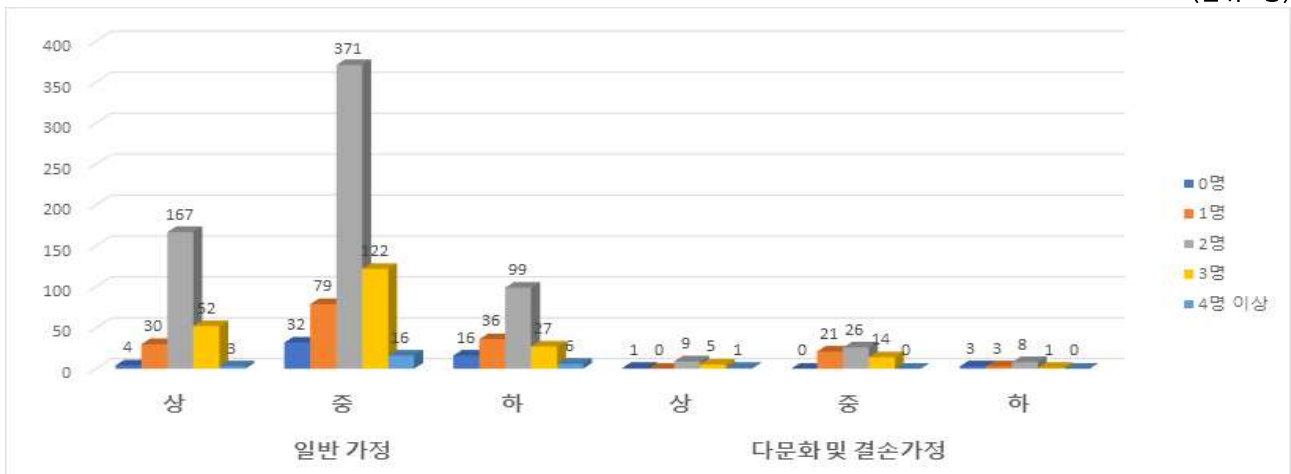
맞벌이 여부에서 상이나 중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맞벌이 및 외벌이는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맞벌이 및 외벌이는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규모에서 상이나 중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은 이상적인 출산 자녀수가 2명,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은 2명, 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61〉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차이 검증

구분	집단	행복 플로리시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χ^2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4 (1.6)	30 (11.7)	167 (65.2)	52 (20.3)	3 (1.2)	23.915**
			중 32 (5.2)	79 (12.7)	371 (59.8)	122 (19.7)	16 (2.6)	
			하 16 (8.7)	36 (19.6)	99 (53.8)	27 (14.7)	6 (3.3)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 (6.3)	0 (0.0)	9 (56.3)	5 (31.3)	1 (6.3)	24.949**
			중 0 (0.0)	21 (34.4)	26 (42.6)	14 (23.0)	0 (0.0)	
			하 3 (20.0)	3 (20.0)	8 (53.3)	1 (6.7)	0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3 (1.5)	21 (10.4)	127 (62.9)	48 (23.8)	3 (1.5)	21.688**
			중 19 (4.0)	68 (14.3)	279 (58.6)	100 (21.0)	10 (2.1)	
			하 14 (9.6)	27 (18.5)	78 (53.4)	23 (15.8)	4 (2.7)	
		외벌이	상 2 (2.9)	9 (12.9)	49 (70.0)	9 (12.9)	1 (1.4)	8.530**
			중 13 (6.3)	32 (15.6)	118 (57.6)	36 (17.6)	6 (2.9)	
			하 5 (9.4)	12 (22.6)	29 (54.7)	5 (9.4)	2 (3.8)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2 (1.7)	17 (14.2)	78 (65.0)	22 (18.3)	1 (0.8)	14.518**
			중 14 (5.1)	40 (14.6)	155 (56.6)	58 (21.2)	7 (2.6)	
			하 5 (13.2)	9 (23.7)	18 (47.4)	6 (15.8)	0 (0.0)	
		중소도시	상 3 (3.6)	8 (9.6)	51 (61.4)	19 (22.9)	2 (2.4)	11.273**
			중 11 (4.0)	36 (13.0)	171 (62.0)	51 (18.5)	7 (2.5)	
			하 13 (8.6)	27 (17.8)	85 (55.9)	21 (13.8)	6 (3.9)	
		농어촌	상 0 (0.0)	5 (7.2)	47 (68.1)	16 (23.2)	1 (1.4)	12.823
			중 7 (5.3)	24 (18.3)	71 (54.2)	27 (20.6)	2 (1.5)	
			하 1 (11.1)	3 (33.3)	4 (44.4)	1 (11.1)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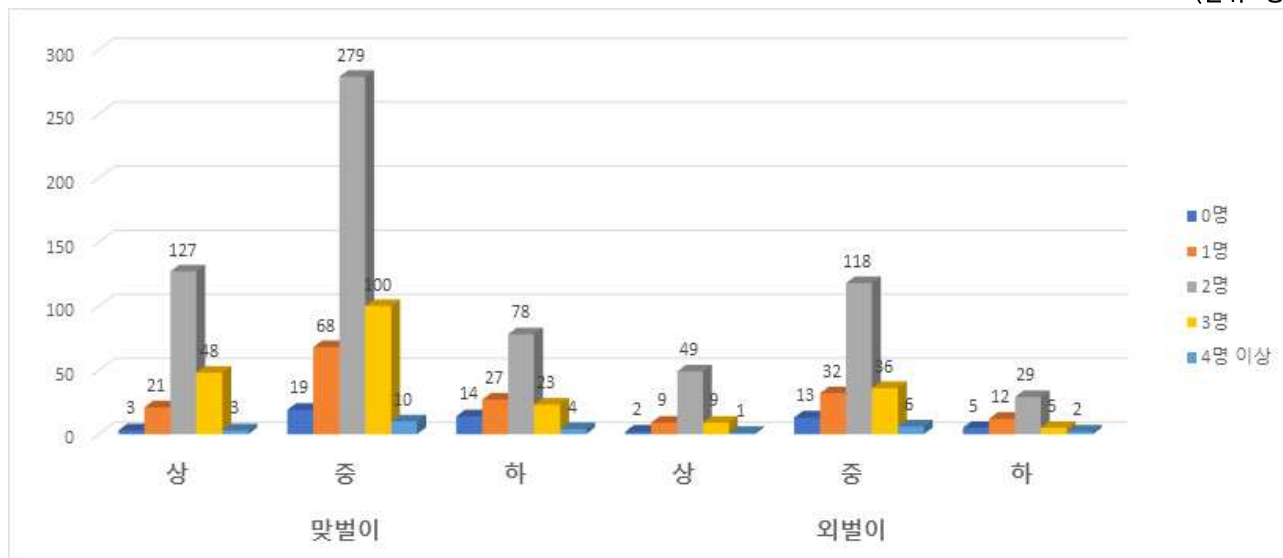
*p< .05, **p< .0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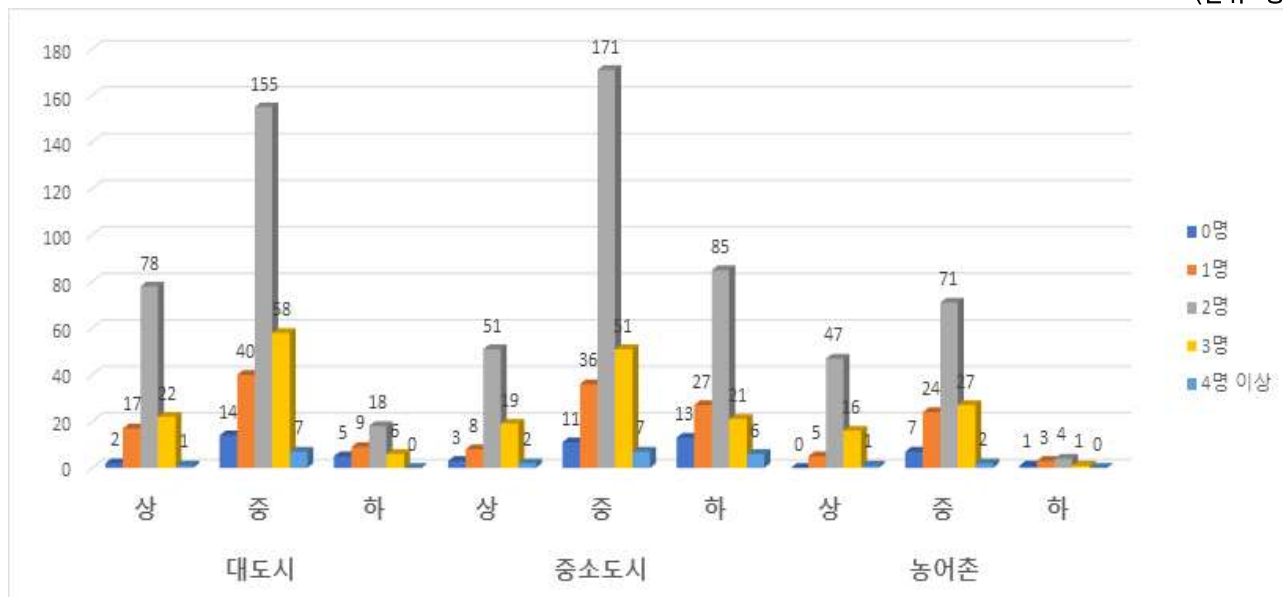
[그림 III-92] 도민의 가정형태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Ⅲ-93] 도민의 맞벌이 여부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단위: 명)



[그림Ⅲ-94] 도민의 도시규모별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이상적 자녀 수 비교

다.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는 일반 가정($p<.01$), 맞벌이 여부에서는 외벌이($p<.01$), 도시 규모에서는 대도시($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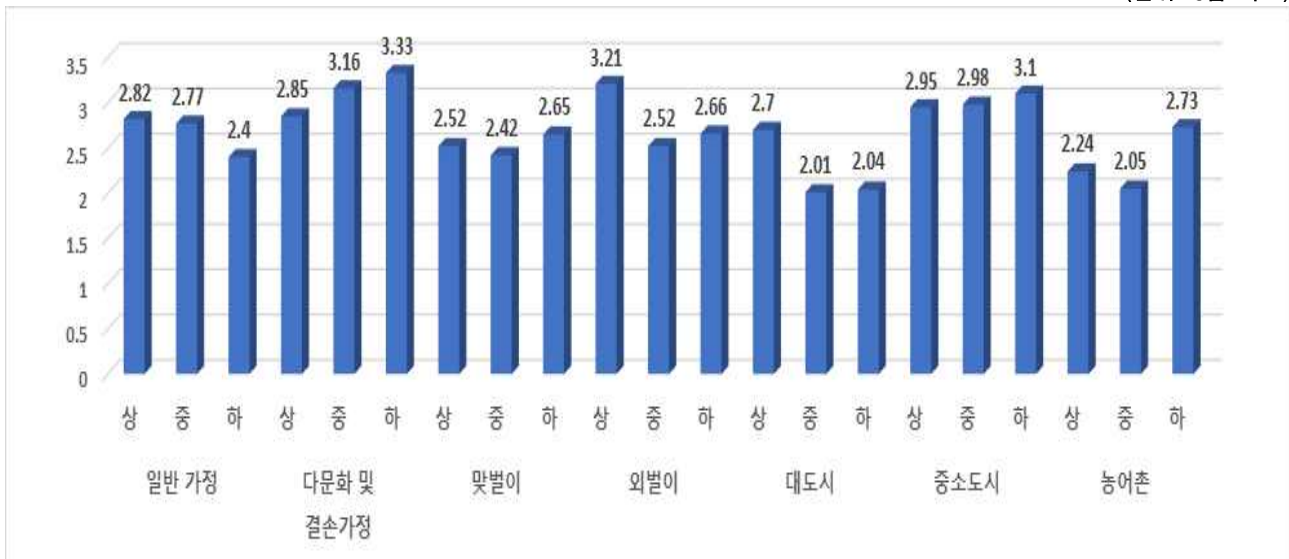
서 삶의 만족도가 상이나 중인 가정이 하인 가정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외벌이에서 삶이 만족도가 상인 가정이 중이나 하인 가정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규모 중 대도시에 거주하며 삶의 만족도가 상인 가정이 중이나 하인 가정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삶의 만족도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309	2.82	1.45	4.90**	상, 중 > 하
			중	542	2.77	1.40		
			하	209	2.40	1.59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39	2.85	1.46	0.70	
			중	38	3.16	1.55		
			하	15	3.33	1.59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244	2.52	1.46	1.52	
			중	417	2.42	1.42		
			하	163	2.65	1.61		
		외벌이	상	104	3.21	1.43	5.15**	상 > 중, 하
			중	163	2.52	1.44		
			하	61	2.66	1.47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134	2.70	1.42	4.19**	상 > 중, 하
			중	222	2.01	1.19		
			하	76	2.04	1.43		
		중소도시	상	128	2.95	1.53	0.34	
			중	257	2.98	1.50		
			하	126	3.10	1.66		
		농어촌	상	86	2.24	1.25	2.71	
			중	101	2.05	1.24		
			하	22	2.73	1.35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95]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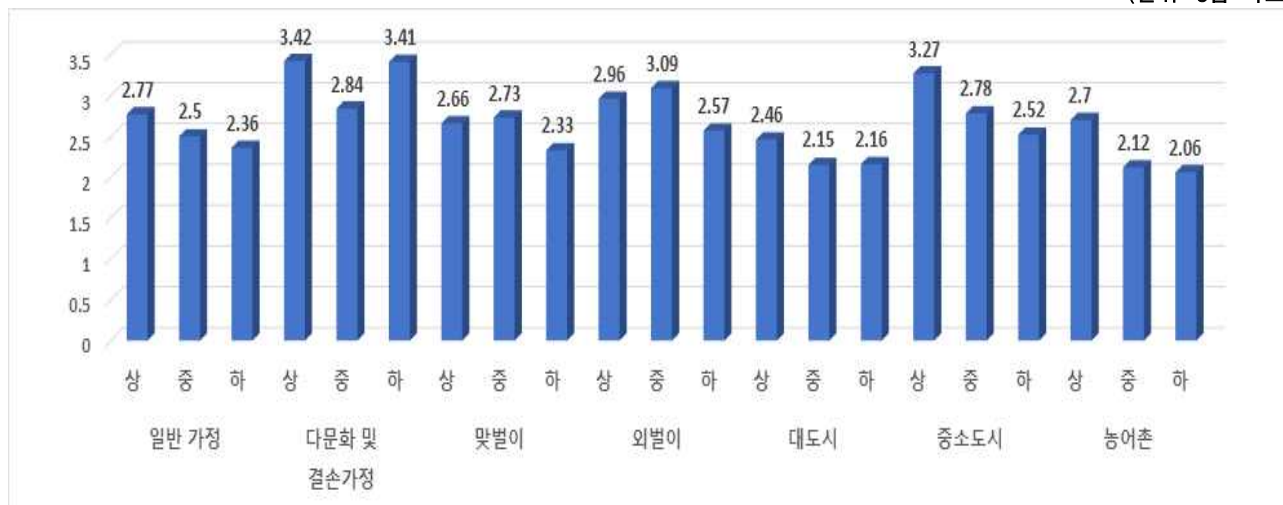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는 일반 가정($p<.01$),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p<.01$), 외벌이($p<.05$), 도시 규모에서는 중소도시($p<.05$), 농어촌($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 결혼 만족도가 상인 가정이 중이나 하인 가정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 여부에서 상이나 중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맞벌이 및 외벌이가 하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맞벌이 및 외벌이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규모에서 상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중소도시, 농어촌은 중이나 하인 결혼 만족도를 가진 중소도시, 농어촌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3〉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구분		집단	결혼 만족도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118	2.77	1.49	8.66**	상 > 중, 하
			중	623	2.50	1.36		
			하	319	2.36	1.59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2	3.42	1.44	1.51	
			중	58	2.84	1.54		
			하	22	3.41	1.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91	2.66	1.48	7.18**	상, 중 > 하
			중	471	2.73	1.37		
			하	262	2.33	1.59		
		외벌이	상	39	2.96	1.55	6.85*	상, 중 > 하
			중	210	3.09	1.38		
			하	79	2.57	1.55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52	2.46	1.46	1.26	
			중	277	2.15	1.25		
			하	103	2.16	1.41		
		중소도시	상	45	3.27	1.57	5.33*	상 > 중, 하
			중	261	2.78	1.50		
			하	205	2.52	1.56		
		농어촌	상	33	2.70	1.49	6.09*	상 > 중, 하
			중	143	2.12	1.19		
			하	33	2.06	1.27		

* $p<.05$, ** $p<.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96]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는 일반 가정($p<.01$), 다문화 및 결손가정($p<.05$),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p<.01$), 외벌이($p<.01$), 도시 규모에서는 대도시($p<.05$)와 중소도시($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일반 가정과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중이나 하인 일반 가정과 다문화 및 결손가정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맞벌이 및 외벌이는 중이나 하인 맞벌이 및 외벌이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도시 규모에서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중이나 하인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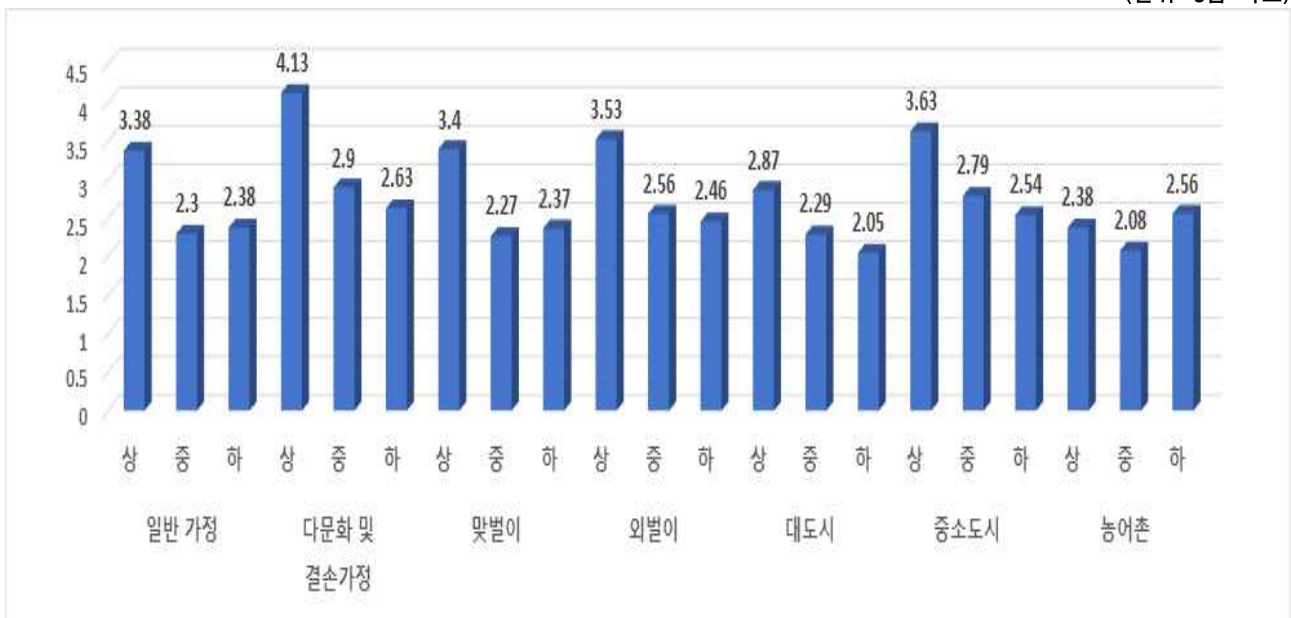
〈표 III-64〉 도민의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차이 검증

구분	집단	행복 플로리시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일반 가정	상	256	3.38	1.39	42.89**	상 > 중, 하
		중	620	2.30	1.36		
		하	184	2.38	1.55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6	4.13	1.36	5.19*	상 > 중, 하
		중	61	2.90	1.51		
		하	15	2.63	1.25		
	맞벌이 여부	상	202	3.40	1.39	36.86**	상 > 중, 하
		중	476	2.27	1.37		
		하	146	2.37	1.57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외벌이	상	70	3.53	1.38	11.09**	상 > 중, 하
			중	205	2.56	1.42		
			하	53	2.46	1.45		
		대도시	상	120	2.87	1.35	7.13*	상 > 중, 하
			중	274	2.29	1.23		
			하	38	2.05	1.60		
		중소도시	상	83	3.63	1.44	19.99**	상 > 중, 하
			중	276	2.79	1.51		
			하	152	2.54	1.49		
		농어촌	상	69	2.38	1.38	1.58	
			중	131	2.08	1.19		
			하	9	2.56	1.33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97]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비교

라.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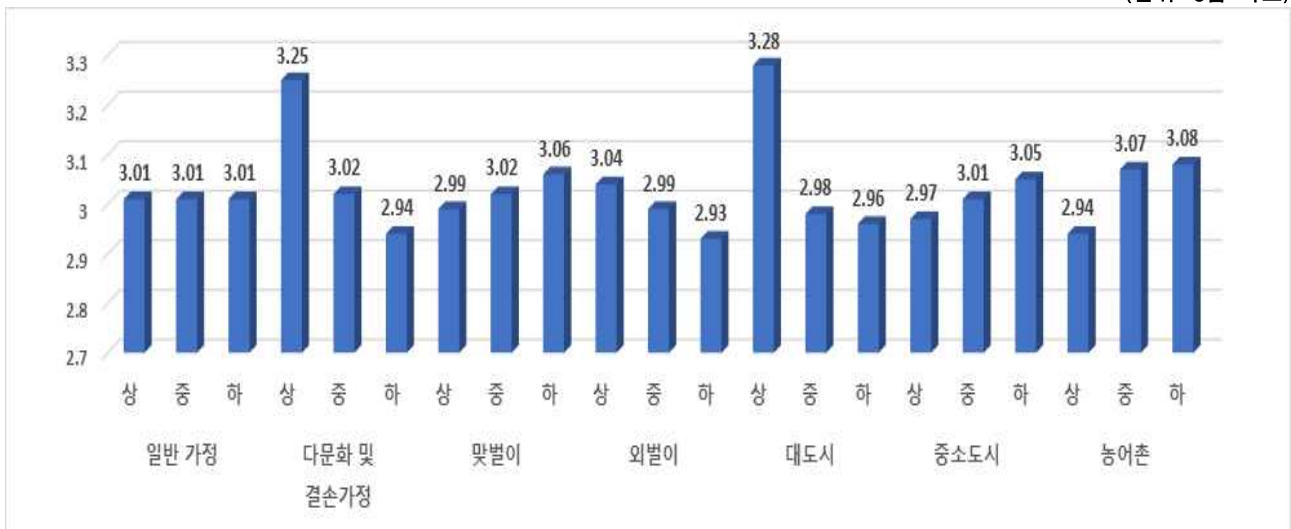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는 다문화 및 결손가정($p<.05$), 도시 형태에서는 대도시($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중이나 하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보다 출산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인 대도시는 중이나 하인 대도시보다 출산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 -65〉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삶의 만족도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309	3.01	0.67	0.008	
			중	542	3.01	0.53		
			하	209	3.01	0.64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39	3.25	0.60	7.89*	상 > 중, 하
			중	38	3.02	0.42		
			하	15	2.94	0.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244	2.99	0.67	0.63	
			중	417	3.02	0.50		
			하	163	3.06	0.63		
		외벌이	상	104	3.04	0.63	0.64	
			중	163	2.99	0.59		
			하	61	2.93	0.61		
거주 지역 변인	도시 형태	대도시	상	134	3.28	0.68	8.49*	상 > 중, 하
			중	222	2.98	0.52		
			하	76	2.96	0.64		
		중소도시	상	128	2.97	0.62	0.58	
			중	257	3.01	0.54		
			하	126	3.05	0.64		
		농어촌	상	86	2.94	0.68	1.31	
			중	101	3.07	0.50		
			하	22	3.08	0.50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 -98]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결혼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는 다문화 및 결손가정($p<.05$), 도시 규모에서는 대도시($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태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인 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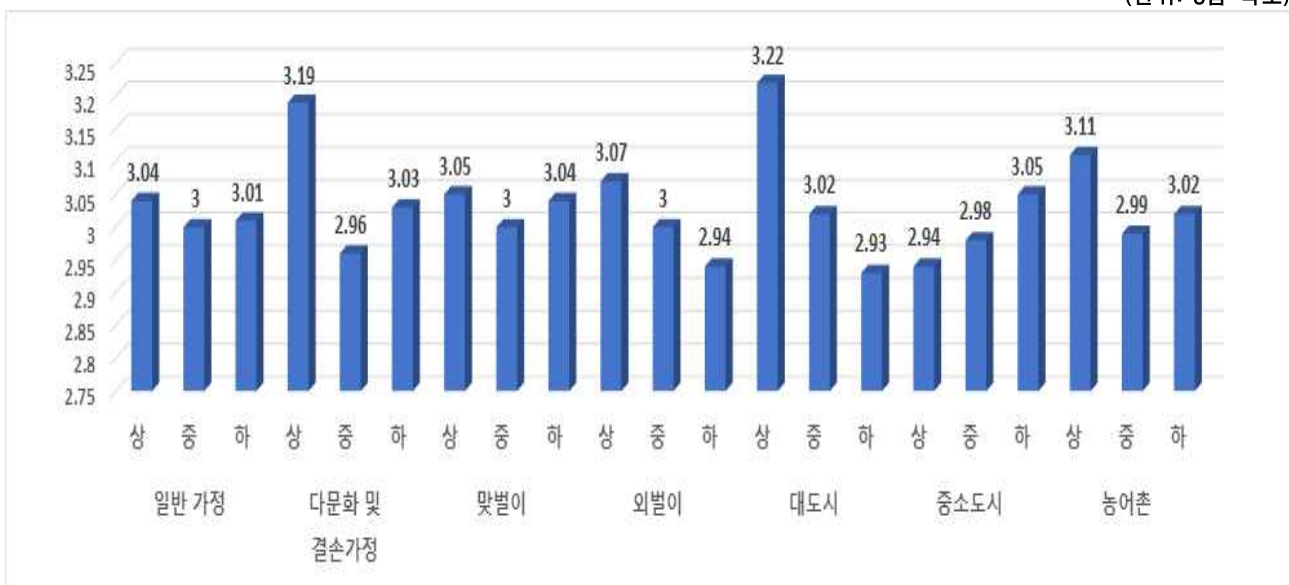
및 결혼가정은 중이나 하인 다문화 및 결혼가정보다 출산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 결혼만족도가 상인 대도시는 중이나 하인 대도시보다 출산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66〉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구분		집단	결혼 만족도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118	3.04	0.87	0.23	
			중	623	3.00	0.54		
			하	319	3.01	0.58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2	3.19	0.48	7.01*	상 > 중, 하
			중	58	2.96	0.47		
			하	22	3.03	0.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91	3.05	0.87	0.54	
			중	471	3.00	0.52		
			하	262	3.04	0.55		
		외벌이	상	39	3.07	0.80	0.59	
			중	210	3.00	0.55		
			하	79	2.94	0.64		
거주 지역 변인	도시 형태	대도시	상	52	3.22	0.86	7.87*	상 > 중, 하
			중	277	3.02	0.54		
			하	103	2.93	0.57		
		중소도시	상	45	2.94	0.85	1.21	
			중	261	2.98	0.52		
			하	205	3.05	0.59		
		농어촌	상	33	3.11	0.82	0.53	
			중	143	2.99	0.53		
			하	33	3.02	0.50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99]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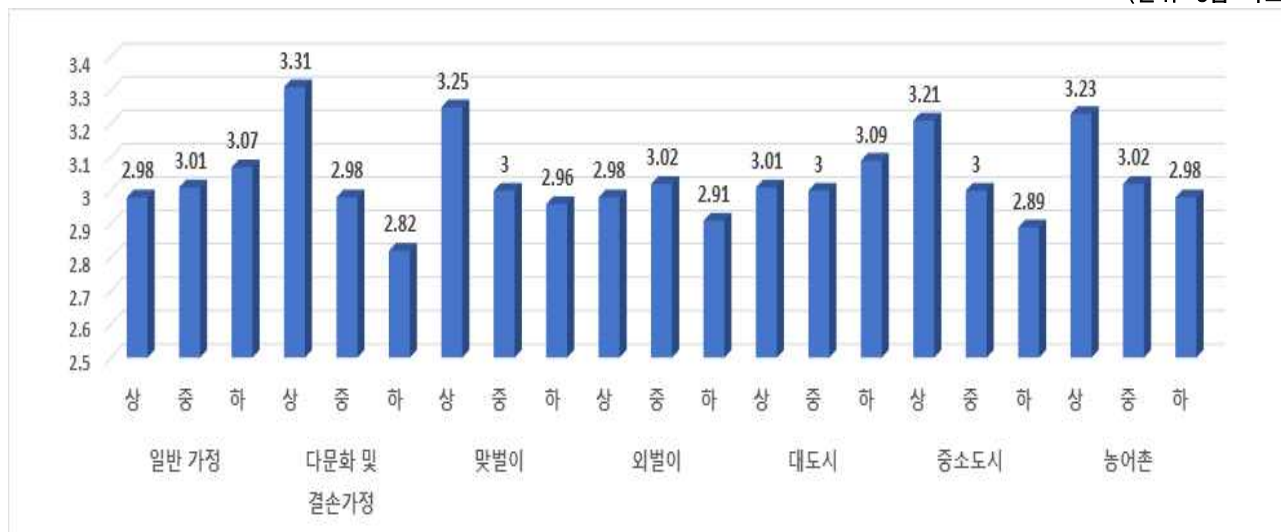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분석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는 다문화 및 결손가정($p<.01$),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p<.05$), 도시 규모에서는 중소도시($p<.05$), 농어촌($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 형태에서 상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은 중이나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다문화 및 결손가정보다 출산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 상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맞벌이는 중이나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맞벌이보다 출산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도시 형태에서 상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중이나 하인 행복플로리시를 가진 중소도시 및 농어촌보다 출산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67〉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차이 검증

구분		집단	행복 플로리시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256	2.98	0.71	1.21	
			중	620	3.01	0.53		
			하	184	3.07	0.61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6	3.31	0.58	10.08**	상 > 중, 하
			중	61	2.98	0.48		
			하	15	2.82	0.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202	3.25	0.68	7.86*	상 > 중, 하
			중	476	3.00	0.52		
			하	146	2.96	0.59		
		외벌이	상	70	2.98	0.78	0.74	
			중	205	3.02	0.53		
			하	53	2.91	0.61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120	3.01	0.69	0.41	
			중	274	3.00	0.53		
			하	38	3.09	0.69		
		중소도시	상	83	3.21	0.71	7.55*	상 > 중, 하
			중	276	3.00	0.54		
			하	152	2.89	0.59		
		농어촌	상	69	3.23	0.73	7.76*	상 > 중, 하
			중	131	3.02	0.50		
			하	9	2.98	0.36		

* $p<.05$, ** $p<.01$



[그림 III-100]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의지 비교

마. 도민의 행복지수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분석

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는 일반 가정($p<.01$), 다문화 및 결손가정($p<.01$),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p<.01$), 외벌이 가정($p<.05$), 도시 규모에서는 중소도시($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상인 가정이 중과 하인 가정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았고, 다문화 및 결손가정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상인 가정이 중이나 하인 가정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인 가정이 중과 하인 가정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았으며, 도시 규모 중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삶의 만족도가 상인 가정이 중과 하인 가정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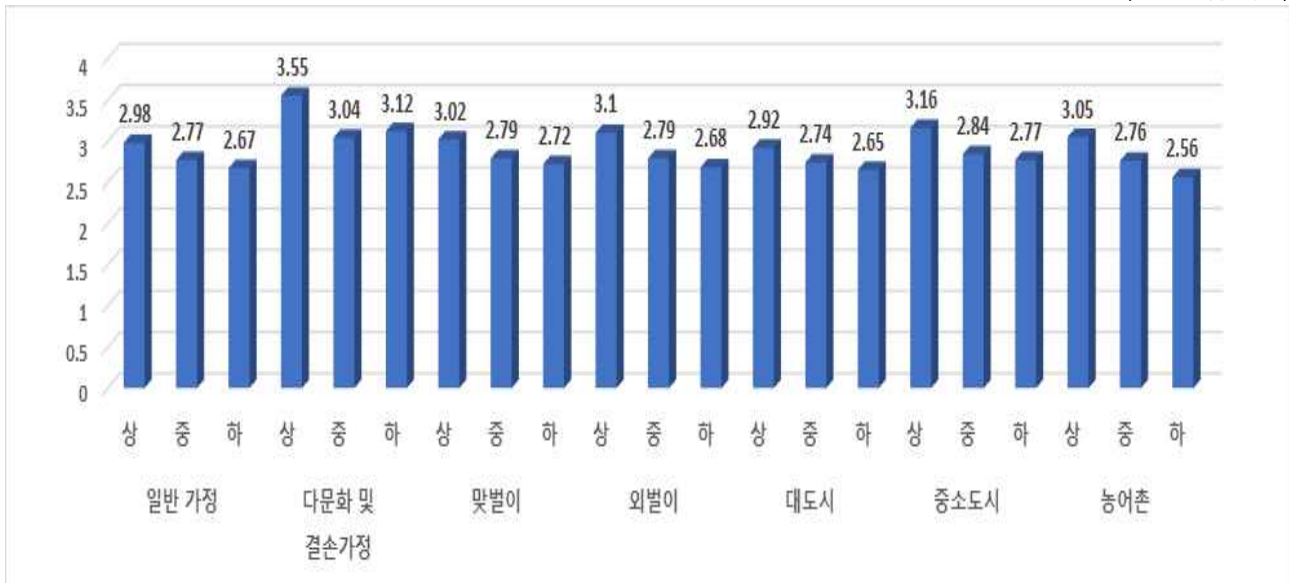
〈표 III-68〉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삶의 만족도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일반 가정	상	309	2.98	0.98	9.94**	상 > 중, 하
		중	542	2.77	0.72		
		하	209	2.67	0.86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39	3.55	0.95	3.64*	상 > 중, 하
		중	38	3.04	0.70		

거주 지역 변인	맞벌이 여부	맞벌이	하	15	3.12	0.76	7.99**	상 > 중, 하
			상	244	3.02	1.00		
			중	417	2.79	0.71		
		외벌이	하	163	2.72	0.85	6.10*	상 > 중, 하
			상	104	3.10	0.98		
			중	163	2.79	0.75		
	도시 규모	대도시	하	61	2.68	0.90	3.15	
			상	134	2.92	1.02		
			중	222	2.74	0.70		
		중소도시	하	76	2.65	0.79	8.98**	상 > 중, 하
			상	128	3.16	0.97		
			중	257	2.84	0.68		
		농어촌	하	126	2.77	0.91	3.67	
			상	86	3.05	0.97		
			중	101	2.76	0.87		
			하	22	2.56	0.81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01] 도민의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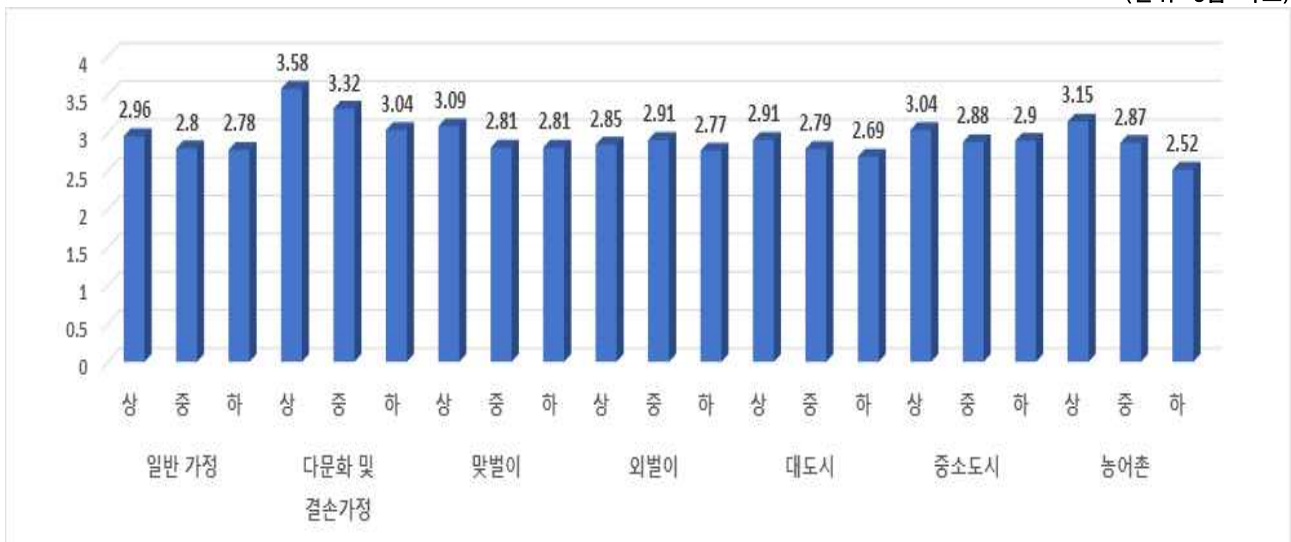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여부 중 맞벌이 가정($p<.05$), 도시 형태에서는 농어촌($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서 결혼 만족도가 상인 가정이 중과 하인 가정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았고, 도시 규모 중 농어촌에 거주하며 결혼 만족도가 상인 가정이 중이나 하인 가정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9〉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결혼 만족도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118	2.96	1.05	2.14	
			중	623	2.80	0.81		
			하	319	2.78	0.81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2	3.58	1.15	1.75	
			중	58	3.32	0.76		
			하	22	3.04	0.86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91	3.09	1.07	4.48*	상 > 중, 하
			중	471	2.81	0.80		
			하	262	2.81	0.81		
		외벌이	상	39	2.85	1.05	0.75	
			중	210	2.91	0.85		
			하	79	2.77	0.82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52	2.91	1.12	1.35	
			중	277	2.79	0.81		
			하	103	2.69	0.72		
		중소도시	상	45	3.04	0.98	0.76	
			중	261	2.88	0.81		
			하	205	2.90	0.82		
		농어촌	상	33	3.15	1.11	4.05*	상 > 중, 하
			중	143	2.87	0.85		
			하	33	2.52	0.91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02] 도민의 결혼 만족도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도민의 가정 환경 및 거주 지역 변인에서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는 일반 가정($p<.01$),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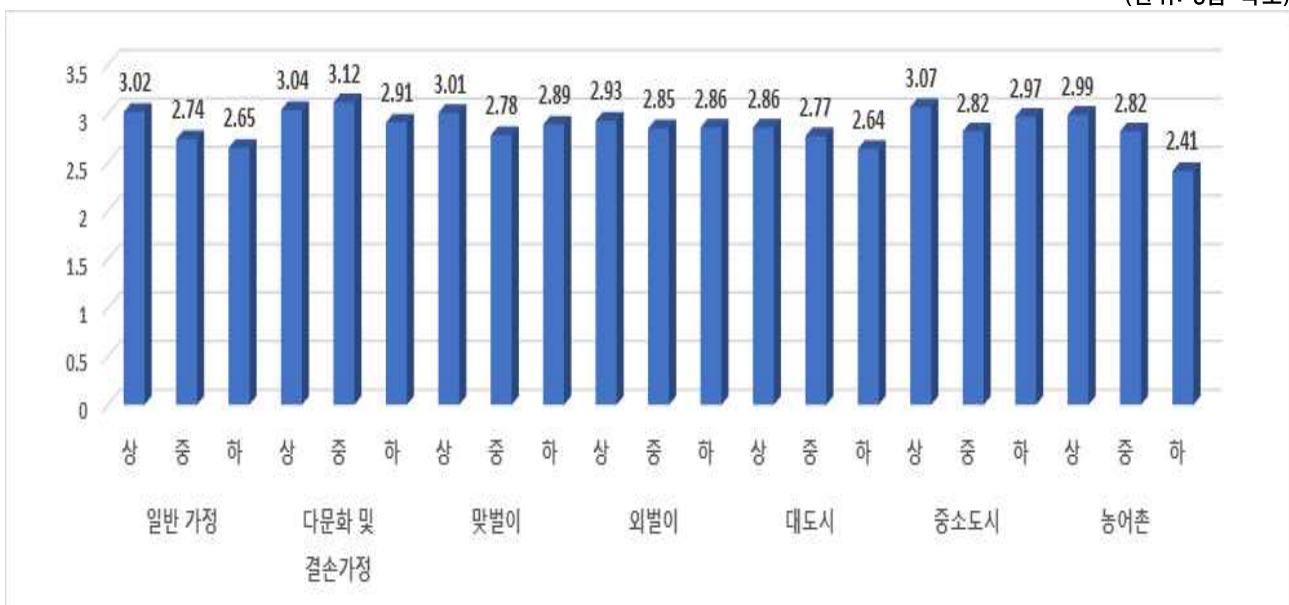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가정이 중이나 하인 가정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았고, 맞벌이 가정 중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가정이 중이나 하인 가정보다 출산 정책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0〉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집단	행복 플로리시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 분석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256	3.02	0.97	6.65**	상 > 중, 하
			중	620	2.74	0.75		
			하	184	2.65	0.90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16	3.04	1.28	2.29	
			중	61	3.12	0.69		
			하	15	2.91	0.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202	3.01	0.99	3.74*	상 > 중, 하
			중	476	2.78	0.75		
			하	146	2.89	0.87		
		외벌이	상	70	2.93	0.97	0.24	
			중	205	2.85	0.82		
			하	53	2.86	0.95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120	2.86	0.96	1.12	
			중	274	2.77	0.76		
			하	38	2.64	0.92		
		중소도시	상	83	3.07	0.96	3.66	
			중	276	2.82	0.76		
			하	152	2.97	0.87		
		농어촌	상	69	2.99	1.06	1.84	
			중	131	2.82	0.83		
			하	9	2.41	0.87		

*p< .05, **p< .01

(단위: 5점 척도)



[그림 III-103]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정도에 따른 출산 정책 만족도 비교

8.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출산의향 및 의지에 미치는 영향

가.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경북도민의 개인 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도시규모,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가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변량은 전체적으로 15.9%로 나타났다. 경북도민의 개인 배경 변인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9.6%이고, 가정환경 변인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1.8%이며, 도시규모가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0.2%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0.1%로 나타났고, 결혼만족도가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0.1%로 나타났으며 행복플로리시가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4.1%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추가 출산 의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배경 변인, 행복플로리시, 가정환경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민의 개인 배경 변인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은 결혼경력($\beta = -.435$), 연령($\beta = .2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은 결혼경력($\beta = -.456$), 연령($\beta = .268$), 가정형태($\beta = .122$) 등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민의 개인 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도시규모,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가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경력($\beta = -.398$), 행복플로리시($\beta = -.329$), 삶의 만족도($\beta = .149$), 가정형태($\beta = .0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경북도민은 결혼경력이 짧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플로리시가 높고, 일반 가정보다는 다문화 및 결손가정일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북도민의 추가 출산 의향을 향상시키기는데 경북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물론, 행복플로리시가 강력하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1〉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추가 출산 의향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개인 배경 변인	성별	.018(0.644)	.000(0.012)	-0.003(-0.090)	-.002(-0.075)	-0.003(-0.115)	-0.003(-0.095)
	연령	0.291(7.494)**	0.268(6.775)**	0.264(6.672)**	0.259(6.498)**	0.252(6.247)**	0.187(4.640)**
	결혼 경력	-.435(-11.256)**	-.456(-11.517)**	-.454(-11.464)**	-.448(-11.289)**	-.444(-11.119)**	-0.398(-10.076)**
	직업	-.062(-2.205)*	-.045(-1.557)	-.043(-1.500)	-.044(-1.525)	-.044(-1.551)	-.0038(-1.348)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122(4.131)**	.119(4.029)**	.120(4.048)**	.119(4.018)**	.094(3.248)**
	맞벌이 여부		-0.003(-0.104)	-0.004(-0.120)	-0.004(-0.128)	-0.006(-0.169)	-0.017(-0.518)
	월 평균소 득		0.101(3.000)**	0.104(3.100)**	0.102(3.027)**	.097(2.871)**	.086(2.596)*
도시 규모				.052(1.864)	.053(1.913)	.053(1.902)	.048(1.742)
삶의 만족도					-0.040(-1.430)	-0.019(-0.555)	0.149(3.752)**
결혼 만족도						-0.039(-1.129)	0.066(1.806)
행복플로리시							0.329(7.581)**
상수(constant)		3.275	2.364	2.190	2.429	2.644	3.329
R ²		0.102	0.119	0.122	0.124	0.125	0.167
Adj. R square		0.096	0.114	0.116	0.117	0.118	0.159
F 값		32.402**	22.178**	19.882**	17.916**	16.256**	20.735**
사례수(N)		1152	1152	1152	1152	1152	1152

주: 각 모델의 제시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 β (t값)

*p< .05, **p< .01

나.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북도민의 개인 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도시규모,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변량은 전체적으로 4.2%로 나타났다. 경북도민의 개인 배경 변인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3.0%이고, 가정환경 변인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0.2%이며, 도시규모가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0.1%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0.1%로 나타났고, 결혼만족도가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0.1%로 나타났으며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0.1%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출산 의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배경 변인, 가정환경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민의 개인 배경 변인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은 결혼경력($\beta = -.246$), 연령($\beta =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은 결혼경력($\beta = -.262$), 연령($\beta = .227$), 맞벌이 여부($\beta = -.072$) 등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민의 개인 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도시규모,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가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경력($\beta = -.269$), 연령($\beta = .237$), 결혼만족도($\beta = .080$), 행복플로리시($\beta = .069$), 맞벌이 여부($\beta = -.0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경북도민은 결혼경력이 짧고, 연령이 많으며, 외벌이보다는 맞벌이를 할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와 행복플로리시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북도민의 출산 의지를 향상시키기는데 경북도민의 결혼경력, 연령,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맞벌이 여부가 강력하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 -72〉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 행복지수가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출산 의지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개인 배경 변인	성별	.020(0.698)	.013(0.431)	.013(0.444)	.013(0.445)	.015(0.503)	.015(0.507)
	연령	0.214(5.312)**	0.227(5.473)**	0.227(5.476)**	0.227(5.433)**	0.237(5.617)**	0.223(5.175)**
	결혼 경력	-.246(-6.129)**	-.262(-6.340)**	-.263(-6.343)**	-.262(-6.301)**	-.269(-6.433)**	-.259(-6.129)**
	직업	-.021(-0.727)	-.015(-0.486)	-.015(-0.494)	-.015(-0.496)	-.014(-0.459)	-.012(-0.412)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010(0.310)	.010(0.323)	.010(0.325)	.011(0.367)	.006(0.200)
	맞벌이 여부		-0.072(-2.098)*	-0.072(-2.090)*	-0.072(-2.090)*	-0.070(-2.031)*	-0.067(-1.398)*
	월 평균소득		-0.035(-0.991)	-0.035(-1.003)	-0.036(-1.008)	-0.029(-0.811)	-0.031(-0.877)
도시 규모				-0.007(-0.250)	-0.007(-0.245)	-0.007(-0.229)	-0.008(-0.270)
삶의 만족도					-0.004(-0.136)	-0.035(-1.004)	-0.000(0.007)
결혼 만족도						0.058(1.1594)	0.080(2.030)*
행복플로리시							0.069(1.484)*
상수(constant)		3.036	3.183	3.192	3.202	3.074	3.132
R ²		0.034	0.038	0.039	0.040	0.041	0.042
Adj. R square		0.030	0.032	0.033	0.034	0.035	0.036
F 값		10.034**	6.374**	5.580**	4.958**	4.722**	4.497**
사례수(N)		1152	1152	1152	1152	1152	1152

주: 각 모델의 제시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 β (t값)

* $p < .05$, ** $p < .01$



정책 제안

1.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2. 도민의 행복 지수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3.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제안
4. 도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문
자료 수집을 통한 종단 연구 제안

IV. 경북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1. 도민의 개인 및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가.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 41세 이상인 도민이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1세 이상 연령의 도민은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고연령에 대한 집중적인 출산 정책 개발과 출산 예산 투입도 필요하다.

또한, 36세-40세에 해당하는 도민은 실제 출산 자녀 수와 이상적인 자녀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중간연령에 대한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6세-30세에 해당하는 도민은 실제 자녀 수와 이상적인 자녀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가 출산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 경력에서 1년 이하인 결혼 경력을 가진 도민은 추가 출산 의향과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년 이상인 결혼 경력을 가진 도민은 이상적 자녀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 이하인 결혼 경력과 6년 이상인 결혼 경력을 가진 도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출산 정책 개발과 출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최종 학력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인 도민은 대학 졸업 이하인 도민보다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 졸업 이하인 학력을 가진 도민을 위한 출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직업에서 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하는 도민은 관리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도민보다 추가 출산 의향과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도민을 위한 출산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표 IV-1〉 도민의 개인 변인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구분		집단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
개인 배경 변인	성별	남	-	-	-	-	-
		여	-	-	-	-	-
	연령	25세 이하	0명	1-2명	○	○	○
		26-30세	0명	1-2명	◎	○	○
		31-35세	2명	1-2명	○	○	○
		36-40세	2명	2-3명	○	○	○
		41세 이상	2명	2-3명	●	◎	◎
	결혼 경력	미혼	-	-	-	-	-
		1년 미만	0명	1-2명	●	◎	-
		1-5년	1명	1-2명	●	○	-
		6-10년	2명	2-3명	○	○	-
		11년 이상	2명	2-3명	○	○	-
	최종 학력	고졸 이하	-	-	○	○	○
		대졸	-	-	○	○	○
		대학원 졸업 이상	-	-	◎	◎	◎
	직업	기능 및 노무직	-	-	◎	-	◎
		관리 및 전문직	-	-	○	-	○
		무직	-	-	◎	-	○

※ ● : 높음, ◎ : 보통, ○ : 낮음

나. 도민의 가정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도민의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가정형태에서 일반 가정은 다문화 및 결혼 가정보다 이상적 자녀 수가 전반적으로 많지만, 출산 정책 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도민을 위한 출산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출산 정책 개발과 출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맞벌이 여부에서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실제로 출산 자녀 수가 많고, 가정 전체 월 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표 IV-2〉 도민의 가정 환경 변인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구분		집단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	2-3명	-	-	○
		다문화 및 결손가정	-	1-2명	-	-	◎
	맞벌이 여부	맞벌이	2명	-	-	-	○
		외벌이	0명	-	-	-	○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0명	1-2명	○	○	○
		200-300만원 미만	0명	2-3명	○	○	○
		300-400만원 미만	2명	2-3명	○	○	○
		400-500만원 미만	2명	2-3명	○	○	○
		500만원 이상	2명	2-3명	●	●	●

※ ● : 높음, ◎ : 보통, ○ : 낮음

다.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도시 규모에서 중소도시는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소도시에 적합한 맞춤형 출산 정책 개발과 출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 지역에서 김천, 영주, 칠곡 지역은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 자녀수, 추가 출산 의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김천 지역을 ‘출산 중점 도시’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정책 개발과 출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경주, 의성, 영양 지역은 이상적인 자녀 수는 많지만, 추가 출산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표 IV-3〉 도민의 거주 지역 변인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구분		집단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	-	○	-	-
		중소도시	-	-	◎	-	-
		농어촌	-	-	○	-	-
	시군 지역	포항	2명	1-2명	◎	-	-
		경주	2명	2-3명	○	-	-
		김천	2명	2-3명	●	-	-

	안동	2명	2-3명	◎	-	-
	구미	2명	2-3명	◎	-	-
	영주	0명	1-2명	●	-	-
	영천	2명	2-3명	◎	-	-
	상주	0명	2-3명	◎	-	-
	문경	0명	2-3명	◎	-	-
	경산	0명	1-2명	◎	-	-
	군위	0명	1-2명	◎	-	-
	의성	2명	2-3명	○	-	-
	청송	0명	2-3명	◎	-	-
	영양	0명	2-3명	○	-	-
	영덕	2명	1-2명	◎	-	-
	청도	0명	1-2명	◎	-	-
	고령	2명	2-3명	◎	-	-
	성주	2명	2-3명	◎	-	-
	칠곡	2명	1-2명	●	-	-
	예천	0명	1-2명	◎	-	-
	봉화	0명	1-2명	◎	-	-
	울진	0명	1-2명	◎	-	-
	울릉	0명	1-2명	◎	-	-

※ ● : 높음, ◎ : 보통, ○ : 낮음

2. 도민의 행복 지수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가.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인 일반 가정 및 다문화 및 결손 가정에서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인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고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상인 외벌이 가정에서는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규모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인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실제 출산 자녀 수가 많고,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상인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고,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으며, 삶의 만족도가 상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은 실제 출산 자녀 수와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표 IV-4〉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구분		집단	삶의 만족도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	-	◎	-	◎
			중	-	-	◎	-	○
			하	-	-	○	-	○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2명	2-3명	-	◎	◎
			중	2명	1-2명	-	○	○
			하	1명	0-2명	-	○	○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	2-3명	-	-	◎
			중	-	2-3명	-	-	○
			하	-	1-2명	-	-	○
		외벌이	상	-	-	◎	-	◎
			중	-	-	○	-	○
			하	-	-	○	-	○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2명	-	◎	◎	-
			중	2명	-	○	○	-
			하	0명	-	○	○	-
		중소도시	상	-	2-3명	-	-	◎
			중	-	2-3명	-	-	○
			하	-	1-2명	-	-	○
		농어촌	상	2명	2-3명	-	-	-
			중	0명	2-3명	-	-	-
			하	0명	1-2명	-	-	-

※ ● : 높음, ◎ : 보통, ○ : 낮음

나. 도민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도민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 결혼 만족도가 상인 일반 가정에서 실제 출산 자녀 수가 많고, 추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만족도가 상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에서는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고,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 결혼 만족도가 상인 맞벌이 가정에서는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만족도가 상이나 중인 외벌이 가정에서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고,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규모에서 결혼 만족도가 상인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만족도가 상인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추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만족도가 상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은 이상적인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결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표 IV-5〉 도민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구분	집단	결혼 만족도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1-2명	-	◎	-
			중	1-2명	-	○	-
			하	0-2명	-	○	-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2명	2-3명	-	◎
			중	2명	2-3명		○
			하	1명	1-2명		○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	-	◎	-
			중	-	-	◎	-
			하	-	-	○	-
		외벌이	상	-	2-3명	◎	-
			중	-	2-3명	◎	-
			하	-	1-2명	○	-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	-	-	◎
			중	-	-	-	○
			하	-	-	-	○
		중소도시	상	-	-	◎	-
			중	-	-	○	-
			하	-	-	○	-
		농어촌	상	-	2-3명	◎	-
			중	-	2-3명	○	-
			하	-	1-2명	○	-

※ ● : 높음, ◎ : 보통, ○ : 낮음

다. 도민의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출산율 분석 및 제고 방안

도민의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가정 형태에서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일반 가정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고,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다문화 및 결손가정에서는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고,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상적인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외벌이 가정에서는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고, 추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규모에서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고 추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이상적인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플로리시가 상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은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 출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행복플로리시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표 IV-6〉 도민의 행복플로리시에 따른 출산율 및 정책 분석 결과

구분		집단	행복 플로리시	실제 출산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출산 정책 만족도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일반 가정	상	-	2-3명	◎	-	◎
			중	-	2-3명	○	-	○
			하	-	1-2명	○	-	○
		다문화 및 결손가정	상	2명	2-3명	◎	◎	-
			중	2명	1-2명	○	○	-
			하	1명	1-2명	○	○	-
	맞벌이 여부	맞벌이	상	-	2-3명	◎	◎	◎
			중	-	2-3명	○	○	○
			하	-	1-2명	○	○	○
		외벌이	상	2명	2-3명	◎	-	-
			중	2명	2-3명	○	-	-
			하	0명	1-2명	○	-	-
거주 지역 변인	도시 규모	대도시	상	-	2-3명	◎	-	-
			중	-	2-3명	○	-	-
			하	-	1-2명	○	-	-
		중소도시	상	-	2-3명	◎	◎	-
			중	-	2-3명	○	○	-
			하	-	1-2명	○	○	-
		농어촌	상	2명	2-3명	-	◎	-
			중	2명	2-3명	-	○	-
			하	0명	1-2명	-	○	-

※ ● : 높음, ◎ : 보통, ○ : 낮음

3.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제안

가.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

1)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개인 변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제안

도민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성별, 연령, 결혼경력, 직업 등 개인 배경 변인 고려한 맞춤형 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7〉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개인 변인에 따른 맞춤형 정책

구분	분석 결과	맞춤형 출산 정책
개인 배경 변인	연령 - 삶의 만족도 : 41세 미만 > 41세 이상 - 이상적인 자녀 수 : 36세 이상(2-3명) > 35세 이하(1-2명) -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 41세 이상 > 41세 미만	〈임신 전/후 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정서-심리적 상담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제도〉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차등 지원 〈출산가치관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 결혼 전, 결혼초기 등 생애주기별 출산가치관 확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혼 경력 - 결혼만족도, 행복플로리시 : 1년 이하 > 1년 이상 - 이상적인 자녀 수 : 6년 이상(2-3명) > 5년 미만(1-2명) - 추가 출산 의향 : 5년 이하 > 5년 이상 - 출산 의지 : 1년 이하 > 1년 이상	〈신혼부부 주거정착 지원 제도〉 -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 - 대출금 이자 지원 제도 〈부부상담, 부부교육 지원 제도〉 - 가치관 교육, 양육스트레스 관리, 삶의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교육, 상담, 코칭
	직업 - 출산 정책 만족도 : 기능 및 노무직 > 관리 및 전문직 - 추가 출산 의향 : 기능 및 노무직, 무직 > 관리 및 전문직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의무제도〉 - 전문직, 관리직 등 직업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제도 의무화 〈취업지원 및 구직 촉진 수당 지원제도〉 - 취업지원 및 구직을 위한 자격증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출산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 지급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정 환경 변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제안

도민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정형태, 맞벌이 여부, 월평균소득 등 가정 환경 변인 고려한 맞춤형 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8〉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정 환경 변인에 따른 맞춤형 정책

구분	분석 결과	맞춤형 출산 정책
가정 환경 변인	가정 형태 - 출산 정책 만족도 : 다문화 및 결손가정 > 일반가정 - 이상적인 자녀 수 : 일반가정 (2-3명) > 다문화 및 결손가정	〈취약계층 가정 지원 제도〉 - 출산시 병원 이용 무료제도 - 장애인 및 비혼 가정 출산시 출산지원금 제도 ※ 언어, 평등, 문화, 양육, 교육 등 〈다문화 가정 및 결손 가정 지원 제도〉 - 행복한 가정 문화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활동 전 개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일반가정 대상 행복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일반가정 대상 행복 향상 프로그램 운영
	맞벌이 여부 - 삶의 만족도 : 외벌이 > 맞벌 이 - 실제 출산 자녀 수 : 맞벌이 > 외벌이	〈외벌이 부부 대상 취업 지원 제도〉 - 외벌이 부부 대상 우선적 취업 혜택 제도화 〈맞벌이 부부 대상 복지 지원 제도〉 - 산후 관리 지원제도 및 양육교육제도 - 부모 휴가제 의무화 - 충분한 출산휴가 제도(부부 공동 사용)
	월 평균 소득 - 출산 정책 만족도,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지 : 500만원 이 상 > 500만원 미만	〈출산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 지원 제도〉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 금액 상향 지원 〈육아 양육 부대 비용 지원 제도〉 - 기저귀 및 분유 지원제도 - 장난감 및 도서 무료 대여 제도 〈출산 희망자 대상 특별 생활비 지원 제도〉 - 출산 희망자 대상 우선적 가정생활 경비 지원

3) 출산율 제고를 위한 거주지역 변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제안

도민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규모, 시군지역 등 거주지역 변인 고려한 맞춤형 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9〉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도시규모에 따른 맞춤형 정책

구분	분석 결과	맞춤형 출산 정책
도시규모	- 삶의 만족도 : 농어촌 > 대도시, 중소도시 - 결혼만족도, 행복פל로리시 : 농어촌 > 중소도시 - 추가 출산 의향 : 농어촌 > 대도시, 중소도시 - 출산 정책 만족도 : 중소도시, 농어촌 > 대도시	〈대도시 대상 출산 정책 만족도 향상 지원 제도〉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도적 장치마련 -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 다자녀 가족 여행 지원 제도(연 1회) - 공동육아 나눔 공간 -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 아이이름 청약통장 지원제도 〈중소도시 대상 행복가정 문화 만들기 캠페인 전개〉 - 행복한 가족 만들기 캠프(1박 2일) 운영 -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활동 전개 〈농어촌 대상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운영〉 - 영유아 복합 놀이 시설 공간 지원 - 다자녀 우대카드, 지역화폐 충전시 10% 인센티브 - 영유아-아동 영양제 지원 - 청년(40세미만) 정착시 주거정착지원금 제도 - 산후도우미 지원제도

〈표 IV-10〉 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군별에 따른 맞춤형 정책

구분	분석 결과	맞춤형 출산 정책
포항	- 결혼만족도↓ - 추가 출산의향↓	-결혼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부상담 지원 -출산 제고 가치관 교육 등 부부 맞춤 프로그램
경주	- 행복도↑ - 출산의지↓ - 추가출산의향↓ - 출산정책만족도↓	-출산지원금 상향 정책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김천	- 추가 출산의향 ↑ - 행복פל로리시 ↓ - 주거환경 만족도 ↓	-행복지수 향상 프로그램 운영 -주거환경 개선(문화, 보육, 교육 등) 정책 지원
안동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 출산 정책 만족도 ↓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구미	- 출산의지 ↓ - 추가출산의향 ↓ - 출산정책만족도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영주	- 삶의 만족도 ↓ - 결혼만족도, 행복פל로리시 ↓ - 주거 환경 만족도 ↓ - 출산의지, 추가 출산 의향 ↑	-행복 지수 향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여가활동 지원 정책 -주거환경 개선(문화, 보육, 교육 등) 지원 정책
영천	- 출산의지 ↓ - 출산 정책만족도 ↓ - 추가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충
상주	- 출산의지 ↓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추가 출산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문경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경산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 출산 정책 만족도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군위	- 결혼만족도 ↓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부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일-가정 양립 보장 정책
의성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청송	- 출산 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영양	- 삶의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출산 가치관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가 활동 지원 정책, 문화시설 확충

영덕	- 삶의 만족도 ↓ - 정책만족도 ↓	-가치관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가 활동 지원 정책, 문화시설 확충
청도	- 출산 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일-가정 양립 보장 정책
고령	- 출산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 출산 정책 만족도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일-가정 양립 보장 정책 -출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성주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출산 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출산-양육지원금 상향 정책 -공공 산후조리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칠곡	-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 - 행복플로리시 ↓ - 주거 환경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행복 지수 향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주거환경 개선(문화, 보육, 교육 등) 정책
예천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출산-양육지원금 상향 정책 -공공 산후조리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봉화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출산 의지 ↓ - 추가 출산 의향 ↓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울진	- 출산 의지 ↓ - 출산 정책 만족도 ↓ - 추가 출산 의향 ↓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 지원 정책 -보육비, 교육비 보조 -보육시설 확충 정책
울릉	- 출산 의지 ↑	-양육수당 지원금 상향 -보육, 교육 지원 정책

나.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도민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행복한 도민 만들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행복한 도민 만들기 프로그램은 긍정 정서(즐거운 삶), 몰입(몰입하는 삶), 관계(좋은 삶), 의미(의미있는 삶), 성취(성취하는 삶), 신체활동(건강한 삶) 등 행복플로리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표 IV-11〉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

구분	특징	삶의 유형
긍정 정서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	즐거운 삶
몰입 (Engagement)	-어떤 것에 집중하여 시간가는 줄 모르거나 자각하지 못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몰입하는 삶
관계 (Relationship)	-혼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하는 것	좋은 삶
의미 (Meaning)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	의미있는 삶
성취 (Accomplishment)	-성공이나 성취 그 자체가 좋아서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성취하는 삶
신체활동 (GYM)	-활력 있는 신체를 만들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건강한 삶

특히, 행복한 도민 만들기 프로그램은 활기찬 삶,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좋은 삶, 의미있는 삶, 성취하는 삶 등 6개 영역 15회기로 구성할 수 있다.

〈표 IV-12〉 행복한 도민 만들기 프로그램(예시)

구분	회기	주제	주요 내용	방법	행복 플로리시 구성요소
활기찬 삶	1	현재상황 진단하기	-행복정도 진단하기 -내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뇌 기반 행복플로리시 개념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긍정정서(P) 의미(M)
	2	신체 이완하기	-자기 몸 인식하기 -신체 활력 높이기 -신체 이완하기	-자신의 몸 체크하기 -신체 활동(GYM) -바디스캔 명상하기	신체활동(GYM) 긍정정서(P)
	3	몸 감각 깨우기	-신체 활동으로 몸 감각 깨우기 -몸 바라보기 -호흡 알아차리기	-몸과 마음의 감각에 집중하기 -몸, 마음의 변화 느끼기 -호흡 명상으로 성찰하기	신체활동(GYM) 긍정정서(P)
	4	마음열기	-신체 활동으로 두뇌 활성화하기 -마음의 상태 알아차리기 -신체 관리하기	-현재 몸과 마음의 느낌 알아차리기 -마음챙김명상 하기 -실천과정 공유 및 격려하기	긍정정서(P) 신체(G) 몰입(E)
즐거움 삶	5	마음 바라보기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 조절하기 -호흡을 통한 스트레스 조절하기 -감정 인식하기	-두뇌 기능 활성화하기 -스트레스 조절하기 -감정 표현하기	긍정정서(P) 관계(R) 신체(G)

	6	마음치유 및 수용하기	-이미지트레이닝 하기 -감정 정화하기 -미용감사 명상하기 -부정적 감정 재평가하기	-편도체 부정기억 바라보기 -부정감정 버리기 -자기 사랑하기 명상하기 -성찰을 통한 알아차리기	긍정정서(P) 몰입(E) 의미(M)
몰입하는 삶	7	자기 사랑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위시리스트 작성하기 -현재 하고 싶은 거 선택하기	-에너지 집중 명상하기 -현재 몸과 마음의 느낌 알아차리기 -선택과 집중하기 -자신에게 선물하기	몰입(R) 의미(M) 성취(A)
	8	자기 신뢰하기	-새로운 자원 개발하기 -인적, 심적, 물적 활용하기 -신체 활동을 통한 내면화하기 -자기 성찰, 도전 목표 정하기	-뇌의 가소성 알기 -긍정적 정보 선택하기 -평정심 유지하기 -도전 목표와 계획 세워보기	몰입(R) 성취(A) 신체(G)
좋은 삶	9	마음의 힘 키우기	-한계극복하기 -목표를 이루어내는 연습하기 -자기 성찰, 도전 목표 정하기	-신체활동 gym 체험하기 -건디는 연습하기 -자기 칭찬하기 -자애 명상하기	몰입(R) 성취(A) 신체(G)
	10	마음 교류하기	-타인에게 관심 갖기 -마음으로 교류하기 -공감과 소통하기	-경청하기 -인정언어 사용하기 -타인 자애 명상하기	긍정정서(P) 관계(R) 의미(M)
의미있는 삶	11	나의 가치 찾기	-나의 강점 인식하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성찰하기 -타인에게 기여하기	-자신의 강점 찾기 -통찰 명상하기 -감사한 일 적어보기 -타인에게 사랑 전달하기	관계(R) 의미(M) 성취(A)
	12	행복한 꿈 찾기	-삶의 의미 찾기 -내 안의 꿈 찾기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 세우기 -세상에 기여하기	-나와 세상에 도움 되는 행동하기 -생활속에서 실천하기 -호흡, 소감 나누기 -감사 명상하기	관계(R) 의미(M) 성취(A)
성취하는 삶	13	성공체험 훈련하기	-하고 싶은 거 시도하기 -순간순간 선택하고 성공 체험하기 -두뇌 회로 형성하기 -본질적 자신감 회복하기	-긍정의 메시지 주기 -호흡 마음챙김 명상 훈련하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몰입(R) 의미(M) 성취(A)
	14	일상생활 에서 성장하기	-몸·마음·두뇌 최적화 상태 만들기 -호흡을 통한 자기 조절하기 -자기 암시를 통한 자존감 향상하기	-몸·마음·두뇌 상태 점검하기 -자아 선언하기 -자기 칭찬 및 타인 칭찬하기	신체(G) 의미(M) 성취(A)
	15	일상생활 에서 행복관리 하기	-서로의 실천 과정 공유 및 격려하기 -하나되기 -행복정도 사후 진단하기	-전체 프로그램 돌아보며 성장에 대한 스토리텔링 하기 -통찰 명상을 통한 자신의 변화 알아차리기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의미(M) 성취(A) 관계(R)

4. 도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문 자료 수집을 통한 종단 연구 제안

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통계자료 수집의 정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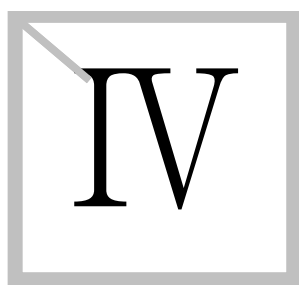
도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배경 변인, 가정 환경 변인, 거주 지역 변인,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다양한 변수를 연 1회 이상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표 IV-13〉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예시)

설문 조사 도구	하위 영역	문항수
삶의 만족도 및 결혼 만족도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15
행복플로리시	긍정 정서, 몰입, 의미, 관계, 성취	19
출산 의지, 출산 정도	추가 출산 의향, 출산의지, 출산 정도	14
출산장려정책 및 주거환경 만족도	출산장려정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9
개인 배경 변인	성별, 거주지역, 평균소득, 직업, 학력 등	10
전 체		67

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종단 연구 필요

매년 도민의 출산율의 현황,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 환경 변인, 거주 변인, 행복 지수 등을 활용하여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산율이 높은 시군지역과 출산율이 낮은 시군지역을 비교하는 종단 연구, 행복지수가 높은 시군지역과 행복지수가 낮은 시군지역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종단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종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경상북도 총인구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35년 이상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1회성에 그치는 출산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경북도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면 출산 가치관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의 출산 장려 정책의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북도민 1,152명을 대상으로 개인 변인, 환경 변인, 거주지역 변인,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행복플로리시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도민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지수가 높으면 출산율도 높고, 행복지수가 낮으면 출산율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북도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북도민의 개인 변인, 환경 변인, 거주지역 변인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결혼경력, 직업, 월 평균소득, 다문화 및 결손가정, 일반가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북도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출산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에 영향을 주는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는 중단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향후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경북도민 중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및 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 외에 심층면담, 전문가 협의회 등 질적 연구를 병행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5). 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5-165.
- 강현미(2016) **영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역량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강혜진(2009)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 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9-149.
- 곽희경(2011).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정체감과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권남경(2014). **어린이집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따른 교사 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권태환, 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경미(2017)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경애(2001).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 김경희 외 (2018) 출산율은 삶의 질과 비례하는가? OECD 국가의 삶의 질 요인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추이분석. **국제지역연구**, 2(1), 215-235
- 김경희, 이희경(2013). 의미추구와 긍정정서가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07-124.
- 김광수, 한미라, 박병기(2017). 즐거움, 행복, 편안의 긍정정서에 대한 fMRI 뇌 영상 연구의 메타분석. **아동교육**, 26(4), 5-22.
- 김리진, 홍연애(2013).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55-74.
- 김민영(2019). **보육교사의 처우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 김선형(2017).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척도 개발 방향 및 구성 요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21(5), 351-376.
- 김성연(2012). **아동기의 신체활동 및 두뇌계발 게임이 뇌건강 요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성혜, 김초강(1991). 결혼관련 요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8(1), 87-97.

- 김수진(2009). **자녀가치관이 기혼여성의 둘째자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 김승권(2003). **전국 출산력 및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경(2014). 부관계특성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9-217.
- 김종순, 오세숙, 윤소영(2016). 20-40대 직장여성의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의 관계. **여가학연구**, 14(4), 67-85
- 김태현, 박주희(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79-106.
- 김혜정, 그레이스정(2019) 행복한 대한민국의 ‘김지영’을 위하여. **여성학연구**, 29(1), 35-64.
- 모연례(2014).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박상미(2018). 몸 | 뇌 | 마음: 정신치료에서 작용하는 영아 연구와 신경과학. **무용예술학연구**, 69(2), 139-143.
- 박선영. (2013). 저소득층의 긍정적 정서 및 우울감과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 및 조절 역할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189-214.
- 박수현(2010). **웰니스 : 뇌를 바꾸는 운동혁명**. 서울: (주)랜덤하우스코리아.
- 박영애(2012).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방은령, 신호영(2006). 결혼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326-327.
- 배광일(2011)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백나영(2013) **출산환경요인과 출산의지와 의 관계연구 : 개인 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백승숙(2019).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 심도담(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과 후속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우문식(2014). **행복 4.0**. 경기: 도서출판 물푸레.
- 유권중(2011). 마음과 뇌-유교의 수양론과 인지과학. **동양철학**, 36, 303-331.
- 유현정(2011).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경민, 최윤정, 이경애(2012). 유아교사의 행복과 역할수행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2(6), 489-503.

-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 이진숙, 최원석(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 일가족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5-30.
- 이희연(2003).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서울: 법문사.
- 임현주, 이대균(2013). 부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효과: 모의 취업과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3(2), 12-14.
- 정선영(2016) 삶의 만족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과 문화**, 29(1), 105-127.
- 정진숙(2015). **긍정심리동화를 활용한 유아 행복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 조은숙, 김스완(2016). 긍정심리학을 반영한 무용교육에 대한 연구: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의 펄마 (PERMA) 이론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61(4), 55-71.
- 천혜정(2005). 둘째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 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3.
- 탁진국(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하수연(2019). 마음-몸 연결기법과 생각자석을 활용한 창의인성 함양 방안. **인문사회** 21, 10(2), 1615-1626.
- 한유미, 곽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 출산율 저하와 여성사회 참여. **한국생활학회지**, 13(1), 29-40.
- 허은경(2014).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및 신체적·심리적 건강 :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홍성란(2016).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율과 출산의 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 황해익(2016). 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몰입, 향유신념, 직무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5(1), 135-159.
- 황해익, 강현미, 탁정화(2014). 유아교사의 유머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긍정성의 매개 효과. **유아교육학논문집**, 18(1), 341-363.
- Boehm, J. K., & Lyubomirsky, S. (2008). Does happiness promote career suc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101-116.
- Carmichael, G. A., & Whittaker, A. (2007). Choice and circumstance: Qualitative insights into contemporary childlessness in Australia.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2), 111-143.

- Csikszentmihályi, M. (1990). The domain of creativity. In M. A. Runco, & R. S. Albert (Eds.), *Theories of creativity* (pp. 190-212). Newbury Park, CA: Sage.
- Dalai, L., & Cutler, H. (2001).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The Art of Happiness in a Troubled World]. (류시화 역). 서울: 김영사. (원저 198년 출판)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George, J. M. (1991). State or trait: Effects of positive mood on prosocial behaviors at 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2), 299-307.
- George, M. S., Ketter, T. A., Parekh, P. I., Horwitz, B., Herscovitch, P., & Robert, M. P. (1995). Brain Activity During Transient Sadness and Happiness in Healthy Wom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341-351.
- Herrbach, O. (2006). A matter of feeling? The affective ton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7(5), 629-643.
- Klein, S. (2006). *The science of happiness: How our brains make us happy-and what we can do to get happier*. Cambridge, MA: Da Capo Press.
- Kohler, H-P., Behrman, J. R., & Skytthe, A. (2005). Partner + children = Happiness? The effects of partnerships and fertility on happines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3), 407-445.
- Le Moglie, M., Mencarini, L., & Rapallini, C. (2015). Is it just a matter of personality? on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childbear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17, 453-475.
- Parr, N. (2010). Satisfaction with life as an antecedent of fertility: Partner Happiness = Children? *Demographic Research*, 22, 635-662.
- Proulx, C. M., Helms, H. M., & Buehler, C. (2007). Marital quality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576-593.
- Seligman, M.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2009). *What you can change and what you can't*: The complete guide to successful self-Improvement*.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 Seligman, M. E.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Simon & Schuster..
- Seligman, M. E. P. (2004). *Can happiness be taught?* Daedalus.
- Seligman, M. E. P. (2006). **긍정심리학**. [Authentic happiness]. (김인자 역). 서울:

물푸레. (원저 2002년 출판).

- Seligman, M. E. P. (2011). **플로리시: 웰빙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우문식, 윤상운 역). 경기: 물푸레.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5(1), 5-14.
- Seligman, M. E. P., Ernst, R. M., Gillham, J., Reivich, K., & Linkins, M. (2009). Positive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and classroom intervention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3), 293-311.
- Seligman, M. E. P., Park, N., & Peterson, C. (2004). The values in action(VIA)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Ricerche Di Psicologia*, 27(1), 63-78.
- Seligman, M. E. P., Rashid, T., & Park,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8), 774-788.
- Seligman, M. E. P., Schulman, P., & Tryon, A. M. (2007). Group preven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Behaviour Research & Therapy*, 45(6), 1111-1126.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 Shahar, T. B. (2007). **해피어**. [Happier]. (노혜숙 역). 서울: 위즈덤하우스. (원저 2007년 출판).
- Sheldon, K. M., & Lyubomirsky, S. (2007). Is it possible to become happier?(And if so, ho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129-145.

도민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통한 출산가치관 제고방안 연구 설문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본 설문지는 “행복지수와 출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료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 조사는 연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응답자의 비밀을 철저히 하게 보장 되어오니(통계법 제8조), 각 문항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성스럽게 기재하여 주시면 더욱 좋은 연구결과를 얻어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 삶의 만족도

번호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 것이다.					

II. 결혼만족도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배우자와 나는 가치관이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					
2	지금까지의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다.					
3	배우자는 우리 부부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5	배우자는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부족하다.					
6	나의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7	나의 삶에서 결혼생활이 가장 큰 만족감을 준다.					
8	나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며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9	나의 결혼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같이 행복하다.					
10	나의 배우자는 나를 자기와 동등하게 대한다.					

Ⅲ. 행복플로리시

번호	문항내용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전반적으로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기쁨을 느끼니까?					
2	전반적으로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긍정적 기분을 느끼니까?					
3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니까?					
4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자주 몰입합니까?					
5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흥분감과 재미를 느끼니까?					
6	당신이 즐기는 무엇인가를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합니까?					
7	당신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8	당신은 어느 정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니까?					
9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느 정도로 목적의식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주도합니까?					
10	전반적으로 당신의 사람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치롭고 보람이 있다고 느끼니까?					
11	당신은 어느 정도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니까?					
12	당신은 얼마나 자주 목표 성취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느끼니까?					
13	당신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 설정한 중요한 목표를 성취합니까?					
14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이 맡은 책무를 처리해낼 수 있습니까?					
15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16	당신은 당신의 신체적 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17	당신의 같은 연령과 성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당신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18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IV. 출산 정도

1. 귀하의 총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2.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3. 귀하는 자녀를 더 낳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V. 출산 의지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을 직장이나 일 등 사회적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낮다.					
2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보다 취미활동이나 사회생활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낮다.					
3	부모님이 원하시면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					
4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					
5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과 부담 때문에 자녀 두기가 망설여진다.					
6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 등 자녀 보육비용이 부담스럽다.					
7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높아 자녀 두기가 부담스럽다.					
8	우리 사회는 집값을 포함한 생활비가 너무 높아 자녀 두기가 부담스럽다.					
9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10	정부가 출산료와 보육료를 더 지원해 준다면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					
11	집이나 직장 근처에 자녀를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충분하다면 낳을 생각이 있다.					

VI. 출산장려정책 만족도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에 대한 사회보험과 세제지원에 만족할 만하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의료비 지원에 만족할 만하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만족할 만하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임시술 지원에 만족할 만하다.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홍보에 만족할 만하다.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성건강관리 지원에 만족할 만하다.					
7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 만족할 만하다.					

VII. 주거 환경 만족도

1. 귀하께서는 현재의 주거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 위와 같이 응답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문화시설과 복지여건 () ② 주거여건 ()
③ 교통 여건 () ④ 보육과 육아 시설 여건 ()
⑤ 교육여건 () ⑥ 부모님 부양 ()
⑦ 가족의 건강 () ⑧ 가족문제 ()
⑨ 직장 또는 생업 () ⑩ 농업여건 ()
⑪ 기타 ()

VIII. 개인 배경 변인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25세 이하 ② 26세 ~ 30세
③ 31세 ~ 35세 ④ 36세 ~ 40세
⑤ 41세 이상

3.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 ① 미혼 ② 1년 미만 ③ 1~5년 ④ 6~10년 ⑤ 11년 이상

4. 귀하 가정의 형태는?

- ① 일반 한국인가정 ② 다문화가정 ③ 한부모가정 ④ 조부모가정

5.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직(교수, 의사, 예술가, 교사 등) ② 사무직(회사 등의 사무원)
③ 기술 및 생산직(기능공 등) ④ 판매직(점원, 외판원 등)
⑤ 관리직(공무원, 기업사장 등) ⑥ 단순노무직(일일노무자 등)
⑦ 서비스직(조리사, 미용사 등) ⑧ 자영업(도소매업 등)
⑨ 무직 ⑩ 기타()

7. 귀하는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귀하 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가구 내의 모든 소득을 포함)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9. 귀하의 거주지역의 도시 규모는?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④ 기타()

10. 귀하의 거주지역을 선택해주세요.

- ① 포항시 ② 경주시 ③ 김천시 ④ 안동시 ⑤ 구미시 ⑥ 영주시
⑦ 영천시 ⑧ 상주시 ⑨ 문경시 ⑩ 경산시 ⑪ 군위군 ⑫ 의성군
⑬ 청송군 ⑭ 영양군 ⑮ 영덕군 ⑯ 청도군 ⑰ 고령군 ⑱ 성주군
⑲ 칠곡군 ⑳ 예천군 ㉑ 봉화군 ㉒ 울진군 ㉓ 울릉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